

# 부평의 마을

제 5 권

---

# 일러두기

## 1. 편찬 기본방향

- 이 책은 부평 지역의 역사, 문화, 경제 등 전반적인 내용을 집대성한 기록이다.
- 이번 편찬에서는 독자의 가독성과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주제별로 총 8권으로 편성하였고, 특히 부평 지역의 근현대사를 대폭적으로 추가하였다.
- 또한 부평구 내에 위치한 미군기지 캠프 마켓의 반환을 계기로, 그 전신인 일제강점기 인천육군조병창의 역사를 대한민국 역사 상 처음으로 밝혀낸 권으로 편성하였다.

## 2. 서술 대상 지역과 시기

- 서술 대상 지역은 현재 행정구역인 인천광역시 부평구를 원칙으로 하였다. 단, 필요에 따라 분구하기 이전의 계양구, 서구를 포함하여 서술하였다.
- 서술 대상 시기는 선사시대부터 2019년까지를 원칙으로 하고, 필요한 경우 2020년 이후의 내용도 수록하였다.

## 3. 본문서술

- 본문은 한글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한자를 쓰는 경우 괄호 안에 병기하였다.
  - 연대는 서기를 원칙으로 하고, 필요한 경우 괄호 안에 왕력을 표기하였다.
  - 구술 증언자료의 경우 증언자가 발음한 내용을 가능한 한 그대로 수록하였다.
  - 그 밖의 세부적인 집필방법은 국립국어원, 학회, 국책연구기관 등의 집필요령을 반영한 집필요강에 따랐으며, 집필에 통일성을 기했다.
  - 각 권마다 해당 주제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총설을 작성하였고, 각 장마다 필요에 따라 들어가는 말과 마무리 글을 배치하였다.
-



# 목차

## 총설

### 제 1 장 갈산동(葛山洞)

제1절 _ 마을 지명 유래	024
1. 동 이름 유래	
2. 소지명 유래	
제2절 _ 행정구역의 변천	031
1. 전통 시대	
2. 일제강점기	
3. 해방 이후	
제3절 _ 일반 현황	032
1. 갈산1동	
2. 갈산2동	
제4절 _ 문화유산 및 명소	038
1. 한국선교역사기념관	
제5절 _ 교육기관	038
1. 초등학교	
2. 중학교	
3. 고등학교	

제6절 _ 문화·체육·보건기관(공공기관)	043
1. 인천여성가족재단	
2. 부평국민체육센터	
3. 부평구다목적실내체육관	
4. 부평문화사랑방	
5. 부평골포누리 기후변화체험관	
6. 갈산도서관	
7. 한국전력공사 인천지역본부	
8. 부평정수사업소	
9. 부평비즈니스센터	
제7절 _ 상업시설	055
1. 굴포먹거리타운	
2. 청리단길	
제8절 _ 축제	057

## 제 2 장 부개동(富開洞)

제1절 _ 마을 지명 유래	062
1. 동 이름 유래	
2. 소지명 유래	
제2절 _ 행정구역의 변천	071
1. 전통 시대	
2. 일제강점기	
3. 해방 이후	
제3절 _ 일반 현황	083
1. 부개1동	
2. 부개2동	
3. 부개3동	

제4절 _ 문화유산 및 명소	090
1. 부개역	
2. 부평송신소	
제5절 _ 교육기관	096
1. 초등학교	
2. 중학교	
3. 고등학교	
4. 특수학교	
제6절 _ 문화·체육·보건기관	108
1. 부개도서관	
2. 부평 기적의 도서관	
3. 부개어린이도서관	

## 제 3 장 부평동(富平洞)

제1절 _ 마을 지명 유래	116
1. 동 이름 유래	
2. 소지명 유래	
제2절 _ 행정구역의 변천	127
제3절 _ 일반 현황	128
1. 부평1동	
2. 부평2동	
3. 부평3동	
4. 부평4동	
5. 부평5동	
6. 부평6동	
제4절 _ 문화유산 및 명소	145
1. 부평공원	
2. 미쓰비시 사택	
3. 부평역	
4. 철도 관사	

5. 조선국산자동차(주) 사택	
6. 박영근 시비	
7. 인천가족공원	
<b>제5절 _ 교육기관</b>	<b>158</b>
1. 초등학교	
2. 중학교	
3. 고등학교	
4. 특수학교	
<b>제6절 _ 문화·체육·보건기관(공공기관)</b>	<b>173</b>
1. 부평구청	
2. 부평구 보건소	
3. 인천광역시교육청 북구도서관	
4. 부평신트리공원	
5. 부평구 평생학습관	
<b>제7절 _ 상업시설</b>	<b>181</b>
1. 부평시장	
2. 평리단길	
3. 모다백화점	
4. 부평모두물	
5. 해물탕거리	
<b>제8절 _ 축제</b>	<b>193</b>
1. 부평풍물대축제	
2. 부평구민의 날	

## 제 4 장 산곡동(山谷洞)

<b>제1절 _ 마을 지명 유래</b>	<b>202</b>
1. 동 이름 유래	
2. 소지명 유래	

<b>제2절 _ 행정구역의 변천</b>	<b>209</b>
1. 전통 시대	
2. 일제강점기	
3. 해방 이후	

<b>제3절 _ 일반 현황</b>	<b>213</b>
1. 산곡1동	
2. 산곡2동	
3. 산곡3동	
4. 산곡4동	

<b>제4절 _ 문화유산 및 명소</b>	<b>224</b>
1. 인천육군조병창	
2. 캠프 마켓	
3. 영단주택	
4. 부평 지하철	
5. 검정사택(도교제강 사택)	
6. 화랑농장	

<b>제5절 _ 교육기관</b>	<b>256</b>
1. 초등학교	
2. 중학교	
3. 고등학교	

<b>제6절 _ 문화·체육·공공기관</b>	<b>269</b>
1. 외골문화회관	
2. 북부교육문화센터	

<b>제7절 _ 축제</b>	<b>272</b>
1. 원적산 마을축제	
2. 청천·산곡마을 단오제	
3. 화랑북로 골목 축제	

## 제 5 장 삼산동(三山洞)

제1절 _ 마을 지명 유래	280
1. 동 이름 유래	
2. 소지명 유래	
제2절 _ 행정구역의 변천	284
1. 전통 시대	
2. 일제강점기	
3. 해방 이후	
제3절 _ 일반 현황	285
1. 삼산1동	
2. 삼산2동	
제4절 _ 문화유산 및 명소	291
1. 부평두레놀이	
제5절 _ 교육기관	294
1. 초등학교	
2. 중학교	
3. 고등학교	
제6절 _ 문화·체육·공공기관	303
1. 부평구노인복지관	
2. 부평구청소년성문화센터	
3. 부평구청소년수련관	
4. 부평문화원	
5. 부평안전체험관(부평구민방위교육장)	
6. 부평역사박물관	
7. 삼산농산물도매시장	
8. 삼산도서관	
9. 삼산월드체육관	

제7절 _ 축제	317
1. 굴포천 통통통 환경축제	
2. 부평 초록굴포 단오놀이	
3. 서부간선수로 마을축제	
4. 영성마을 마을축제	
5. 정월대보름 in 부평	

## 제 6 장 십정동(十井洞)

제1절 _ 마을 지명 유래	328
1. 동 이름 유래	
2. 소지명 유래	
제2절 _ 행정구역의 변천	338
1. 전통 시대	
2. 일제강점기	
3. 해방 이후	
제3절 _ 일반 현황	344
1. 십정1동	
2. 십정2동	
제4절 _ 문화유산 및 명소	351
1. 최초의 천일엽전 터	
2. 열우물벽화마을	
3. 창녕 성씨 묘역	
4. 고래우물	
5. 한하운 시비	
제5절 _ 교육기관	365
1. 초등학교	
2. 중학교	
3. 고등학교	
4. 특수학교	

제6절 _ 문화·체육기관	374
1. 부평도서관	
2. 부평구문화재단	
3. 열우물경기장	
제7절 _ 축제	380
1. 열우물단오축제	
2. 열우물마을잔치	

## 제 7 장 일신(日新)·구산동(九山洞)

제1절 _ 마을 지명 유래	386
1. 동 이름 유래	
2. 소지명 유래	
제2절 _ 행정구역의 변천	391
1. 전통 시대	
2. 일제강점기	
3. 해방 이후	
제3절 _ 일반 현황	400
제4절 _ 문화유산 및 명소	402
1. 중앙직업훈련원과 소년직업훈련원	
제5절 _ 교육기관	405
1. 초등학교	
2. 대학교	
제6절 _ 문화·체육·보건기관	408
1. 근로복지공단 인천병원	
2.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인천광역본부	

## 제 8 장 청천동(淸川洞)

제1절 _ 마을의 지명 유래	414
1. 동 이름 유래	
2. 소지명 유래	
제2절 _ 행정구역의 변천	427
1. 전통 시대	
2. 일제강점기	
3. 해방 이후	
제3절 _ 일반 현황	438
1. 청천1동	
2. 청천2동	
제4절 _ 문화유산 및 명소	444
1. 부평 수출산업단지외 청천동의 공업	
2. 광야교회	
제5절 _ 교육기관	454
1. 초등학교	
2. 중학교	
제6절 _ 문화·체육·보건기관	457
1. 청천도서관	
2. 인천나비공원	
3. 부평우체국	
4. 부평경찰서	

Incheon Metropolitan City  
Bupyeong-gu



부평사  
富平史

# 총설

# 총설



김정아(부평역사박물관 총괄팀장)

2021년 현재 부평구는 9개의 법정동과 22개의 행정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51만여 명이 모여 살고 있다. 부평구의 전체 면적은 32km<sup>2</sup>인데, 면적으로만 보면 일신동이 4.30km<sup>2</sup>로 가장 크고 갈산2동이 0.66km<sup>2</sup>로 가장 작다. 인구수를 기준으로 하면 3만 7,453명이 살고 있는 부평4동이 가장 큰 마을이며 7,587명이 살고 있는 청천1동이 가장 작은 마을이다.

부평동은 6개의 행정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산곡동은 4개, 부개동은 3개, 청천동과 갈산동, 삼산동, 십정동은 각각 2개의 행정동으로 구성되어 있다. 일신동과 구산동은 법정동이지만 행정동으로는 일신동으로 통합되어 있다. 구산동이 법정동으로만 남아 있기 때문이다.

본 권에서는 9개의 법정동을 중심으로 부평의 각 마을이 어떻게 변화되었으며, 현재는 어떤 모습인지에 대해 정리하였다. 지명유래와 행정구역 변천 등 마을의 역사를 살펴 보았으며 오늘날 마을의 규모 및 상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2020년 12월을 기준으로 일 반현황과 교육기관 및 공공기관의 현황에 대해서도 정리하여 과거와 현재를 동시에 담 아내고자 하였다. 각 마을별 문화유산은 부평사의 큰 흐름 속에서 의미를 갖는 것을 최 대한 답았으며 현존하는 것뿐만 아니라 도시개발의 과정 속에서 사라져 버린 것도 포함

시켰다. 지명 유래 역시 지금은 사용하지 않는 마을의 이름도 최대한 복기하였다. 공공 기관의 경우 기본현황과 함께 어떻게 시작되었고 어떠한 변화를 거쳐 현재에 이르게 되 었는지에 대해서도 담았다. 다만, 지면의 한계로 인해 개요 수준으로 내용을 담을 수밖에 없었음을 미리 밝혀둔다. 본 권에서 자세히 다루지 못한 내용은 부평사의 다른 권 호 에서 다양한 자료와 함께 깊이 있는 내용으로 담아냈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결되지 않는 궁금증에 대해서는 부평역사박물관에서 그동안 발간한 지역조사보고서를 통해 해 결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각 마을의 역사와 현황은 다음과 같다.

갈산동은 갈산1동과 갈산2동으로 나누어져 있다. 갈산1동은 1.08km<sup>2</sup> 면적에 1만 7,161 명이 살고 있으며, 갈산2동은 0.66km<sup>2</sup> 면적에 1만 9,865명이 살고 있다. 갈산초등학교를 비롯하여 3개의 초등학교와 갈산중학교, 부평공업고등학교가 있다.

문화기관으로는 인천여성가족재단과 부평문화사랑방, 부평골포누리기후변화체험 관, 갈산도서관이 있으며, 체육시설로는 부평국민체육센터, 부평다목적실내체육관이 있 다. 상업시설로는 ‘골포먹거리타운’과 최근에 ‘청리단길’이라 불리는 골목이 대표적이다. 갈산동에서 진행되는 마을축제로는 ‘갈월축제’와 ‘사근다리동민화합 대축제’가 있었 으나 지속되지 못하고 사라졌다.

부개동은 3개의 행정동이 있다. 부개1동은 0.91km<sup>2</sup> 면적에 1만 7,362명이, 부개2동은 0.75km<sup>2</sup> 면적에 1만 8,030명이 살고 있다. 부개3동의 면적은 0.86km<sup>2</sup>이며 3만 3,270명이 살고 있다. 부개초등학교를 포함하여 총 7개의 초등학교와 5개의 중학교, 5개의 고등학 교가 있다. 또한 은광원에서 설립한 특수학교인 은광학교가 있다. 부개동에 자리하였던 문화유산으로는 지금의 부개 푸르지오 아파트 자리에 세워진 부개송신소가 있다. 중일 전쟁을 계기로 항공기 및 선박과의 통신을 공고히 하기 위한 목적으로 1939년 건설된 것이다. 문화기관으로는 부개도서관을 비롯하여 부평기적의도서관, 부개어린이도서관 이 있는데, 이 중 부개도서관은 부평구립도서관의 거점도서관으로 부평구의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펼치고 있다.

부평동은 부평1동부터 부평6동까지 총 6개의 행정동으로 이루어져 있다. 부평1동은 1.1km<sup>2</sup> 면적에 3만 7,905명이 살고 있으며, 부평2동은 2.28km<sup>2</sup> 면적에 1만 9,496명이 살고 있다. 부평3동과 부평4동은 각각 1.0km<sup>2</sup>, 1.04km<sup>2</sup> 면적에 1만 3,448명과 3만 7,453명이 살

고 있다. 부평5동은 0.83km<sup>2</sup> 면적에 3만 4,287명이 부평6동에는 0.8km<sup>2</sup> 면적에 1만 5,081명이 살고 있다. 부평초등학교를 비롯하여 6개의 초등학교와 5개의 중학교, 3개의 고등학교가 있으며, 성동학교와 인천예림학교 등 2개의 특수학교가 있다. 부평동은 부평역을 중심으로 동서남북으로 위치하고 있으며 행정, 교통, 상업의 중심지라 할 수 있다. 부평구청과 부평구 보건소가 있으며, 문화유산으로는 현재 부평공원 자리에 일제강점기의 대표적 전범 기업인 미쓰비시제강의 공장과 부평2동에 위치한 미쓰비시 사택이 대표적이다. 비록 원형은 많이 훼손되었지만 디젤 사택과 철도 관사도 남아 있다. 부평동에는 부평깡시장, 진흥종합시장, 부평종합시장, 부평 문화의 거리 등 4개의 시장이 있는데, 이 4개의 시장을 통칭하여 부평시장이라 한다. 대규모의 시장과 함께 지하에는 부평모두물(부평지하상가)이 위치하고 있어 부평의 상업 중심지라 할 수 있다. 매년 5월 부평역 앞 부평대로에서는 부평의 대표 축제인 부평풍물축제가 열린다.

산곡동은 산곡1동부터 산곡4동까지 4개의 행정동으로 이루어져 있다. 산곡1동은 2.07km<sup>2</sup> 면적에 1만 3,568명이 살고 있으며, 산곡2동은 0.92km<sup>2</sup> 면적에 3만 2,585명, 산곡3동과 산곡4동은 각각 1.43km<sup>2</sup> 면적에 2만 3,211명, 0.7km<sup>2</sup> 면적에 1만 8,581명이 살고 있다. 산곡초등학교를 비롯해 9개의 초등학교와 4개의 중학교, 6개의 고등학교가 있다. 산곡동에는 부평의 근대사를 살펴볼 수 있는 문화유산이 특히 많이 남아있다. 대표적인 것으로 일제가 아시아태평양전쟁 수행을 위해 1941년 개창한 대규모 군수공장인 인천육군조병창이 있다. 인천육군조병창은 해방 후 미군이 접수하였고 현재는 캠프 마켓으로 남아있는데 지난 2019년 완전 반환이 결정되었다. 인천육군조병창의 건설과 함께 조성된 영단주택과 아시아태평양전쟁 막바지에 조성한 것으로 추측되는 부평지하호 역시 산곡동에 남아 있다. 이외에도 동경제강에서 건설한 사택이 남아 있었으나 2020년 철거되었다. 이북 출신의 국군 상이용사들의 자활 농장인 화랑농장이 있었지만 그 기능을 상실한 지 오래되었고 다만 화랑로라는 지명으로만 남아 있다. 문화기관으로는 2013년 개관한 퇴골문화회관과 2018년 개관한 북부교육문화센터가 있다.

삼산동은 삼산1동과 삼산2동으로 나누어져 있다. 삼산1동은 2.13km<sup>2</sup> 면적에 3만 5,789명이 살고 있고 삼산2동은 1.26km<sup>2</sup> 면적에 3만 241명이 살고 있다. 삼산초등학교를 비롯하여 6개의 초등학교와 3개의 중학교, 3개의 고등학교가 있다. 2015년 인천광역시 무형문화재 제26호로 지정된 부평두레놀이삼산동에서 전승되는 두레농악을 말하는 것

으로 부평삼산두레농악 혹은 부평삼산두레풍물이라고도 부른다. 네 마당으로 구성되는 부평두레놀이는 다른 지역에 비해 가락의 종류는 많지 않지만 변주가 매우 다양하고 특히 농악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굿거리 가락을 사용한다는 특징을 보인다. 부평두레놀이는 삼산동을 대표하는 문화유산으로 남아있다. 삼산동은 다른 지역보다 문화·체육·공공기관이 많이 위치하고 있다. 대표적 문화기관으로는 부평문화원과 부평역사박물관, 부평구청소년수련관, 삼산도서관 등이 있으며, 체육시설로는 삼산월드체육관이 있다. 상업시설로는 2001년 5월에 개장한 삼산농산물도매시장이 대표적이다. 택지개발로 인해 기존의 마을공동체는 해체되었지만 마을 중심의 지역축제는 여전히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다. 2011년부터 매해 가을에 개최되는 ‘굴포천 통통통 환경축제’는 도시생활 속에서 환경사랑 실천 및 굴포천 살리기 운동 등을 통해 환경문제에 대해 공감하고 실천을 다짐하는 마을축제이다. ‘서부간선수로 마을축제’는 서부간선수로를 친수생태하천으로 가꾸기 위한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주민들이 직접 만들어 가는 축제로 기획되었다. 2013년부터 시작되었으나 매해 운영되는 정기적 성격의 축제는 아니다. 이외에도 삼산1동 마을공동체가 주관하는 ‘영성마을 마을축제’와 부평문화원이 주관하는 ‘부평 초록굴포 단오놀이’와 ‘정월대보름 in 부평’이 있다.

십정동은 십정1동과 십정2동으로 나누어져 있다. 십정1동은 1.79km<sup>2</sup> 면적에 1만 3,244명이 살고 있으며, 십정2동에는 1.09km<sup>2</sup> 면적에 2만 4,479명이 살고 있다. 동암초등학교를 비롯하여 6개의 초등학교와 3개의 중학교, 2개의 고등학교가 있다.

십정동의 원마을은 윗열우물마을이다. 이곳은 조선 시대에 창녕 성씨(昌寧成氏), 반남 박씨(潘南朴氏), 능성 구씨(綾城具氏), 영월 신씨(寧越申氏), 언양 김씨(彦陽金氏) 등이 모여 살았던 집성촌이었다. 이 중 대표적인 가문은 창녕 성씨인데 현재까지도 윗열우물마을에 모여 살고 있다. 창녕 성씨가 열우물마을에 모이게 된 것은 단종의 복위를 모의하다 순절한 성삼문(成三問, 1418~1456)과 관련이 있다. 성삼문의 단종 복위 모의가 발각되자 창녕 성씨 일가는 뿔뿔이 흩어졌는데 그 중 성습지(成習之)가 윗열우물마을로 이주하여 윗열우물마을의 창녕 성씨 입향조가 된 것이다. 현재 윗열우물마을에는 창녕 성씨 회곡과 열우물 종중의 선산이 있는데 입향조 성습지와 성습지의 아버지 성구연, 성습지의 할아버지 성허의 무덤이 남아 있다. 이외에 십정동에 남아 있는 또 다른 문화유적지로는 300~400년 정도의 역사를 갖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고래우물과 1907년 십

정동에 조성된 최초의 천일염전 터 임을 알리는 표지석 등이 있다. ‘나시인(癡詩人)’으로 유명한 한하운의 작품과 공적을 새긴 한하운 시비 역시 십정동에 위치한 문화유적 중 하나이다. 십정동의 문화기관으로는 부평도서관과 부평아트센터 및 부평생활문화공간 센터 공감168 등이 있다. 체육시설로는 2014년 인천아시안게임 당시 10개 신설 경기장 중 하나로 건립된 열우물경기장이 있는데, 이곳에서 테니스와 스쿼시, 정구 대회 등이 치러졌다. 십정동에서 진행되는 마을축제로는 ‘열우물단오축제’와 ‘열우물마을잔치’가 있다.

일신·구산동은 4.31km<sup>2</sup> 면적에 2020년 기준 1만 3,368명이 살고 있다. 일신초등학교와 금마초등학교가 있으며 한국폴리텍대학 인천캠퍼스가 위치하고 있다. 한국폴리텍대학은 1968년 6월 설립된 중앙직업훈련원이 전신이다. 1972년 산업재활원이 구산동에 세워졌고 ‘중앙병원’으로 이름을 변경하였다가 2014년 근로복지공단 인천병원이 되었다.

청천동은 청천1동과 청천2동으로 나누어져 있다. 청천1동은 2.16km<sup>2</sup> 면적에 7,587명이 살고 있으며 청천2동은 2.8km<sup>2</sup> 면적에 3만 5,232명이 살고 있다. 청천초등학교를 비롯하여 3개의 초등학교와 청천중학교가 있다. 1968년 부평수출산업단지가 청천동에 들어서면서 그 주변으로 크고 작은 공장들이 들어서기 시작했다. 부평수출산업단지의 운영으로 인천의 수출 실적은 크게 증가하였으나 열악한 노동환경과 노동자 처우 문제는 해결되지 못하였다. 1970년대 심화되는 도시화와 산업화 속에서 도시 빈민과 노동자들을 위한 선교와 교육 활동, 구호 활동을 해 온 광야교회가 청천동 세월천사거리 부근에 세워졌다. 후에 백마교회로 이름을 바꾸면서 청천동 및 산곡동 일대에 빈민 노동자들을 위한 다양한 복지사업을 펼쳤으나 지금은 사라지고 교회터 표지석만 남아 있다. 또한 1961년에는 음성 판정을 받은 한센병 환자들의 자활 마을인 청천농장이 조성되었다. 1949년 부평에 한센병 환자들을 수용하는 국립수용소를 설치하기로 결정하여 전국 각지에 있던 한센병 환자들끼리 모이기 시작했다. 한센인 마을의 자치위원장으로 취임한 사람은 시인 한하운이며 1957년 마을의 이름을 성계원이라 하였다. 성계원에서 음성 판정을 받은 한센인들은 각각 청천동과 십정동의 자활 마을에 정착했는데 천주교인이 대체로 십정동으로 간 반면 청천농장에는 개신교인들이 주로 이주하였다. 이들은 청천농장에서 양돈과 양계 사업을 펼치며 경제적 자립을 꾀하였다. 청천동에 위치하고 있는 문화시설로는 청천도서관과 생태공원인 인천나비공원이 있다.

마을의 사전적 의미는 주로 ‘시골에서 여러 집이 한데 모여 사는 곳’을 뜻한다. 높은 아파트가 빼곡하게 들어서 있는 오늘날 부평에서 사전적 의미의 ‘마을’을 찾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산곡동의 뫾골마을, 청천동의 맑은내마을, 삼산동의 영성마을, 십정동의 열우물마을처럼 한 때는 법정동보다 마을 이름이 더 자연스럽게 불리던 시절이 있었다. 그러나 도시개발로 인해 마을의 흔적은 빠르게 사라졌고 오랫동안 마을을 지켜온 사람들 역시 하나 둘 씩 떠나며 마을 구성원도 변화되었다. 부평의 많은 마을이 해체되었고 그 자리에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들어선 지금의 상황에서 ‘부평의 마을’이라는 본 권의 제목이 자연스럽지 못하게 느껴질 수 있다. 법정동과 마을이 등치되는 것 또한 아니기에 법정동 중심의 본 권 구성 역시 제목과 어우러지지 못하는 느낌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목을 ‘부평의 마을’이라 정한 이유는 도시화가 이루어진 현재의 시점에서 마을이라는 개념을 새롭게 이해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도시화로 인해 사전적 의미의 마을, 혹은 정서적으로 공감하는 마을은 사라졌지만 ‘도시마을’이 그 자리를 대신해 만들어졌고 이전과 다른 마을공동체 역시 새롭게 형성되었다고 할 수 있다. ‘도시마을’ 속에서 각 구성원들은 나름의 도시민속과 사회적 유대를 형성하고 유의미한 전통을 이어가며 오늘을 살아가고 있다. 보다 넓은 시야로 마을을 정의하고 새롭게 바라볼 필요성이 바로 여기에 있다.

전술하였듯이 지면의 한계로 각 마을 사람들이 누리고 있는 민속에 대해서는 안타깝게도 구성에 포함시키지 못하였다. 비록 본 권에서는 담지 못했지만 ‘도시마을’ 속 ‘도시민속’에 대한 기록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해야 할 중요한 과제일 것이다.



# 제 1 장 ————— 갈산동(葛山洞)

제1절 \_ 마을 지명 유래

제2절 \_ 행정구역의 변천

제3절 \_ 일반 현황

제4절 \_ 문화유산 및 명소

제5절 \_ 교육기관

제6절 \_ 문화·체육·보건기관(공공기관)

제7절 \_ 상업시설

제8절 \_ 축제

# 제1장 갈산동(葛山洞)

김 정 아(부평역사박물관 총괄팀장)



## | 제1절 | 마을 지명 유래

### 1. 동 이름 유래



❖ 갈산동 관할구역(출처 : 국토정보플랫폼 국토정보맵)

갈산동은 옛 부평도호부 서면 갈월리(葛月里) 지역이다. 현재의 부평정수사업소(부평대로 332) 위치에 마을의 주산(主山)이 있었는데 칙덩굴이 뒤덮여 있어 갈산이라 불렀다. 갈산의 동남쪽 산기슭에 병자호란을 전후하여 임영대군(臨瀛大君, 1420~1469)의 후손이 자리 잡아 마을이 형성되었는데 갈산의 한 모퉁이에 있는 마을이라는 의미로 갈우(葛隅)라 불렀다.<sup>1</sup>

갈우마을은 임영대군의 후손과 효령대군과 영신군(永新君)의 후손이 이주해 와 전주 이씨의 집성촌이 되었다. 임영대군의 후손인 이찰·이울 형제는 극진히 부모를 모셔 1670년(현종 11) 정려를 하사받았다. 이찰·이울 형제의 정려문은 갈산동 종손의 집 옆에 위치해 있었으나 1990년대 택지개발로 인해 계양구 갈현동으로 이전하였다. 이찰·이울 형제의 정려는 2004년 인천광역시 기념물 제52호로 지정되었다.



❖ 이찰·이울 형제 정려각(인천광역시 계양구 갈현동 산 73-6)



❖ 이찰·이울 형제 정려각 현판

1 조기준, 『지명유래지 : 부평의 땅이름』, 부평문화원, 1999, 222쪽.

### 이찰·이울 형제의 효성<sup>2</sup>

이찰·이울 형제는 세종대왕의 아들인 임영대군의 후손으로 광해군 6년(1614년) 부평 서면 갈월리(갈산동)에서 태어났다. 행실이 바르고 효성이 지극하여 부모님을 극진히 봉양하였다. 형제는 어릴 때 부친이 병들어 눕자 곁을 떠나지 않고 온갖 약을 구하여 보살폈으나 차도가 없이 부친의 병세가 더 위독해지자 형제는 서로 손가락을 깨물어 피를 입에 흘려 넣는 등 정성을 다하였다. 불행히도 아버지가 며칠 후 세상을 떠나자 장례를 치르고 3년간 시묘살이를 했다. 얼마 후 어머니마저 위독해지자 이들 형제는 아버지 때와 같이 지극한 정성으로 봉양하였으나 어머니도 세상을 떠나자 장례를 치른 후 3년간 시묘살이를 하였다.

이를 지켜본 마을 사람들은 이들 형제의 효행을 칭찬했고 부평의 유지들은 나라에 이를 상소하였다. 이에 현종은 형제의 효행을 기리도록 하고 현종 11년(1670) 효자 정려를 내렸다.

1914년 행정구역 개편에 따라 인근 사근다리 지역과 합쳐져서 부천군 부내면 갈월리가 되었다. 1940년 제2차 부역 확장 때 인천부에 편입되어 길야정(吉野町)이라 하였다. 1946년 일본식 동명의 변경에 따라 ‘새갈’과 ‘사근다리’ 등 주변 마을을 합쳐 갈산동이 되었다. 여기서 ‘새갈’은 갈산 북쪽 등성이에 있었는데, 1940년대 주변에 도로를 만들면서 필요한 흙을 마련하기 위해 이곳 등성이의 흙을 모두 파내 평지가 되었다고 한다. 해방 후 이 평지에 수십 가구의 집들이 들어서 새로 마을을 이루자 ‘새로 생긴 갈월리’라 하여 ‘새갈’이라 불렀다.

1977년 5월 10일 삼산동과 통합되었으나 1992년 9월 1일 인천시 복구 조례 제292호에 의해 삼산동이 다시 분동되었다.

1985년 한국토지개발공사의 갈산도 일대 택지개발을 시작으로 1990년대 들어 대규모 택지 개발이 진행됨에 따라 갈산동 유입 인구가 증가하였고, 인구 증가에 따른 행정 효율을 높이기 위해 1995년 7월 1일 갈산1동과 갈산2동으로 분동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sup>3</sup>

<sup>2</sup> 인천광역시 역사자료관, 『인천의 문화유산을 찾아서』, 인천광역시 역사자료관, 2008, 167~168쪽.

<sup>3</sup> 인천광역시 시사편찬위원회, 『인천의 지명』상, 인천광역시 시사편찬위원회, 2015, 232쪽.

표 1 1990년대 갈산동 인구 변화 추이

(단위: 년·km<sup>2</sup>·가구·명)

연도	면적	가구수	인구수
1989	3.90	6,935	25,868
1991	3.90	8,706	30,929
1992	3.81	5,301	40,008
1993	1.70	9,463	31,907
1994	1.70	12,908	42,936
1995	1.70	13,724	45,094
1996	1.70	14,363	47,430
1997	1.70	14,373	47,257
1998	1.70	14,510	46,776
1999	1.70	14,770	47,383

출처: 인천광역시, 『인천통계연보』, 각 연도.

## 2. 소지명 유래<sup>4</sup>

### 1) 길야정(吉野町)

일제강점기 때 불린 길야정은 당시 일본 내의 저명한 지명을 인용해서 붙인 이름이다.

### 2) 새갈

1943년 경인고속도로의 전신인 국방도로를 건설할 때 도로를 조성할 흙이 부족하여 갈산동 마을 북쪽 등성이를 파다가 썼다. 이 토취장(土取場) 자리가 몇천 평이나 되었는데 해방 후 이곳에 집을 지어 수십 호의 촌락을 이루었다. 이때 새로 생긴 마을의 이름을 새로 생긴 갈산동이라는 뜻을 담아 신갈(新葛)이라 부르던 것이 ‘새갈’로 변경된 것이다.

<sup>4</sup> 『인천의 지명』상(인천광역시시사편찬위원회, 2015)과 『부평사』1(부평시사편찬위원회, 2007)을 참고하되, 2020년을 기준으로 지명과 지형의 변화가 있는 경우 수정하고 보완 사항이 있는 경우 추가하였음을 밝힌다.

### 3) 갈월사거리

장제로와 갈월로가 만나는 사거리로 옛 갈월리의 이름을 따서 갈월사거리라 하였다.

### 4) 사근다리

사근다리는 현재 부평세관 근처의 동쪽 지점이 된다. 옛날에는 갈산동에서 부평역으로 이어지는 김포국도(부평로)가 한강토지개발조합의 서부용수로 간선 독을 같이 이용하였다. 이 서부용수로는 원통천과 연결되었고 물이 넘치면 여수토교(餘水吐橋)가 있어 수위 조절을 하였다. 그런데 여기가 약간 높은 지대여서 인가가 하나둘 모여 살았던 것이다. 이곳 서부간선에 농경에 이용하는 허술한 나무다리가 하나 있었는데 원래 왕래도 드물고 오랜 세월 동안 방치하여 삭아 있었기 때문에 이 다리를 ‘삭은 다리(사근다리)’라 불렀고 이것이 바로 이곳 마을의 이름이 된 것이다.

사근다리는 오래전에 없어졌으나 2001년 본래의 위치에 다리 설치 공사를 진행하여 복원하였고, 2009년에는 도시 경관에 맞게 재정비 사업을 펼쳐 지금에 이르고 있다.



❖ 2001년 사근다리(출처 : 부평구청)



❖ 2020년 사근다리

### 5) 서부간선수로

일제는 1918년 이후 극심한 식량난에 시달리자 조선을 일본의 식량 공급 기지로 만들기 위해 ‘산미증식계획(産米増殖計劃)’을 추진한다. 1923년 부평수리조합이 설립되고 지금의 김포 신곡양배수장 인근에 한강 변을 따라 독을 쌓고 굴포천의 동쪽과 서쪽으로 각각 농수로를 만들었는데, 김포공항 방향으로 낸 것을 동부간선수로(東部幹線水路)라 하였고, 갈산동 쪽으로 낸 것을 서부간선수로라 하였다. 원래는 부평구청 앞까지 이어져 굴포천으로 합류하였으나 부평구 삼산동 일대에 택지개발이 이루어지면서 삼산삼거리에서 서부1교 구간이 매립되었고, 대신 서부1교에서 부평역사박물관 구간을 신설하여 청천천으로 삼았으며, 어느 하천에도 속하지 않고 남게 된 서부간선수로의 잔여 구간은 갈산천으로 명명하여 분리하였다.<sup>5</sup>

### 6) 여수토교(餘水吐橋)

서부간선수로는 사근다리 근처에서 원통천과 연결되었는데, ‘넘치는 물을 토해 내기 위한 여수토(餘水吐)’를 만들어 수위를 조절했고 그곳에 놓인 다리이기 때문에 여수토교라 하였다.

<sup>5</sup> 「습지에서 농수로, 하천으로... 인천 하천의 전형」, 『인천in』, 2019년 6월 11일자.

### 7) 굴포천

‘굴포’란 원래 어느 특정한 한 곳의 땅 이름이 아니라 강이나 해안 등을 파낸[掘] 개[浦]라는 뜻이다. ‘개’는 ‘강이나 내에 바닷물이 드나드는 곳, 또는 바닷물이 드나들며 바다와 육지의 경계를 이루는 곳’을 뜻하는 우리말이다. 결국 굴포는 곳곳에서 흔히 만날 수 있는 우리말 이름 ‘판개’가 한자로 바뀐 것이다. 이곳은 논이 많았던 벌말(계양구 상야동) 일대에서 한강까지 물이 잘 통하도록 땅이 약간 높은 곳에 깊게 물길을 파서 만든 곳이었기에 ‘판개’라는 이름을 갖게 되었다.

### 8) 부평로

청천2동과 갈산동의 경계를 이루고 있으며, 부평역에서 계양구로 통한다. 부평을 대표하는 제일 큰 도로이기 때문에 ‘부평로’라 하였다.

### 9) 주부토길·작전로

부평에서 계산동으로 가던 옛 김포로(金浦路)로 갈산동, 작전동을 관통하기 때문에 ‘작전로’라 불렀으나 지금은 ‘주부토길’로 바뀌었다. 주부토(主夫吐)란 고구려 때 부평을 ‘주부토군’이라 부른 것에서 붙인 이름이다.

### 10) 장제로(長堤路)

동수지하차도부터 서구 원당동 유현사거리까지 이어지는 길로 갈산동과 삼산동의 경계를 이루고 있다. 장제로는 신라 때 부평의 지명인 ‘장제군(長堤郡)’에서 딴 것이다.

### 11) 장제고가교

장제로상에 있으며 갈산동에서 경인고속도로를 넘어 작전동으로 가는 고가교이다. 1993년 ‘천대고가차도’로 개통하였으나 이후 ‘장제고가교’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 | 제2절 | 행정구역의 변천

### 1. 전통 시대

갈산동은 옛 부평도호부 서면 갈월리(葛月里) 지역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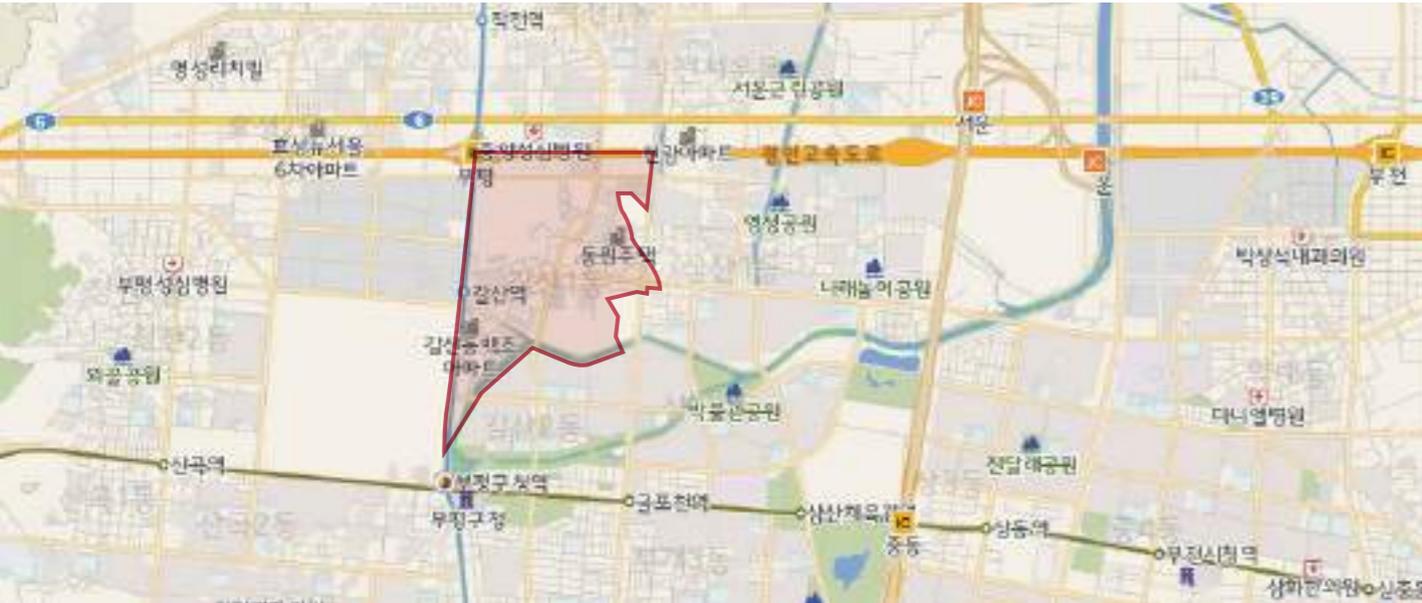
### 2. 일제강점기

1914년 행정구역 개편에 따라 인근 사근다리 지역과 합쳐져 부천군 부내면 갈월리가 되었다. 1940년 제2차 인천부역 확장 때 인천부에 편입되어 길야정이라 하였다.

### 3. 해방 이후

1946년 갈산동이 되었고, 1977년 5월 10일 삼산동과 통합되었으나 1992년 9월 1일 인천시 북구 조례 제292호에 의해서 삼산동이 다시 분동되었다. 1995년 7월 1일 인구 증가에 따라 갈산1동과 갈산2동으로 분동되었다. 1995년 3월 1일 인천광역시의 설치로 북구가 부평구와 계양구로 분구되면서 부평구에 속하게 되었다.

1. 갈산1동



❖ 갈산1동 행정구역(출처 : 국토정보플랫폼 국토정보맵)

법정동 갈산동 전체를 기준으로 볼 때, 갈산1동은 좌측 지역에 해당한다. 부평로를 기준으로 동편에 위치하며 북쪽으로는 경인고속도로까지 해당된다. 인천지하철 갈산역이 지나고 있으며, 경인고속도로 부평IC가 있어 갈산동으로 유입하는 차량이 많다.

상가와 공장, 주택이 밀집되어 있으며, 부평정수장, 한국전력공사, 부평세관, 부평국민체육센터, 부평구다목적실내체육관 등 주요 시설이 집중되어 있다.

6 『2020 부평 구정백서』(인천광역시 부평구청 기획조정실, 2020)를 참고하였다.

1) 인구·면적

갈산1동의 면적은 1.08km<sup>2</sup>로 부평구 전체 면적의 3.3%에 해당한다. 2019년 12월 31일 기준 세대수는 7,182세대, 인구수는 1만 7,161명(남자 8,673명, 여자 8,488명)이다. 행정구역은 21동 145반으로 구성되어 있고, 행정 인력은 12명이다. 민방위는 1,231명, 예비군은 1,977명이 편성되어 있다.

표 2 갈산1동 기본 현황

(2019.12.31. 기준, 단위 : km<sup>2</sup>·%·세대·명)

면적	세대수	인구수			행정구역		행정인력	민방위	예비군
		계	남	여	동	반			
1.08 (구의 3.3)	7,182	17,161	8,673	8,488	21	145	12	1,231	1,977

2) 자생 단체

갈산1동의 자생 단체는 8종류이다. 각 자생 단체별 소속된 인원은 주민자치위원회 30명, 통장자율회 19명, 방위협의회 7명, 지역사회보장협의체 15명, 부녀회 13명, 주민참여예산지역위원회 17명, 자율방범대 11명, 풍물단 17명이다.

표 3 갈산1동 자생 단체 현황

(2019.12.31. 기준, 단위 : 명)

주민자치위원회	통장자율회	방위협의회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부녀회	주민참여예산지역위원회	자율방범대	풍물단
30	19	7	15	13	17	11	17

### 3) 사회복지 대상자

갈산1동의 사회복지 대상의 세대수는 3,123세대, 인구는 4,196명이다. 이 중 기초생활수급자는 606세대 1,037명, 한부모가족은 139세대 358명, 장애인은 940세대 1,004명, 기초연금 수급 대상은 1,438세대 1,797명이다.

표 4 갈산1동 사회복지 대상 현황

(2019.12.31. 기준, 단위: 세대/명)

합계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장애인	기초연금
3,123/4,196	606/1,037	139/358	940/1,004	1,438/1,797

### 4) 주요 시설

갈산1동의 주요 시설은 공공기관 9개소, 복지시설 1개소, 경로당 8개소, 어린이집 8개소, 학교 1개소, 병·의원 13개소, 약국 5개소, 금융기관 4개소, 종교시설 22개소 등이 있다.

표 5 갈산1동 주요 시설 현황

(2019.12.31. 기준, 단위: 개소)

공공기관	복지시설	경로당	어린이집	학교	병·의원	약국	금융기관	종교시설
9	1	8	8	1	13	5	4	22

## 2. 갈산2동



❖ 갈산2동 행정구역(출처: 국토정보플랫폼 국토정보맵)

법정동 갈산동 전체를 기준으로 볼 때 갈산2동은 남측에 해당한다. 동으로는 장제로 서로는 부평대로, 남으로는 길주로, 북으로는 청천천과 갈산천까지 갈산2동의 행정구역이라고 할 수 있다.

갈산2동은 대부분 아파트 단지로 구성되어 있다. 태화아파트와 하나아파트, 동남아파트 등 소재하고 있는 대다수의 아파트 단지는 1992년도에 조성된 것이다. 주거 시설이 다수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갈산1동과 비교하여 면적은 작지만 인구는 더 많은 특징을 보이고 있다.

인천지하철과 서울지하철 7호선이 맞닿아 있으며 경인고속도로와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의 진입이 용이하고, 부평역으로 향하는 대중교통이 발달되어 있는 등 교통의 이점이 높은 것도 갈산2동의 특징이다.

최근 부평구청을 마주하고 있는 길목을 따라 새로운 분위기의 카페와 레스토랑, 공

방 등이 들어서면서 새로운 상권을 형성하였는데, 이 골목을 ‘평리단길’에 빗대어 ‘청리 단길’로 부른다.

### 1) 인구·면적

갈산2동의 면적은 0.66km<sup>2</sup>로 부평구 전체 면적의 2.1%에 해당한다. 2019년 12월 31일 기준 세대수는 8,114세대, 인구수는 1만 9,865명(남자 9,709명, 여자 1만 156명)이다. 행정구역은 29통 734반으로 구성되어 있고, 행정 인력은 15명이다. 민방위는 1,917명, 예비군은 1,453명이 편성되어 있다.

**표 6** 갈산2동 기본 현황

(2019.12.31. 기준, 단위: km<sup>2</sup>·%·세대·명)

면적	세대수	인구수			행정구역		행정 인력	민방위	예비군
		계	남	여	통	반			
0.66 (구의 2.1%)	8,114	19,865	9,709	10,156	29	734	15	1,917	1,453

### 2) 자생 단체

갈산2동의 자생 단체는 6종류이다. 각 자생 단체별 소속된 인원은 주민자치위원회 20명, 통장자율회 28명, 지역사회보장협의체 25명, 주민참여예산지역위원회 16명, 청소년지도위원회 14명, 풍물단 20명이다.

**표 7** 갈산2동 자생 단체 현황

(2019.12.31. 기준, 단위: 명)

주민자치위원회	통장자율회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주민참여예산지역위원회	청소년지도위원회	풍물단
20	28	25	16	14	20

### 3) 사회복지 대상자

갈산2동의 사회복지 대상의 세대수는 4,339세대, 인구는 5,084명이다. 이 중 기초생활수급자는 1,159세대 1,493명, 한부모가족은 72세대 167명, 장애인은 1,454세대 1,454명, 기초연금 수급 대상은 1,654세대 1,970명이다.

**표 8** 갈산2동 사회복지 대상 현황

(2019.12.31. 기준, 단위: 세대/명)

합계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장애인	기초연금
4,339/5,084	1,159/1,493	72/167	1,454/1,454	1,654/1,970

### 4) 주요 시설

갈산2동의 주요 시설은 공공기관 3개소, 복지시설 2개소, 경로당 13개소, 어린이집 18개소, 학교 4개소, 병·의원 8개소, 약국 3개소, 금융기관 3개소, 종교시설 29개소 등이 있다.

**표 9** 갈산2동 주요 시설 현황

(2019.12.31. 기준, 단위: 개소)

공공기관	복지시설	경로당	어린이집	학교	병·의원	약국	금융기관	종교시설
3	2	13	18	4	8	3	3	29

제4절 | 문화유산 및 명소

1. 한국선교역사기념관

한국선교역사기념관은 사단법인 한국선교역사문화원이 주관하여 건립한 사립 박물관이다. 2004년 인천광역시로부터 사업 승인을 받은 후 2007년 기공식을 거쳐 2008년 12월 개관하였다.

건립을 위해 순복음부평교회에서 50억 원 상당의 건립 부지를 기증했으며, 현금 및 후원금 66억 원과 국비 40억 원, 시비 15억 원, 구비 3억 원 등 총 170억 원이 투입되었다.<sup>7</sup>

연면적 4,575㎡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이며 총 3개의 상설전시실과 공연장 및 연회장으로 구성되었다. 1층 성서역사실에서는 천지창조부터 이스라엘의 출애굽 여정에서 발견된 유물과 자료 등을 살펴볼 수 있으며, 2층 한국기독교실에서는 한국의 기독교 전래 과정과 초기 한국 기독교인들의 활동, 일제강점기 기독교 민족운동에 대해 다루고 있다. 3층 한국기독교실에서는 해방 이후 기독교의 수난과 성장, 선교사업 및 사회운동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한국선교역사기념관은 부평구 장제로 393(갈산동 5-12)에 소재하고 있다.

제5절 | 교육기관<sup>8</sup>

1. 초등학교

갈산동 소재 초등학교는 갈산초등학교, 갈월초등학교, 부평북초등학교 등 3개소로 인천광역시 북부교육지원청에서 관할한다.

7 「한국선교역사기념관 개관」, 『인천일보』, 2008년 12월 23일자.

8 학교 알리미 홈페이지(<https://www.schoolinfo.go.kr>) 및 각 학교 홈페이지를 참조하였다.

1) 갈산초등학교

공립 갈산초등학교는 1993년 2월 26일에 설립되었다. 2020년 기준, 학생 수는 271명(남 144명, 여 127명)이다. 1학년은 2학급 33명, 2학년은 3학급 48명, 3학년은 2학급 42명, 4학년은 3학급 49명, 5학년은 2학급 40명, 6학년은 3학급 45명이다. 교원 중 수업 교원은 21명으로, 수업 교원 1인당 학생 수는 12.9명이다.

갈산초등학교는 부평구 갈월동로 55(갈산동 360-1)에 소재하고 있으며, 교화는 장미, 교목은 소나무이다.

표 10 갈산초등학교 기본 현황

(2020년 기준, 단위 : 명, 비고 : 괄호는 특수학급임)

구분	학생 및 학급 수									교원 수	수업 교원 수	수업 교원 1인당 학생 수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5학년	6학년	특수 학급	순회 학급	계			
학급 수	2	3	2	3	2	3	3	0	18(3)	29(3)	21	12.9
학생 수	33	48	42	49	40	45	14	0	271(14)			
학급당 학생 수	16.5	16	21	16.3	20	15	4.7	0	15.1			

2) 갈월초등학교

공립 갈월초등학교는 2001년 3월 1일 설립되었다. 2020년 기준, 학생 수는 695명(남 352명, 여 343명), 교원 수는 47명(남 10명, 여 37명)이다. 1학년은 5학급 97명, 2학년은 6학급 123명, 3학년은 5학급 102명, 4학년은 5학급 117명, 5학년은 5학급 123명, 6학년은 6학급 125명이다. 교원 중 수업 교원은 39명으로 수업 교원 1인당 학생 수는 17.8명이다.

갈월초등학교는 부평구 주부토로 165(갈산동 373)에 소재하고 있으며, 교화는 장미, 교목은 은행나무이다.

표 11 갈월초등학교 기본 현황

(2020년 기준, 단위: 명, 비교: 괄호는 특수학급임)

구분	학생 및 학급 수									교원 수	수업 교원 수	수업 교원 1인당 학생 수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5학년	6학년	특수 학급	순회 학급	계			
학급 수	5	6	5	5	5	6	2	0	34(2)			
학생 수	97	123	102	117	123	125	8	0	695(8)	47(2)	39	17.8
학급당 학생 수	19.4	20.5	20.4	23.4	24.6	20.8	4	0	20.4			

### 3) 부평북초등학교

공립 부평북초등학교는 1967년 12월 17일에 설립되었다. 2020년 기준, 학생 수는 390명(남 181명, 여 209명), 교원 수는 29명이다. 1학년은 2학급 49명, 2학년은 4학급 90명, 3학년은 3학급 59명, 4학년은 3학급 69명, 5학년은 2학급 48명, 6학년은 3학급 62명이다. 교원 중 수업 교원은 22명으로, 수업 교원 1인당 학생 수는 17.7명이다.

부평북초등학교는 부평구 주부토로 292(갈산동 10-1)에 소재하고 있으며, 교화는 장미, 교목은 향나무이다.

표 12 부평북초등학교 기본 현황

(2020년 기준, 단위: 명, 비교: 괄호는 특수학급임)

구분	학생 및 학급 수									교원 수	수업 교원 수	수업 교원 1인당 학생 수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5학년	6학년	특수 학급	순회 학급	계			
학급 수	2	4	3	3	2	3	2	0	19(2)			
학생 수	49	90	59	69	48	62	13	0	390(13)	29(2)	22	17.7
학급당 학생 수	24.5	22.5	19.7	23	24	20.7	6.5	0	20.5			

## 2. 중학교

갈산동 소재 중학교는 갈산중학교 1개소로, 인천광역시 북부교육지원청에서 관할한다.

### 1) 갈산중학교

공립 갈산중학교는 1994년 3월 1일에 설립되었다. 2020년 기준, 학생 수는 448명(남 228명, 여 220명), 교원 수는 48명(남 8명, 여 40명)이다. 1학년은 8학급 143명, 2학년은 8학급 140명, 3학년은 8학급 160명이다. 교원 중 수업 교원은 43명으로, 수업 교원 1인당 학생 수는 10.4명이다.

갈산중학교는 부평구 주부토로 166(갈산동 372)에 소재하고 있으며, 교화는 장미, 교목은 은행나무이다.

표 13 갈산중학교 기본 현황

(2020년 기준, 단위: 명, 비교: 괄호는 특수학급임)

구분	학생 및 학급 수						교원 수	수업 교원 수	수업 교원 1인당 학생 수
	1학년	2학년	3학년	특수학급	순회학급	계			
학급 수	8	8	8	1	0	25(1)			
학생 수	143	140	160	5	0	448(5)	48(1)	43	10.4
학급당 학생 수	17.9	17.5	20	5	0	17.9			

## 3. 고등학교

갈산동 소재 고등학교는 부평공업고등학교 1개소로 인천광역시 교육청에서 관할한다.

### 1) 부평공업고등학교

부평공업고등학교는 1993년 8월 19일 설립 인가를 받아 1994년 3월 4일 기계과 4

학급, 중기정비과 2학급, 전기과 2학급, 토목과 2학급으로 개교하였다. 1996년 토목과가 지적토목과로 변경되는 것을 시작으로 여러 차례 학칙변경이 이루어졌다.

2016년 산학일체형 도제학교로 선정되어 학교와 기업을 오가며 현장 훈련과 사업장의 교육 훈련을 병행할 수 있게 되었으며, 2020년에는 군특성화고<sup>9</sup>(해병대 자주포병)로 선정되었다.

2020년 현재, 정밀기계과, 전기과, 자동차기계과, 토목과, 폴리메카닉스과, 그린자동차과 등이 설치되어 있으며 전체 학생 수는 705명이다. 교원 수는 71명이며, 수업 교원은 65명으로 수업 교원 1인당 학생 수는 10.8명이다.

부평공업고등학교는 부평구 주부토로 194(갈산동 360-2)에 소재하고 있으며, 교화는 장미, 교목은 소나무이다.

표 14 부평공업고등학교 기본 현황

(2020년 기준, 단위: 명, 비교: 괄호는 특수학급임)

구분	학생 및 학급 수										교원 수	수업 교원 수	수업 교원 1인당 학생 수
	1학년		2학년		3학년		특수학급		계				
	학급 수	학생 수	학급 수	학생 수	학급 수	학생 수	학급 수	학생 수	학급 수	학생 수			
정밀기계과	2	45	2	50	0	0	0	0	4(0)	95(0)	71(2)	65	10.8
전기과	2	45	2	41	2	48	0	0	6(0)	134(0)			
자동차기계과	2	44	2	46	2	50	1	5	7(1)	145(5)			
토목과	2	44	2	39	2	44	0	0	6(0)	127(0)			
폴리메카닉스과	0	0	0	0	2	54	0	0	2(0)	54(0)			
그린자동차과	2	46	2	49	2	47	1	8	7(1)	150(8)			
계	10	224	10	225	10	243	2	13	32(2)	705(13)			
학급당 학생 수	22.4		22.5		24.3		6.5		0				

9 군 특성화고 교육과정은 졸업과 동시에 18개월의 전문병 생활 후 부사관으로 임관하는 제도이다.

## 제6절 | 문화·체육·보건기관(공공기관)

### 1. 인천여성가족재단

1994년 2월 1일 갈산동 375-1번지에 인천여성가족재단의 전신인 인천여성문화회관이 개관하였다. 부지 2,075평에 연면적 2,448평(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였으며 76억 3,200만 원의 공사비가 투입되었다.<sup>10</sup>

개관 초기 주력사업은 생활보호대상자와 저소득층 가정의 어린이 보육과 여성들의 직업능력 향상을 위한 기술교육이었다. 당시 개설된 직업교육 과정으로는 도배, 미용, 한복 제작, 제과제빵, 조리, 컴퓨터 등의 6개 과목이었으며, 만 18세 이상의 여성 450명을 모집하여 약 3개월간 집중 교육하는 시스템이었다.<sup>11</sup> 이후에는 다양한 문화·교양 강좌와 생활체육 프로그램을 개설·운영하여 인천의 여성사회 교육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인천에는 인천여성문화회관 외에도 다양한 여성교육기관 및 연구기관이 있었는데 효율적 운영을 위한 통합 운영의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하였다. 이에 인천시는 2012년 「여성가족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마련하여 인천 지역의 여성정책을 연구·개발해 온 인천여성가족센터와의 통합을 결정하였고 2013년 3월 6일 인천여성가족재단을 출범시켰다.

현재 인천여성가족재단은 인천광역시여성새로일하기센터와 부평여성새로일하기센터, 성주류화센터 등을 수탁 운영하고 있다.

### 2. 부평국민체육센터

부평국민체육센터는 부평구민의 건강 증진과 건전한 여가 활동 촉진 및 부평구 평생학습기관으로서의 생활체육 활성화와 역할 수행을 목적으로 2005년 2월 28일 개관

10 「인천여성회관 문열어...보육실 수영장 등 갖춰」, 『동아일보』, 1994년 2월 1일자.

11 「인천시 여성문화회관 기술생 450명 모집」, 『동아일보』, 1994년 4월 16일자.

하였다. 지하 1층, 지상 2층의 규모로(건축면적 1,291㎡, 연면적 2,204㎡) 건설 당시 국비 30억, 구비 14억 3,000만 원이 투입되었다.

2012년부터 부평시설관리공단이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수영과 헬스 두 개 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시설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체육센터부터 청천동, 산곡동 현대아파트, 부평동 동아아파트를 지나는 셔틀버스를 매시간 운영하고 있다.

부평국민체육센터는 부평대로 296번길 37(갈산동 166-18)에 소재하고 있으며 시설 현황은 다음과 같다.

표 15 부평국민체육센터 시설 현황

층별	시설
2층	헬스장, 체력단련장, 사무실
1층	수영장, 샤워실, 화장실, 의무실, 실버카페(인천광역시 노인인력개발센터)
지하	기계실, 전기실, 창고



❖ 부평국민체육센터(출처 : 부평구청)

### 3. 부평구다목적실내체육관

부평구다목적실내체육관은 2013년 문화체육관광부의 국민체력증진 기반조성 시범 사업에 선정되어 국비 27억 2,000만 원과 시비 5억 8,300만 원, 구비 11억 8,300만 원 등 총사업비 44억 8,600만 원이 투입돼 지상 2층 연면적 1,811㎡의 규모로 조성되었다.<sup>12</sup>

2016년 4월 1일 개관 이후 배드민턴, 탁구, 에어로빅, 요가 등 다양한 체육프로그램을 진행하여 부평구민의 생활체육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다.

다목적실내체육관의 시설 현황으로는 1층에는 에어로빅과 요가, 댄스 수업을 진행하는 다목적실과 사무실, 기계실이 있으며, 2층은 농구, 배드민턴, 탁구 등을 진행하는 다목적 강당과 소공연이 진행되는 무대가 마련되어 있다.

부평구다목적실내체육관은 부평구 부평대로 296번길 33(갈산동 166-14)에 위치하고 있다. 갈산근린공원 내 부평국민체육센터와 이웃하고 있어 양 기관이 생활체육 프로그램 운영을 상호 보완하고 있다.



❖ 부평구다목적실내체육관 준공식(출처 : 부평구청)

12 「부평구 갈산근린공원에 다목적실내체육관 준공」, 『경인일보』, 2016년 2월 3일자.

#### 4. 부평문화사랑방

부평문화사랑방은 2003년 12월 29일 개관하였다. 부평에 공연 시설이 전무했던 시절 부평문화사랑방의 개관은 부평 주민들의 문화 갈증을 해소해 줄 수 있을 것이란 기대를 갖게 하였다. 부평구의 전폭적인 지원도 이어졌다. 부평문화사랑방 조성 공사는 전액 구비로 진행되었는데 이러한 사례는 인천 최초였다. 200석이 되지 않는 소규모 공연장이었지만 개관 직후부터 공연사업비로 8,000만 원을 책정하여 연간 39회에 달하는 공연을 진행<sup>13</sup>할 정도로 활발한 문화행사를 주최하였다.

개관 당시부터 부평문화원이 위탁 운영하였으나 2013년부터 부평구문화재단으로 위탁 주체가 변경되었다.

현재 부평문화사랑방은 주민들의 문화 향유를 제고하고 다양한 장르의 예술단체 및 예술인의 공연 지원 등을 위한 다양한 공연과 전시 등의 문화예술 사업을 펼치고 있다.<sup>14</sup> 490.55㎡의 규모로 126명의 인원을 수용할 수 있으며, 부평구 주부토로 173(갈산동 365-1)에 위치하고 있다.



❖ 부평문화사랑방 개관식 및 개관기념 송년음악회(출처 : 부평구청)

13 「문화 불모지로서 '끼'있는 도시로」, 『인천일보』, 2004년 11월 26일자.

14 부평구문화재단 부평문화사랑방 홈페이지(<https://www.bpcf.or.kr/facility/culturelove/business.asp>)를 참고하였다.

#### 5. 부평굴포누리 기후변화체험관

부평굴포누리 기후변화체험관은 인천 유일의 기후변화체험관으로서, 지구온난화 현상과 각종 환경문제를 전시 관람과 체험을 통해 학습할 수 있는 공간이다.

2010년, 국토해양부의 '살고싶은 도시만들기 사업 시범 도시'에 선정되어 국비 15억 원, 구비 24억 2,000만 원 등 39억 2,000만 원의 사업비가 투입되었으며, 연면적 1,279.39㎡ 전시 면적 848.9㎡의 규모로 2012년 개관하였다.

특히, 기후변화체험관은 개관 전 로고 디자인 공모전을 개최하였는데, 이때 대상에 선정된 것이 지금의 CI로고이다.<sup>15</sup>



❖ 부평굴포누리 기후변화체험관 CI로고

매주 월요일이 휴관일이며, 휴관일을 제외 한 모든 요일에 숲 체험을 비롯한 각종 생태교육 프로그램과 전시해설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부평굴포누리 기후변화체험관은 부평구 장제로 267(갈산동 403)에 소재하고 있으며, 시설현황은 다음과 같다.

15 무지개와 태양, 빗줄기, 구름을 형상화한 것으로 기후변화에 대한 부평 굴포누리의 다양한 체험을 반영하고 있다. 공식홈페이지(<https://portal.icbp.go.kr/bpgnce>)를 참고하였다.

표 16 부평굴포누리 기후변화체험관 시설 현황

층별	시설
옥상	포토존, 태양광 발전기, 상자 텃밭
2층	굴포천 생태관, 기후변화 홍보관, 신재생 에너지관, 도시와 불의 순환, 아기사랑방, 내가 그리는 바다세상, 녹색기차
1층	안내 데스크, 나이트, 지구온난화관, 주제 영상관



❖ 부평굴포누리 기후변화체험관 내부(출처 : 부평구청)

## 6. 갈산도서관

부평구립갈산도서관은 2011년 7월 19일 연면적 475.2㎡, 지상 2층 규모로 개관하였다. 2006년, 수도권 내 위치한 유일한 기적의도서관인 부평기적의도서관 개관을 시작으로 부평구는 공공도서관 운영기본계획을 수립하였고 2011년 부개어린이도서관과 갈산도서관, 2012년에는 삼산도서관과 부개도서관 2013년 청천도서관을 개관하였다.

6개의 공공 도서관은 부개도서관을 거점도서관으로 하여 각 도서관별 특성화 사업을 통해 해당 주제의 장서 확보 및 관련 프로그램 운영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 중 갈산도서관은 사회과학 분야 중 여가·취미를 주제로 특화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sup>16</sup>

2020년 기준 갈산도서관 소장의 장서는 총 2만 8,260권이며, 이 중 문학과 사회과학 분야의 장서가 각각 1만 3,723권과 5,145권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표 17 부평구립갈산도서관 장서 현황

(단위: 권)

구분	총류	철학	종교	사회과학	자연과학	기술과학	예술	언어	문학	역사	합계
동양서	931	1,109	574	5,083	1,531	1,595	783	560	12,303	2,050	26,519
서양서	8	2	10	62	27	-	12	176	1,420	24	1,741
계	939	1,111	584	5,145	1,558	1,595	795	736	13,723	2,074	28,260

갈산도서관은 부평구 주부토로 254(갈산동 74-19)에 소재하고 있으며 시설 현황은 다음과 같다.

16 부평구립갈산도서관 홈페이지(<https://www.bppl.or.kr/galsan/index.do>)를 참고하였다.

표 18 갈산도서관 시설 현황

층별	시설
2층	종합자료실, 소회의실, 디지털자료실, 정기간행물실, 다목적실
1층	어린이 열람실, 누리터, 다목적실, 전산실, 서고



❖ 갈산도서관 개관식(출처 : 부평구청)

## 7. 한국전력공사 인천지역본부<sup>17</sup>

1910년 한일병합 이후 일본 기업이 주축이 되어 전국 각지에서 발전 및 배전 시설을 갖추고 전등 조명을 주업으로 하는 전기사업이 활발히 이루어지기 시작했다. 그 결과 1910년 이전 일한와사전기(株)와 부산전등(株), 인천전기(株) 3개사에 불과했던 전기회사가 1911년부터 1913년까지 3년 사이에 10여 개사가 새로 생기게 되었다.

1920년대에도 전기회사의 난립은 계속되어 배전회사 54개사, 발전회사 2개사, 송전회사 1개사 등 57개사가 새로 생겨나 국내 전기회사 수는 100여 개사로 늘어났다. 공급 대상은 주로 일본인 거류 지역과 상류 가정, 관공서, 기업체 그리고 광산촌 등이었다.

전기회사를 설립하고 이권을 장악한 일본인들은 전기요금을 턱없이 높게 인상하는 등 횡포를 일삼았고, 이에 한국인들은 불만을 터뜨리기 시작했다. 높은 전기요금으로 인한 사회불안이 야기되자 조선총독부는 이런 분위기를 제압하기 위해 1931년 전력통제 방침을 통해 발전은 민영, 송전은 국영, 그리고 배전은 전국을 수 개의 구역으로 나누고 기존의 군소 사업을 통제하여 민영으로 하였다. 또한 이의 구체적 실현을 위해 「조선전기사업령」을 제정하여 1933년 11월 1일부터 시행하였다.

「조선전기사업령」 공포 후 소도시별 군소 배전회사들을 4대 권역별로 통합하여 대형화했다. 먼저 1934년 서북지방에 있던 조선전기흥업(株)가 중심이 되어 진남포전기(株), 조선송전(株), 사리원전기(株), 서선전기(株) 등을 합쳐 서선합동전기(株)를 발족시켰다.

대흥전기(株), 조선와사전기(株), 대전전기(株), 목포전기(株), 천연전기(株) 등 6개사를 통합하여 남선합동전기(株)가 1937년 발족되었고, 영남과 호남, 충청과 강원도 및 제주도 등을 공급 구역으로 하였다. 1939년 11월에는 북선합동전기(株)가 함남합동전기(株) 등 10개사를 흡수하여 함경지방 전기사업을 일괄하게 되었다. 서울과 경기도 및 강원도 일부 등 중부지방을 공급 구역으로 하는 경성전기(株)는 인천전기(株) 통합에 이어 수원전기(株), 춘천전기(株)를 흡수하였다.

17 『한국전기산업진흥회 20년사 : 1989~2009』(한국전기산업진흥회, 2009)를 참고하였음을 밝힌다.

이 무렵 부평은 공업도시로 변모하면서 전기 수요가 높아진 반면 충분한 전기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아 각 공장에서 전기주회선 설치에 대한 탄원을 제기하였는데,<sup>18</sup> 경성전기(株)는 이미 1938년에 주주총회를 통해 부평변전소를 신설할 것을 결정하고 해당 사업을 위해 십만 원의 예산을 책정하였다.<sup>19</sup> 경성전기(株)의 부평변전소가 몇 년도에 건설된 것인지에 대해서는 이후 신문 기사로 보도된 것이 없어 정확히 확인하기는 어려우나 국가기록원 소장의 『부평공업용지관계철-조선전업주식회사』 문서를 살펴보면 1941년, 갈산동과 삼산동에 약 4만 평의 토지를 매수한 것으로 되어 있어 이 시기를 전후한 변전소 설치·운영을 짐작할 수 있다.<sup>20</sup>

일제는 1943년 3월 30일 「조선전력관리령」을 제정·공포하고 전력 사업을 모두 국가에서 관리하는 정책으로 전환했다. 조선총독부는 이 법령에 따라 첫 번째로 조선수력전기(株)와 조선송전(株), 부령수력전기(株) 등 3개사를 비롯하여 군소 업체를 통합, 1943년 7월 조선전업(株)를 창립케 하고 4대 권역별로 나누어져 있던 전기회사를 모두 관장케 했다.

해방 후, 남한에서는 발전회사와 배전회사가 분리 운영되는 상황이었는데 당시 이들의 통합 운영에 대한 여론이 높았다. 이에 정부는 1957년에 조선전업, 경성전기, 남선전기 등 전력 3사의 귀속주(歸屬株)를 불하 처분하여 민영화할 것을 결정하였지만 실현되지는 못하였다.

이들 3개 전력회사의 통합은 1960년 6월 다시 추진되어 같은 해 7월 각의에서 경성전기 및 남선전기를 조선전업에 흡수 합병시키고, 상공부에 ‘전기사업체통합위’ 설치하는 것을 의결하였지만, 이듬해 발생한 5·16 군사 정변으로 다시 한번 중단되었다.

일시 중단된 통합 사업은 1961년 6월 상공부장관 명에 의해 ‘전기 3사 통합설립준비위’가 구성되고, 상공부가 제출한 한국전력주식회사 법안이 국가재건최고회의에서 의결·공포되면서 마무리되었다. 이로써 전력 3사는 1961년 6월 30일 해산되고, 7월 1일 한국전력주식회사가 창립되었다.

부평구 주부토로 246에 위치하고 있는 한국전력공사 인천지역본부는 이러한 한국

전기산업의 변화에 따라 경성전기 부평변전소, 한국전업공사, 한국전력공사 소속으로 지금까지 자리를 지키고 있다.

## 8. 부평정수사업소

인구 증가에 따라 급수의 수요가 높아지자 이를 충족시키기 위해 부평정수장 건설이 1967년 시작되었다. AID(Act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차관 296만 달러와 국내 예산 7억 9,200만 원을 투입하여 1971년 완공하였다. 부평정수장의 설치로 기존 40여만 명의 급수 인구가 112만 명으로 확대되고 1일 생산량 역시 4만 5,000톤에서 21만 5,000톤으로 상승할 것이라 예측하였다.<sup>21</sup> 급수량 확대와 수질 개선을 위한 부평정수장의 시설 확장은 이후로도 진행되어 1977년에는 정수장 내 약품투입실 및 혼화지 확장을 통해 정수 능력을 1일 23만 톤에서 53만 톤으로 늘렸다.

급수량 확대로 공급 부족의 문제는 해결하였지만 부평정수장의 수질 문제는 논란거리였다. 1989년 대통령 특별지시로 전국의 상수도 수질을 검사한 결과 46개 정수장 중 부평정수장을 포함한 9곳이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sup>22</sup> 1993년에도 부평정수장의 수질 문제가 다시 한번 불거졌는데<sup>23</sup> 이로 인해 가양취수장 원수 사용을 중단하였다.<sup>24</sup> 이후 인천시는 1994년 국내 최초로 부평정수장에 고도정수처리 방식을 도입함과 동시에 148억 원을 투입하여 노후 급수관을 교체하는 등 수질 개선을 위한 노력을 하였다.

비록 수질 문제로 잡음이 있긴 했지만 부평정수장은 부평을 넘어 인천 시민의 식수 공급을 위한 중요한 시설이었다. 그뿐만 아니라 공업용수를 쉽게 조달할 수 있는 배후 시설물로 부평수출산업공단 유치에도 큰 역할을 하였다.

부평구 부평대로 332(갈산동 133)에 위치하고 있는 부평정수사업소는 팔당 상수원

18 「京電에 富平에도 送電을 要望」, 『조선일보』, 1939년 11월 7일자.

19 「京電下期事業, 興業費三百萬圓」, 『동아일보』, 1938년 8월 13일자.

20 조선전업주식회사, 『부평공업용지관계철(해방후)-조선전업주식회사』, 1962(국가기록원, DA0416854).

21 「10일 기공식, 부평정수상수도 확장공사」, 『매일경제』, 1967년 5월 5일자.

22 「사실로 드러난 꺼림칙한 수돗물」, 『동아일보』, 1989년 8월 9일자.

23 「부평정수장 오염 최악」, 『경향신문』, 1993년 7월 10일자.

24 「서울 가양정수장 원수 10월부터 못쓴다」, 『경향신문』, 1993년 7월 13일자.

과 풍납 취수장의 원수를 공급받아 부평구와 계양구 서구 일부 지역에 급수하고 있다. 부평의 대부분 지역은 부평정수장에서 공급받고 있으나 부평2동·6동, 부개1동, 일신동은 남동정수장에서 공급받는다.

표 19 부평정수장 공급 지역

정수장	공급 지역	동·읍·면
부평정수장	부평구	부평1·3·4·5동, 산곡1·2·3·4동, 청천1·2동, 갈산1·2동, 삼산1·2동, 부개2·3동, 십정1·2동
	계양구	효성1·2동, 계산1·2·3·4동, 작전1·2동, 작전·서운동, 계양1·2·3동
	서구	가정2동, 가좌2·4동, 가좌3동 일부



❖ 부평정수장 전경(2002, 부평구청)

## 9. 부평비즈니스센터

1969년 수출·입 증대에 따라 통관 업무를 신속히 수행하고 밀수 단속을 강화하기 위해 세관 직원의 증원을 비롯하여 부평과 오산에 출장소를 신설하는 것에 대한 내용을

국무회의에서 결정하였다.<sup>25</sup>

1969년 3월 13일, 인천세관 부평출장소로 출발하여 1980년 6월 14일 대통령령에 의거 부평세관으로 승격되었다. 2000년 7월 1일 직제 개편으로 인해 부평세관은 다시 인천세관 부평출장소로 개편되었다가 2006년 1월 2일 부평세관으로 또다시 승격되는 변화를 겪었다.

2016년 관세청 일선 조직이 47개 세관 5개 지소에서 34개 세관과 15개 비즈니스센터로 개편됨에 따라 부평세관은 폐지가 되고 부평비즈니스센터가 신설되었다.<sup>26</sup> 부평비즈니스센터는 안산세관 소속으로 안산세관은 경기도 안산시, 시흥시를 비롯하여 인천광역시 부평구, 계양구, 남구 일부 지역, 서구 일부 지역의 관세 행정을 담당하고 있다.

부평비즈니스센터는 부평구 굴포로 5(갈산동 184)에 소재하고 있다.

## | 제7절 | 상업시설

### 1. 굴포먹거리타운

굴포먹거리타운은 주부토로 145번길과 길주로 565번길 구간에 있으며 2008년에 조성되었다.

한 가게가 2005년부터 동네 노인들을 위한 경로잔치를 열었는데 이후 주변 음식점들도 함께 참여하며 행사의 규모가 확대되고 정기화되었다. 이를 계기로 갈산2동 상가 번영회가 구성되었고 먹거리타운 조성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이후로도 경로 행사를 비롯해 ‘굴포먹거리타운 문화콘서트’와 같은 문화공연 행사 등을 진행하며 활성화를 꾀하였지만, 협소한 골목과 주차공간의 부족은 굴포먹거리타

25 「281명 증원」, 『동아일보』, 1969년 3월 8일자.

26 「평택세관 격하 이어 의정부·부평은 폐지」, 『경기일보』, 2015년 12월 1일자; 「관세청 직제, 34개 세관 15개 비즈니스센터로 개편」, 『한국세정신문』, 2016년 1월 18일자.

운이 활성화되는 데 큰 방해요인이었다.

부평구는 굴포먹거리타운의 활성화를 위해 1,580㎡ 규모의 중앙 광장과 공영주차장 조성을 결정하여 현재 진행 중에 있다. 특히 공영주차장은 국내 최초로 자율주행 로봇을 적용한 스마트 주차장으로 건설한다.

## 2. 청리단길

굴포먹거리타운 구역 중 서울지하철 7호선 변에 있는 거리를 청리단길이라 부른다. 서울지하철 7호선과 인천지하철이 지나며 부평구청과 인천여성가족재단이 인근에 있어 유동 인구가 많은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상가 임대료가 저렴하여 청년사업가들이 하나둘씩 자리를 잡게 되었다.

청리단길이라는 이름은 공식 명칭이 아니다. 특색 있는 카페와 다양한 종류의 공방이 들어서며 거리를 이루자 부평구청의 ‘청’과 ‘~리단길’을 조합하여 만들어 낸 것이다.



❖ 청리단길

## | 제8절 | 축제

2002년을 전후로 하여 부평의 각 동에서 마을 축제가 활발히 개최되었는데 현재까지 이어져 오는 것은 일부이다.

2005년 부평구는 「인천광역시부평구 동 축제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동별로 구성된 ‘동 축제위원회’에 예산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마을 축제 개최 시 동별 500만 원 정도의 예산을 지원하였다. 그 결과 2006년 기준 부평구 전체 22개 동 가운데 16개 동이 마을 축제를 개최할 정도로 마을 축제는 성행하였다.

그러나 부평구의 지원 예산만으로는 축제를 진행하기 어려웠고 나머지 재원은 주민 자치위원회나 통장협의회 혹은 지역 상인과 주민이 부담해야 했다. 비록 여러 명이 각출을 하는 것이지만 축제를 위해 수백만 원을 모으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결국 이러한 예산 조달의 구조는 마을 축제를 지속시키지 못하는 원인으로 작용하였다. 여기에 더해 축제 프로그램의 획일화와 부실화로 인해 축제 무용론이 불거지기도 했다. 예산 확보의 어려움과 축제에 대한 인식차 등은 마을 축제를 추진하는 동력을 잃게 했고 지난 몇 년간 이어진 조류독감, 아프리카돼지열병, 코로나 19의 유행은 축제를 더욱 위축시켰다.

갈산동에서 이루어진 마을 축제 역시 크게 다르지 않다.

2003년 갈산1동에서 ‘갈월축제’가 갈산2동에서 ‘사근다리 동민화합 대축제’가 개최되었으나 지속되지 못하였고, 2014년 ‘굴포 한마당 축제’가 개최되었으나 단발에 그쳤다.



❖ 갈월축제(좌)와 사근다리 동민화합 대축제(우)(출처 : 부평구청)



## 참고 문헌



### 단행본

- 부평사편찬위원회, 『부평사』1, 부평사편찬위원회, 2007.  
 인천광역시 부평구청 기획조정실, 『2020 부평 구정백서』, 인천광역시 부평구, 2020.  
 인천광역시 시사편찬위원회, 『인천의 지명』상, 인천광역시시사편찬위원회, 2015.  
 인천광역시, 『인천통계연보』, 인천광역시, 각 해당 연도.  
 조기준, 『지명유래지: 부평의 땅이름』, 부평문화원, 1999.  
 조선전업주식회사, 『부평공업용지관계철(해방후)-조선전업주식회사』, 1962(국가기록원, DA0416854).  
 한국전기산업진흥회, 『한국전기산업진흥회 20년사: 1989~2009』, 한국전기산업진흥회, 2009.

### 신문

- 『경기일보』  
 『경인일보』  
 『경향신문』  
 『동아일보』  
 『매일경제』  
 『인천in』  
 『인천일보』  
 『조선일보』  
 『한국세정신문』



### 웹사이트

- 부평구립갈산도서관(<https://www.bppl.or.kr/galsan/index.do>)  
 부평구문화재단 부평문화사랑방(<https://www.bpcf.or.kr/facility/culturelove/business.asp>)  
 부평구청 부평홍보관(<https://www.icbp.go.kr/publicity/#>)  
 부평굴포누리 기후변화체험관(<https://portal.icbp.go.kr/bpgnccce>)  
 학교 알리미(<https://www.schoolinfo.go.kr>)  
 행정동별 소재 각 학교 홈페이지





# 제 2 장

## 부개동(富開洞)

제1절 \_ 마을 지명 유래

제2절 \_ 행정구역의 변천

제3절 \_ 일반 현황

제4절 \_ 문화유산 및 명소

제5절 \_ 교육기관

제6절 \_ 문화·체육·보건기관

# 제2장 부개동(富開洞)



이 슬 아(인하대학교박물관 연구원)

**| 제1절 | 마을 지명 유래**

**1. 동 이름 유래**

‘부개(富開)’라는 지명은 해방 이후에 새로 생겨난 지명이다. 일제강점기에 일본식 지명으로 ‘명치정(明治町)’이라 하였던 것을 광복 후인 1946년에 철폐하면서 새로운 이름을 붙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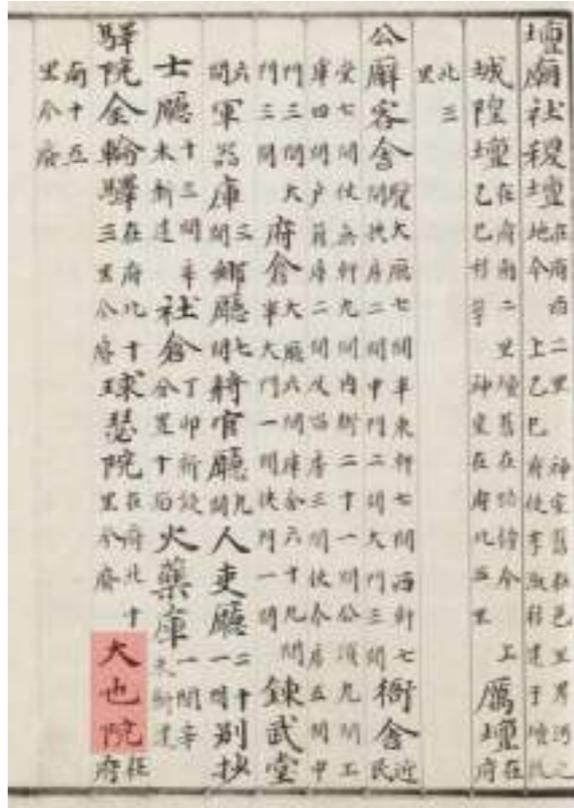
‘부개’라는 지명의 역사는 짧은 편인데도 불구하고 그 뜻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려진 바가 없는데, 서울에서 경인선을 타고 인천으로 향할 때 ‘부평(富平)이 시작되는 곳’이어서 붙은 지명이라는 설이 유력하다. 그 외에는 마을 뒷산을 부개봉(富蓋峯, 覆蓋峯)이라 불렀서, 혹은 산 위에서 굽어보면 산 앞이 환하게 열려 있어 붙였다는 설도 있다.

부개동의 과거 이름은 ‘마분리(馬墳里)’이다. 마분(馬墳)을 한자 그대로 해석하면 ‘말의 무덤’이라는 뜻이라 여기에 죽은 말들을 가져다 묻는 곳이 있었기 때문에 붙은 이름이라고 보기도 한다. 한편으로는 ‘말 무덤’이라는 뜻을 가진 지명이 전국 곳곳에 나타나는데, 동물의 ‘말’이 아니라 ‘크다’라는 의미를 가진 우리말로 해석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이런 견해에 따라 해석하자면 ‘말 무덤 마을’은 ‘큰 무덤 마을’ 혹은 동네 우두머리의 무덤이 있는 마을로 해석할 수 있다.



❖ 부개동 관할구역(출처 : 국토정보플랫폼 국토정보맵)

한편 부평 일대에는 동물 ‘말’과 관련한 지명이 여럿 있다. 조선 시대 지금의 산곡동, 청천동, 효성동 일대를 ‘마장면(馬場面)’이라 하였다. 마장(馬場)이라는 지명으로 말미암아 이곳이 과거 말을 사육하던 곳이라고 짐작할 수 있으며, ‘마장뜰’, ‘마제이’라고 불렀다. 그리고 마분리의 북쪽에는 ‘대야원(大也院)’이라는 역원(驛院)도 있었다. 1871년(고종 8) 『경기읍지(京畿邑誌)』에 따르면 대야원은 ‘부평부(富平府)의 남쪽 15리에 있었으나 지금은 폐쇄되었다’고 적혀있다. 마분리가 부평부 남쪽 20리에 있었으므로 마분리와 대야원의 거리는 꽤 가까웠다고 볼 수 있다.



❖ 『경기읍지』(1871) 속 대야원  
(출처 :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 2. 소지명 유래<sup>1)</sup>

### 1) 명치정(明治町)

명치정은 1940년 인천부의 부역 확장으로 부평 일대가 인천부에 편입될 때 마분리(지금의 부개동)에 붙인 일본식 지명이다. ‘명치(明治)’는 일본의 메이지 시대(明治時代, 1868~1912년)의 연호를 말하는데, 1910년 국권을 침탈한 시기가 여기에 해당되기 때문에 일제의 조선 침탈을 기리는 뜻에서 붙인 것으로 보기도 한다.

1 『인천의 지명』상(인천광역시 시사편찬위원회, 2015)을 참고하되, 2020년을 기준으로 지명과 지형의 변화가 있는 경우 수정하고, 보완 사항이 있는 경우 추가하였음을 밝힌다.

## 2) 굴재미

굴재미는 지금의 장제로에 있는 굴다리의 동쪽 마을 이름이었다. 1899년 경인철도 부설공사 당시 흙을 파내느라 생긴 우묵한 굴챙이에 마을을 이루었다고 해서 굴재미라고 불렀다고 전해지는데, 그러나 철도 부설 이전에도 마을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굴’은 굴챙이가 진 곳, ‘재’는 산고개, ‘미’는 리(里), 동리를 말하여 ‘재 너머 굴챙이 진 마을’이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 굴째미라고도 부른다.

마분리의 서쪽에 있었던 굴재미는 한편 ‘불잠’이라고도 했다. 옛 지도에는 ‘불잠(佛岑)’, ‘불잠동(佛岑洞)’이라고 표기하였다. 이 마을은 대정리와 마분리 사이의 길목에 있었으며, 해방 이후 1950년대 지도에서도 이 지명을 확인할 수 있다. 이 마을은 1970년대 이후로는 불잠보다는 굴재미라는 이름으로 표기된다.

한편 ‘새굴재미’ 마을도 있다. 굴재미 바로 옆으로 생겼다고 하여 붙은 이름인데, 1940년대 일제의 조병창 확장공사로 일산동과 구산동 일대에 군사 기지를 만들고 경인선의 인입선(引入線)을 부설하는데, 철로둑(철도가 놓여 있는 둑)을 쌓기 위해 인근의 땅을 파면서 집터가 생기자 마을이 형성되었다고 전해진다. 새로 생긴 마을이라고 하여 ‘새말’, ‘새굴’, ‘새굴재미’라고 불렀다고 한다. 광복 이후에는 신궁동(新宮洞)이라고도 불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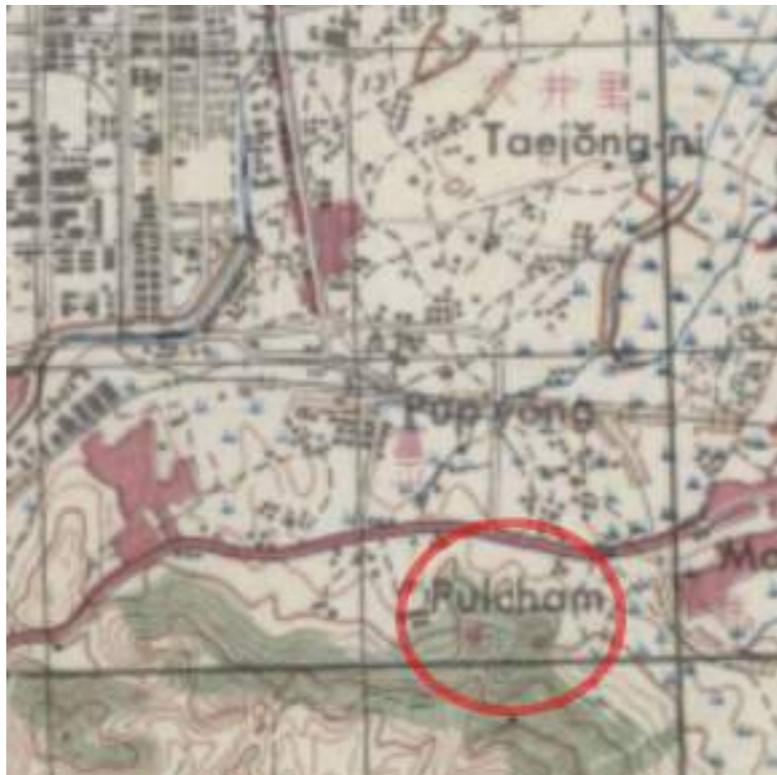
❖ 1900년대 지도 속 불잠동(출처 : 아시아역사자료센터)



❖ 1918년 지도 속 불잠(출처 :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



❖ 1970년 지도 속 굴짜미(출처 : 국토지리정보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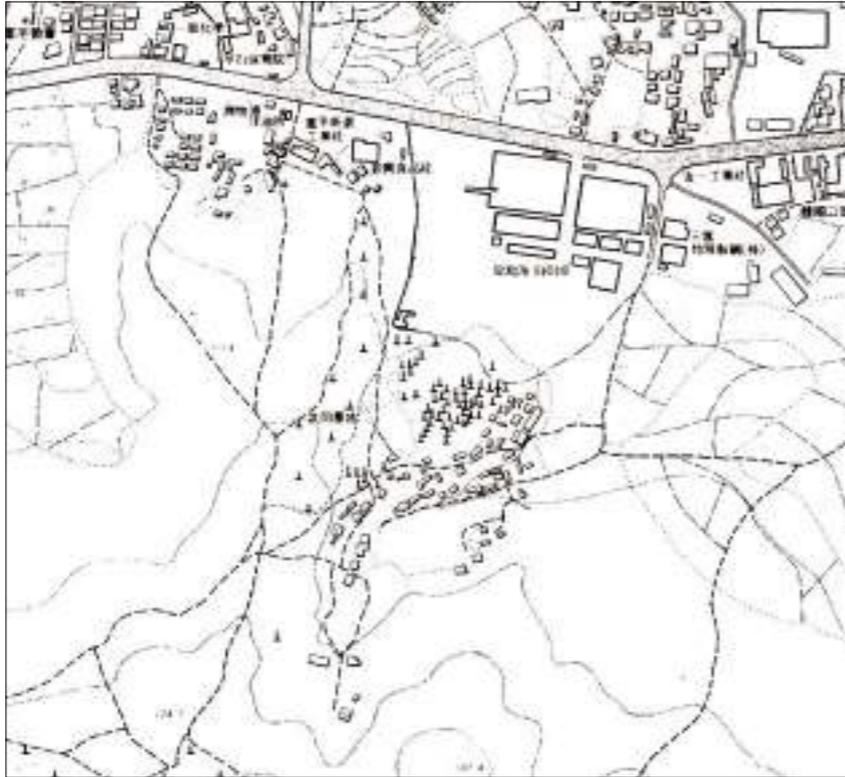
❖ 1957년 지도 속 불잠(출처 : 국토지리정보원)

### 3) 길등성이고개, 길재

1980년대 지금의 46번 국도가 놓이기 이전의 경인로에서 일신동으로 가는 길목에 있던 내리막길의 고개를 말한다. 마분리 마을의 앞길에 해당하는데, 크게 휘어지면서 일신동으로 향하며 ‘길 등성이에 있는 고개’라는 뜻으로 ‘길등성이고개’, ‘길재’라고 하였다고 한다. 한편 변음하여 ‘긴재’라고도 하였다. 인천과 부평, 그리고 서울을 잇는 주요 도로 중 하나였으므로 해방 전에도 이 길을 따라 마을이 형성되어 있었다.

### 4) 송장골, 호박골, 가재골

부개1동이 산 아래에 형성되어 있는 마을이기 때문에 골짜기의 명칭이 많다. 송장골은 골짜기에 무덤이 모여 있었다고 하여 붙은 이름이다. 부평동과의 경계지로 지금의 동수초등학교 뒷산에 해당하는데 묘지들이 자리 잡았던 자리에는 이후에 산동네로 변하였다. 호박골은 송장골보다 동쪽에 있었고 호박밭이 있었다고 해서 붙은 이름이다. 가재골은 호박골보다 더 동쪽에 있으며 일신동의 경계에 있었는데 가재가 많이 잡혔다고 하여 가재골이라고 불렀다고 한다. 변음되어 ‘가자골’이라고도 한다.



◆ 1976년 지도 속 송장골(출처 : 국토지리정보원)

### 5) 등잔산(燈臺山)

현재 '부개산'이라고 부르는 산줄기와 이어지던 구릉이 등잔불을 켜는 접시, 즉 등잔과 같다고 하여 '등잔산'이라고 불렀다고 한다. 굴재미 마을 부근으로, 부평동과의 경계에 해당한다. 부평변전소가 이곳에 있었고 지금은 한국전력공사 부평지점이 있다.

### 6) 뱃들

부평송신소 동쪽에 있었던 들판을 말하며 지금의 부개역 북쪽 일대에 해당한다. 상당 부분은 부천 권역에 있다. 부평의 대부분 들판과 마찬가지로 홍수가 나면 물이 많이 찼기 때문에 배를 띄워야 한다는 의미로 '뱃들'이라고 불렀다고 하며, '뱃들'이라고도 하기도 하였다.

### 7) 신마분리, 새말, 벽돌말

부개2동 일대 별판에 세워진 벽돌 공장을 기반으로 형성된 마을이라고 하여 '벽돌말'이라고 불렀는데, 그 이전에는 '신마분리', '새말'이라고 불렀다. 현재 부평동중학교 일대를 말한다.

신마분리는 1910년대부터 확인된다. 별판이었던 곳을 개간하여 사람들이 모여 마을을 형성하자 새로운 마을이라는 뜻으로 새말, 그리고 기존 마을의 이름인 '마분리'를 붙여 신마분리라고 하였다. 기존의 마을인 마분리, 현재 일신동인 항동리에서 들판을 가로질러 부평 읍내로 들어가는 길목에 형성되었다.



◆ 1918년 지도 속 신마분리  
(출처 :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

신마분리 일대가 '벽돌말', 즉 벽돌마을이 된 것은 1940년대 신마분리 일대에 벽돌 공장이 생겼기 때문이다. 일본인이 벽돌 공장을 건설하고 종업원의 기숙사를 지었다. 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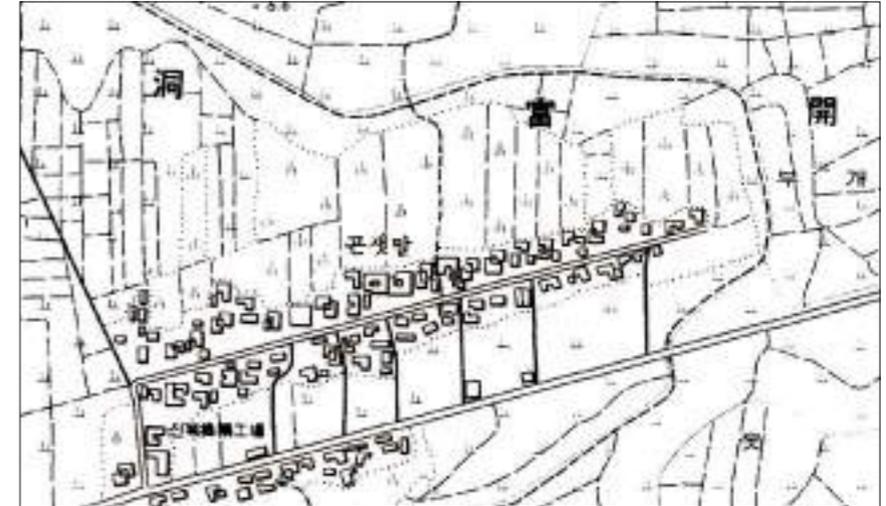
방 이후 일본이 철수하면서 벽돌공장은 적산물이 되었고 1946년 최성순(崔成淳)이 적산 공장을 위임받아 부평연와(富平煉瓦) 합자회사를 설립하였다. 1950년대 벽돌 제조업은 해방과 전쟁을 겪으면서 전후 복구 작업에 한창이었던 당시 호황을 누리는 사업 중 하나였다. 『인천상공회의소 90년사』에 따르면 1955년 당시 부평연와 합자회사의 직원 수는 102명으로 부평 지역에서 가장 종업원이 많은 사업체로 꼽힌다. 또한 수도권 일대 도시개발 속에서 필수적인 공장이었으며 한편으로는 고된 노동과 가난한 인부들의 주요 일자리이기도 하였다. 설 새 없이 공장을 가동하던 부평연와 공장은 1970년대 경인지역 일대 벽돌 공장들의 재고가 너무 남아 잠시 생산을 중단하기도 하였다.<sup>2</sup>

부평연와 공장은 벽돌의 수요가 줄고 부친의 상동 택지개발 사업으로 토지보상을 받을 때마다 사택 및 회사 부지가 팔려나가면서 자연스럽게 사라졌다. 1990년대에는 공장 부지에 운전면허 학원이 생겨났다. 부평연와 부지는 신도시 개발로 현재 아파트 단지와 공원이 되었다. 공장은 지금의 부평동중학교 앞 사거리의 북쪽으로, 백영아파트와 대촌공원 일대에 사택이 있었다. 벽돌 공장 자리는 현재 부개여고와 부개주공아파트 일대이며, 가마터는 부친의 상일고등학교 및 웅진플레이도시가 되었다.

### 8) 고니새말, 신복동

장제로와 길주로가 만나는 사거리, 현재 서울시 지하철 7호선 굴포천역 인근의 부개 3동 행정복지센터에 있었던 마을 이름이다. 들판이었던 곳에 1920년대 일본사람 고니시(小西)가 농지를 개간하면서 마을이 만들어져 ‘고니시말(마을)’이라 불렀다고 전해진다. 이것을 ‘고니새말’, ‘곤새말’로도 불렀다. 해방 이후인 1950년대에는 고니새말 대신 신복동이라고 부르기도 하였다.

<sup>2</sup> 「京仁지구 10월부터 生産中止」, 『매일경제』, 1971년 9월 24일자.



◆ 1976년 지도 속 고니새말(곤새말)(출처 : 국토지리정보원)

## | 제2절 | 행정구역의 변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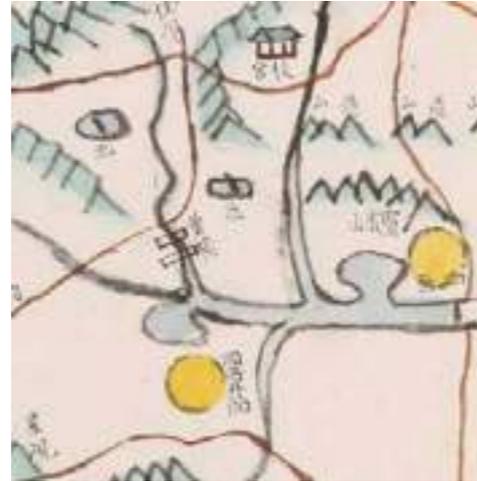
### 1. 전통 시대

지금의 부개동 일대는 조선 시대에 경기도 부평도호부(富平都護府)의 동소정면(同所井面)에 속한다. 부평은 1895년(고종 32)에 잠시 인천관찰부 소속의 부평군이 되었다가 그다음 해인 1896년(건양 1)에는 경기도 소속 부평군이 된다.

동소정면은 지금의 부평동의 옛 이름인 대정리(大井里)와 함께 ‘우물 정(井)’자를 쓴다. 한자를 그대로 해석하여 마을에 큰 우물이 있어 ‘정(井)’자를 썼다고도 풀이하지만, 한편으로는 전통 시대 마을에 우물이 있는 것은 흔한 일이며 단순히 마을의 이름을 짓기 위해 흔히 쓰는 단어에 지나지 않는다고 보기도 한다. 동소정면은 부평부(富平府) 내 15개면 중 하나로 부평의 중심지(지금의 계양구 계산동 일대)의 관문에서 남쪽으로 20리 정도 떨어진 곳에 있으며, 인천도호부와 수도 서울을 잇는 길목이었던 성현(星峴)과 가까운 마을이었다.



❖ 『경기읍지』(1871) 속 동소정면  
(출처 :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 『부평군읍지』(1899) 속 동소정면  
(출처 :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18세기 중반에 편찬한 지리지 『여지도서(輿地圖書)』(1757~1765)에서 동소정면(同所井面)은 부평부(富平府) 내 15개면 중 하나로 관문에서 남쪽으로 20리 떨어진 곳에 있으며, 5개의 마을이 있고 총 162호에 남자가 290명, 여자가 346명으로 기록되어 있다. 1789년(정조 13) 『호구총수(戶口總數)』에는 191호에 총 702명, 남자 379명에 여자 323명으로 되어 있다. 1899년(광무 3)에 편찬한 『부평군읍지(富平郡邑誌)』에는 4개의 마을에 총 173호가 있고 남자가 385명, 여자가 290명이라고 되어 있다. 『호구총수』를 기준으로 하여 당시 부평 내 각 면의 호수는 읍내면(邑內面) 242호, 동면(東面) 174호, 당산면(堂山面) 150호, 주화곶면(注火串面) 165호, 상오정면(上梧亭面) 186호, 하오정면(下梧亭面) 201호, 수탄면(水呑面) 192호, 옥산면(玉山面) 200호, 석천면(石川面) 233호, 마장면(馬場面) 83호, 서면(西面) 181호, 석곶면(石串面) 305호, 모월곶면(毛月串面) 354호, 황어면(黃魚面) 312호로 기록되어 있는데, 동소정면은 191호이다. 주변의 면과 비교하였을 때 동소정면의 마을 규모는 평균이거나 평균보다 조금 적은 편이었다고 짐작할 수 있다.

동소정면 일대를 ‘동수재이’라고도 하였는데, 동소정면이 변음하여 ‘동소정이’, ‘동수재이’ 등으로 부른 것이다. 한편 동수재이는 지금의 부평6동을 중심으로 지금도 널리 쓰인다. 부평6동이 되기 이전에 잠시 ‘부평2동 동수동’이라는 지명으로도 쓰였으며 지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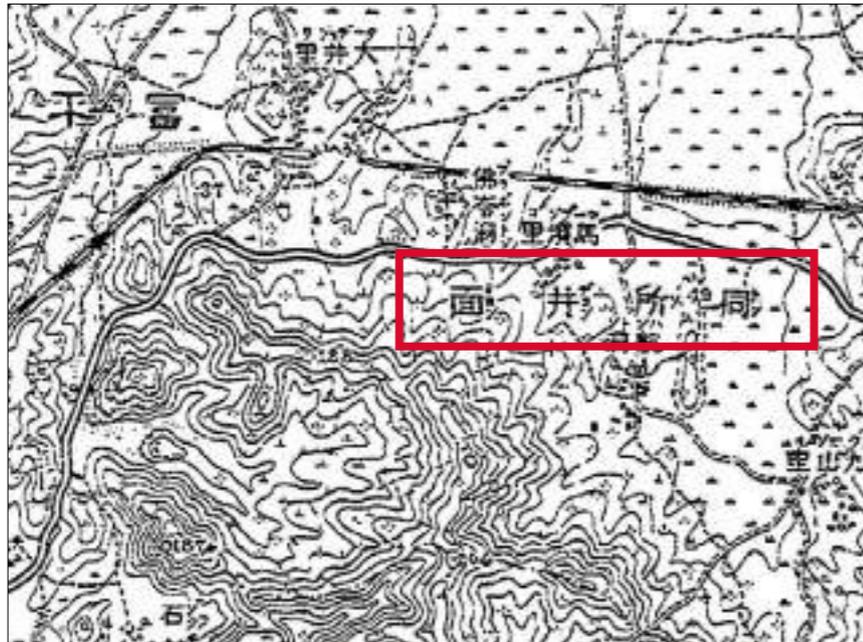
은 동수재이의 한자로 ‘동수(東樹)’라고 표기하기도 한다. 인천1호선의 역명으로도 쓰인다. 『호구총수』에 표기된 동소정면의 마을은 4곳으로, 구산리(龜山里), 항동리(項洞里), 마분리(馬墳里), 대정리(大井里)이다. 구산리와 항동리는 지금의 일신동(구산동), 대정리는 지금의 부평동으로 이어진다.

西面	元戶	東所井面	元戶	石川面	元戶	玉山面	元戶	水呑面	元戶
苟月峴里	一百九十一口	龜山里	二百三十三口	上里	二百七十七口	善沙里	一百九十二口	濕水里	二百一十七口
化井田里	七百二十七口	大項井洞里	七百九十五口	木中里	七百七十四口	堂下里	六百三十口	相宜里	一百七十七口
井田里	三十九口		三十四口	仇深里	六百三十一口	佛泉里	三百八十四口	梧柳洞里	二百七十四口
				谷里		凡		高天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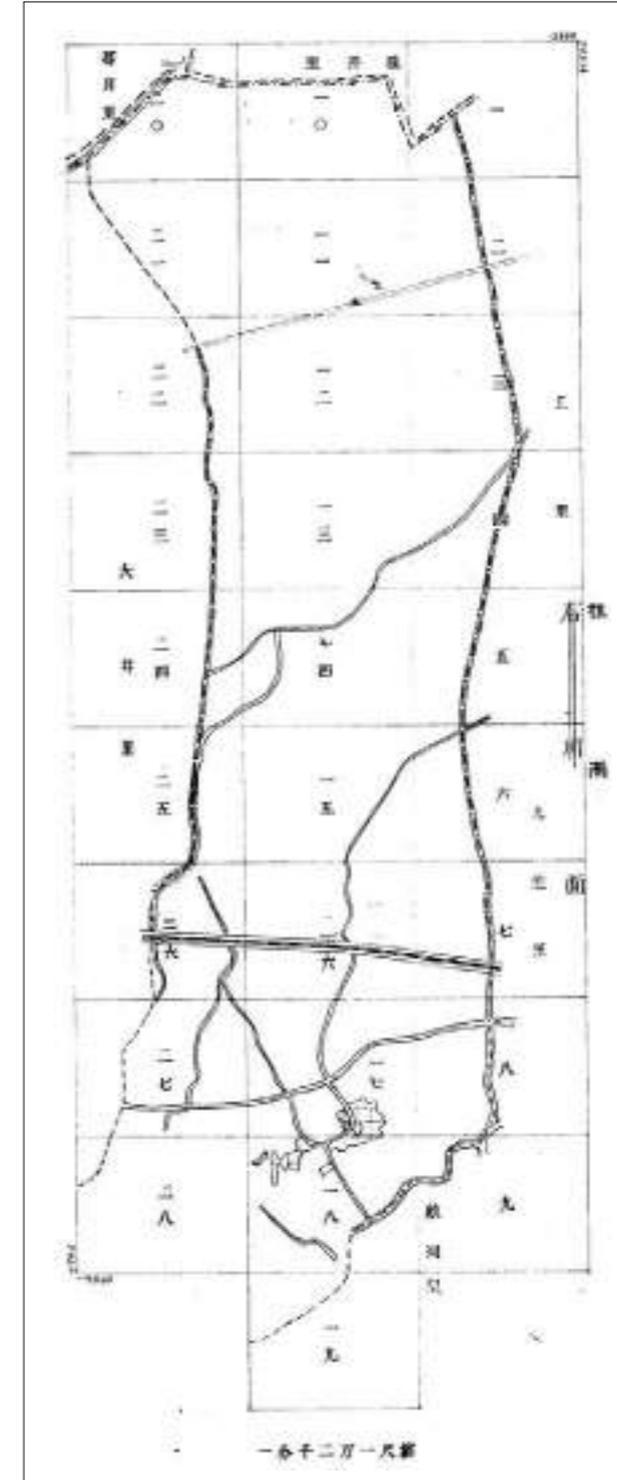
❖ 『호구총수』(1789) 속 동소정면(구산리·항동리·마분리·대정리)  
(출처 :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 2. 일제강점기

1910년 국권을 침탈한 조선총독부는 칙령 357호로 「조선총독부지방관관제」를 공포, 한반도에 13개 도(道), 그리고 부(府)와 군(郡)을 두고 각 부군에는 읍면(邑面), 그리고 하부에 리(里)와 동(洞)을 두도록 하였다. 이때의 마분리는 경기도 부평군 동소정면에 속하였고, 1914년에는 행정구역 통폐합으로 부천군(富川郡) 부내면(府內面)에 편입되면서 '부천군 부내면 마분리'가 된다. 1914년 부제(府制)가 실시되고 행정구역이 폐합되면서 인천항 앞 조계지를 중심으로 인천부(仁川府)가 결정되는데, 인천부의 부내면과 다소면의 일부만 인천부가 되고 나머지 인천 영역과 부평군을 합한 지역으로 부천군(富川郡)을 새로 만들었다. 부천은 부평의 '부'와 인천의 '천'을 따다 만들었으며, '부천'이라는 지명이 이때 처음 생겨났다. 부내면은 그 이전 부평군의 군내면, 서면, 마장면, 동소정면을 합한 영역이다.



❖ 1900년대 동소정면 일대(출처 : 아시아역사자료센터)



❖ 1911년 마분리 지적원도(출처 : 국가기록원)



◆ 1918년 마분리 일대(출처 :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

1940년대 마분리는 인천의 영역으로 편입된다. 1930년대 인천부는 부외 지역에 대한 공업적 개발을 목표로 부역(府域)의 확장을 추진, 1936년에 부천군에 속하였던 문학면과 다주면의 일부를 인천부에 편입시켰다. 한편 1930년대 말부터 조선총독부의 병참기지화정책으로서 부평역 중심의 평야 일대가 군수공업단지로 조성된다는 내용의 경인시가지계획으로 부평 일대는 경성부 혹은 인천부로 편입을 앞두고 있었는데,<sup>3</sup> 1940년 조선총독부령 제40호로 인천부가 2차로 부역을 확장하면서 과거 부평도호부 영역 대부분이 인천으로 편입된다. 이때 마분리는 일본식 지명으로 변경되어 ‘명치정(明治町)’이란 이름이 붙는다. 명치(明治)는 일제의 연호 메이지(明治)를 뜻한다.

3 「大擴張되는京城府域」, 『동아일보』, 1939년 10월 2일자.

### 3. 해방 이후

1945년 8월 15일 광복 이후 9월 19일에 미군정청(美軍政廳)이 설치, 미군은 일제강점기의 조선총독부의 권한을 장악하고 지방 정부를 재조직하였다. 마분리는 해방 직전에 인천부 영역으로 편입되었으므로 해방 이후에도 인천부의 영역으로 남았다. 인천부는 1945년 10월 12일에 잠시 ‘제물포시’가 되었다가 10월 27일에 ‘인천시’로 변경된다. 그리고 11월 1일에 인천시가 아닌 다시 ‘인천부’로 변경하였다. 1946년 1월 1일에는 인천 내 일본식 이름을 철폐하면서 명치정(明治町)은 없어지고 지금의 동명인 부개동(富開洞)이 되었다. 해방과 함께 새롭게 붙여진 지명이다.

인천부는 1948년 11월 17일 법률 제8호 「지방행정에 대한 임시조치법」을 통해 행정구역상 법적인 지위를 갖고 1949년 7월 4일에 공포된 법률 제32호 「지방자치법」에 의해 기초 자치단체가 되면서 ‘인천시’가 되었다. 그리하여 부개동은 경기도 인천시 부개동이 되었고, 인천 본청의 부평출장소 관할에 속하였다. 그리고 부개동 일대의 인구가 적었기 때문에 1955년 10월 1일에 일신동 및 구산동과 합쳐져 부개·일신·구산동이 되었다.

1966년 12월 21일 인천시는 거주 인구 52만 명을 넘어가면서 구 설치를 추진, 1967년 3월 30일에 「인천시 구 설치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고 1968년 1월 1일부터 구제도(區制度)를 도입하여 인천에 중구, 동구, 남구, 북구가 설치되었다. 이때 부개·일신·구산동은 북구 관할구역에 속한다. 1977년 5월 10일에는 동명(洞名)에 일신동과 구산동을 없애고 부개동으로 통일하였다. 그러다 인구가 증가하면서 1982년 9월 1일에 일신동이 분동(分洞)하였고 1985년 11월 15일 조례로 부개동을 부개1동과 부개2동으로 분동하였다. 1992년에는 부개2동에서 부개3동이 분동하였다.

표 1 연도별 부평과 부개동의 인구

연도	구분					(단위:년·명)	
		부개1동	부개2동	부개3동	부개동	부평	비고
1965					5,174	83,669	
1970					6,882	125,886	
1975					12,939	193,561	부개·일신·구산동
1980					26,359	322,406	
1985					36,273	464,604	일신동 분리
1990		23,550	34,764		58,314	616,818	
1995		25,533	20,840	16,938	63,311	489,621	
2000		23,101	22,172	42,564	87,837	529,569	
2005		21,976	22,350	40,085	84,411	548,068	
2010		19,985	23,604	37,664	81,253	547,395	
2015		18,990	23,690	34,985	77,665	514,385	

출처: 인천광역시, 『인천통계연보』, 각 연도(1965~1985년); KOSIS 국가통계포털(1990~2015년)

해방 직후 부개동의 마을은 현재 부개1동 행정복지센터 부근에 해당하는 과거의 마분리와 현재 부개2동 행정복지센터 부근의 벽돌말을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었다. 1965년 부개동의 인구는 5,000명을 겨우 넘는데, 1970년대부터 시작된 인구 증가는 1990년대까지 지속된다. 해방 이후 부평의 인구가 증가하면서 부개동 일대는 기존의 마을과는 별개로 부평동과 맞닿은 지역을 중심으로 인구가 크게 증가하는데, 부평동 일대는 상업지구로 지정되는 한편 부개동은 부평 일대 상업지역 배후에 있는 주거지역으로 결정된다. 1980년대의 도시계획에서 부개1동 경인로 부근의 준공업지역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부개동 지역은 주거지역으로 분류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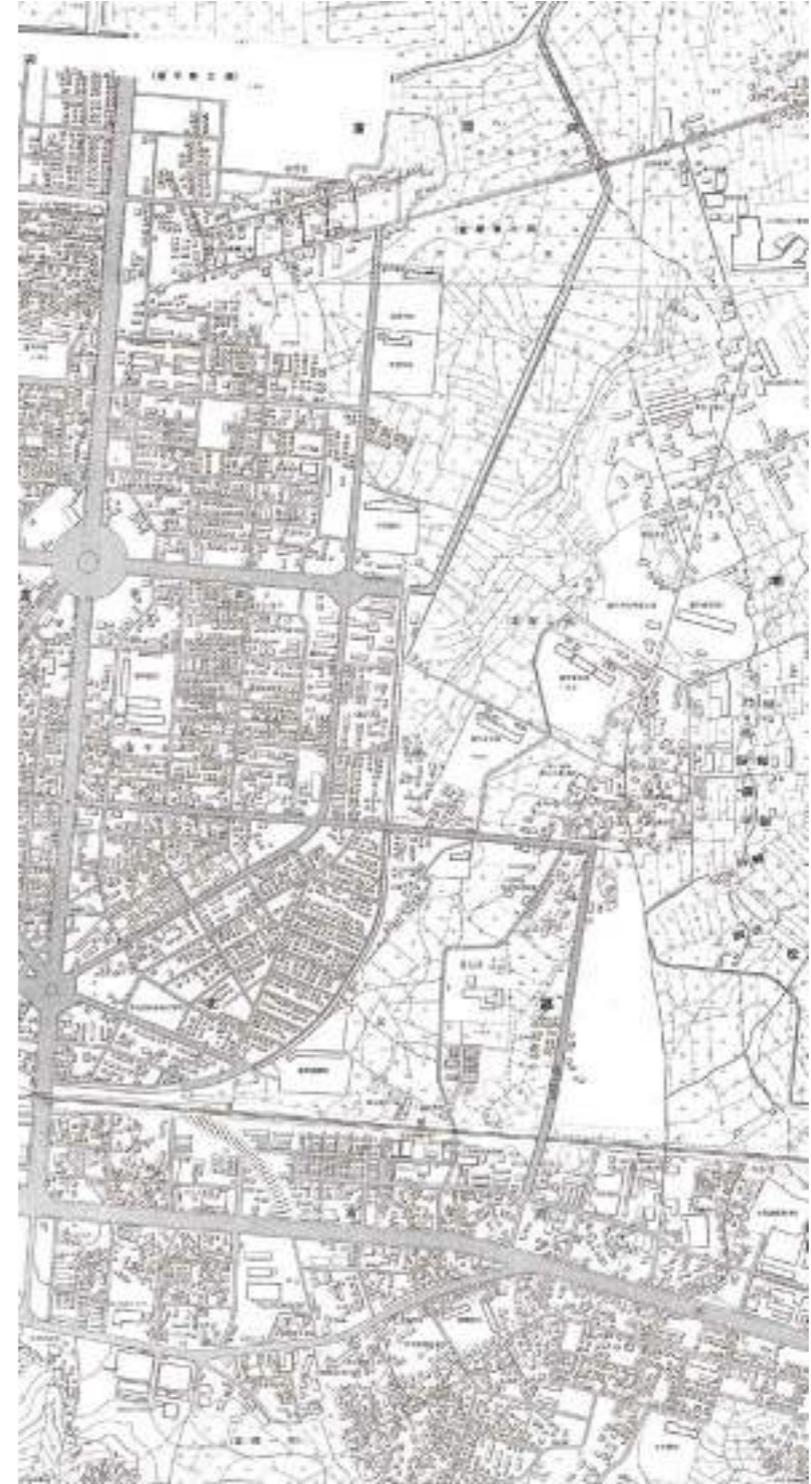


1980년대 부개동 용도계획(고시 제1986-427호 인천재정비도시계획 시설계획재정비중합도0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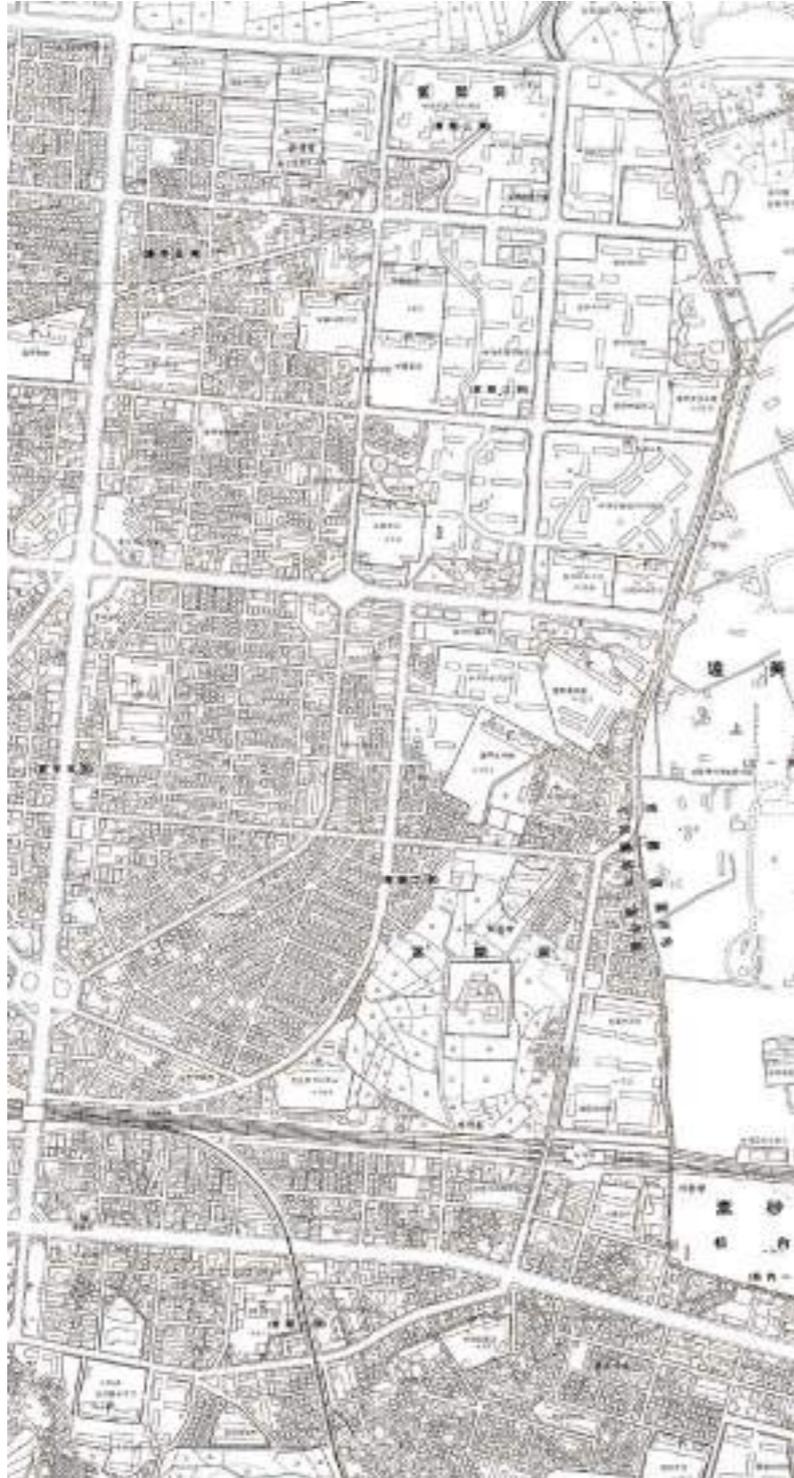
부개1동은 경인로를 중심으로 일찍이 포화상태를 이루었다. 한편 부평의 인구가 크게 증가하는 1990년대에 부개2동과 부개3동 일대에 아파트 단지를 조성하면서 인구가 크게 유입되었다.



❖ 1970년대 중반 부개동 지도(출처 : 국토지리정보원)



❖ 1980년대 후반 부개동 지도(출처 : 국토지리정보원)



❖ 2000년대 부개동 지도(출처 : 국토지리정보원)

| 제3절 | 일반 현황<sup>4</sup>

1. 부개1동



❖ 부개1동 행정구역(출처 : 국토정보플랫폼 국토정보맵)

부개1동은 남쪽으로 부개산이 있고 서쪽에는 부평동, 동쪽으로는 일신동과 맞닿아 있다. 서울1호선 철도선을 따라 부개2동과 경계를 이루고 있다. 대체로 마을이 북쪽에 치우쳐있는데, 부개1동을 남북으로 가로지르는 경인로(46번 국도)를 따라 시가지가 형성되어 있다. 부개동 중에서는 가장 먼저 도시화가 이루어져 재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곳이 많다.

1) 인구·면적

부개1동의 면적은 0.91km<sup>2</sup>로 부평구 전체의 2.84%에 해당한다. 2019년을 기준으로 세대수는 7,809세대이고 인구는 1만 7,362명이다. 행정구역 및 인력 구성은 아래와 같다.

4 『2020 부평 구정백서』(인천광역시 부평구청 기획조정실, 2020)를 참고하였다.

표 2 부개1동 기본 현황

(2019.12.31. 기준, 단위: km<sup>2</sup>%세대명)

면적	세대수	인구수			행정구역		행정인력	민방위	예비군
		계	남	여	통	반			
0.91 (구의 2.84)	7,809	17,362	8,770	8,592	39	194	14	2,503	847

2) 자생 단체

부개1동 내 자생 단체는 8종류이며, 주민자치위원회 20명, 통장자율회 29명, 방위협의회 28명, 지역사회보장협의체 17명, 부녀회 12명, 주민참여예산지역위원회 16명, 청소년지도위원회 11명, 풍물단 25명이 활동하고 있다.

표 3 부개1동 자생 단체 현황

(2019.12.31. 기준, 단위: 명)

주민자치위원회	통장자율회	방위협의회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부녀회	주민참여예산지역위원회	청소년지도위원회	풍물단
20	29	28	17	12	16	11	25

3) 사회복지 대상자

2019년을 기준으로 부개1동 내 사회복지대상자는 총 5,219명으로, 기초생활수급자 1,218명, 한부모가족 284명, 장애인 1,279명, 기초연금대상자 2,438명이 해당된다.

표 4 부개1동 사회복지 대상 현황

(2019.12.31. 기준, 단위: 세대/명)

합계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장애인	기초연금
4,129/5,219	830/1,218	112/284	1,279/1,279	1,908/2,438

4) 주요 시설

부개1동에는 2019년을 기준으로 공공기관 3개소, 복지시설 1개소, 경로당 9개소, 어린이집 11개소, 학교 3개소, 병·의원 13개소, 약국 8개소, 금융기관 3개소, 종교시설 57개소가 있는 것으로 집계되었다.

표 5 부개1동 주요 시설 현황

(2019.12.31. 기준, 단위: 개소)

공공기관	복지시설	경로당	어린이집	학교	병·의원	약국	금융기관	종교시설
3	1	9	11	3	13	8	3	57

2. 부개2동



❖ 부개2동 행정구역(출처: 국토정보플랫폼 국토정보맵)

부개2동은 서쪽으로 부평동, 동쪽으로 경기도 부천과 맞닿아있다. 부천과는 수변로 및 부일로113번길로 나뉘는데 1990년대 초 행정구역 변경이 있었다. 북쪽으로는 부흥로가 동서로 가로지르는데 이 도로를 기점으로 부개3동과 나뉜다.

부개2동을 남북으로 지나는 동수천로를 기점으로 서쪽은 일찍이 개발되었고 동쪽은 1990년대에야 도시화되었다. 따라서 현재 부개2동의 서쪽 일대는 재개발이 진행되었거나 추진 중에 있다.

### 1) 인구·면적

부개2동의 면적은 0.75km<sup>2</sup>로 부평구 전체의 2.35%에 해당한다. 부평구 내 행정동 중 갈산2동 다음으로 면적이 작다. 2019년을 기준으로 세대수는 7,095세대이고 인구는 1만 8,030명이다. 행정구역 및 인력 구성은 아래와 같다.

표 6 부개2동 기본 현황

(2019.12.31. 기준, 단위: km<sup>2</sup>·세대·명)

면적	세대수	인구수			행정구역		행정인력	민방위	예비군
		계	남	여	통	반			
0.75 (구의 2.35%)	7,095	18,030	8,795	9,235	26	174	14	1,053	926

### 2) 자생 단체

부개2동 내 자생 단체는 7종류이며, 주민자치위원회 17명, 통장자율회 20명, 방위협의회 17명, 지역사회보장협의체 20명, 주민참여예산지역위원회 16명, 청소년지도위원회 9명, 풍물단 23명이 활동하고 있다.

표 7 부개2동 자생 단체 현황

(2019.12.31. 기준, 단위: 명)

주민자치위원회	통장자율회	방위협의회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주민참여예산지역위원회	청소년지도위원회	풍물단
17	20	17	20	16	9	23

### 3) 사회복지 대상자

2019년을 기준으로 부개2동 내 사회복지 대상자는 총 3,540명으로, 기초생활수급자 639명, 한부모가족 235명, 장애인 824명, 기초연금대상자 1,842명이 해당된다.

표 8 부개2동 사회복지 대상 현황

(2019.12.31. 기준, 단위: 세대/명)

합계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장애인	기초연금
2,714/3,540	412/639	94/235	767/824	1,441/1,842

### 4) 주요 시설

부개2동에는 2019년을 기준으로 공공기관 2개소, 복지시설 6개소, 경로당 8개소, 어린이집 12개소, 학교 5개소, 병·의원 12개소, 약국 7개소, 금융기관 4개소, 종교시설 31개소가 있는 것으로 집계되었다.

표 9 부개2동 주요 시설 현황

(2019.12.31. 기준, 단위: 개소)

공공기관	복지시설	경로당	어린이집	학교	병·의원	약국	금융기관	종교시설
2	6	8	12	5	12	7	4	31

### 3. 부개3동



❖ 부개3동 행정구역(출처 : 국토정보플랫폼 국토정보맵)

부개3동은 부개동 중 가장 북쪽에 있으며 서쪽으로는 부평동, 동쪽으로는 경기도 부천시 있다. 부개3동 행정복지센터 일대와 부평동과 가까운 곳은 일찍이 도시화되었고 1990년대 이후에 평야 지대에 대규모 주공아파트 단지를 건설하면서 지금의 모습이 되었다.

#### 1) 인구·면적

부개3동의 면적은 0.86km<sup>2</sup>로 부평구 전체의 2.69%에 해당한다. 2019년을 기준으로 세대수는 1만 2,507세대이고 인구는 3만 3,270명이다. 부평구 행정동 중에서 인구가 많은 편에 속한다. 행정구역 및 인력 구성은 아래와 같다.

표 10 부개3동 기본 현황

(2019.12.31. 기준, 단위 : km<sup>2</sup>·세대·명)

면적	세대수	인구수			행정구역		행정인력	민방위	예비군
		계	남	여	통	반			
0.86 (구의 2.69)	12,507	33,270	16,075	17,197	37	244	16	4,993	1,700

#### 2) 자생 단체

부개3동 내 자생 단체는 6종류이며, 주민자치위원회 16명, 통장자율회 37명, 지역사회보장협의체 17명, 주민참여예산지역위원회 16명, 청소년 지도위원회 12명, 풍물단 36명이 활동하고 있다.

표 11 부개3동 자생 단체 현황

(2019.12.31. 기준, 단위 : 명)

주민자치위원회	통장자율회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주민참여예산지역위원회	청소년지도위원회	풍물단
16	37	17	16	12	36

#### 3) 사회복지 대상자

2019년을 기준으로 부개3동 내 사회복지 대상자는 총 5,800명으로, 기초생활수급자 2,008명, 한부모가족 337명, 장애인 1,360명, 기초연금대상자 2,095명이 해당된다.

표 12 부개3동 사회복지 대상 현황

(2019.12.31. 기준, 단위 : 세대/명)

합계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장애인	기초연금
4,850/5,800	1,254/2,008	141/337	1,360/1,360	2,095/2,095

#### 4) 주요 시설

부개3동에는 2019년을 기준으로 공공기관 3개소, 복지시설 1개소, 경로당 12개소, 어린이집 29개소, 학교 10개소, 병·의원 14개소, 약국 6개소, 금융기관 4개소, 종교시설 44개소가 있는 것으로 집계되었다.

표 13 부개3동 주요 시설 현황

(2019.12.31. 기준, 단위: 개소)

공공기관	복지시설	경로당	어린이집	학교	병·의원	약국	금융기관	종교시설
3	1	12	29	10	14	6	4	44

### | 제4절 | 문화유산 및 명소

#### 1. 부개역

부개역은 부개동 일대 대규모 주거지 개발로 인해 부설된 역으로, 1991년에 착공하여 1996년 3월 28일에 개통하였다. 지역 주민들이 1987년 송내역과 부평역 중간 지점에 주민들의 교통 편의를 위한 새로운 역을 신설해 줄 것을 요청하는 민원을 낸 것을 시작으로 지속적인 시민들의 요구가 있었고, 1988년 6월 인천시에서도 부개역의 신설을 철도청에 의뢰하면서 1991년 12월 30일에 착공할 수 있었다. 1993년 완공 예정으로 공사를 추진하였으나 동시에 시행하고 있었던 경인 북복선과의 연계 작업으로 선로 변경 작업과 병행하여 실시하며 공사가 늦어졌으며 한편으로는 부개역 일대가 이미 주거지로 포화 상태를 이루었기 때문에 토지보상의 문제로 개통까지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었다.

부개역이 부설된 1990년대 당시 북구가 부평구 및 계양구로 분구되고 계산과 부개 지역에 대규모 택지지구가 조성되던 시기였기 때문에 향후 교통 문제를 해소할 것이라

는 전망이 있었기 때문에 부평역과 송내역 간의 거리가 비교적 가까움에도 불구하고 부설될 수 있었다. 개통 후 부개역은 하루 평균 이용객 2만 명 대 중반을 기록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개통된 지 3년 후인 1999년에는 인천지하철 1호선이 개통되었기 때문에 이후로는 인천지하철 주변으로 도시 발달이 이루어졌으며, 서울지하철 7호선이 부평구청으로 연장되면서 이용객이 더욱 줄어들어있는 상태이다.

부개역의 서쪽에 철로 위로 건설된 교량이 ‘부개고가교’이다. 수변로에 속하는 부개고가교는 부개동 내에서 경인선으로 단절된 두 마을을 이어주는 유일한 차도이다. 다리는 길이 235m에 폭 8.1m에 달하며 차도는 왕복 2차로이고 육로로도 이용이 가능하다. 1981년에 설립된 것으로 초기에는 이 다리를 ‘송신고가교’라고 불렀다. 근처에 송신소가 있어 이름을 붙인 것인데, ‘송신소 앞 고가교’라고도 지칭하였다. 1980년대 초 다리가 생겼을 당시는 철도 북쪽으로 눈발이 펼쳐져 있고 큰 건물은 송신소밖에 없던 시절이었다. 다리의 이름은 1980년대 중반 지금의 대동아파트 옆 도롯(수변로에 속함)가가 직선으로 정비되면서 ‘부개고가교’, ‘부개고가도로’라고 이름을 붙였다.

#### 2. 부평송신소

부평송신소는 지금의 부개역 푸르지오 아파트 자리에 있었던 시설로 1939년에 세워졌다. 정확히는 경성무선전신국의 부평송신소를 말한다. 해방 이후는 한국통신으로 넘어가 송신소의 역할을 지속적으로 해 오다가 1999년에 송신소가 화성군 서신면으로 이전하면서 이 일대 부지에 대한 개발이 추진되었다.

무선전신은 1900년대에 처음 발명된 것으로 주로 선박이나 비행기와 통신 수단이였다. 우리나라에 최초로 전신이 도입된 것은 1885년으로 서울과 인천 간 전선을 가설하고 한성전보총국(漢城電報總局)이 전신 업무를 담당하면서 시작되었다. 그해 10월에 의주까지 잇는 서로전신선을 개통하면서 청나라를 거쳐 유럽까지 통하는 국제 전신과 이어졌다. 이때의 전신은 유선전신으로, 한반도 내 무선전신은 1910년 대한제국 군함이었던 광제호와 월미도의 무선전신소 간의 통신이 그 시작이었다. 일제강점기 무선전신은 일반 대중이 이용하기보다는 군사적인 목적에서 주로 이용되었으며, 1923년에 설립된

경성무선전신국이 경성육군무선전신소로부터 이어진 것이었다. 경성무선전신국은 일본과 중국 각지의 무선전신소와의 교신을 주고받고 선박 및 항공기와의 통신 업무를 담당하였다. 무선전신의 활용도가 점점 커지자 송신소와 수신소를 분리하고 진남포, 청진, 울산, 신의주에 무선전신국을 설치하였으며, 용산에 있던 송신소의 확장 및 이전을 위해 1939년 부평송신소를 설치하였다.<sup>5</sup>

### 경성무선국(京城無線局)을 확장(擴張) 『부평(富平)』에 대송신소(大送信所)

#### 광대한 토지의 매수를 준비 중 경인일체(京仁一體)에도 박차(拍車)<sup>6</sup>

... 용산송신소를 확장을 할 필요가 있게되어 이번 체신국에서는 대송신소 설치를 결정하고 후보지를 물색하였었다. 그리하여 여러 가지 조사 연구를 한 결과 경인 간에 있는 부평평야가 적당하다 하여 토지매수에 노력 중인데 7만 5천여평이나 되는 넓은 곳이라 땅값에 부당한 호가(呼價)를 함으로 잘 진행이 되지 않아 중요한 국가적 시설인 입장에서 토지수용령을 써서라도 시급히 해결해보리라고 한다. 만일 이곳에 예정 방침대로 대무선전신의 송신소가 설치된다면 경인일체(京仁一體)의 축전책은 물론 조선, 만주, 대만, 화태<sup>7</sup>까지 대전력(大電力)에 의한 전파가 널리 방사(放射)되리라 하여 이 실현은 만흔 기대를 가지고 있다한다.

부평에 지어진 송신소는 중일전쟁을 계기로 항공기 및 선박과의 통신을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한 시설이었다. 경성무선전신국은 1937년부터 토지를 매수하였고 1939년에 완

5 이순우, 「용산총독관저 앞 언덕에 초대형 무선 송신탑이 들어선 까닭은?」, 『민족사랑』271, 민족문제연구소, 2019, 32~35쪽.  
6 「경성무선국(京城無線局)을 확장(擴張) 『부평(富平)』에 대송신소(大送信所)」, 『매일신보』, 1939년 6월 16일자.  
7 화태(樺太)는 일본어로 사할린을 일컫는다.

공을 보고 업무를 개시하였다. 일본과 만주, 사할린까지 통신할 수 있는 시설로서 계획하였으며 1930년대 말 당시 일제의 대륙침략에 따라 군수공업 기지로서 개발되고 있었던 부평역 일대의 상황과 비슷한 맥락의 시설이었다고 할 수 있다.

### 일약(一躍)·세계적 수준(世界的水準)에 해방육식(解放六朔)만에 기술적(技術的)으로 완전독립(完全獨立)<sup>8</sup>

부평송신소는 1939년 10월에 개소된 조선의 유일한 무선 송신소로서 현재 12대의 송신기가 설치되어있는데 여기서도 역시 부산, 강릉, 울릉도, 목포의 고정 무선소와의 통신 이외에 인천 기상 통보를 취급하고 있는 7552.5 『키로』 사이를 송신기도 있다. 그리고 외국으로 보내는 송신으로서는 상항(桑港)<sup>9</sup>과의 통신 연락으로 5 『키로』의 출력을 가지고 있는 송신기 1대가 있는데 장차 해내외를 망라하여 구미 각국으로 보내는 송신기로는 50 『키로와트』 기 2대와 10 『키로와트』 기 1대만 증설하면 충분하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 장래에 있어서 기술적으로 안심하고도 남음이 있는 것은 현재 이 송신소 안에 설치되어 있는 송신기의 설계자로서 과거 일본 무전계의 유일한 기술자이던 전인경(全麟卿)(30)씨가 이곳의 책임자로서 활약하고 있는 것이다.

씨는 일본에서 명고옥(名古屋)<sup>10</sup> 고등공업을 졸업하고 동경제대에서 연구를 마친 후 일본전자공업회사(日本電子)기술과장으로 있다가 일본육군항공부교학관으로 있었으며 해방 후 귀국하여 지난2월에 이곳에 부임하였는데 이 부평송신기에 설치되어있는 3(키로와트)의 송신기는 씨가 1941년에 설계한것으로서 각 무전소에서 다수 사용하고 있으며 조선 내에서도 경무부 무선과를 비롯하여 평양, 대전 등지에도 있을 뿐 아니라 몽고에서는 70퍼-센트나 씨의 설계로 된 송신기를 사용하고 있다 한다.

씨에게 장래 조선 무전의 발전성을 물으니 기술적으로는 완전히 지금도 독립되고 있다 금 후 기계를 생산하는 자료만 있으면 되는데 무엇보다도 진공관(眞空管)이 큰 문제다. 이점에 있어서는 일반 사회가 큰 관심을 가지고 이 방면에 노력하여주시기를 바란다하다.

8 「일약(一躍)·세계적 수준(世界的水準)에, 해방육식(解放六朔)만에 기술적(技術的)으로 완전독립(完全獨立)」, 『조선일보』, 1946년 4월 13일자.  
9 상항(桑港)은 일본어로 샌프란시스코를 일컫는다.  
10 명고옥(名古屋)은 일본어로 나고야를 일컫는다.

이때 지어진 부평송신소는 해방 후에도 잔존하여 무선전신 송신의 역할을 지속적으로 담당하였다. 해방 직후에는 완전히 국내 기술자들에 의해 운영을 이어가는데 성공하면서 국내의 주요 통신 시설로서 이용되어 왔다.

해방 직후 국내의 기술로서 국제통신 체계를 복구하려는 노력은 1948년에 완수할 수 있었다. 1948년 12월 1일에 한국의 통신 자주권 확립으로 세계 각국과의 통신을 재개할 수 있게 되자 기념으로 당시 이승만 대통령과 미국 트루먼 대통령 간의 전화 통화를 추진하였으나 불발되었는데, 미국 대통령과의 전화 통화 경로는 경무대 응접실의 탁상 전화기에서 유선으로 광화문 전화국과 서울 중앙전화국을 경유하여 반도 호텔 앞에 있는 RCA 회사로 이어지고 이 신호를 부평 송신소에서 무선으로 태평양을 건너 샌프란시스코로 보내는 것이었다. 통화에 소요되는 시간은 7분 32초 정도로 예상하고 있었다.<sup>11</sup>



❖ 부평송신소 항공사진(1966, 국토지리정보원)

11 「뉴욕과 서울 직통전화(直通電話)로 국제전신(國際電信)을 개통」, 『동아일보』, 1948년 11월 29일자.



❖ 부평국제송신소 정문(1972, 국가기록원)

부평송신소는 한국통신의 소유로서 1999년 2월 말 화성군 서신면으로 이전하기 전까지 계속 부개동에 남아 있었다. KT(전 한국통신)는 부평송신소의 터에 대한 부지 개발을 1990년대 중반부터 추진 중이었고, 2006년부터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되었다. 해당 부지는 2010년 1월 부개역 푸르지오 아파트로 준공되었다.



❖ 부평송신소 정문(2004, 부평구청)

### 1. 초등학교

#### 1) 구산초등학교

구산초등학교는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개로 93(부개3동 496-5)에 있다. 부광초등학교로부터 분리되어 1996년 9월 1일에 개교하였다. 1999년에는 구산초등학교에서 부일초등학교가 분리되었다.

1996년 개교 당시 11학급 학생 수 304명이었으며 2005년에는 42학급 1,630명, 2020년에는 총 26학급에 522명이다.

표 14 구산초등학교 기본 현황

(2020년 기준, 단위: 명, 비교: 괄호는 특수학급임)

구분	학생 및 학급 수									교원 수	수업 교원 수	수업 교원 1인당 학생 수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5학년	6학년	특수 학급	순회 학급	계			
학급 수	3	4	4	5	5	4	1	0	26(1)			
학생 수	58	83	80	101	101	94	5	0	522(5)	36(1)	31	16.8
학급당 학생 수	19.3	20.8	20	20.2	20.2	23.5	5	0	20.1			

#### 2) 동수초등학교

동수초등학교는 인천광역시 부평구 동수로120번길 10(부개1동 442-23)에 있다. 1991년 8월 19일에 설립 인가를 받고 9월 1일에 개교하였다. 학교 이름 '동수'는 조선시대의 부평동 및 부개동 일대의 지역명이었던 '동소정면(同所井面)'으로부터 유래한다.

12 학교 알리미 홈페이지(<https://www.schoolinfo.go.kr>) 및 각 학교 홈페이지를 참고하였다.

1995년에는 40학급에 학생 수 1,292명이었고, 2005년에는 37학급에 1,105명이었다. 2020년에는 총 31학급에 학생 수 619명이다.

표 15 동수초등학교 기본 현황

(2020년 기준, 단위: 명, 비교: 괄호는 특수학급임)

구분	학생 및 학급 수									교원 수	수업 교원 수	수업 교원 1인당 학생 수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5학년	6학년	특수 학급	순회 학급	계			
학급 수	5	6	5	5	4	4	2	0	31(2)			
학생 수	99	123	110	99	92	87	9	0	619(9)	44(1)	36	17.2
학급당 학생 수	19.8	20.5	22	19.8	23	21.8	4.5	0	20.0			

#### 3) 부개서초등학교

부개서초등학교는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일로 39(부개2동 155-1)에 있다. 1983년 3월 1일에 개교하였고 1988년에는 병설 유치원을 개원하였다.

1983년에는 20학급으로 개교하였고 1995년에는 46학급에 학생 수 1,700명, 2005년에는 38학급 1,309명이었다. 2020년에는 총 39학급에 학생 수 924명이다.

표 16 부개서초등학교 기본 현황

(2020년 기준, 단위: 명, 비교: 괄호는 특수학급임)

구분	학생 및 학급 수									교원 수	수업 교원 수	수업 교원 1인당 학생 수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5학년	6학년	특수 학급	순회 학급	계			
학급 수	6	7	6	7	5	6	2	0	39(2)			
학생 수	151	167	151	165	125	151	14	0	924(14)	56(2)	46	20.1
학급당 학생 수	25.2	23.9	25.2	23.6	25	25.2	7	0	23.7			

#### 4) 부광초등학교

부광초등학교는 인천광역시 부평구 충선로 104(부개3동 69-6)에 있다. 1984년 3월 1일에 개교하였다. 1980년대 초·중반 인근의 비둘기아파트, 미주아파트 등의 아파트 설립과 더불어 생겨났다. 1998년에 병설 유치원을 개원하였다.

개교 당시 14학급에 학생 수 487명이었으며 1995년에는 41학급에 1,437명, 2005년에는 30학급에 932명이었다. 2020년에는 총 22학급에 학생 수 451명이다.

표 17 부광초등학교 기본 현황

(2020년 기준, 단위: 명, 비교: 괄호는 특수학급임)

구분	학생 및 학급 수									교원 수	수업 교원 수	수업 교원 1인당 학생 수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5학년	6학년	특수 학급	순회 학급	계			
학급 수	4	4	3	3	3	3	2	0	22(2)			
학생 수	91	85	66	66	65	70	8	0	451(8)	32(2)	25	18.0
학급당 학생 수	22.8	21.3	22	22	21.7	23.3	4	0	20.5			

#### 5) 부내초등학교

부내초등학교는 인천광역시 부평구 수변로 129(부개3동 501-12번지)에 있다. 1996년 12월에 설립 인가를 받았으며 1998년 3월 1일에 개교하였다.

1998년 개교 당시 16학급으로 시작하였으며 2005년에는 52학급 학생 수 1,940명이었다. 2020년에는 총 32학급에 학생 수 744명이다.

표 18 부내초등학교 기본 현황

(2020년 기준, 단위: 명, 비교: 괄호는 특수학급임)

구분	학생 및 학급 수									교원 수	수업 교원 수	수업 교원 1인당 학생 수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5학년	6학년	특수 학급	순회 학급	계			
학급 수	5	5	5	5	6	5	1	0	32(1)			
학생 수	113	108	127	120	151	118	7	0	744(7)	44(1)	38	19.6
학급당 학생 수	22.6	21.6	25.4	24	25.2	23.6	7	0	23.3			

#### 6) 부일초등학교

부일초등학교는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흥북로 175(부개3동 499-85)에 있다. 구산초등학교로부터 분리되어 1999년 3월 1일 23학급과 유치원 2학급으로 개교하였다.

학생 수는 1999년에 31학급 1,257명, 2005년에 35학급 1,137명이었으며, 2020년에는 총 21학급에 402명이다.

표 19 부일초등학교 기본 현황

(2020년 기준, 단위: 명, 비교: 괄호는 특수학급임)

구분	학생 및 학급 수									교원 수	수업 교원 수	수업 교원 1인당 학생 수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5학년	6학년	특수 학급	순회 학급	계			
학급 수	2	3	4	3	4	3	2	0	21(2)			
학생 수	49	53	75	62	79	74	10	0	402(10)	32(2)	26	15.5
학급당 학생 수	24.5	17.7	18.8	20.7	19.8	24.7	5	0	19.1			

### 7) 부개초등학교

부개초등학교는 인천광역시 부평구 마분로 9(부개1동 356)에 있다. 1952년 10월 5일 부평동국민학교 부개 분교로 시작하였고, 1955년 5월 1일부터 인천부개국민학교로 개교하였다.



❖ 인천부평동국민학교 부개분교 신축 낙성식 기념 사진(1952, 부평동초등학교)

학생 수는 1995년에 37학급 1,350명이었고 2005년에는 31학급 900명이었으며, 2020년에는 총 17학급에 학생 수 318명이다.

표 20 부개초등학교 기본 현황

(2020년 기준, 단위: 명, 비교: 괄호는 특수학급임)

구분	학생 및 학급 수									교원 수	수업 교원 수	수업 교원 1인당 학생 수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5학년	6학년	특수 학급	순회 학급	계			
학급 수	2	2	3	3	2	3	2	0	17(2)			
학생 수	47	48	56	47	46	62	12	0	318(12)	27(2)	21	15.1
학급당 학생 수	23.5	24	18.7	15.7	23	20.7	6	0	18.7			

## 2. 중학교

### 1) 구산중학교

구산중학교는 인천광역시 부평구 수변로 199(부개3동 497-4)에 있다. 1997년 3월 1일에 7학급으로 설립 인가를 받아 개교하였다. 2005년 36학급 학생 수 1,476명이었으며 2020년에는 총 31학급에 학생 수 993명이다.

표 21 구산중학교 기본 현황

(2020년 기준, 단위: 명, 비교: 괄호는 특수학급임)

구분	학생 및 학급 수						교원 수	수업 교원 수	수업 교원 1인당 학생 수
	1학년	2학년	3학년	특수학급	순회학급	계			
학급 수	11	10	9	1	0	31(1)			
학생 수	363	314	310	6	0	993(6)	60(1)	51	19.5
학급당 학생 수	33	31.4	34.4	6	0	32.0			

### 2) 부광중학교

부광중학교는 인천광역시 부평구 충선로 140(부개3동 22-1)에 있다. 1985년 12월 31일 24학급으로 설립 인가를 받고 1986년 3월 4일에 8학급 당시 학생 수 462명으로 개교하였다. 2003년 5월부터 사격장을 개장, 사격부를 운영하고 있다.

학생 수는 1995년에 33학급 1,688명, 2005년에 30학급 1,162명이었으며 2020년에는 총 23학급에 학생 수 615명이다.

표 22 부광중학교 기본 현황

(2020년 기준, 단위: 명, 비교: 괄호는 특수학급임)

구분	학생 및 학급 수						교원 수	수업 교원 수	수업 교원 1인당 학생 수
	1학년	2학년	3학년	특수학급	순회학급	계			
학급 수	7	7	8	1	0	32(1)			
학생 수	187	201	223	4	0	615(4)	44(1)	38	16.2
학급당 학생 수	26.7	28.7	27.9	4	0	26.7			

### 3) 부평동중학교

부평동중학교는 인천광역시 부평구 수변로107번길 4(부개2동 120-6)에 있다. 1969년 8월 16일 45학급으로 설립 인가를 받았고 1970년 3월 1일에 개교하였다. 축구부와 양궁부를 운영하고 있다.

1995년에 40학급 2,030명, 2005년에 36학급 1,414명이었고, 2020년에는 총 18학급에 학생 수 367명이다.

표 23 부평동중학교 기본 현황

(2020년 기준, 단위: 명, 비교: 괄호는 특수학급임)

구분	학생 및 학급 수						교원 수	수업 교원 수	수업 교원 1인당 학생 수
	1학년	2학년	3학년	특수학급	순회학급	계			
학급 수	5	6	6	1	0	18(1)			
학생 수	130	110	120	7	0	367(7)	37(1)	30	12.2
학급당 학생 수	26	18.3	20	7	0	20.4			

### 4) 부평여자중학교

부평여자중학교는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문화로 193-1(부개2동 120-21)에 있다. 1968

년 8월 16일 36학급으로 설립 인가를 받았으며 1970년 3월 1일 8학급으로 개교하였다.

학생 수는 1995년에 38학급 1,931명, 2005년에 34학급 1,373명이었고, 2020년에는 총 21학급에 학생 수 509명이다.

표 24 부평여자중학교 기본 현황

(2020년 기준, 단위: 명, 비교: 괄호는 특수학급임)

구분	학생 및 학급 수						교원 수	수업 교원 수	수업 교원 1인당 학생 수
	1학년	2학년	3학년	특수학급	순회학급	계			
학급 수	6	7	7	1	0	21(1)			
학생 수	167	192	144	6	0	509(6)	42(2)	35	14.5
학급당 학생 수	27.8	27.4	20.6	6	0	24.2			

### 5) 부흥중학교

부흥중학교는 경기도 부천시 계남로 268(중동 1074)에 있다. 1987년 3월 1일 학생 455명으로 개교하였다.

학생 수는 1995년에 31학급 1,653명, 2005년에 34학급 1,293명이었으며, 2020년에는 총 19학급에 학생 수 373명이다.

표 25 부흥중학교 기본 현황

(2020년 기준, 단위: 명, 비교: 괄호는 특수학급임)

구분	학생 및 학급 수						교원 수	수업 교원 수	수업 교원 1인당 학생 수
	1학년	2학년	3학년	특수학급	순회학급	계			
학급 수	6	6	6	1	0	19(1)			
학생 수	145	108	114	6	0	373(6)	40(1)	32	11.7
학급당 학생 수	24.2	18	19	6	0	19.6			

### 3. 고등학교

#### 1) 부개고등학교

부개고등학교는 인천광역시 부평구 수변로57번길 36(부개2동 120-546)에 있다. 2003년 12월 36학급 설립 인가를 받아 2004년 3월 3일에 455명, 남학생 266명과 여학생 189명의 신입생이 입학하여 개교하였다. 개교 이후 매년 약 400명대의 학생들이 입학하였고, 점차 줄어 2010년대에는 300명대, 2020년에는 225명이 입학하였다. 2020년 을 기준으로 총 26학급에 617명이 있다.

표 26 부개고등학교 기본 현황

(2020년 기준, 단위: 명, 비교: 괄호는 특수학급임)

구분	학생 및 학급 수						교원 수	수업 교원 수	수업 교원 1인당 학생 수
	1학년	2학년	3학년	특수학급	순회학급	계			
학급 수	8	9	8	1	0	26	64(2)	51	12.1
학생 수	197	225	189	6	0	617(6)			
학급당 학생 수	24.6	25.0	23.6	6.0	0	23.7			

#### 2) 부개여자고등학교

부개여자고등학교는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흥로 433(부개동 501-11)에 있다. 1996년 2월 12학급으로 설립 인가를 받고 3월 5일에 학생 624명으로 개교하였다. 2000년대에는 매년 500명 넘게 입학하였고, 점차 줄어 2020년에는 157명이 입학하였다. 학생 수는 2020년을 기준으로 총 29학급에 574명이 있다.

표 27 부개여자고등학교 기본 현황

(2020년 기준, 단위: 명, 비교: 괄호는 특수학급임)

구분	학생 및 학급 수						교원 수	수업 교원 수	수업 교원 1인당 학생 수
	1학년	2학년	3학년	특수학급	순회학급	계			
학급 수	8	10	10	1	0	29(1)	71(1)	56	10.3
학생 수	155	205	210	4	0	574(4)			
학급당 학생 수	19.4	20.5	21.0	4.0	0	19.8			

#### 3) 부광여자고등학교

부광여자고등학교는 인천광역시 부평구 충선로 143(부개3동 19-6)에 있다. 1987년 12월 30일에 30학급 설립 인가를 받았으며 이듬해인 1988년에 개교하였다. 2020년 193명이 입학하였고 학생 수는 총 25학급에 554명이다.

표 28 부광여자고등학교 기본 현황

(2020년 기준, 단위: 명, 비교: 괄호는 특수학급임)

구분	학생 및 학급 수						교원 수	수업 교원 수	수업 교원 1인당 학생 수
	1학년	2학년	3학년	특수학급	순회학급	계			
학급 수	8	8	8	1	0	25(1)	56(1)	47	11.8
학생 수	191	180	181	2	0	554(2)			
학급당 학생 수	23.9	22.5	22.6	2.0	0	22.2			

#### 4) 미래생활고등학교

미래생활고등학교는 부평구 수변로 165(부개동 499-9)에 위치하고, 1996년 3월에 부평 여자공업고등학교로 설립되었다. 2007년 3월에 부평디자인과학고등학교, 2018년 3월에는 인천미래생활고등학교로 교명을 변경하였다. 2020년 총 31학급에 학생 수는 546명이다.

표 29 미래생활고등학교 기본 현황

(2020년 기준, 단위: 명, 비교: 괄호는 특수학급임)

구분	학생 및 학급 수						교원 수	수업 교원 수	수업 교원 1인당 학생 수
	1학년	2학년	3학년	특수학급	순회학급	계			
학급 수	10	10	10	1	0	31(1)	74(1)	65	8.4
학생 수	225	170	146	5	0	546(5)			
학급당 학생 수	22.5	17.0	14.6	5.0	0	17.6			

5) 부흥고등학교

부흥고등학교는 인천광역시 부평구 수변로57번길 61(부개동 120-547번지)에 있다. 2005년 2월 4일 36학급으로 설립 인가를 받고 3월 3일에 신입생 395명이 입학하며 개교하였다. 2020년 총 25학급에 학생 수 576명이다.

표 30 부흥고등학교 기본 현황

(2020년 기준, 단위: 명, 비교: 괄호는 특수학급임)

구분	학생 및 학급 수						교원 수	수업 교원 수	수업 교원 1인당 학생 수
	1학년	2학년	3학년	특수학급	순회학급	계			
학급 수	8	8	8	1	0	25(1)	61	50	11.5
학생 수	190	198	182	6	0	576(6)			
학급당 학생 수	23.8	24.8	22.8	6.0	0	23.0			

4. 특수학교

1) 은광학교

은광학교는 사회복지법인 은광원에서 설립한 특수학교로, 인천광역시 부평구 마분로 8(부개동 251-1)에 있다. 은광원은 전쟁 이후에 생겨난 인천 내 보육원 중 하나인 인애원으로부터 출발한다. 인애원은 이은수 원장에 의해 1956년에 설립되어 운영하였으며 1968년에 시설 기준 미달로 인가 취소되었다가<sup>13</sup> 1973년 3월 30일에 사회복지법인으로서 은광원을 설립하였다.

은광원은 1975년에 특수학교 정관 허가, 1980년에 설립 인가를 받고 12월 4일에 은광학교를 설립하였다. 1981년에 초등부 2학급, 1986년에 중학교 3학급, 1996년에 고등부 과정 3학급에 대한 설치 인가를 받았다. 은광학교에는 유치부, 초등부, 중학부, 고등부 및 전공과가 있으며 2020년 총 22학급에 학생 118명이 있다.

표 31 은광학교 기본 현황

(2020년 기준, 단위: 명, 비교: 괄호는 순회학급임)

구분	유치부		초등부								중학부				고등부				전공과	총계		
	유치	순회	1	2	3	4	5	6	순회	계	1	2	3	순회	계	1	2	3			순회	계
학급 수	0	0	1	1	1	1	1	1	5	11	3	1	1	1	6	1	1	1	0	3	2	22(6)
학생 수	0	0	4	4	5	6	6	6	20	51	18	6	7	4	35	7	7	4	0	18	14	118(24)
학급당 학생 수	0	0	4	4	5	6	6	6	4	4.6	6	6	7	4	5.8	7	7	4	0	6	7	5.4

13 「施設 제대로 인해 12개 育兒所 인가 취소」, 『경향신문』, 1968년 3월 26일자.

### 1. 부개도서관

부평구립도서관 소속인 부개도서관은 2012년 9월 13일에 개관하였다. 주소는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일로 83길 46이며, 부개2동에 있다. 매주 월요일, 법정공휴일에는 휴관하고 있으며 1층에는 어린이 열람실, 누리터, 다목적실, 2층에는 종합자료실, 소회의실, 디지털 자료실, 정기간행물실, 다목적실 등을 갖추고 있다. 장서는 6만 2,000권 이상 보유하고 있다.



❖ 부개도서관(출처: 부평구청)

부평구립도서관은 부개도서관 외에도 청천도서관, 삼산도서관, 부평 기적의 도서관, 갈산도서관, 부개 어린이도서관이 있는데, 이 중 부개도서관은 부평구립도서관의 대표도서관의 역할을 하고 있다. 부평구립의 각 도서관은 부평구의 ‘책 읽는 부평’ 사업을 주관 및 진행하는 기관으로서 지역의 독서문화운동을 주도하고 책과 문화를 매개로 지역공동체의 결속력을 높이는 사업을 벌이고 있다. 따라서 정기적으로 대표 도서 추천, 독

서 릴레이, 독서 토론, 작가와의 만남, 북멘토(독서토론 리더) 양성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부평구립의 도서관들은 특성화 사업으로 도서관마다 특색에 맞는 주력 사업을 펼치고 있는데, 부개도서관의 경우 음악 자료 특화 도서관으로 한국 대중문화의 발상지라는 부평의 특성을 살리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계획 및 운영하고 있으며 도서관 내 음악자료실을 설치하여 관련 도서와 음반을 확보하고 있다. 또한 부평구가 주력하고 있는 ‘뮤직 시티 부평’ 슬로건에 맞게 정기적으로 예술 공연의 진행과 해설을 선보이고 있다.

### 2. 부평 기적의 도서관

부평구립도서관 소속인 부평 기적의 도서관은 2006년 3월 10일에 개관하였다. 주소는 인천광역시 부평구 길주남로 166이며, 부개3동 구산중학교 인근에 있다. 매주 월요일, 법정공휴일에는 휴관하고 있으며 1층에는 자료실, 영유아방, 다목적실 등이 있고 2층에는 자료실, 문화아지트를 운영하고 있다. 장서는 5만 6,000권 이상 보유하고 있다.

부평 기적의 도서관은 2002년 MBC 방송 프로그램 「느낌표 - 책책책 책을 읽읍시다」를 계기로 시작된 민·관 협동의 도서관 건설 사업을 통해 만들어진 시설이었다. 당시 각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어린이 도서관 건립의 신청을 받았는데, 인천에서는 부평구가 유치계획서를 제출하여 확정되었다. 2003년 2월 순천 기적의 도서관 개관을 시작으로 제주, 서귀포, 진해, 제천, 청주, 울산, 금산에 기적의 도서관이 세워졌으며, 부평 기적의 도서관은 이 중 9번째로 개관하였다. 2004년 방송이 종료되면서 자금 지원이 줄어들어 드는 문제가 생겨났지만 부평구에서 건립 사업을 일임하였다.<sup>14</sup>

부평 기적의 도서관도 부평구립도서관이기 때문에 ‘책 읽는 부평’ 사업의 진행 기관으로서 정기적으로 대표 도서 추천, 작가와의 만남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부평구립의 도서관들은 특성화 사업으로 각 도서관마다 특색에 맞는 주력 사업

<sup>14</sup> 「부평 기적의 도서관' 내달 문 연다」, 『인천신문』, 2006년 2월 13일자.

을 펼치고 있는데, 이 중 부평 기적의 도서관은 환경과 생태를 주제로 하는 체험형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가까운 공원을 활용한 생태 체험 프로그램, 도서관 생태 책 축제, 전문가 초빙 등 생태 환경과 관련된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다.



❖ 부평 기적의 도서관(출처 : 부평구청)

### 3. 부개어린이도서관

부평구립도서관 소속인 부개어린이도서관은 2011년 7월 14일에 개관하였다. 주소는 인천광역시 부평구 동수로 166이며, 부개1동에 있다. 매주 월요일, 법정공휴일에는 휴관하고 있으며 1층과 2층은 부개1동 어린이집이 있고 3층에 영유아 종합자료실, 정기간행물대, 멀티미디어실, 문화아지트, 4층에 초등·일반 종합자료실이 있다. 장서는 2만 3,000권 이상 보유하고 있다.

부개어린이도서관도 부평구립도서관이기 때문에 ‘책 읽는 부평’ 사업의 진행 기관으로서 정기적으로 대표 도서 추천, 독서 동아리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부평구립의 도서관들은 특성화 사업으로 도서관마다 특색에 맞는 주력 사업을 펼치

고 있는데, 이 중 부개어린이도서관은 어린이를 대상으로 4차 산업과 관련된 창의성 교육, 창작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특히 코딩에 중점을 둔 교육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있다. 또한 시대의 흐름을 읽을 수 있는 주제를 위주로 프로그램을 개설하여 어린이뿐만 아니라 전 연령의 도서관 이용자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 부개어린이도서관 교육활동 모습(2012)



## 참고 문헌



### 단행본

- 민족문제연구소, 『민족사랑』271, 민족문제연구소, 2019.  
 부평사편찬위원회, 『부평사』1, 부평사편찬위원회, 2007.  
 인천광역시 부평구처 기획조정실, 『2020 부평 구정백서』, 인천광역시 부평구, 2020.  
 인천광역시 시사편찬위원회, 『인천의 지명』상, 인천광역시 시사편찬위원회, 2015.  
 인천광역시, 『인천통계연보』, 인천광역시, 각 해당 연도.

### 신문

- 『경향신문』  
 『동아일보』  
 『매일경제』  
 『매일신보』  
 『인천신문』  
 『조선일보』



### 웹사이트

- 국가기록원(<https://www.archives.go.kr>)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http://db.history.go.kr/>)  
 국토지리정보원(<https://www.ngii.go.kr>)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http://kyu.snu.ac.kr>)  
 아시아역사자료센터(<https://www.jacar.go.jp/korean/>)  
 토지이음(<https://www.eum.go.kr/>)  
 학교 알리미(<https://www.schoolinfo.go.kr>)  
 행정동별 소재 각 학교 홈페이지  
 KOSIS 국가통계포털(<https://kosis.kr/>)





# 제 3 장

## 부평동(富平洞)

- 제1절 \_ 마을 지명 유래
- 제2절 \_ 행정구역의 변천
- 제3절 \_ 일반 현황
- 제4절 \_ 문화유산 및 명소
- 제5절 \_ 교육기관
- 제6절 \_ 문화·체육·보건기관(공공기관)
- 제7절 \_ 상업시설
- 제8절 \_ 축제

# 제3장 부평동(富平洞)



김 정 아(부평역사박물관 총괄팀장)

## | 제1절 | 마을 지명 유래

### 1. 동 이름 유래

오늘날 부평동은 부평1동부터 부평6동까지 6개의 행정동으로 이루어져 있다. 부평구에서 가장 넓은 범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가장 많은 인구가 살고 있는 곳이기도 하다. 또한 인천과 서울을 잇는 경인선, 인천지하철, 서울지하철 7호선이 모두 지나는 곳으로 교통의 요지이다. 동아아파트를 비롯한 대단위 주거 밀집 지역이 있기도 하며, 부평시장과 부평지하도상가 등의 상업 시설도 있어 여러모로 부평의 중심지로서 손색이 없다.

부평동이 부평의 중심지 역할을 시작한 것은 오래되지 않았다. 이전까지 과거 부평은 계양구와 서구, 김포까지 포함하는 등 그 범위를 때에 따라 달리하였고 언제나 중심지는 '부평도호부(富平都護府)'가 있는 인천시 계양구 계산동이었다. 1899년에 경인선이 부설되어 부평역이 생기자 비로소 부평역 주변으로 중심지가 옮겨오게 된 것이다.

부평(富平)이라는 지명이 처음 등장한 것은 1310년(고려 충선왕 2)이다. 고구려 주부토군, 통일신라 장제군, 고려시대 수주와 안남도호부, 길주목을 거쳐 부평부(富平府)라 고친 것이다. 이후 몇 번의 읍격 변화를 거치긴 하지만 1914년까지 부평이라는 이름을 유지한다.



❖ 부평동 관할구역(출처 : 국토정보플랫폼 국토정보맵)

부평이 마을의 지명으로 자리 잡은 것은 1945년 인천부고시 제62호에 의거하여 일본식 지명을 모두 동명(同名)으로 바꾸기 시작하면서부터다. 1914년 일제에 의해 소화정(昭和町)으로 불리던 것이 1946년 1월 1일을 기점으로 부평동(富平洞)이 된 것이다.

‘부평(富平)’은 넓은 곡창지대가 있어 ‘수확이 많은(富) 넓은 들(平)’이라는 뜻에서 붙인 이름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해석이다. 그러나 지명의 뜻과는 달리 과거 부평은 잦은 수해와 기근을 경험했으며 ‘수확이 많은 땅’과는 거리가 멀었다.

### 「통판(通判) 정군(鄭君)에게 보이다」<sup>1</sup>

사람 순박하고 일 적어 기쁘기는 하나	人淳事簡雖堪善
땅 박하고 쇠잔하여 차마 볼 수 없네	地瘠民殘不忍看
공무를 마치고 관아에 앉아 아무 일 없으니	公退座衙無一事
관인은 마사하나 더욱 편안하기 어렵네	官人無事益難安

<sup>1</sup> 이규보, 「통판(通判) 정군(鄭君)에게 보이다」, 『동국이상국집』15, 고율시(古律詩) 계양(桂陽)에서 지은 것이다.

언어학적 입장에서 보면 ‘부(富)’는 지금도 ‘붓다, 부르트다, 부리, (배)부르다’ 등의 말에 있는 것처럼 ‘높다, 뾰족하다’는 뜻을 가진 우리말 ‘부’를 한자어로 표시한 이두식 표기의 하나이다. 이곳에 계양산이 있으니 높아서 ‘부’이고, 그 앞에 평평한 평야가 펼쳐져 있으니 ‘평(平)’이어서 둘이 합해 ‘부평’이 되었다고 보는 해석이다.<sup>2</sup>

## 2. 소지명 유래<sup>3</sup>

### 1) 대정리(大井里)

큰 우물이 있는 마을이라서 생긴 지명이다. 옛 지명에서 정(井, 丁, 亭)은 아무 의미 없이 단순히 마을의 이름을 짓기 위해 쓰는 접미사의 기능을 갖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대정리의 대정(大井)이나 대정(大丁)은 반드시 어떤 우물이나 꺾인 산맥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지명일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옛날에는 아랫마을이 대정리의 원마을로서 가장 큰 대촌(大村)을 이루었다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이 마을에 큰 우물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저 ‘큰 마을’이란 뜻에서 마을 이름을 대정리라 붙인 것으로 풀이된다. 대정리는 현 부평동의 옛 이름이다.

### 2) 동수동(東樹洞)

행정동으로 부평6동에 해당한다. 동수동의 지명 유래에 대해서는 상세히 알려진 바가 없으나 해방 전까지 이곳이 동수재이라고 하던 과거의 지명을 따와서 붙였다는 견해가 유력하다. 동수재이는 부평역 주변을 가리키던 지명인데, 동수재이는 동소정면이 어음 변화를 일으켜 동소정이-동수정이-동수재이가 되었다고 한다.

동소정면이란 이름의 한자 표기는 1911년경 제작된 『조선지리지자료(朝鮮地誌資料)』에 ‘同所井面’으로 기록돼 있다. 간혹 근대 신문 같은 곳에 ‘東所井面’이라고 달리 표현하기

<sup>2</sup> 인천광역시 시사편찬위원회, 『인천의 지명』상, 인천광역시 시사편찬위원회, 2015, 208쪽.

<sup>3</sup> 『인천의 지명』상(인천광역시 시사편찬위원회, 2015)과 『부평사』1(부평사편찬위원회, 2007)을 참고하되, 2020년을 기준으로 지명과 지형의 변화가 있는 경우 수정하고 보완 사항이 있는 경우 추가하였음을 밝힌다.

도 했으나 ‘동소정면’을 ‘同所井面’으로 표기한 건 조선시대에 발간된 자료에 거의 공통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다.

### 3) 백운역과 백운주택

향토사학자 조기준은 『지명유래지 : 부평의 땅 이름』에서 백운역과 백운주택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옛날 이곳은 작은 원통이 고개라 불리어 온 소로(小路) 고개로, 인가도 없는 초지무성한 산골이었다. 이 건널목의 북쪽은 지형이 낮고 남쪽은 원통산 줄기를 타고 큰 길이 나게 되어 구름다리가 유난히 높게 가설되었다. 이 역명을 지을 때 중론에 붙여 보았더니 ‘신촌역’, ‘십정역’ 등이 거론되었으나 그 중에서 높은 구름다리를 상징하여 ‘높이 뜬 구름 같다’ 하여 백운역이라 함이 지배적이므로 역명을 쓰게 되었다고 전하고 있다. 이곳에서 서쪽 열우물 고개는 채석장으로 많은 골재를 채취하여 부평 건설에 크게 기여하고 그 부지에 주택단지가 들어서 그 이름 역시 백운역의 이름을 따서 ‘백운주택’이라 이름 붙여 불리고 있다.<sup>4</sup>

### 4) 원통이고개

부평삼거리에서 간석오거리에 이르는 고개를 ‘원통이고개’라고 부르는데 이 원통이 고개에 대해서는 두 가지 설이 전해진다.

첫째는 조선 중종 때의 권신(權臣) 김안로(金安老)가 삼남(三南)지방에서 세금으로 거둔 쌀을 한강을 통해 서울로 옮기기 위해 파 보려 했다는 경인운하와 관련되어 있다. 당시 삼남 지방에서 거둔 곡식을 실을 배가 수도인 한양으로 들어오려면 강화도와 김포 사이에 있는 ‘손돌목’을 거쳐야 했다. 그런데 이곳의 물살이 워낙 세고 바닷속에 바위가 많아 조난사고가 잦았다.

이 때문에 고려 말부터 조선조에 이르기까지 손돌목을 지나지 않고 곡식을 수도로 나르기 위해 인천 앞바다에서 바로 한강으로 이어지는 운하 계획이 추진됐다. 당시 김포

<sup>4</sup> 조기준, 『지명유래지 : 부평의 땅 이름』, 부평문화원, 1999, 212~213쪽.

고촌 일대 한강 변에서 김포·부평 들판을 가로질러 운하를 파고, 맞은편 인천 앞바다에서도 지금의 백운역 방향으로 파왔다. 그러나 이 고개가 있는 곳에서 단단한 바위에 막혀 결국 공사를 끝내지 못했다. 그러자 김안로는 청천(靑川)의 상류인 안하지고개 쪽과 남동구 만수동 무너미고개 쪽으로도 이를 시도했는데 모두 실패하고 말았다. 이에 “이 고개가 아니면 물길을 낼 텐데 억울하고 그간의 큰 고생이 허사로 돌아간 것이 원통하다”며 탄식했다고 하여 원통이고개라 불리게 되었다는 이야기다.

또 다른 전설은 조선을 세운 태조 이성계와 무학대사에 얽힌 이야기다. 태조가 조선을 세운 뒤 무학에게 새 도읍지를 세울 만한 땅을 알아보게 했다. 이에 무학이 전국을 돌아다니다가 부평까지 와서 살펴보니 계양 명산에 한강을 끼고, 들이 넓어 도읍지에 적격일 뿐 아니라, 산골짜기도 꼭 백 개라 돌아가 이성계에게 그 사실을 말하였다. 그런데 그 후 이성계가 백관을 거느리고 다시 와서 자세히 세어보니 산골짜기가 한 골이 모자라는 99개밖에 안 되어 도읍지를 단념하게 되었다. 그 연유를 자세히 살펴보니 놀랍게도 이 원통이에 봉우리가 있어 본래 골이 깊었는데 이것이 없어지고 얇은 언덕으로 바뀌어 있었으므로 “아! 원통하고 원통한지고! 봉우리가 언덕으로 변하다니!”하고 탄식하게 되어, 이때부터 이 산을 ‘원통산’이라 부르고 또 이 고개를 ‘원통이고개’라고 부르게 되었다고 전한다.

### 5) 부흥시장<sup>5</sup>

한천길(韓天吉, 초대 인천직할시 북구의회 의장)은 1968년 부평동 152번지(현 롯데시네마 인근)에 부흥상회를 설립하고 농산물 도소매를 위탁받아 운영하였다. 1973년에는 동업자를 규합하여 부흥실업주식회사를 설립하였다. 부흥실업주식회사는 부평동 252-29(현 건영캐스빌아파트) 자리에 청과물 도매시장을 개장하였는데, 이곳에서 청과물 경매도 함께 이루어졌다. 당시는 인천원예협동조합이 진흥종합시장에 들어와 있을 때였다. 따라서 공설인 인천원예협동조합 부평공판장과 사설인 부흥실업주식회사의 청과물 도매시장이 나란히 운영되면서, 부평의 청과물은 이곳을 거쳐야만 유통이 될 지경이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인천원예협동조합 부평공판장이 시장로터리 쪽으로 다시 이

5 부평역사박물관, 『삶의 터전 부평시장』 I, 부평역사박물관, 2020, 210~211쪽.

전하였으나, 부흥실업주식회사에서 운영하는 청과물 도매시장은 같은 자리에서 운영하면서 오히려 규모를 키워나갔다. 부흥실업주식회사의 청과물 도매시장이 활성화되면서 이 일대에는 많은 상인들이 자리를 잡게 된다. 도매시장을 통해 유통된 청과물을 다시 도매로 유통하거나 소매로 유통하는 상점들이 도매시장 주변을 형성했다. 사람들은 부흥실업주식회사의 ‘부흥’을 따와 이 일대를 부흥시장이라고 불렀다.

### 6) 다다구미<sup>6</sup>

‘다전조(多田組)’란, 한자의 일본어 독음인 ‘다다구미’에서 유래한 명칭이다. 북인천 우체국 뒤편 일대의 마을을 가리키며 대개 북인천우체국부터 모다백화점 앞까지 연결된 공간을 지칭한다.

다다구미는 인천육군조병창을 건설할 때 공사를 맡은 하청업체 중 하나였다. 당시 다다구미의 현장 사무소가 이곳에 위치하고 있었던 것이 지금까지 지명으로 남아있다.

다다구미라는 지명이 여전히 남아있는 반면 북인천우체국 뒤편을 비롯한 주변에는 일제강점기 당시의 흔적이 거의 사라진 상태다.

한때 다다구미라는 지명을 ‘평화촌’이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바꾸려는 움직임이 있었으나 정착되지 못하였다. 해방 이후 미군이 인천육군조병창에 주둔하면서 다다구미는 미군기지와 마주하는 마을이 되었다. 여러 지리적 영향에 따라 일반적인 마을로 자리 잡지 못하고 1970년대까지 성매매 집결지로 남게 되었다.

### 7) 수도사거리

부평대로104번길과 부평대로가 만나는 사거리를 이전에는 수도사거리라 불렀다. 인천에 처음 상수도가 개설되어 노량진 정수장에서 인천 송림동 수도국산(水道局山)까지 송수되는 500mm 상수도관이 이곳을 지나갔는데, 그 지상에 수도선 관리용으로 폭 4m 정도의 도로를 설치하여 이를 ‘수도길’이라 불렀다. 현재 부평대로104번길이다.

6 김현석, 『우리 마을 속의 아시아태평양전쟁유적 : 인천광역시 부평구』, 도서출판 선인, 2019, 69~71쪽.

## 8) 쌍굴다리

부평역에서 서울 방향으로 부평1동의 경계를 이루는 곳에 있는 철로 다리를 말한다. 부평역 방향에서 경인도로로 넘어가는 본래의 길이 있었으나, 길이 좁고 위험하여 이곳에 철길 밑으로 굴다리를 크게 파고 서울로 가는 새 길을 놓았다. 그런데 이 굴다리의 폭이 너무 넓어 가운데에 기둥을 세웠으므로 ‘쌍굴 형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쌍굴다리’로 부르게 된 것이다.

## 9) 부평공원

신촌과 남부고가교 사이에 조성된 공원으로, 일제강점기에는 미쓰비시제강의 공장이 있었으며 해방 후에는 미군이 주둔하다가 한국군이 주둔하였다. 1995년 마지막까지 이곳을 지켰던 육군 88정비부대가 이전한 후 2002년에 ‘부평공원’으로 개장하였다.

## 10) 개천, 원통천<sup>7</sup>

신촌의 동쪽에서 남북 방향으로 길게 흐르던 하천을 마을 사람들은 흔히 ‘개천’이라고 불렀다. 때로는 굴포천의 한 지류로 보고 ‘원통천’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기도 한다. 1941년 일제는 부평에 인천육군조병창을 건설하였는데, 동시에 하천이 조병창의 외곽을 이루도록 하였으며 하천 위에는 다리를 놓아 외부 도로와 연결될 수 있도록 조성하였다. 미군 기지가 들어선 이후에도 미군 부대와 신촌 사이에는 다리가 놓여 있었다. 1980년에 다리를 새로 정비하여 ‘신촌교’를 세웠다.

신촌의 ‘개천’을 원통천으로 불렀는지는 분명하지 않다. 다만, 원통천이라는 명칭은 1911년경 편찬된 『조선지리지』 중 부평군 동소정면 항목에도 표기되어 있다. 여기에는 대정리에 원통천(圓通川)이 소재하는 것으로 밝히고 있다. 조선시대에 발간된 지리지에 대교천이 원적산을 발원지로 한다고 기록해 둔 것을 참고로 한다면 원통천이 굴포천의 한 지류로서 지금의 굴포천 복개구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은 1917년에 측도한 「조선근대지도」에서도 확인된다.

<sup>7</sup> 부평동의 개천과 원통천에 대한 내용은 『이주민의 마을 부평 신촌』(부평역박물관, 2015), 51~52쪽을 참고하였다.

## 11) 부평로(富平路), 경인도로, 신작로(新作路)

부평역에서 부평 읍내를 거쳐 ‘김포로 가는 도로’를 ‘김포로(金浦路)’라 하였다. 부평에서 김포로 가는 길이란 뜻이다. 1940년에 부평 지역이 인천부에 편입되고 조병창을 건설할 때, 그 배후 도시를 만들기 위하여 부평역 앞 일대에 대한 도시계획을 수립하고 현재와 같은 큰 도로를 만들기 시작하였다. 대체로 초기에는 부평역에서 수도사거리까지 길을 넓혔는데 이 길을 새로 만든 길이라 하여 ‘신작로’라 불렀다. 해방 이후 이 도로를 ‘부평로’라 하고 계산동까지 크게 넓혔다. 부평구와 계양구가 나뉘었으므로 현재 ‘부평로’는 부평역에서 경인고속도로 부평나들목까지를 말하며, ‘부평대로’라 부른다. 그 이후의 도로는 계양대로라 한다.

왕복 8차선의 부평대로는 부평의 대표 축제인 부평풍물대축제가 열리는 장소이다. 축제 기간 동안 일부 구간은 차량 운행이 제한된다.

## 12) 경원대로

부평3동 신촌과 현대아파트 사이를 지나는 도로이며 부평역과 십정동을 연결한다. 이 길은 원래 1982년에 부평3동에서 법원고가교까지의 도로가 새로 뚫리며 ‘원통로’와 ‘신촌로’로 구분해 부르던 도로이다. 부평역 앞쪽에서 신촌사거리로 들어오는 길이 ‘신촌로’, 신촌사거리에서 십정동으로 넘어가는 길이 ‘원통로’였다.

## 13) 희망촌

희망촌은 ‘앞산’ 동쪽 골짜기에 형성된 마을이다. 삼릉에서 ‘작은 원통이 고개’를 넘어가는 중간에 도로 남쪽에 위치해 있다. ‘희망촌’의 유래에 대해서 조기준은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8·15 해방을 전후하여 부평 여러 곳에 새로운 마을이 생겼으나 이곳은 1950년경까지도 인가 하나 없는 무지공처 두메산골이었다. 1960년경 자유당 정권이 물러나고 민주당이 집권하여 국회의원 김훈씨의 총참모이자 수석비서격인 원종국씨가 자리잡아 몇 가구가 살더니 점점 빈한한 사람들이 모여들어 ‘달동네’를 이루었다. 이 원선생은 우리 모두 앞

날에 희망을 갖고 살자고 ‘희망촌’이라 하였다.<sup>8</sup>

#### 14) 삼릉

1938년, 일본기업인 히로나카상공은 부평공원 자리에 공장을 건설하였는데 자금난과 경영난에 시달리다 1942년에 미쓰비시에 매각된다. 히로나카상공 공장 운영 당시 공장과 가까운 오늘날 부평2동의 넓은 부지에 사택을 함께 건설하였다. 이후 미쓰비시에 공장을 매각하며 사택 역시 매각되었고 이곳은 미쓰비시에 징용당한 조선인 노동자들의 공동 숙소로 사용되었다. 사택은 오늘날까지 일부가 남아있다. 삼릉(三菱)은 일본어로 미쓰비시의 한자 독음으로, 미쓰비시의 사택이 있었기 때문에 예전부터 부평2동을 ‘삼릉’이라 불렀다.

#### 15) 소반재고개, 삼릉고개

오늘날 부영로를 말하며, 삼릉 일대에서 가장 높은 언덕이다. 삼릉에 사택이 건설될 때 지금의 부평감리교회 앞쪽으로 소방서를 함께 지었는데 언덕 위에 소방서가 있어 소방재 또는 소방재고개라 하였고 후에 소반재, 소반재고개로 변음된 것으로 보인다. 지금은 사용하지 않으며 삼릉고개 혹은 부영로라 부른다.

#### 16) 달뻐미

부평남초등학교 부근을 한때 달뻐미라고 불렀다. 달뻐미는 초승달 만한 아주 작은 논이 있어 붙여진 이름이고 민가 몇 채만 있는 작은 마을이었다. 달뻐미는 1970년대를 넘어서면서 사라졌다.

#### 17) 경인로(京仁路), 경인도로, 경인국도

부평2동 한가운데를 뚫고 지나가는 이 길은 서울-인천을 연결하는 국도(國道)이기 때문에 경인로, 경인도로 또는 경인국도라고 한다. 인천성모병원 앞쪽으로 지나가는 것이 옛 경인로이고 지금의 길은 새로 만들어 넓힌 것이다.

#### 18) 신트리, 윗신트리

신트리공원 남쪽에 조성된 주택지를 말한다. ‘신트리’라는 이름은 ‘새로 생긴 마을’, 곧 ‘새터(리)’에서 우리말 ‘새’가 한자 ‘신(新)’으로 바뀐 것이다. 원래는 ‘새터말’이 되거나, ‘신촌(新村)’ 혹은 ‘신기촌(新基村)’이 되어야 하는데 시간이 가면서 발음이 바뀌어 신트리가 됐다.

#### 19) 굴다리오거리, 쌍굴다리로터리, 농협로터리

부평역에서 서울 방향으로 부평1동의 동 경계(洞境界)를 이루는 곳에 있는데 위에 쌍굴다리가 있기 때문에 쌍굴다리로터리라 하였다. 그 후 로터리에 농협이 생기면서 부개동 사람들은 농협로터리라고도 불렀는데, 지금은 로터리 대신에 오거리를 형성하여 굴다리오거리라 한다.

#### 20) 장제로, 부흥로

굴다리오거리에서 북쪽으로 이어지는 도로로 부평5동과 경계를 이루고 있다. 이 길은 본래 부흥시장의 이름을 따와 부흥로라 하였는데, 2009년에 김포시 사우동까지 연결하여 장제로로 변경하였다.

#### 21) 대정로

시장역오거리에서 굴다리오거리 사이의 길을 말한다. 부평역 앞 일대가 대정리였기 때문에 그 이름을 살려 대정로라 하였다.

#### 22) 동수로

동수역에서 인천성모병원 쪽으로 연결되는 옛 경인국도를 말한다. 옛 경인국도가 송신고가교를 넘어 길주로 교차점까지 이르는 길과 합쳐 ‘동수로’로 명명하였다. ‘동수로’는 예전에 대정리, 마분리, 향동, 구산동 일대가 동소정면이었던 것과 한때 부평6동을 ‘부평2동 동수동’이라 불리었던 것에 근거하였다.

8 조기준, 『부평사연구(富平史研究)』, 백암문집간행위원회, 1995, 358~359쪽.

### 23) 안남로

신촌의 중심부를 남북으로 지나는 주요 도로이다. 이 길로 인해 신촌이 양쪽으로 구분되었다. 안남로 건설 당시 경인철도와 부평공원을 넘어가는 고가도로를 계속 이어서 건설하려 했으나 주민들의 반대로 무산되었다.

### 24) 앞산

광학산의 한 줄기로 인천성모병원 뒤로 있는 것을 부평 사람들은 앞에 있는 산이라 하여 앞산이라 부른다. ‘앞산’은 광산이기도 하다. 일제강점기부터 은을 캐기 시작해 1987년에 영풍광업이 운영하던 부평광산이 폐광될 때까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은 광산으로 이름을 알렸다.

### 25) 윗마을

윗마을은 부평역 앞쪽으로 새로 형성된 마을이다. 대정리의 원마을인 아랫말보다 ‘위에 있었기’ 때문에 ‘윗마을’이라 하였다. 이후 윗마을이 대정리의 중심마을이 되었으나 1940년 이후 일제에 의한 도시계획에 따라 윗마을은 모두 로터리가 되었고, 로터리 아래로 새로운 마을이 형성되었다.

### 26) 아랫마을, 하촌

‘아랫마을’은 동수재이의 원마을로서 윗마을보다 규모가 컸다. ‘윗마을보다 아래에 위치했기 때문’에 ‘아랫말’ 또는 ‘하촌’이라 불렀다. 하촌에서도 동쪽 일대는 인가도 없는 농경지였으나, 그 후 도시화로 상가와 주택지로 변했다.

### 27) 자가밭말

자가밭말은 윗마을 길 건너에 이웃해 있었으며, 부평대로에서 신촌 방향으로 꺾어지는 모퉁이에 위치하였던 마을이다. 자가밭말은 이곳에서 ‘자갈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라고 한다.

### 28) 공설시장

1948년 인천시에서 구획정리를 시행한 후 부평동 542번지에 공설시장을 설치하였다. 현재 북부교육지원청의 북쪽에 해당한다. 그러나 공설시장은 여러 문제로 인해 외면 받았고 이후 주택지에 자리를 내주게 되었다.

## | 제2절 | 행정구역의 변천

원래 부평 지역은 부평도호부(富平都護府) 부내면(富內面) 지역으로 도호부 청사가 있어 부평 읍내라 하였으며 현재 계산동 지역이다. 1914년에 행정구역의 통폐합으로 지금의 부평동은 부천군 부내면 대정리(大正理)가 되었고, 1940년에 제2차 부역 확장으로 인천부에 속하게 되었는데, 이때 각 리의 명칭이 모두 일본식으로 변경됨에 따라 대정리는 소화정(昭和町)이 되었다.

해방 후 1945년 인천부고시 제62호에 의거하여 일본식 명칭으로 모두 동명(洞名)으로 바꾸면서 비로소 부평동(富平洞)이라는 이름을 갖게 되었다. 이후 부평동은 매우 복잡한 분동(分洞)을 거쳤다. 1962년에 처음으로 부평1동, 2동, 3동으로 분동되었다가, 1968년 1월 1일에 구제(區制)의 실시로 인천시 북구에 소속되어 부평1동은 부평1동 동부동과 부평1동 서부동으로 나뉘었다. 이어 1970년 7월 1일 시 조례 제628호에 의하여, 부평1동 동부동을 부평1동 동부동과 부평1동 중부동으로 분동하였고, 부평2동은 부평2동과 부평2동 동수동으로 분동하였다. 1977년에는 부평1동 동부동을 부평4동으로, 부평1동 중부동을 부평5동으로, 부평1동 서부동을 부평1동으로, 부평2동 동수동을 부평6동으로 그리고 부평3동과 십정2동을 합하여 부평3동으로 동명을 일원화하였다.

1990년 1월 1일 구 조례 제182호에 의거하여 인구가 팽창하던 부평3동을 부평3동과 산곡3동으로 분동하면서 오늘과 같은 행정구역을 이루게 되었다.

1995년 인천직할시가 인천광역시로 확대됨에 따라 북구가 부평구와 계양구로 분구(分區)되면서 현재 부평구 부평1·2·3·4·5·6동으로 편제되어 운용되고 있다.

1. 부평1동



❖ 부평1동 행정구역(출처 : 국토정보플랫폼 국토정보맵)

부평1동은 북쪽으로 향하는 부평대로를 기준으로 하여 좌측에 해당한다. 부평동아아파트와 대림아파트가 대단지로 구성되어 있어 부평동 중에서 인구가 가장 많다. 경인선 1호선인 부평역과 인천지하철 부평시장역이 지나고 있어 유동 인구가 많다. 부평과 김포를 잇는 부평대로와 신촌으로 이어지는 경원대로, 산곡동으로 이어지는 부흥로와 원적로가 지난다. 부평대로변으로 크고 작은 상권이 길게 형성되어 있으며 모다백화점을 비롯한 대형 쇼핑몰도 자리하고 있다.

9 『2020 부평 구정백서』(인천광역시 부평구청 기획조정실, 2020)를 참고하였다.

1) 인구·면적

부평1동의 면적은 1.1km<sup>2</sup>로 부평구 전체 면적의 3.3%에 해당한다. 2019년 12월 31일 기준 세대수는 1만 6,322세대, 인구수는 3만 7,905명(남자 1만 8,250명, 여자 1만 9,655명)으로 부평동에서 가장 많은 인구를 보유하고 있다. 행정구역은 36통 247반으로 구성되어 있고, 행정 인력은 17명이다. 민방위는 3,095명, 예비군은 2,230명이 편성되어 있다.

표 1 부평1동 기본 현황

(2019.12.31.기준, 단위: km<sup>2</sup>%세대명)

면적	세대수	인구수			행정구역		행정인력	민방위	예비군
		계	남	여	통	반			
1.1 (구의 3.3)	16,322	37,905	18,250	19,655	36	247	17	3,095	2,230

2) 자생 단체

부평1동의 자생 단체는 8종류이다. 각 자생 단체별 소속된 인원은 주민자치위원회 25명, 통장자율회 36명, 방위협의회 14명, 지역사회보장협의체 15명, 부녀회 6명, 주민참여예산지역위원회 18명, 청소년지도위원회 15명, 풍물단 25명이다.

표 2 부평1동 자생 단체 현황

(2019.12.31.기준, 단위: 명)

주민자치위원회	통장자율회	방위협의회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부녀회	주민참여예산지역위원회	청소년지도위원회	풍물단
25	36	14	15	6	18	15	25

3) 사회복지 대상자

부평1동의 사회복지 대상의 세대수는 4,646세대, 인구수는 5,766명이다. 이 중 기초

생활수급자는 523세대, 783명, 한부모가족은 104세대, 248명, 장애인은 1,458세대 1,507명, 기초연금 수급대상은 2,561세대 3,228명이다.

표 3 부평1동 사회복지 대상 현황

(2019.12.31.기준, 단위: 세대/명)

합계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장애인	기초연금
4,646/5,766	523/783	104/248	1,458/1,507	2,561/3,228

#### 4) 주요 시설

부평1동의 주요 시설은 공공기관 5개소, 복지시설 1개소, 경로당 10개소, 어린이집 18개소, 학교 5개소, 병·의원 81개소, 약국 21개소, 금융기관 16개소, 종교시설 8개소이다.

표 4 부평1동 주요 시설 현황

(2019.12.31.기준, 단위: 개소)

공공기관	복지시설	경로당	어린이집	학교	병·의원	약국	금융기관	종교시설
5	1	10	18	5	81	21	16	8

## 2. 부평2동

부평2동은 광학산이 북쪽으로 뻗어 내려온 구릉에 위치하고 있다. 부평2동을 관통하며 인천지하철과 경인국도가 지나고 있다. 일제강점기 히로나카상공과 미쓰비시제강의 사택 건물이 최근까지 남아있었으나 2018년을 기점으로 대부분이 철거되었다. 지금 남아있는 미쓰비시 사택에 대하여 보존과 철거의 첨예한 대립이 이어지고 있다. 미쓰비시 사택을 포함하고 있는 부평동 760-700번지 일원(약 5만 9,954㎡)이 부평2구역 재개발정비사업 대상지가 되어 향후 1,500세대가 새롭게 유입될 예정이다. 2020년 1월에는

500원 공공독서실이 건립되어 개관하였으며, 2021년 지금의 위치(부영로 23)에 부평2동 행정복지센터가 이전하였다.



❖ 부평2동 행정구역(출처: 국토정보플랫폼 국토정보맵)

#### 1) 인구·면적

부평2동의 면적은 2.28km<sup>2</sup>로 부평구 전체 면적의 7.1%에 해당하며 부평동 중 가장 넓은 면적이다. 2019년 12월 31일 기준 세대수는 9,116세대, 인구수는 1만 9,496명(남자 9,758명, 여자 9,738명)이다. 행정구역은 26통 171반으로 구성되어 있고, 행정 인력은 18명이다. 민방위는 1,465명, 예비군은 965명이 편성되어 있다.

**표 5** 부평2동 기본 현황

(2019.12.31.기준, 단위: km<sup>2</sup>·%·세대·명)

면적	세대수	인구수			행정구역		행정인력	민방위	예비군
		계	남	여	통	반			
2.28 (구의 7.1)	9,116	19,496	9,758	9,738	26	171	18	1,465	965

**2) 자생 단체**

부평2동의 자생 단체는 8종류이다. 각 자생 단체별 소속된 인원은 주민자치위원회 23명, 통장자율회 26명, 방위협의회 15명, 지역사회보장협의체 18명, 부녀회 10명, 주민참여예산지역위원회 17명, 청소년지도위원회 11명, 풍물단 14명이다.

**표 6** 부평2동 자생 단체 현황

(2019.12.31.기준, 단위: 명)

주민자치위원회	통장자율회	방위협의회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부녀회	주민참여예산지역위원회	청소년지도위원회	풍물단
23	26	15	18	10	17	11	14

**3) 사회복지 대상자**

부평2동의 사회복지 대상의 세대수는 4,535세대, 인구수는 5,932명이다. 이 중 기초생활수급자는 1,077세대, 1,824명, 한부모가족은 124세대, 300명, 장애인은 1,341세대, 1,341명 기초연금 수급대상은 1,993세대, 2,467명이다.

**표 7** 부평2동 사회복지 대상 현황

(2019.12.31.기준, 단위: 세대/명)

합계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장애인	기초연금
4,535/5,932	1,077/1,824	124/300	1,341/1,341	1,993/2,467

**4) 주요 시설**

부평2동의 주요 시설은 공공기관 4개소, 복지시설 5개소, 경로당 4개소, 어린이집 8개소, 학교 3개소, 병·의원 12개소, 약국 6개소, 금융기관 1개소, 종교시설 27개소이다.

**표 8** 부평2동 주요 시설 현황

(2019.12.31.기준, 단위: 개소)

공공기관	복지시설	경로당	어린이집	학교	병·의원	약국	금융기관	종교시설
4	5	4	8	3	12	6	1	27

**3. 부평3동**

1946년 부평동에서 분동되어 부평3동이 되었다. 1956년에는 부평3동과 십정2동이 부평2동에 흡수되었다가 이듬해 다시 분동되었다. 1977년 시 조례 제1075호에 의하여 부평3동과 십정2동을 부평3동으로 개칭하였다. 1981년에 직할시 승격에 따라 인천직할시 북구 부평3동이 되었다. 1990년 구 조례 제182호에 따라 부평3동과 산곡3동으로 분동되었으며, 1995년에 광역시 승격과 북구가 부평구로 개칭됨에 따라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3동이 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 부평3동 행정구역(출처: 국토정보플랫폼 국토정보맵)

부평3동은 백운역을 중심으로 남과 북에 걸쳐 형성되어 있다. 경원대로와 경인로, 마장로가 지나가는 교통의 요충지이며, 법성산과 부평공원이 있어 풍부한 녹지를 자랑한다. 부평3동 중에서 경원대로와 부평공원이 감싸고 있는 지역을 부평 사람들은 ‘신촌’이라고 부른다. 이 지역은 1930년대까지만 해도 민가가 거의 없는 허허벌판이었다. 인근에 인천육군조병창과 히로나카상공(후에 미쓰비시제강) 등이 건설된 후 외지인들이 모여들어 집을 짓고 마을을 형성하면서 ‘새로운 마을’, 즉 ‘신촌’이 되었다.

부평3동은 시대에 따라 큰 변화를 겪었는데, 1950~1960년대에는 미군 기지와 인접한 지리적 요인으로 기지촌 여성이 집단 거주하는 공간이 되었다. 클럽과 같이 미군을 상대하는 상업 시설이 집중적으로 모여 있었다. 그러나 1973년에 미군 부대가 여러 지역으로 이전하면서 상업 시설은 해체되고 그간 부평3동을 가득 채웠던 기지촌 여성들 역시 사라지게 되었다.

1983년 산곡동 현대아파트 건설과 1984년 백운역 개통으로 부평3동의 집값이 급격히 상승하였다. 이때를 기점으로 현재 경원대로를 따라 대규모의 상권이 형성되기도 하였다. 이와 맞물려 부평3동의 재개발 문제가 수면 위로 올라왔으나, 큰 변화를 가져오진 못했다.



❖ 항공에서 본 신촌사거리(출처: 부평구청)

### 1) 인구·면적

부평3동의 면적은 1.0km<sup>2</sup>로 부평구 전체 면적의 3.3%에 해당된다. 2019년 12월 31일 기준 세대수는 6,407세대, 인구수 1만 3,448명(남자 6,715명, 여자 6,733명)이다. 행정구역은 22동 134반으로 구성되어 있고, 행정 인력은 13명이다. 민방위는 864명, 예비군은 776명이 편성되어 있다.

표 9 부평3동 기본 현황

(2019.12.31.기준, 단위: km<sup>2</sup>·%·세대·명)

면적	세대수	인구수			행정구역		행정인력	민방위	예비군
		계	남	여	동	반			
1.0 (구의 3.3)	6,407	13,448	6,715	6,733	22	134	13	864	776

### 2) 자생 단체

부평3동의 자생 단체는 7종류이다. 각 자생 단체별 소속된 인원은 주민자치위원회

23명, 통장자율회 18명, 방위협의회 15명, 지역사회보장협의체 15명, 주민참여예산지역위원회 15명, 청소년지도위원회 7명, 풍물단 16명이다.

표 10 부평3동 자생 단체 현황

(2019.12.31.기준, 단위: 명)

주민자치위원회	통장자율회	방위협의회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주민참여예산지역위원회	청소년지도위원회	풍물단
23	18	15	15	15	7	16

### 3) 사회복지 대상자

부평3동의 사회복지 대상의 세대수는 3,602세대, 인구수는 4,391명이다. 이 중 기초생활수급자는 884세대, 1,197명, 한부모가족은 83세대, 204명, 장애인은 1,012세대, 1,012명, 기초연금 수급대상은 1,623세대, 1,978명이다.

표 11 부평3동 사회복지 대상 현황

(2019.12.31.기준, 단위: 세대/명)

합계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장애인	기초연금
3,602/4,391	884/1,197	83/204	1,012/1,012	1,623/1,978

### 4) 주요 시설

부평3동의 주요 시설은 공공기관 5개소, 복지시설 2개소, 경로당 5개소, 어린이집 6개소, 학교 5개소, 병·의원 25개소, 약국 9개소, 금융기관 3개소, 종교시설 28개소이다.

표 12 부평3동 주요 시설 현황

(2019.12.31.기준, 단위: 개소)

공공기관	복지시설	경로당	어린이집	학교	병·의원	약국	금융기관	종교시설
5	2	5	6	5	25	9	3	28

## 4. 부평4동



❖ 부평4동 행정구역(출처: 국토정보플랫폼 국토정보맵)

1968년, 동세 확장으로 부평1동은 부평1동 동부동과 부평1동 서부동으로 나뉘었고, 1970년 부평1동은 또 한 번 부평1동 동부동과 부평1동 중부동으로 분동되었다.

1977년 5월 시 조례 제 1075호에 의하여 부평1동 동부동을 부평4동으로 개칭하였다. 1981년에 직할시 승격에 따라 인천직할시 북구 부평4동이 되었으며, 1995년에는 광역시 승격과 더불어 북구가 부평구로 개칭됨에 따라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4동이 되었다.

부평강시장, 부평진흥종합시장, 부평종합시장 등 대규모 시장과 더불어 부평구청과

부평보건소 등이 위치하고 있어 부평 상권과 행정의 중심지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최근 부평대로36번길과 부평대로38번길 일대에 청년 사업가들이 유입되어 새로운 상권을 형성하였는데 ‘평리단길’이라 부른다.

### 1) 인구·면적

부평4동의 면적은 1.04km<sup>2</sup>로 부평구 전체 면적의 3.25%에 해당된다. 2019년 12월 31일 기준 세대수는 1만 7,408세대, 3만 7,453명(남자 1만 8,554명, 여자 1만 8,899명)이다. 행정구역은 37통 224반으로 구성되어 있고, 행정 인력은 20명이다. 민방위는 3,461명, 예비군은 2,315명이 편성되어 있다.

표 13 부평4동 기본 현황

(2019.12.31.기준, 단위: km<sup>2</sup>%·세대·명)

면적	세대수	인구수			행정구역		행정 인력	민방위	예비군
		계	남	여	통	반			
1.04 (구의 3.25)	17,408	37,453	18,554	18,899	37	224	20	3,461	2,315

### 2) 자생 단체

부평4동의 자생 단체는 8종류이다. 각 자생 단체별 소속된 인원은 주민자치위원회 23명, 통장자율회 37명, 방위협의회 20명, 지역사회보장협의체 18명, 부녀회 17명, 주민참여예산지역위원회 9명, 청소년지도위원회 16명, 풍물단 16명이다.

표 14 부평4동 자생 단체 현황

(2019.12.31.기준, 단위: 명)

주민자치위원회	통장자율회	방위협의회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부녀회	주민참여예산지역위원회	청소년지도위원회	풍물단
23	37	20	18	17	9	16	16

### 3) 사회복지 대상자

부평4동의 사회복지 대상의 세대수는 5,855세대, 인구수는 7,428명이다. 이 중 기초생활수급자는 1,226세대, 1,770명, 한부모가족은 199세대, 499명, 장애인은 1,625세대, 1,729명, 기초연금 수급대상은 2,805세대, 3,430명이다.

표 15 부평4동 사회복지 대상 현황

(2019.12.31.기준, 단위: 세대/명)

합계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장애인	기초연금
5,855/7,428	1,226/1,770	199/499	1,625/1,729	2,805/3,430

### 4) 주요 시설

부평4동의 주요 시설은 공공기관 6개소, 경로당 5개소, 어린이집 16개소, 학교 5개소, 병·의원 49개소, 약국 23개소, 금융기관 8개소, 종교시설 48개소이다.

표 16 부평4동 주요 시설 현황

(2019.12.31.기준, 단위: 개소)

공공기관	복지시설	경로당	어린이집	학교	병·의원	약국	금융기관	종교시설
6	-	5	16	5	49	23	8	48

## 5. 부평5동

1970년 시 조례 제628호에 의하여 부평1동 동부동에서 부평1동 중부동으로 분동되어 신설되었다. 1977년 시 조례 제1075호에 의하여 부평1동 중부동이 부평5동으로 개칭되었고 1995년 광역시 승격과 더불어 북구가 부평구로 개칭됨에 따라 인천광역시 부평

구 부평5동이 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부평5동은 장제로 동편으로 길게 뻗어있으며 부평 문화의 거리와 해물탕거리를 포함하고 있다. 장제로를 기준으로 동편에는 주로 주거 단지가 조성되어 있으며 서편에는 상업 단지가 조성되어 있다.



❖ 부평5동 행정구역(출처 : 국토정보플랫폼 국토정보맵)

시장로터리를 기준으로 대정로와 시장로, 부평문화로 사이의 공간은 부평에서 가장 많은 상업시설이 밀집된 곳이며 그만큼 유동 인구도 많다. 2020년 인천 개별 공시지가 발표에 따르면 부평대로 28(부평동 19-945)에 위치한 금강제화 건물용지가 m<sup>2</sup>당 308만 원으로 인천에서 가장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 1) 인구·면적

부평5동의 면적은 0.83km<sup>2</sup>로 부평구 전체 면적의 2.59%에 해당된다. 2019년 12월 31일 기준 세대수는 1만 5,665세대, 인구수는 3만 4,287명(남자 1만 6,994명, 여자 1만

7,293명)이다. 행정구역은 38통 232반으로 구성되어 있고, 행정 인력은 19명이다. 민방위는 3,275명, 예비군은 2,133명이 편성되어 있다.

표 17 부평5동 기본 현황

(2019.12.31.기준, 단위: km<sup>2</sup>%세대·명)

면적	세대수	인구수			행정구역		행정 인력	민방위	예비군
		계	남	여	통	반			
0.83 (구의 2.59)	15,665	34,287	16,994	17,293	38	232	19	3,275	2,133

### 2) 자생 단체

부평5동의 자생 단체는 9종류이다. 각 자생 단체별 소속된 인원은 주민자치위원회 40명, 통장자율회 34명,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10명, 방위협의회 14명, 지역사회보장협의체 10명, 부녀회 16명, 주민참여예산지역위원회 15명, 청소년지도위원회 13명, 품물단 34명이다.

표 18 부평5동 자생 단체 현황

(2019.12.31.기준, 단위: 명)

주민자치위원회	통장자율회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방위협의회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부녀회	주민참여예산지역위원회	청소년지도위원회	품물단
40	34	10	14	10	16	15	13	34

### 3) 사회복지 대상자

부평5동의 사회복지 대상의 세대수는 6,889세대, 인구수는 9,363명이다. 이 중 기초생활수급자는 2,815세대, 4,165명, 한부모가족은 227세대, 553명, 장애인은 1,401세대, 1,622명, 기초연금 수급대상은 2,446세대, 3,023명이다.

표 19 부평5동 사회복지 대상 현황

(2019.12.31.기준, 단위: 세대/명)

합계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장애인	기초연금
6,889/9,363	2,815/4,165	227/553	1,401/1,622	2,446/3,023

#### 4) 주요 시설

부평5동의 주요 시설은 공공기관 2개소, 복지시설 24개소, 경로당 4개소, 어린이집 11개소, 학교 1개소, 병·의원 51개소, 약국 20개소, 금융기관 6개소, 종교시설 29개소이다.

표 20 부평5동 주요 시설 현황

(2019.12.31.기준, 단위: 개소)

공공기관	복지시설	경로당	어린이집	학교	병·의원	약국	금융기관	종교시설
2	24	4	11	1	51	20	6	29

### 6. 부평6동

1946년에 부평동에서 분동되어 부평2동에 포함되었다가 1970년 시 조례 제628호에 의하여 부평2동 동수동으로 다시 분동되었다. 1977년 시 조례 제1075호에 의하여 부평2동 동수동을 부평6동으로 개칭하였다. 1981년에 직할시 승격으로 인천직할시 북구 부평6동으로 되었다가 1995년에 광역시 승격과 북구가 부평구로 개칭됨에 따라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6동이 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부평6동은 부평역 남쪽에 위치하고 있다. 마을의 동서를 가로질러 경인로가, 남북으로는 장제로가 지나고 있다. 부평6동의 많은 면적을 차지하는 것은 가톨릭대학교 인천성모병원이다. 부평동 633번지 일대에 경찰종합학교가 넓게 위치하고 있었으나 2009년에 아산으로 이전하였고, 성모병원이 일부 부지를 매입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다.

2017년, 부평6동 행정복지센터가 부평경찰학교가 있었던 현재 위치(동수로 70)로 이전하였으며, 2022년 개관을 목표로 일부 부지에 노인문화센터 건립 공사가 진행 중에 있다.

2010년에는 부평동 665번지 일대(8만 720.2㎡)를 중심으로 한 부평4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의 시행 인가를 받아 향후 2,486세대가 유입될 예정이다.



❖ 부평6동 행정구역(출처: 국토정보플랫폼 국토정보맵)

#### 1) 인구·면적

부평6동의 면적은 0.8km<sup>2</sup>로 부평구 전체 면적의 2.38%에 해당되며, 부평동 중에 가장 작다. 2019년 12월 31일 기준 세대수는 7,092세대, 인구수는 1만 5,081명(남자 7,475명, 여자 7,606명)이다. 행정구역은 21통 135반으로 구성되어 있고, 행정 인력은 14명이다. 민방위는 1,281명, 예비군은 817명이 편성되어 있다.

표 21 부평6동 기본 현황

(2019.12.31.기준, 단위: km<sup>2</sup>·%·세대·명)

면적	세대수	인구수			행정구역		행정인력	민방위	예비군
		계	남	여	통	반			
0.8 (구의 2.38)	7,092	15,081	7,475	7,606	21	135	14	1,281	817

### 2) 자생 단체

부평6동의 자생 단체는 8종류이다. 각 자생 단체별 소속된 인원은 주민자치위원회 22명, 통장자율회 20명, 방위협의회 17명, 지역사회보장협의체 19명, 부녀회 11명, 주민참여예산지역위원회 16명, 청소년지도위원회 13명, 풍물단 20명이다.

표 22 부평6동 자생 단체 현황

(2019.12.31.기준, 단위: 명)

주민자치위원회	통장자율회	방위협의회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부녀회	주민참여예산지역위원회	청소년지도위원회	풍물단
22	20	17	19	11	16	13	20

### 3) 사회복지 대상자

부평6동의 사회복지 대상의 세대수는 3,039세대, 인구수는 3,722명이다. 이 중 기초생활수급자는 648세대, 892명, 한부모가족은 68세대, 158명, 장애인은 897세대, 897명, 기초연금 수급대상은 1,426세대, 1,775명이다.

표 23 부평6동 사회복지 대상 현황

(2019.12.31.기준, 단위: 세대/명)

합계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장애인	기초연금
3,039/3,722	648/892	68/158	897/897	1,426/1,775

### 4) 주요 시설

부평6동의 주요 시설은 복지시설 4개소, 경로당 5개소, 어린이집 10개소, 학교 1개소, 병·의원 9개소, 약국 16개소, 금융기관 3개소, 종교시설 22개소이다.

표 24 부평6동 주요 시설 현황

(2019.12.31.기준, 단위: 개소)

공공기관	복지시설	경로당	어린이집	학교	병·의원	약국	금융기관	종교시설
-	4	5	10	1	9	16	3	22

## | 제4절 | 문화유산 및 명소

### 1. 부평공원

부평공원은 부평동 299번지에 위치하고 있다. 일제강점기에는 히로나카상공과 미쓰비시제강으로 이어지는 공장 터였고, 해방 후에는 미군과 국군이 주둔하기도 했다. 육군 88정비부대가 1995년까지 이곳을 지켰고 이후 2002년에 부평공원으로 개장하였다.

부평공원이 조성되는 과정은 순탄치 않았다. 1992년에 국방부가 육군 88정비부대의 이전 계획을 내놓자 인천시도 이에 맞춰 공원조성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면서 도시

계획을 수립했는데 토지매입비용 문제로 처음부터 여러 잡음이 있었다. 인천시가 공원 조성의 계획을 발표하자 부대 측은 ‘현재 준주거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곳을 공원 지역으로 지정할 경우 토지보상비가 떨어질 것을 우려해 부대 이전의 어려움’을 주장했다.<sup>10</sup>

토지보상문제에 따른 인천시와 군부대의 지루한 싸움은 1995년, 3만 1,515평 부지에 대한 매매 협약을 체결하면서 일단락되었다. 인천시는 군부대가 철수하는 1997년부터 공원조성 계획을 수립하고, 1998년부터 조성 공사에 착수해 2002년까지 완공할 것이라는 계획을 발표하였다.<sup>11</sup>



❖ 1996년 부평공원 조성 전 해당 부지에 자리했던 육군 88정비부대(출처 : 부평구청) 미쓰비시제강의 건물이 당시까지 잘 남아 있었다.



❖ 2001년 부평공원 조성 모습(출처 : 부평구청)

부평공원에 들어서면 2개의 조형물이 나란히 설치되어 있다. 하나는 ‘평화의 소녀상’이고 또 하나는 ‘징용노동자상’이다. ‘평화의 소녀상’은 인천평화의소녀상건립추진위원회가 주축이 되어 시민 모금을 통해 2016년 10월에 건립되었다. 의자에 앉아 정면을 응시하는 다른 지역의 소녀상과 달리 맨발로 우뚝 서 주먹을 쥐고 있는 모습이 특징이다.

2018년 8월 12일, 평화의 소녀상 옆으로 징용노동자상 ‘해방의 예감’이 건립되었다. 같은 날 서울 용산에서 처음 제막식이 열렸고, 부평은 전국에서 두 번째였다. 인천 징용노동자상은 지영례와 이연형을 모티브로 하여 제작됐다. 지영례는 소화고등여학교를 다니던 중, 근로정신대로 징용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학교를 자퇴하고 인천육군조병창에 들어가 해방이 될 때까지 조병창 내에 있던 병원에서 보조 업무를 맡았다.<sup>12</sup>

이연형은 1939년 10월부터 1941년 5월까지 히로나카상공 부평공장 직공으로 근무하며 독립운동 자금을 지원하던 것이 일본 경찰에 발각되어 치안유지법 위반으로 1년의 징역을 선고받았다. 히로나카상공 부평공장에서 직공으로 있으며 독립운동 자금을 낸

10 「부평 군주둔지 공원 지정 부대쪽 ‘땅값 하락’ 반발」, 『한겨레신문』, 1992년 6월 13일자.

11 「富平 88정비대 근린공원 조성」, 『매일경제』, 1995년 8월 9일자.

12 김현석, 『우리 마을 속의 아시아태평양전쟁유적 : 인천광역시 부평구』, 도서출판 선인, 2019, 54~55쪽.

사람은 이연형 외 또 한 명이 있었다. 바로 정재철이다. 이연형과 정재철은 윤석균을 통해 1940년부터 독립운동 자금 전달을 하게 되었다.

윤석균은 이들에게 자신을 수원에 본부를 둔 ‘조선독립당(朝鮮獨立黨)’ 당원이라 소개하면서, 조선독립당에서 일제에 맞서 싸우고 있으니 이연형과 정재철에게 독립운동 자금을 내는 것을 권유하였다.

정재철과 이연형 모두 이십 대 초반의 젊은 청년들이었으므로 큰돈이 있었을 리 만무했지만 그들의 재판 기록에 따르면 정재철은 520원, 이연형은 870원이라는 적지 않은 돈을 윤석균에게 준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이들이 믿어 의심치 않았던 윤석균은 독립운동가가 아니었으며 그가 속해 있다고 한 ‘조선독립당(朝鮮獨立黨)’도 실체가 없는 조직이었다.

조국의 독립을 위해 위험을 무릅쓰고 독립운동 자금을 마련하여 이로 인해 일본 경찰에 체포되어 옥고를 거친 이 사건은 윤석균과 또 한 명의 동조자 송치호의 사기 사건이었던 것이다.<sup>13</sup>

비록 정재철과 이연형이 낸 돈이 독립운동 자금으로 쓰이지는 못했지만 그들의 순수한 마음마저 폄훼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2002년 4월 12일에 개장한 부평공원은 현재 11만 3,123㎡ 규모로 산책로와 광장, 야외무대가 조성되어 있고 다양한 체육시설 등이 마련되어 있는 부평 주민의 대표적 휴식 공간으로 자리매김하였다.

13 정재철과 이연형의 사기 사건 피해 내용은 「인천시민의 항일운동-사기 사건 피해자가 치안유지법 위반자로」(인천문화재단 인천문화유산센터, 『인천역사통신』27, 2020)를 참고하였다.



❖ 부평공원에 세워진 ‘평화의 소녀상’과 ‘징용노동자상’

## 2. 미쓰비시 사택

부평2동에 위치하고 있는 미쓰비시 사택은 구사택과 신사택으로 나뉜다. 흔히 말하는 ‘미쓰비시 즐사택’은 신사택지를 말하며 부영로 서편에 위치하고 있다. 구사택은 안남로를 기준으로 하여 동편에 위치하고 있다. 사택을 건설한 것은 미쓰비시가 아닌 히로나카상공이었다. 1938년, 히로나카상공이 시장 확대를 위해 경성공장에 이어 제2공장으로 부평공장 건설을 결정하였고 동시에 사택의 건설 역시 이루어졌다.

### 부평역전 일대에 지가아연양등(地價俄然昂騰)!<sup>14</sup>

경인선 부평 역전 대정리 평야에 경성 흥중상회에서 공장을 설치하고 또 사원의 사택을 지으려고 삼만평의 기지를 매수하였다 한다. 그래서 이 일대에는 지가가 갑자기 올라 매평에 이원 내지 이원오십전의 호가를 하고 있다고 한다.

14 「부평역전 일대에 地價俄然昂騰!」, 『조선일보』, 1938년 4월 10일자.

그러나 히로나카상공은 무리한 사세 확장에 따른 자금난과 급격한 수익률 저하로 인해 경영 파탄에 이르렀고 1942년 6월, 부평공장을 미쓰비시중공업에 매각하였다. 이후 미쓰비시중공업이 미쓰비시제강으로 재편되면서 히로나카상공의 공장과 사택은 미쓰비시의 소유가 되어 오늘날까지 미쓰비시 사택으로 불리고 있다.

표 25 1942년 7월 미쓰비시제강 부평공장 자산 규모<sup>15</sup>

<b>토지</b>	공장용지 : 31,958평 사택용지 : 54,664평 계 : 86,622평	<b>사택 건물</b>	직원 사택 : 88동 연 1,389평 공원 사택 : 26동 연 1,197평 합숙소·공동목욕탕 : 50동 연 1,221평 합계 : 164동 연 3,807평
-----------	---	--------------	--

표 26 미쓰비시제강 이후 사택 건립<sup>16</sup>

(단위: 년·동)

구분 \ 연도	1943	1944	1947	합계
직원 사택	3	6	88	97
공원 사택	6	10	26	42
합숙소 및 공동목욕탕	2	-	50	52
계	11	16	164	191

미쓰비시는 사택을 인수한 뒤 추가로 사택을 건립하였다. 1943년 11월에 제조설비신설허가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직원 사택 3동과 공원 사택 6동, 합숙소 1동, 공동목욕탕 1동을 추가로 건설하기로 한다. 이 건물들은 1944년에 완공되었으며 같은 해 11월에 또다시 총독부에 사업설비 확장 허가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서에는 직원 사택 6동, 공원

15 미쓰비시제강(주)사사편찬위원회, 『미쓰비시제강 40년사(三菱製鐵 40年史)』, 미쓰비시제강주식회사, 1985년, 257쪽.

16 부평역사박물관, 『미쓰비시를 품은 여백, 사택마을 부평삼릉』, 부평역사박물관, 2016, 150쪽.

사택 10동을 추가로 짓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1947년을 기준으로 사택지 내 건물은 직원사택 97동, 공원사택 42동, 합숙소 및 공동목욕탕 52동으로 총 191동의 건물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미쓰비시 사택은 해방 후 민간에 불하되어 일반 주택지로 그 역할을 하였으나 시설 노후로 인한 크고 작은 민원이 상시적으로 발생하였다. 오늘날 사택 부지 대부분이 부평 2구역 재개발 정비사업 구역으로 지정되어 철거를 앞두고 있다. 또한, 미쓰비시 10호 사택이 있던 자리에는 지난 2018년에 부평2동 행정복지센터와 공동주민시설이 설립되었다.

### 3. 부평역

부평역은 1899년에 경인철도의 개통과 동시에 운영되었다. 과거 경인철도가 개통되기 전까지 부평의 중심지는 부평도호부가 있는 계양산 남쪽, 지금의 계산동이었으나 경인철도 개통으로 인해 부평의 중심지는 부평역 근처로 이동하게 되었다.

경인철도 개통 직후에는 부평역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경인철도 개통 후 30년이 훌쩍 넘는 1934년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부평역에 전기 가설이 이루어졌다는 신문 기사가 이를 반증한다.

#### 부평역 전기가설<sup>17</sup>

경인선 십 개 역 중 부평역만이 전기가 없어 경인간 완전 전화가 불가능하였는데 □□번 부평역 역사 신축과 같이 전기를 가설하여 경인간은 완전히 전화된 것으로 현재 착공 공사 진행 중인 경인도로가 완성되면 드디어 경인일체는 실현될 것이라 한다.

1940년을 전후하여 부평 평야 지대로 인천육군조병창을 비롯한 각종 공장들이 들어서게 되면서 부평역을 이용하는 승객과 화물이 급증하였다. 1940년 당시 부평역의 승객은 일평균 3,000명에 달했고 화물량 역시 이와 비례하여 폭발적으로 증가하였다. 당시

17 「부평역 전기가설」, 『동아일보』, 1934년 12월 27일자.

의 역사(驛舍) 규모로는 수용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자 신속한 지 불과 5년밖에 되지 않는 역사를 4배 규모로 증축하는 것을 결정하였다.<sup>18</sup>

해방 후 부평역은 여러 차례 역사의 신·증축이 이루어지는데 2000년 2월 21일, 지하 3층, 지상 7층, 연면적 1만 4,884평의 신축 역사가 준공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표 27 부평역 연간 수송 인원<sup>19</sup>

(단위: 년·명)

구분 \ 연도	2017	2018	2019	2020
승차	11,708,205 (일평균 32,077)	11,606,075 (일평균 32,154)	11,534,617 (일평균 31,602)	8,027,538 (일평균 21,933)
하차	12,266,053 (일평균 33,611)	11,613,594 (일평균 31,818)	12,035,311 (일평균 32,973)	8,284,294 (일평균 22,635)

#### 4. 철도 관사

철도종사원들은 철도가 부설되면 평상시에 철도를 원활히 운영(운전, 영업, 보안, 보존, 개량 등)하고, 유사시에 특별한 임무(군사 수송 등)를 신속히 수행하기 위하여 철도와 가까운 장소에 거주할 필요가 있었다. 그리하여 조선총독부 철도국은 종사원에게 평상시의 원활한 임무 수행과 유사시의 신속한 대응을 요구하는 대신, 그들에게 출근과 퇴근은 물론 생활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근무지 근처에 주거 시설을 제공하였다. 그러므로 일제가 한국에서 건립한 철도관사는 종사원들이 낮설고 물설은 외국에서 철도 운영에 헌신하고 ‘철도 가족’으로서 결속을 다지기 위해 마련해준 집단 거주 시설이었다고 볼 수 있다.<sup>20</sup>

18 「부평역 개축」, 『매일신보』, 1940년 8월 3일자.

19 코레일 광역철도 홈페이지(<http://info.korail.com/>) 수송통계 자료를 참고하였다.

20 한국철도문화재단, 『2019 新한국철도사 총론』, 국토교통부, 2019, 64쪽.

부평역 철도관사 단지는 지금의 부평 남부역 인근에 2호 연립의 관사 16동(32호)으로 조성되었다.



❖ 1947년 부평 철도관사 항공사진(출처: 인천광역시 지도포털)

현재는 다수가 철거되었고 부평동 697-22번지와 725-9번지 총 2호만이 남아있다.



❖ 2020년 부평동 697-22번지(좌)와 725-9번지(우) 철도관사

## 5. 조선국산자동차(주) 사택

1938년 2월, 조선국산자동차(주)는 부평역 부근에 20여만 평의 공장 부지를 매수하였다. ‘조선국산자동차(朝鮮國產自動車)’라 하여 한국산 자동차를 만들었을 것이라 생각할 수 있지만 일본 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조선에 위치한’ 공장에 불과했으며, ‘국산’은 ‘한국산’이 아닌 일본산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공장 부지 매입 후 조선국산자동차(주)와 도쿄자동차공업(주)의 합병 문제가 제기된다. 도쿄자동차공업(주)은 1937년 4월, 일본의 자동차공업(주)과 도쿄가스전기공업(주)이 합병하여 출범한 회사로 군용 트럭을 위주로 제조하고 있었는데, 조선국산자동차(주)에서 매수한 부지에 승용차 제조 공장을 건립하고자 하였다. 1939년에 두 회사의 합병이 이루어졌으나 당초 계획과 달리 부평의 공장 부지에는 자동차 제작소가 아닌 자동차용 스프링 공장이 건립되었다. 지금의 미산초등학교 위치다.

합병이 이루어진 직후 이전의 국산자동차 임원들이 주축이 되어 또 다른 국산자동차(주)를 설립하여<sup>21</sup> 새롭게 부평에 진출한다.

1941년 4월, 도쿄자동차공업(주)은 디젤자동차 전용 허가를 받아 디젤자동차공업(주)으로 개칭하였고, 오늘날 부평고등학교 자리에 공장과 사택을 건축하였으나 모두 철거되어 사라졌다. 새롭게 설립한 국산자동차(주) 역시 1941년에 사택 건축을 신청하여 2호 연립사택 15동이 운영되었으나 현재는 극히 일부만 남아있는 상황이며, 이마저도 변형이 심해 원형을 확인하기 어렵다.

## 6. 박영근 시비

시인 박영근(1958~2006)은 구로공단 등지에서 노동자 생활을 하다가 1981년 『반시(反詩)』 6집에 「수유리에서」 등을 발표하며 작품 활동을 시작하였다. 1985년에 부평으로 이주하여 2006년에 짧은 생을 마감할 때까지 노동자의 삶을 담은 다양한 작품을 발

21 「국산자동차 설립(國產自動車 設立)」, 『동아일보』, 1939년 6월 18일자.

표하였다. 1980년대 후반 민주화 운동 현장에서 불려진 안치환의 노래 「술아 푸르른 술아」는 1984년 발표한 첫 시집 『취업공고관 앞에서』에 수록된 「술아 술아 푸른 술아-백제 6」의 주요 구절을 차용하여 노랫말을 만든 것이다.

2012년에 9월, 신트리공원에 박영근 시비가 건립되었다. 시비 앞면에는 박영근 시인의 「술아 푸른 술아-백제 6」의 육필 그대로 새겨졌고, 뒷면에는 시인의 약전과 건립문이 새겨져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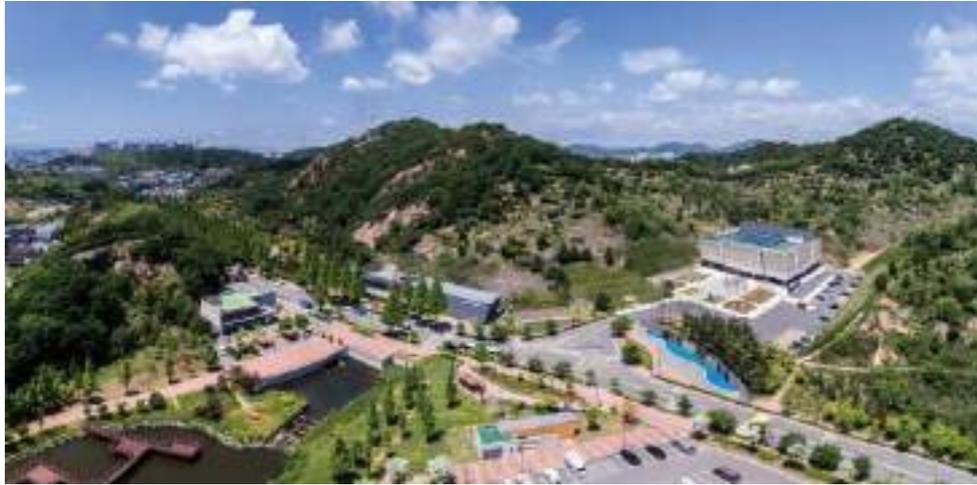
박영근 시인의 추모제와 문학상 시상식이 매해 신트리공원에서 진행된다.



❖ 신트리공원에 세워진 박영근 시비(출처 : 부평구청)

## 7. 인천가족공원

인천 최초의 공동묘지는 ‘화동공동묘지’이며, 1916년 남구 관교동에 ‘승기리공동묘지’가 뒤이어 조성되었다. 승기리공동묘지는 후에 주안공동묘지로 이름을 바꾸는데 이 두 곳이 포화 상태에 이르자 인천시는 1947년 부평에 공동묘지를 조성하였다.



❖ 인천가족공원 입구측 전경과 계단식 묘역(출처 : 부평구청)

1960년대 택지 계획에 따라 화동공동묘지와 주안공동묘지의 분묘를 부평으로 이전하였고, 연고가 없는 무덤의 경우 유골을 화장하여 납골당에 안치하였다.<sup>22</sup>

1979년, 인천시는 장묘관리사무소를 설치하여 묘지 관리를 하였고 1987년에는 재인

22 배성수, 『시간을 담은 길-경인가로 따라 인천을 걷다』, 글누림, 2016, 262쪽.

(在仁)중국인 묘역을 조성하였다.

1993년 5월에는 부평공설묘지 약 500여 평이 붕괴되어 묘 100여 기와 도로 일부가 함몰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사고 원인으로 공동묘지 지하 135m 정도에 방치되어 있던 광산의 갱도가 무너진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 광산은 일제강점기 때부터 은을 채굴해 오다가 1988년에 폐광한 것이다. 이 사고 이후 인천시는 부평공설묘지에 대한 정비작업 계획을 마련하였고 분묘의 수용 능력 확대와 수목원 운동시설, 장례식장 및 납골당 설치 등 공원 기능을 갖춘 공원묘원으로 조성할 계획을 발표하였다.

2003년에 화장로 증축을 완공하여 총 11기의 화장로를 운영하게 되었고 이듬해에는 ‘추모의 집’도 완성하였다.

2006년, 부평묘지공원에서 인천가족공원으로 명칭을 변경하였고, 자연장 건립 및 생태하천 복원 등 환경친화적인 장묘시설 조성사업을 추진하였다. 그리고 2007년에 금마총과 2010년에 만월당 건립을 완성하였다.

2014년에 발생한 ‘세월호 참사’에서 단원고 학생과 교사를 제외한 일반인 희생자를 위한 추모관이 2016년 4월 16일에 문을 열었다. 리본 모양을 형상화한 추모관은 지상 2층, 연면적 486㎡ 규모로 30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되었다. 한편, 1880년대부터 인천의 개항과 근대화를 경험한 12개국의 외국인이 청학동 외국인 묘지에 안장되어 있었는데, 2017년에 66기의 묘지가 인천가족공원으로 완전 이장되었다.

2020년, 인천시는 총 사업비 7억 4,000만 원을 투입하여 4,144기 규모의 국가유공자 묘역을 별도 조성하는 사업을 발표하여 2021년부터 운영 예정에 있다.

인천가족공원의 시설 현황은 다음과 같다.<sup>23</sup>

23 인천시설공단 홈페이지(<https://www.insiseol.or.kr/main/>) 인천가족공원 자료를 참고하였다.

표 28 인천가족공원 시설 현황

(단위: m<sup>2</sup>-기)

시설명	면적	규모	비고
승화원	5,608.22	화장로 20	1일 72구 확장 가능
금마총	818.97	16,675	2010.5.23. 만장
추모의 집	2,248.31	19,320	2007.12.29. 만장
만월당	3,701.29	29,184	2015.2.24. 만장
평은당	5,425.08	36,656	2020.7.14. 만장
별빛당	5,451.97	39,000	2020.7.14. 안치 시작
묘지	1,681,139	38,607	일반묘 31,243기 / 조성묘 7,364기
자연장	23,500	418주 1,366	2012.6.29. 만장
회랑형 봉안담	272.16	3,990	
봉안담 I	189.88	1,140	
봉안담 II	255.84	1,696	
봉안담 III	518.4	4,144	
외국인 묘역	1,145.03	9,390	

제5절 | 교육기관<sup>24</sup>

1. 초등학교

부평동 소재 초등학교는 개흥초등학교, 부원초등학교, 부평남초등학교, 부평동초등학교, 부평서초등학교, 부흥초등학교 총 6개교이며, 인천광역시 북부교육지원청에서 관할한다.

24 학교 알리미 홈페이지(<https://www.schoolinfo.go.kr>) 및 각 학교 홈페이지를 참고하였다.

1) 개흥초등학교

공립 개흥초등학교는 1991년 3월 1일에 설립 인가를 받아 1992년 5월 4일에 개교하였다. 2020년 기준, 학생 수는 440명(남 216명, 여 224명)이며, 교원 수는 29명(남 5명, 여 29명)이다. 1학년은 3학급 70명, 2학년은 3학급 63명, 3학년은 3학급 78명, 4학년은 3학급 67명, 5학년은 3학급 67명, 6학년은 4학급 86명이다. 교원 중 수업 교원은 24명이며, 수업 교원 1인당 학생 수는 18.3명이다.

인천광역시 부평구 길주남로65번길 11(부평4동 905번지)에 소재하고 있으며, 교화는 장미, 교목은 은행나무이다.

표 29 개흥초등학교 기본 현황

(2020년 기준, 단위: 명)

구분	학생 및 학급 수									교원 수	수업 교원 수	수업 교원 1인당 학생 수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5학년	6학년	특수 학급	순회 학급	계			
학급 수	3	3	3	3	3	4	2	0	21			
학생 수	70	63	78	67	67	86	9	-	-	29	24	18.3
학급당 학생 수	23.3	21	26	22.3	22.3	21.5	4.5	0	21			

2) 부원초등학교

공립 부원초등학교는 1982년 1월 21일에 설립 인가를 받아 같은 해 9월 1일에 개교하였다. 2020년 기준, 학생 수는 794명(남 405명, 여 389명)이다. 1학년은 5학급 126명, 2학년은 5학급 131명, 3학년은 5학급 122명, 4학년은 5학급 131명, 5학년은 5학급 133명, 6학년은 6학급 149명이다. 교원 중 수업 교원은 38명이며, 수업 교원 1인당 학생 수는 20.9명이다.

인천광역시 부평구 원적로472번길 29에 소재하고 있으며, 교화는 장미, 교목은 은행나무이다.

표 30 부원초등학교 기본 현황

(2020년 기준, 단위: 명)

구분	학생 및 학급 수									교원 수	수업 교원 수	수업 교원 1인당 학생 수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5학년	6학년	특수 학급	순회 학급	계			
학급 수	5	5	5	5	5	6	1	0	32	46	38	20.9
학생 수	126	131	122	131	133	149	2	0	794			
학급당 학생 수	25.2	26.2	24.4	26.2	26.6	24.8	2	0	24.8			

3) 부평남초등학교

공립 부평남초등학교는 1962년 10월 1일에 인가를 받아 1962년 11월 5일에 8학급으로 개교하였다. 2020년 기준, 학생 수는 959명(남 523명, 여 436명)이다. 1학년은 6학급 133명, 2학년은 7학급 171명, 3학년은 7학급 161명, 4학년은 7학급 155명, 5학년은 7학급 168명, 6학년은 6학급 159명이다. 3개 반의 특수학급이 있다. 교원 중 수업 교원은 50명이며, 수업 교원 1인당 학생 수는 19.2명이다.

표 31 부평남초등학교 기본 현황

(2020년 기준, 단위: 명)

구분	학생 및 학급 수									교원 수	수업 교원 수	수업 교원 1인당 학생 수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5학년	6학년	특수 학급	순회 학급	계			
학급 수	6	7	7	7	7	6	3	0	43	67	50	19.2
학생 수	133	171	161	155	168	159	12	0	959			
학급당 학생 수	22.2	24.4	23	22.1	24	26.5	4	0	22.3			

부평남초등학교는 핸드볼 명문으로 유명하다. 1986년에 창단한 핸드볼팀은 창단 첫 해부터 KBS배 전국초등학교 핸드볼대회 우승을 시작으로 전국대회에서 여러 차례 좋은

성적을 거뒀으며, 2004년 제33회 전국소년체전, 2005년 제34회 전국소년체전에서 2년 연속 우승을 차지하였다. 2019년에는 국내에서 가장 권위 있는 핸드볼 대회인 전국종별 핸드볼선수권대회에서 정상에 오르는 등 명실상부한 핸드볼 강호이다.



❖ 부평남초등학교

인천광역시 부평구 경인로911번길 28(부평동 743-1)에 소재하고 있으며, 교회는 라일락, 교목은 은행나무이다.

4) 부평동초등학교

부평동초등학교는 1940년 4월 6일 소화동 공립소학교로 설립 인가를 받아 4월 24일 개교하였다. 부평에서 처음 개교한 학교이자 가장 오랜 역사를 자랑하는 학교이다. 1941년 3월 19일에 제1회 졸업식을 거행했으며 1945년 9월 17일에 인천부평동국민학교로 교명을 변경하였다.

1950년 3월 9일, 원인 불명의 화재가 발생하여 교사가 모두 전소되는 피해를 입었다.<sup>25</sup> 이후 6·25전쟁의 발발로 교사 재건은 이루어지지 못하다가 1954년에 미군의 원조로 재건사업이 진행되었다.<sup>26</sup>

1952년에는 부개 분실을 부개국민학교로 독립시켰고, 1963년에는 부흥초등학교를 분리 및 신설하였다.



❖ 부평동초등학교 운동장과 미군 트럭(출처: 부평역사박물관)

2020년 기준, 학생 수는 973명(남 491명, 여 482명)이다. 1학년은 6학급 170명, 2학년은 7학급 182명, 3학년은 6학급 171명, 4학년은 6학급 155명, 5학년은 6학급 148명, 6학년은 5학급 133명이다. 교원 중 수업 교원은 44명이며, 수업 교원 1인당 학생 수는 22.1명이다.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대로88번길 19에 소재하고 있으며, 교화는 장미, 교목은 향나무이다.

25 「仁川東國民學校全燒 放火嫌疑로 調査中」, 『동아일보』, 1950년 3월 11일자.

26 「富平東國民學校再建 크라크准尉가 援助」, 『조선일보』, 1954년 4월 29일자.

표 32 부평동초등학교 기본 현황

(2020년 기준, 단위: 명)

구분	학생 및 학급 수									교원 수	수업 교원 수	수업 교원 1인당 학생 수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5학년	6학년	특수 학급	순회 학급	계			
학급 수	6	7	6	6	6	5	1	0	37	56	44	22.1
학생 수	170	182	171	155	148	133	14	0	973			
학급당 학생 수	28.3	26	28.5	25.8	24.7	26.6	14	0	26.3			

### 5) 부평서초등학교

부평서초등학교는 1946년 9월 1일에 개교하였다. 1987년에 양궁부를 창단하였는데 인천에서는 가장 오래되었다. 창단 이후 꾸준히 전국대회에서 수상 실적을 거뒀다. 2002년 전국소년체전 4관왕, 2003년 전국대회 2관왕, 2005년 전국대회 단체 1위, 2006년 회장기 전국대회 단체 1위, 2008년 회장기 전국대회 단체 3위와 개인 20m 3위를 수상함으로써 인천 양궁의 명성을 이어나가고 있다. 2020년 기준, 학생 수는 837명(남 418명, 여 419명)이다. 1학년은 5학급 128명, 2학년은 6학급 141명, 3학년은 6학급 136명, 4학년은 5학급 130명, 5학년은 6학급 141명, 6학년은 6학급 154명이다. 교원 중 수업 교원은 43명이며, 수업 교원 1인당 학생 수는 19.5명이다.

표 33 부평서초등학교 기본 현황

(2020년 기준, 단위: 명)

구분	학생 및 학급 수									교원 수	수업 교원 수	수업 교원 1인당 학생 수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5학년	6학년	특수 학급	순회 학급	계			
학급 수	5	6	6	5	6	6	2	0	36	52	43	19.5
학생 수	128	141	136	130	141	154	7	0	837			
학급당 학생 수	25.6	23.5	22.7	26	23.5	25.7	3.5	0	23.3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문화로53번길 19에 소재하고 있으며, 교화는 장미, 교목은 향나무이다.

### 6) 부흥초등학교

부흥초등학교는 1963년 12월 30일 설립 인가를 받아 1964년 3월 13일 10학급으로 개교하였다. 1975년, 축구부를 창단하여 1982년 제2회 맹호기쟁탈 전국시도대항 1위를 시작으로 2001년 한국 초등학교 연맹장기 우승, 2005년 제 5회 인천시장기초청전국대회 우승, 2007년 화랑대기 전국대회 3위, 2008년제26회 인천광역시 축구협회장기대회 3위 등 화려한 수상 경력을 쌓아가고 있다.

2006년 한국산업안전공단 학교안전분야 대상을 수상하였다. 2020년 기준 학생 수는 953명(남 478명, 여 475명)이다. 1학년 7학급 175명, 2학년 6학급 171명, 3학년 6학급 162명, 4학년 6학급 151명, 5학년 5학급 139명, 6학년 6학급 141명이다. 교원 중 수업 교원은 44명이며, 수업 교원 1인당 학생 수는 21.7명이다.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흥로366번길 34에 소재하고 있으며, 교화는 장미, 교목은 은행 나무이다.

표 34 부흥초등학교 기본 현황

(2020년 기준, 단위: 명)

구분	학생 및 학급 수									교원 수	수업 교원 수	수업 교원 1인당 학생 수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5학년	6학년	특수 학급	순회 학급	계			
학급 수	7	6	6	6	5	6	2	0	38	53	44	21.7
학생 수	175	171	162	151	139	141	14	0	953			
학급당 학생 수	23	28.5	27	25.2	27.8	23.5	7	0	25.1			

## 2. 중학교

부평동 소재 중학교는 부원중학교, 부원여자중학교, 부일여자중학교, 부평동중학교, 부평중학교 총 5개교이며, 인천광역시 북부교육지원청에서 관할한다.

### 1) 부원중학교

부원중학교는 1991년 1월 25일에 12학급의 설립 인가를 받아 개교하였다. 1997년에 검도부를 창단하였고 창단 이후 꾸준히 우수 선수를 발굴하여 2002년과 2003년 전국 대회 단체전 3회 우승, 개인전 우승, 2004년 제33회 전국소년 체육대회 우승, 2005년 전국대회 2회 준우승을 하며 검도 명문 학교로서의 위상을 다졌다.

2020년 기준 학생 수는 907명이며, 전원 남학생이다. 1학년은 10학급 332명, 2학년은 9학급 262명, 3학년은 9학급 305명, 특수학급은 1학급 8명이다. 교원 중 수업 교원은 48명이며, 수업 교원 1인당 학생 수는 18.9명이다.

부원중학교는 인천광역시 부평구 경원대로 1339에 소재하고 있으며, 교화는 장미, 교목은 느티나무이다.

표 35 부원중학교 기본 현황

(2020년 기준, 단위: 명)

구분	학생 및 학급 수						교원 수	수업 교원 수	수업 교원 1인당 학생 수
	1학년	2학년	3학년	특수학급	순회학급	계			
학급 수	10	9	9	1	0	29	56	48	18.9
학생 수	332	262	305	8	0	907			
학급당 학생 수	33.2	29.1	33.9	8	0	31.3			

### 2) 부원여자중학교

부원여자중학교는 2002년에 개교하였다. 2020년 기준, 학생 수는 968명이며, 전원

여학생이다. 1학년은 10학급 329명, 2학년은 10학급 307명, 3학년은 10학급 327명이다. 교원 중 수업 교원은 52명이며, 수업 교원 1인당 학생 수는 18.6명이다.

부원여자중학교는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영로 88에 소재하고 있으며, 교화는 장미, 교목은 소나무이다.

표 36 부원여자중학교 기본 현황

(2020년 기준, 단위: 명)

구분	학생 및 학급 수						교원 수	수업 교원 수	수업 교원 1인당 학생 수
	1학년	2학년	3학년	특수학급	순회학급	계			
학급 수	10	10	10	1	0	31	59	52	18.6
학생 수	329	307	327	5	0	968			
학급당 학생 수	32.9	30.7	32.7	5	0	31.2			

### 3) 부원여자중학교

부원여자중학교는 1983년에 27학급으로 인가를 받아 개교하였다. 2020년 기준, 학생 수는 275명이며, 전원 여학생이다. 1학년은 8학급 97명, 2학년은 7학급 79명, 3학년은 8학급 95명이다. 교원 중 수업 교원은 26명이며, 수업 교원 1인당 학생 수는 10.6명이다.

부원여자중학교는 인천광역시 부평구 동수로 8에 소재하고 있으며 교화는 개나리, 교목은 은행나무이다.

표 37 부원여자중학교 기본 현황

(2020년 기준, 단위: 명)

구분	학생 및 학급 수						교원 수	수업 교원 수	수업 교원 1인당 학생 수
	1학년	2학년	3학년	특수학급	순회학급	계			
학급 수	8	7	8	1	0	15	32	26	10.6
학생 수	97	79	95	4	0	275			
학급당 학생 수	19.4	19.8	19	4	0	18.3			

### 4) 부평동중학교

부평동중학교는 1969년에 45학급으로 인가로 개교하였다. 1973년에는 축구부와 양궁부를 창단하였다. 특히 축구부는 1984년 전국소년체육대회 우승을 시작으로 각종 대회에서 정상을 차지하였고, 이천수, 김남일, 노정윤, 이근호 등 국가대표 선수를 다수 배출하는 등 축구 명문으로 자리매김하였다. 양궁부 역시 2017년 제46회 전국소년체육대회 단체전 금메달, 제43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기 전국 시대향 대회 종합우승을 차지하며 축구부 못지 않은 활약을 하고 있다.

2020년 기준, 학생 수는 367명이며, 전원 남학생이다. 1학년은 5학급 130명, 2학년은 6학급 110명, 3학년은 6학급 120명, 특수학급은 1학급 7명이다. 교원 수는 37명(남 6명, 여 31명)이다. 교원 중 수업 교원은 30명이며, 수업 교원 1인당 학생 수는 12.2명이다.

부평동중학교는 인천광역시 부평구 수변로107번길 4에 소재하고 있으며, 교화는 장미, 교목은 후박나무이다.

표 38 부평동중학교 기본 현황

(2020년 기준, 단위: 명)

구분	학생 및 학급 수						교원 수	수업 교원 수	수업 교원 1인당 학생 수
	1학년	2학년	3학년	특수학급	순회학급	계			
학급 수	5	6	6	1	0	18	37	30	12.2
학생 수	130	110	120	7	0	367			
학급당 학생 수	26	18.3	20	7	0	20.4			

### 5) 부평중학교

부평중학교는 1954년 5월 31일에 소사고등공민학교로 설립 인가를 받아 개교하였다. 이후 1964년에 부천기술학교로 개편하여 개교하였으며, 1967년 9월 8일에 부평중학교로 인가받아 같은 해 12월에 부천시 심곡동에서 현 위치로 이전하였다. 1968년 3월 1일에 부평중학교로 개교하여 183명의 신입생을 맞이하였다.

1973년, 럭비부를 창단하여 2003년 대통령기 선수권대회 우승, 문화체육부 장관기 우승, 2004년 소년체전 동메달을 획득하는 등의 성과를 거뒀다. 씨름부 역시 각종 대회에서 우승을 석권하며 중등 씨름의 명문으로 자리 잡았다.

2020년 기준, 학생 수는 331명이며, 전원 남학생이다. 1학년은 5학급 110명, 2학년은 5학급 100명, 3학년은 5학급 113명, 특수학급은 1학급 8명이다. 교원 수는 33명(남 8명, 여 25명)이다. 교원 중 수업 교원은 27명으로, 수업 교원 1인당 학생 수는 12.3명이다.

부평중학교는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흥북로57번길 10에 소재하고 있으며, 교화는 장미, 교목은 은행나무이다.

표 39 부평중학교 기본 현황

(2020년 기준, 단위: 명)

구분	학생 및 학급 수						교원 수	수업 교원 수	수업 교원 1인당 학생 수
	1학년	2학년	3학년	특수학급	순회학급	계			
학급 수	5	5	5	1	0	16	33	27	12.3
학생 수	110	100	113	8	0	331			
학급당 학생 수	22	20	22.6	8	0	20.7			

### 3. 고등학교

부평동 소재 고등학교는 부평고등학교, 부평여자고등학교, 인천생활예술고등학교 총 3개교이며, 인천광역시 교육청에서 관할한다.

#### 1) 부평고등학교

부평고등학교는 1971년 12월에 9학급으로 설립 인가를 받아 이듬해 3월에 개교하였다. 1978년에 씨름부를 창단하였고, 1982년에 축구부를 창단하였다.

축구부는 전국에서 알아주는 명문이다. 한국 선수 최초로 일본 J리그와 네덜란드 리그에 진출한 노정윤, 2002년 한일월드컵에서 맹활약한 김남일, 이천수, 최태욱을 비롯해 이근호 등 국가대표만 50명 넘게 배출하여 한국 축구 국가대표의 산실로도 불린다. 전국대회 우승컵도 40여 차례 차지하였다.

씨름부는 2003년과 2004년 대한씨름협회 최우수 단체상, 2005년 전국체육대회 금메달, 2006년 대통령기 전국장사씨름대회 단체 우승 등 굵직한 대회 우승을 꾸준히 이어왔으며 천하장사 출신인 장지영과 백두장사 고경철, 윤문기, 최병두 등 유명한 선수는 물론 각계각층에서 활약하는 씨름지도자를 대거 배출하였다.



❖ 부평고등학교 축구부와 씨름부(출처: 부평구청)

2020년 기준, 학생 수는 685명이며, 전원 남학생이다. 1학년은 9학급 212명, 2학년은 10학급 255명, 3학년은 10학급 211명, 특수학급은 1학급 7명이다. 교원 수는 72명(남 24명, 여 48명)이다. 교원 중 수업 교원은 56명으로 수업 교원 1인당 학생 수는 12.2명이다.

표 40 부평고등학교 기본 현황

(2020년 기준, 단위: 명)

구분	학생 및 학급 수					교원 수	수업 교원 수	수업 교원 1인당 학생 수
	1학년	2학년	3학년	특수학급	계			
학급 수	9	10	10	1	30	72	56	12.2
학생 수	212	255	211	7	685			
학급당 학생 수	23.6	25.5	21.1	7	22.8			

부평고등학교는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흥북로 43에 소재하고 있으며, 교화는 장미, 교목은 은행나무이다.

## 2) 부평여자고등학교

부평여자고등학교는 1981년에 18학급으로 설립 인가를 받아 1982년에 개교하였다. 1983년에는 하키부를 창단하였으며 이후 전국대회에서 여러 차례 우승을 하였다.

2020년 기준, 학생 수는 629명이며, 전원 여학생이다. 1학년은 9학급 207명, 2학년은 9학급 199명, 3학년은 9학급 206명, 특수학급은 3학급 17명이다. 교원 수는 68명(남 20명, 여 48명)이다. 수업 교원은 55명으로 수업 교원 1인당 학생 수는 11.4명이다.

표 41 부평여자고등학교 기본 현황

(2020년 기준, 단위: 명)

구분	학생 및 학급 수					교원 수	수업 교원 수	수업 교원 1인당 학생 수
	1학년	2학년	3학년	특수학급	계			
학급 수	9	9	9	3	30	68	55	11.4
학생 수	207	199	206	17	629			
학급당 학생 수	23	22.1	22.9	5.7	21			

부평여자고등학교는 부흥로243번길 44에 소재하고 있으며, 교화는 매화, 교목은 은행나무이다.

## 3) 인천생활예술고등학교

1975년에 북인천재건(공업)학교로 설립·개교하였다. 1987년 11월, 교육부 학력 인정 북인천여자상업학교로 인가를 받아 주야간 학급을 각각 운영하였다. 2001년에 북인천 정보산업고등학교로 교명을 변경하였으며 이후 2017년에 인천생활예술고등학교로 다시 한번 교명을 변경하였다.

매해 호텔조리과는 2학급 80명, 간호과는 2학급 80명, 노래·연기과는 2학급 80명, 미용예술과는 4학급 160명, 미디어경영과는 1학급 40명을 모집하였다.

인천생활예술고등학교는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흥북로24번길 4에 소재하고 있으며,

교화는 국화이며, 교목은 은행나무이다.

#### 4. 특수학교

부평동 소재 특수학교는 청각장애인의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성동학교와 지적장애인의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인천예림학교 2개교가 있다.

##### 1) 성동학교

1955년에 장애인들의 교육시설이 거의 없던 시절 정규순이 청각장애인들에게도 교육을 통해 자립의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는 신념으로 인천시 중구 동원동 50번지에 인천맹아학원을 설립한 것이 시작이다. 1961년 3월에 인천맹농아학교로 교명을 변경하였으며 1963년에 남구 용현동 632번지로 이전하였고, 1971년에 인천시 북구 부평2동 756번지(현 부평구 경인로 880)로 이전하였다. 1987년 5월에 인천성동학교로 교명을 바꾸며 지금까지 이르고 있다.

청각 및 언어장애 학생을 대상으로 유치원 과정부터 초등, 중등, 고등 교육과정을 개설·운영하고 있다. 2020년 기준, 전체 학생 수는 54명으로, 교직원은 30명, 수업 교원은 20명이다.

표 42 성동학교 기본 현황

(2020년 기준, 단위: 명)

과정	유치원 과정		초등학교 과정		중학교 과정		고등학교 과정		계	
	인가	편성	인가	편성	인가	편성	인가	편성	인가	편성
학급 수	6	3	12	7	6	3	6	3	30	16

##### 2) 인천예림학교

1964년 3월에 사회복지법인 설립 인가를 받고, 1973년 12월에 학교 설립 인가를 취

득하였다. 1983년에 사회복지법인 예림원 부설 인천예림학교로 교명을 변경하였다.

지적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특수학교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전공과 과정이 설치되어 있다. 초등부터 고등 교육과정까지는 일반 교육과정과 동일하게 교육하며, 전공과 과정에서는 직업 훈련이 중심이 된다. 고등학교 과정을 마친 이에 한해 전공과 입학이 가능하며, 기본적인 직업 및 적성 교육 후 컷솔 제조, 조립 포장, 제과 제빵, 바리스타 등의 선택 교육과정을 이수한다.

2020년 기준 초등학교 과정 36명, 중학교 과정 32명, 고등학교 과정 36명이 재학 중에 있으며 전공과 소속 학생은 40명이다. 교사는 49명이다.

인천광역시 부평구 동수로 87(부평동 633-15)에 소재하고 있다.

표 43 인천예림고등학교 기본 현황

(2020년 기준, 단위: 명)

구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전공과		총계	
	1	2	3	4	5	6	1	2	3	1	2	3	1	2		
학급 수	인가	1	1	1	1	1	1	2	2	2	2	3	2	2	2	23
	편성	1	1	1	1	1	1	2	2	2	2	3	2	2	2	23
학생 수	6	6	2	7	8	7	11	9	12	10	15	11	20	20	144	

### | 제6절 | 문화·체육·보건기관(공공기관)

#### 1. 부평구청

1914년에 부제(府制)가 실시되면서 부평군은 인천의 일부 지역과 함께 부천군 부내면과 부천군 서곶면으로 편입된다. 1940년 4월 1일, 부령(府令) 제40호와 경기도령 제5호에 의하여 2차 인천부역 확장이 실시되면서 모두 인천부에 속하게 되었다. 관할구역

이 확대됨에 따라 인천부에서는 1941년 4월 1일 고시 제32호로 인천부 출장소 규정을 처음으로 제정·시행하게 되었다. 이는 행정상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본청과의 거리가 너무 멀리 떨어져 있는 지역에 각각 출장소를 설치하여 이곳에서 그 구역 내의 행정 사무를 취급하도록 한 것이다. 이에 백마정(산곡동) 1번지에 인천부 부평출장소가 설치된다.

1956년 11월 23일, 인천시 조례 제144호로서 「인천시 출장소 설치 조례」가 개정되어 1957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인천시의 행정구역은 본청 직할의 중부, 북부, 남부, 동부 등 4개 출장소와 주안, 부평, 서곶, 남동, 문학 등 5개 출장소를 두어 모두 9개 출장소를 설치하였다. 이때 부평출장소는 부평동 109의 5에 위치하고 있었다.

부평출장소가 관할하고 있던 부평 지역은 1968년 1월 1일을 기점으로 구제가 실시됨에 따라 인천시 북구에 속하게 되었다. 같은 해 3월 30일 「인천시 구설치」에 관한 법률안이 의결되어 북구, 중구, 남구, 동구의 4개 구청이 개청되고 기왕의 9개 출장소는 폐지되었다. 이때 북구청은 지금의 부평구 보건소 위치인 부평동 442-1번지에 자리하였다.<sup>27</sup>

이후 인구 증가에 따른 행정 및 민원 업무의 증가로 인해 청사 협소 문제가 제기되었고 1996년 10월, 지금의 위치(부평대로 168)로 이전하였다. 지하 1층, 지상 8층 규모이며, 이웃하여 부평구의회가 자리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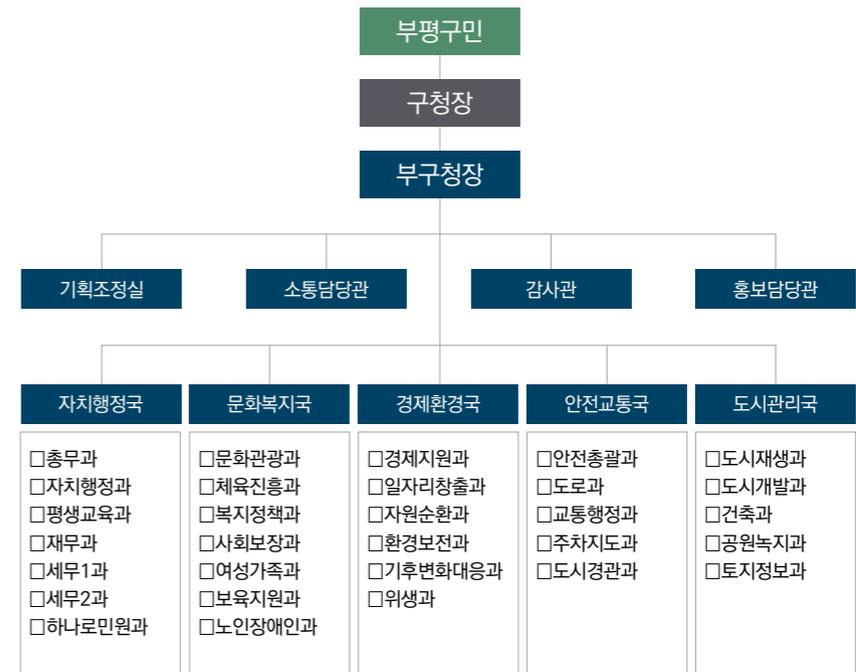


❖ 인천시 북구청사(출처 : 부평구청)

27 『부평사』1(부평사편찬위원회, 2007), 475-479쪽을 참고하였다.



❖ 부평구청사와 구의회 건물(출처 : 부평구청)



❖ 2020년 부평구청 조직도

## 2. 부평구 보건소<sup>28</sup>

1962년 5월, 부평동 442-1번지에 경기도립으로 설립되어 부평출장소와 서곶출장소 관할의 보건 위생 업무를 관장하였다. 이듬해 법률 제1160호에 의해 인천시 부평보건소로 개편되었다. 1968년, 인구 급증에 따라 구청제도가 실시되면서 인천시 북구보건소로 개칭되었으며, 1976년, 정부 방침에 따라 보건소에서 관장하였던 위생 업무가 구청으로 이관되었고 이후 보건소는 보건의료서비스 중심의 기관으로 역할을 하였다. 1988년, 서곶출장소가 서구로 승격되어 분구됨에 따라 서구보건소가 신설되었고 이에 따라 해당 지역의 업무를 이관하였다.

부평구 보건소는 공중보건과 관련한 많은 업무를 담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부평공보관, 북구청 건물 등을 오가는 등 이전을 거듭하였으며, 1993년 6월에 비로소 독립 청사를 건립하였다.



❖ 부평구 보건소 청사 신축 기공식(출처 : 부평구청)

28 부평구 보건소 연혁은 공식 홈페이지(<https://www.icbp.go.kr/clinic/>) 현황 및 연혁 자료를 참고하였다.

그러나 가파른 인구 증가에 따른 의료 욕구를 충족하기에는 협소한 규모였다. 2002년, 부흥로 291(부평4동 442-1, 2번지) 지금의 위치에 국비 10억 원, 시비 17억 원, 구비 44억 원 등 총 71억여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지하 2층, 지상 3층, 연면적 5,934.08㎡ 규모의 청사 착공을 시작하여 2003년 11월, 마침내 이전 개소를 이루었다. 이후 2014년에 나란히 위치하고 있던 부평문화원의 건물을 인수받아 별관으로 확장하였다.

현재 부평구 보건소는 보건행정과 산하 5팀(보건행정팀, 의약관리팀, 질병예방팀, 감염병관리팀, 감염대응팀), 건강증진과 산하 5팀(건강증진팀, 금연지도팀, 건강생활팀, 모자보건팀, 지역보건팀), 치매정신건강과 산하 4팀(치매관리팀, 치매지원팀, 치매돌봄팀, 정신건강팀)으로 구성되어 있다.

## 3. 인천광역시교육청 북구도서관

인천광역시 교육청 산하의 북구도서관은 1991년 9월 26일에 개관하였다. 개관 당시 부평구가 아닌 북구였기 때문에 인천직할시립 북구도서관이었으며 1995년에 직할시가 인천광역시로 개편됨에 따라 인천광역시 북구도서관으로 개칭되었다. 2020년, 인천광역시교육청 북구도서관으로 기관명 변경이 다시 한번 이루어졌다. 북구가 부평구로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북구도서관이라는 명칭을 계속 유지하는 이유는 이미 십정동에 '부평도서관'이 있기 때문이며 '부평구도서관'으로 개칭할 경우 이용자 혼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인천광역시 부평구 신트리로 21에 소재하고, 대지 9,362㎡에 1관(신관), 2관(본관) 2동의 건물로 이루어져 있으며 좌석 수는 1,721석이다.

2021년 기준, 3만 1,187권의 도서와 4만 6,484건의 비도서 자료를 보유하고 있다. 사회과학을 장서 특성화 분야로 선정하였으며 특히 교육학 자료를 중점 수집하고 있다.

표 44 인천광역시교육청 북구도서관 자료 보유 현황

(2021년 기준, 단위: 권·%)

	총류	철학	종교	사회과학	자연과학	기술과학	예술	언어	문학	역사	계
일반도서	7,949	10,712	6,748	36,492	6,966	17,481	10,120	7,444	57,722	16,382	178,016
참고도서	547	37	122	1,886	204	534	746	396	112	1,351	5,935
아동도서	2,896	2,048	1,090	9,268	9,854	2,020	1,930	2,655	42,675	9,671	84,107
순회일반	252	716	255	1,336	187	888	396	151	7,968	703	12,852
순회아동	90	75	21	206	207	73	54	50	1,171	315	2,262
계	12,947	14,170	8,556	50,773	18,116	21,665	13,690	12,443	119,353	29,474	301,187
비도서	1,649	3,397	494	9,007	2,070	2,953	8,298	2,775	12,476	3,365	46,484
합계	14,596	17,567	9,050	59,780	20,186	24,618	21,988	15,218	131,829	32,839	347,671
비율	4.20	5.00	2.60	17.20	5.80	7.10	6.30	4.40	37.90	9.50	100

#### 4. 부평신트리공원

부평구 신트리로 21(부평동 891)에 위치한 근린공원으로 총면적은 5만 8,594.6㎡이다. 1991년에 조성되었으며, 2009년에는 축구장과 테니스장 등 가공 체육 시설을 설치하였다. 공원 입구에 들어서면 여러 마리의 백마상을 만날 수 있는데 이로 인해 사람들은 백마공원이라 부르기도 한다. 2012년에는 박영근 시인의 시비를 건립하였다.

근린공원 대비 규모가 큰 편이고 각종 편의 시설이 잘 구비되어 있어 부평구민의 날 행사를 비롯한 가요제, 백일장, 사생대회 등의 행사가 많이 진행된다. 부평풍물축제 진행 시 전야제 공연이나 고유제 진행도 이루어지고 있어 부평구의 크고 작은 행사를 진행하는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다.



❖ 신트리공원 전경(출처: 부평구청)



❖ 신트리공원 백마상 분수대(출처: 부평구청)

#### 5. 부평구 평생학습관

2005년에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되어 이듬해 평생학습센터를 부평구청 내 설치하였다. 2007년 제1회 평생학습축제를 개최하였으며, 2015년 1월 현재 위치(부평구 장제로

235)로 이전하여 부평구 평생학습관으로 개칭하였다. 전 연령대의 평생교육을 위해 연령별 맞춤형 교육프로그램 운영과 우수 동아리 지원사업, 지역 평생교육 활동가 육성 사업 등을 펼치고 있다.



❖ 제1회 부평평생학습축제(출처 : 부평구청)

### 평생학습도시 부평구 선언문<sup>29</sup>

우리구는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항상 노력하며,  
문화와 교육이 잘 이루어진 세계 문화일류 도시건설에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

이에 우리구는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원하는 학습을 할 수 있도록  
지식기반사회 조성에 최선을 다하며, 이를 위하여 평생학습 기관과의  
학습공동체를 형성하여 구민에게 평생학습의 균등한 기회를 제공한다.

<sup>29</sup> 부평구 평생학습관(<https://www.icbp.go.kr>).

우리구는

구민과 함께 배움의 장터로서 개인의 자아실현을 통한 사회적 공동체를 형성,  
지역을 재구조화하여 개인의 삶의 질 제고와 부평구의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평생학습을 실현한다.

우리구는 문화가 발달한 도시, 더불어 나누며 살아가는 복지공동체를 구현하는 도시,  
편리하고 쾌적한 환경도시, 항상 주민과 함께하는 도시,  
구민이 주인이 되는 주민자치가 실현되는 도시로 구민과 함께 가꾸어 간다.

부평구민 모두는

배움에는 끝이 없음을 깨닫고 평생학습의 주체로서  
배우고 익힘을 스스로 실천하여 품격있는 부평구를 만들어 가는 역사의 주인공이 된다.

이제 우리는

인간다운 삶이 보장되는 활력이 넘치고 풍요로운 도시를 가꾸기 위하여  
부평구를 「평생학습도시」로 선언한다.

## | 제7절 | 상업시설

### 1. 부평시장

부평깡시장, 진흥종합시장, 부평종합시장, 부평 문화의 거리를 통칭하여 ‘부평시장’이라 부른다. 이전에는 부평자유시장까지 포함하였으나 지난 2018년에 부평자유시장의 건물이 철거되면서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시장이 되었다.

### 1) 부평깡시장

부평깡시장의 ‘깡’은 경매를 의미하는 순우리말이다. 지금의 건영캐스빌아파트 자리에는 청과물 공판장이 있었고 이곳에서 매일 경매가 열렸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붙여진 이름이다. 부평깡시장은 부흥실업주식회사로부터 시작된다. 1968년에 한천길은 부평동 152번지에 부흥상회를 설립하고 농산물 도소매를 위탁받아 운영하다가 1973년, 동업자를 규합하여 부흥실업주식회사를 설립하고 부평동 252-29(부흥로 304번길 17, 현 건영캐스빌아파트)에 청과물 도매시장을 개장하였다.

부흥실업주식회사의 청과물 도매시장이 활성화되면서 많은 상인들이 이 주변에 자리를 잡았다. 부흥실업주식회사의 ‘부흥’을 따와 ‘부흥시장’이라 부를 정도였다. 부흥실업주식회사는 1980년에 사옥을 준공하고 제1판매장을 신축, 제2판매장을 신설하였다.



❖ 2012년 부평깡시장 입구(출처 : 부평구청)

1990년 2월, 건영농산주식회사로 상호를 변경하였고, 1994년 1월에 건영농산주식회사의 청과물 도매시장이 구월동 농산물도매시장으로 이전 입주하면서 청과물경매시장으로의 기능을 상실하게 된다. 이후 건영의 계열사인 건영건설에서 경매장 자리에 지상

14층의 주상복합아파트 건설을 계획하였으나 1996년에 법정 부도를 맞게 되면서 긴 시간 동안 아파트는 주인을 찾지 못한 채 흉물처럼 방치되었다.

건영건설의 부도와 맞물려 구월동 농산물도매시장의 개장, 2001년에 삼산농산물도매시장의 건립이 이어지면서 부평깡시장의 상권은 나날이 쇠락하였다. 우여곡절 끝에 2002년에 건영캐스빌아파트의 준공과 주변 환경 정비를 통해 시장 활성화를 꾀하였고, 상인회를 조직하여 2007년에 정식으로 시장 등록을 한 것이 오늘에 이르고 있다.

### 2) 진흥종합시장

진흥종합시장은 1971년에 개장하였다. 부흥로304번길 27(부평동 252-52) 일대에 해당되며 부평깡시장과 부평종합시장에 둘러싸여 있다. 직사각형 4개 필지에 각 2동씩 8동의 정사각형태의 건물을 배치하였으며, 남쪽에서 북쪽 방향에 이르는 건물 2동씩을 묶어 가동부터 라동까지 구분하였다. 한 동에는 24개의 점포가 있어 총 96개의 점포가 있다. 이렇듯 상가 건물에 입점한 형태이기 때문에 ‘진흥종합상가’라고도 한다.

진흥종합시장은 상가 건물을 활용하여 물건을 쌓아 놓고 팔 수 있었다는 점에서 주위 다른 시장과 큰 차이가 있었다. 따라서 단기간에 팔아야 하는 품목이 아닌 도매용 물품을 주로 판매하였는데, 공산품·건어물 등의 도매업을 주로 취급하여 현재까지 그 모습을 유지하고 있다.

### 3) 부평종합시장

부평종합시장은 부흥로316번길(부평동 360-1)에 위치하며 부평종합시장이 해당 관청에 등록된 시점은 상인회는 2006년, 인정시장 등록은 2007년이다. 하지만 부평종합시장에서 노점을 했던 상인들은 1960~1970년대까지 노점이 성행하였고, 이를 단속하는 단속반과 마찰이 잦았다고 증언하고 있어 시장이 형성된 시기는 이보다 훨씬 앞섰던 것으로 판단된다.

부평종합시장은 부평깡시장과 진흥종합시장과 맞닿아 있어 그 경계를 정확히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그러나 총면적이 1만 1,655㎡에 점포 수는 430개로 부평시장에 속해있는 다른 시장보다 규모 면에서 확연한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공산품 등 다양한 품목을 취급하고 있다.



❖ 2005년 부평종합시장 현대화사업 준공식(출처 : 부평구청)

2005년에 부평종합시장은 현대화사업을 추진하면서 아케이드 설치 및 통행로 정비의 사업을 완료하였고, 이후 시장 현대화를 위한 고객지원센터 및 개방화장실 설치, 안전 및 방범 시설을 설치하였다. 시설 현대화뿐만 아니라 경영 현대화를 위해 상인들을 대상으로 마케팅, 유통, 경영에 대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시장 활성화를 위한 꾸준한 노력을 진행하고 있다.

#### 4) 부평 문화의 거리

부평 문화의 거리는 부평문화로80번길 67 일원에 있으며 금강제화에서부터 시장로 터리까지 이어지는 직선의 도로를 말하며, 1998년에 조성되었다.

지금은 깨끗하게 정비된 상태이지만 문화의거리가 조성되기 전 이곳은 노점이 난립하여 도로 통행이 쉽지 않은 상황으로 안전과 위생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었다.

1990년대 이후 인근에 백화점과 대형 할인 매장이 들어서고 지하상가가 대규모로 조성되면서 재래시장의 상권 쇠퇴가 우려되는 상황속에서 노점의 난립은 시장을 찾는 사람들의 발길을 다시 되돌리는 큰 원인으로 작용하였고 이는 상인들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다.

이에 상인들은 시민들이 찾아올 수 있는 쾌적한 환경의 조성과 함께 소공원과 같은 휴식공간의 역할도 겸하게 된다면 자연스럽게 상권의 활성화로 이루어질 것이라 예상하여 부평 문화의 거리 조성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다.

부평 문화의 거리 조성 사업의 가장 큰 특징은 상인들에 의해 주도된 것이다. 부평시장 상인들은 1996년에 ‘부평시장 번영회 산하 문화의거리 추진위원회’를 조직하였고 문화의거리 조성 청원서를 부평구에 제출하였다.

부평 문화의 거리 조성 사업의 가장 큰 핵심은 노점의 철거였다. 오랫동안 자리를 지키며 장사를 한 노점상인들은 결코 쉽게 물러나지 않았고, 추진단과 노점상인들의 끊임없는 갈등과 반목을 거듭하여 50여 개의 노점을 남기고 철거하는 것으로 최종 합의하였다.



❖ 부평 문화의 거리(출처 : 부평구청)

1997년 10월에 기공식을 거행하고 이듬해 3월에 완공하면서 마침내 부평 문화의 거리가 탄생하였다. 1999년에는 부평 문화의 거리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꾀하고 향후 발생하는 문제를 주체적으로 해결하고자 ‘문화의거리발전추진협의회’를 결성하였다. 이들은 상인이 주축이 되어 문화의거리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문화 행사 운영과 지속 가능한 발전 시스템을 구축하였고, 끊임없이 제기되는 노점과의 갈등을 해결하여 오늘의 부

평 문화의 거리를 만들었다.

2013년, 상인회 발족과 전통시장 등록이 이루어졌고 이후부터 상인들의 역량 강화를 위해 다양한 교육을 진행하였다. 또한 진정한 문화의거리를 구현하기 위해 상설 공연이 가능한 무대를 설치하여 지금까지 다양한 공연 행사를 기획·운영하고 있다.

### 5) 부평자유시장

1950년대에 김영길과 서신호 등은 부평공설시장과 새시장이 활성화되지 못하자 부평동 210번지에 새로운 시장을 개설하고 '자유시장'이라 이름 지었다. 이후 부평시장의 중심 상권이 자유시장을 중심으로 형성되어 부평 상권의 중심지가 되었다.

1962년 6월 7일, '부평시장'이라는 이름으로 자유시장이 인천시 공설시장이 되었는데, 1971년에 공설시장이었던 부평시장이 폐지되면서 같은 해 5월에 부평자유시장으로 이름을 바꾸고 사설시장이 되었다.



❖ 부평자유시장 콘크리트 건물 철거 전 모습

부평자유시장의 중심 건물은 부평시장 로터리에 맞닿아 길게 늘어선 콘크리트 건물이다. 1층은 상가로 2층과 3층은 주거공간으로 사용되었는데, 2018년에 철거되어 지금

은 볼 수 없다. 도로변과 맞닿아 있었던 상가는 주로 닭집이 들어와 있어 사람들은 이곳을 '닭집 골목' 혹은 '통닭 골목'이라고 불렀다. 튀김을 만들고 남은 폐유로 비누를 만들어 팔았기 때문에 닭과 함께 비누를 진열하는 이색적인 풍경이 만들어졌다.

'닭집 골목'을 뒤로하고 상가 안으로 들어가면 '순대 골목'과 '한복 골목'이 나온다. '순대 골목'이 언제부터 형성이 되었는지 정확하게 파악하기는 어려우나 1970년대에 부평수출산업공단 노동자들이 휴일이면 시장을 찾아 순대를 사 갔다는 구술 내용<sup>30</sup>을 통해 1960년대 중·후반 정도에 조성된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순대 골목' 뒤편으로 '한복 골목'이 조성되어 있다. 부평자유시장 건물의 철거로 '닭집 골목'과 '순대 골목'은 사라졌지만 '한복 골목'만큼은 아직 남아있다. 한복 골목의 오래된 역사는 가게의 구조에서 찾을 수 있다. 대다수의 한복 가게가 신발을 벗고 마루 위로 올라가 한복을 구경할 수 있는 좌식 형태를 아직도 유지하고 있다. 근래에는 선호하지 않는 방식이다. 맞춤보다는 대여를 선호하는 한복 소비 패턴의 변화와 온라인 시장의 등장으로 오늘날 부평자유시장의 '한복 골목'은 조용한 골목이 되었다.



❖ 2018년 부평자유시장 통닭 골목

30 부평역사박물관·국립민속박물관 공동기획전, 『부평시장, 시대를 사고팝니다』 중 김영화씨 인터뷰, 2021.

## 2. 평리단길

부평대로36번길과 부평대로38번길 일대를 평리단길이라 부른다. 상점의 분위기가 서울의 경리단길과 비슷하다고 하여 부평과 경리단길을 합쳐 생긴 이름이다. 원래 이곳은 ‘커튼 골목’이라 불리던 곳으로 상권이 쇠락하여 폐허가 되기 일보 직전의 공간이었다. 2010년대 중반 무렵부터 상대적으로 저렴한 임대료에 매력을 느낀 청년 사업가들의 가세가 하나둘씩 생기기 시작하였고 2018년 무렵부터 이름을 알리기 시작했다. 평리단길에 위치한 상점들은 카페, 와인바, 이탈리아 음식점 등 시장에서 흔히 볼 수 없는 품목들이 대부분이다. 젊은 감각에 맞춰 인테리어를 하고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과 같은 SNS를 이용한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젊은이들의 발길을 이끌고 있다.

청년 사업가들이 새롭게 상권을 형성한 평리단길에는 오래된 가게도 함께 자리하고 있다. 1945년에 개업하여 현재까지 대를 이어 운영하고 있는 복화루와 남창문구가 있으며, 1960년에 개업한 대신모자 역시 같은 자리를 지키고 있다.

시장의 일반적인 분위기와는 다른 평리단길이 부평시장이라는 공간 안에서 이질적으로 느껴지지 않는 이유는 이처럼 오래된 가게와 함께 공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 평리단길(출처 : 부평구청)

## 3. 모다백화점

부평역 앞은 일찍부터 상권이 발달하였다. 1980년대 중·후반 무렵부터 인근하고 있는 부천에 시가지 개발이 활발히 이루어지면서 부평역 인근 상권을 이용하는 이들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한 기업체에서는 부평역과 멀지 않은 곳에 백화점 건립 계획을 세웠다.

1991년, 부평동 70-127(부평문화로 35, 현 모다백화점)에 동아시티백화점이 개장하였는데 지하 3층, 지상 6층, 연건평 8,500평의 현대적 쇼핑 시설과 미술관 및 문화센터, 수영장과 에어로빅 시설과 같은 다양한 문화 휴식 공간을 갖추고 있었다.



❖ 1994년 부평역 앞 상권 형성의 모습(출처 : 「상권이 달라진다, 부평역 앞」, 『매일경제』, 1994년 4월 11일자)

1996년과 1997년에 연매출 1,500억 원을 이룰 정도로 호황을 누렸던 시티백화점은 IMF로 인한 소비 위축과 모기업인 동아건설의 경영 악화로 1999년 4월, 롯데그룹에 매각하였다. 매각 금액은 425억 원이었다.<sup>31</sup>

31 「롯데, 부평 시티백화점 인수」, 『매일경제』, 1999년 4월 24일자.

시티백화점을 인수한 롯데그룹은 기존 매장 면적인 4,200평에서 4,800평으로 확장하여 1999년 9월, 롯데백화점으로 개장하였다. 롯데백화점은 고객 유치를 위해 다양한 행사와 서비스를 펼쳤는데 그중 하나가 셔틀버스 운영이었다. 이 무렵 대다수의 백화점에서는 고객 유치를 위해 셔틀버스를 운영하였다. 롯데백화점 역시 25대의 셔틀버스로 부평과 부천, 인천 시내까지 고객들을 실어 날랐다. 문제는 가뜩이나 교통이 혼잡한 부평역 인근에 셔틀버스가 즐지어 서 있어 더 혼잡하게 만든다는 것이었다. 여기에 더해 무료로 운영되는 셔틀버스로 인해 버스와 택시 등 운수업체의 민원이 발생하기도 하였다.

2013년, 롯데쇼핑은 인천시 구월동에 위치한 신세계백화점 인천터미널점을 인수하였다. 인천에만 롯데백화점이 3개가 되는 것이었다. 지역 시장점유율이 독과점 관련 규정을 위배할 만큼 커지자 공정거래위원회는 2019년 5월까지 롯데백화점 부평점과 인천점을 매각하라는 시정 명령을 내렸다. 2019년 5월, 롯데백화점 부평점은 모다이노칩과 350억 원에 매각 계약을 체결하였고 같은 해 8월, 모다백화점으로 간판을 바꿔 문을 열었다.



❖ 2019년 모다백화점(출처 : 부평구청)

부평에 들어 온 모다백화점은 모다이노칩이 운영하는 첫 백화점 브랜드이다. 아울렛 운영을 주 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전국에 10여 개가 넘는 모다아울렛 매장을 운영하고 있다. 롯데백화점 인수 기업이 모다이노칩으로 결정되자 부평 지역 상인들은 백화점이라는 간판만 내걸고 아울렛 형태로 변칙 운영할 가능성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단순히 부평 상인들만의 문제가 아닌 소상공인 전체의 문제로 인식하고 ‘모다아울렛 규탄 전국 상인 대책위’를 결성하여 대응하였다.<sup>32</sup>

#### 4. 부평모두물

부평모두물이라는 이름보다 부평 사람들에게는 부평지하도상가가 더 친숙한 이름이다. 부평 모두물은 서로 연결되어 있는 부평역 지하상가, 신부평 지하상가, 부평중앙 지하상가, 부평대아 지하상가를 일컫는다. 1978년, 인천개발공사가 공사비 8억 900만 원을 투입하여 부평대로 69(부평동 199번지)부터 북쪽으로 거리 130m, 폭 20m, 전체 면적 1,031평 규모로 조성한 신부평 지하상가가 가장 앞선다.<sup>33</sup> 이후 부평역 지하상가와 부평중앙 지하상가, 부평대아 지하상가 순으로 영업을 운영하면서 거대한 상권을 이루었다.

총 3만 1,692㎡의 면적에 1,408개의 점포가 운영되고 있으며 단일 면적으로는 최다 점포가 운영되고 있어 2014년 11월에 ‘월드레코드아카데미’의 인증을 받았다.

32 「부평상인 “모다백화점 편법 개점” 분노」, 『경인일보』, 2019년 7월 24일자; 「모다백화점 부평점, 아울렛 변칙 운영…지역상인들 반발」, 『연합뉴스』, 2019년 9월 17일자.

33 「富平에 地下商街」, 『매일경제』, 1978년 9월 15일자.



❖ 부평역 지하상가 및 인증서 동판(출처 : 부평구청)

## 5. 해물탕거리

부평시장 로터리 동쪽으로 이어진 부평문화로(부평5동)에는 해물탕을 판매하는 음식점 여럿이 모여 있는데 이곳을 해물탕거리라 한다. 지금은 동해해물탕을 비롯하여 5개 남짓의 가게가 고작이지만 한때 이곳에는 13곳이 넘는 해물탕 식당이 들어서 있었다.

해물탕거리의 시작은 1980년대부터이다. 처음에는 여러 가지 해물을 넣고 끓인 것을 ‘모듬찌개’라 하여 판매하였는데, 한 집, 두 집 모여 장사를 시작한 것이 1998년 무렵에는 10개가 넘는 해물탕 가게가 골목을 채웠다.

1998년, 부평구청은 해물탕 가게가 밀집한 부평5동의 거리를 「해물탕 특색음식 거리」로 지정하였고, 거리 정비 및 활성화를 위해 업소당 2,000만 원씩 지원하는 정책을 시행하였다.<sup>34</sup>

한때는 인천보다 서울에서 찾아오는 손님이 더 많았을 정도로 성행하였으나 지금은 몇몇의 가게만 남아 그 명맥을 이어가고 있다.

<sup>34</sup> 「인천 명소 된 해물탕 거리」, 『조선일보』, 1998년 6월 2일자; 「자치소식」, 『한겨레』, 1998년 6월 9일자.



❖ 부평5동에 위치하고 있는 해물탕거리(출처 : 부평구청)

## | 제8절 | 축제

### 1. 부평풍물대축제

부평풍물대축제는 1996년 10월 1일 구민의 날을 기념하여 진행된 「늘푸른부평문화예술제」를 계기로 1997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초기에는 부평구청 인근과 부평문화의 거리, 백운공원 등지에서 산발적으로 운영하였으나 2000년부터 부평대로를 축제의 중심 공간으로 활용하였다.

축제의 시작은 고유제를 지내는 것으로 알린다. 고유제는 삼산동 혹은 부평구청 잔디마당 등에서 주로 진행이 되었다. 본격적인 축제 기간 동안에는 부평동풍물단의 경연대회와 전국 규모의 풍물경연대회 및 국악경연대회가 이루어진다. 부평대로에 설치된 중앙 무대와 서브 무대에서는 크고 작은 공연이 이루어지고 대로변을 따라 다양한 체험 부스 및 부평을 알리는 홍보부스가 설치되어 방문객을 맞이한다. 축제의 하이라이트는

폐막을 앞두고 열리는 대규모 풍물 퍼레이드다. 8차선의 부평대로에 퍼레이드가 펼쳐지는데 이때 공연자와 관객이 구분되지 않고 모두가 축제를 즐기며 분위기는 절정에 이른다. 퍼레이드가 끝나면 불꽃놀이가 이어지고 불꽃놀이의 종료와 함께 자연스럽게 축제도 종료가 된다.



❖ 부평풍물대축제 퍼레이드(출처: 부평구청)

2019년도에는 전국적으로 발생한 아프리카돼지열병의 확산에 따라 축제 개막을 며칠 앞두고 전격 취소되었으며, 2020년도에는 코로나19 팬데믹에 따라 온라인 개최로 대신하였다.

부평풍물대축제는 2014년부터 2019년까지 한국예술위원회에서 주관하는 지역 대표 공연예술제 우수 축제로 6년 연속 선정이 되어 국고 보조금을 받는 인천 유일의 축제이며, 2020년도에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선정하는 '2020~2021년 예비 문화관광축제'로 지정되었다.



❖ 제20회 부평풍물대축제 고유제(출처: 부평구청)

표 45 부평풍물대축제 개최 기간 및 주제

구분	기간	주제	비고
1997년	9.30.~10.5.	-	
1998년	9.25.~9.27.	제2건국 국난극복 대동제	
1999년	10.8.~10.12.	21세기 도약하는 새부평! 새천년 번영의 부평	
2000년	9.29.~10.1.	새천년! 새만남! 새희망!	
2001년	9.16.~9.23.	하나 더하기, 1+, ONE+	
2002년	9.30.~10.6.	'어울림' 흥으로, 신으로, 바람으로	
2003년	6.3.~6.8.	'난장' 두드리고, 놀고, 즐기자	
2004년	5.19.~5.23.	'더불어' 아시아와 함께하는 부평의 힘!	
2005년	5.25.~5.29.	Dynamic Bupyeng	
2006년	6.7.~6.11.	'만남과 교류, 상생과 공존' 풍물의 허브 부평	
2007년	5.30.~6.3.	두레, 도시를 건다.	
2008년	5.28.~6.1.	두레, 도시를 열다!	
2009년	5.20.~5.24.	두레, 도시와 춤추다!	
2010년	6.9.~6.13.	너와 나, 그리고 더불어	
2011년	5.25.~5.29.	너와 나 그리고 더불어 (부제: 아시아 문화중심을 꿈꾸다)	
2012년	10.5.~10.7.	통(通)	

구분	기간	주제	비고
2013년	10.18.~10.20.	풍물과 즐거운 여행 A Happy Journey with Pungmul	
2014년	9.26.~9.28.	아시아와 함께하는 풍물! One Asia!	
2015년	10.2.~10.4.	풍물이랑 놀자!	
2016년	9.30.~10.2.	풍물이랑 놀자! Play with Pungmul Festival	
2017년	9.2.~9.24.	풍물이랑 놀자! Play with Pungmul Festival	
2018년	10.12.~10.14.	광대, 도시를 물들이다	
2019년	9.27.~9.29.	부평, 신명으로 내일을 열다	축제 취소
2020년	10.16.~10.18.	-	비대면 온라인 진행

## 2. 부평구민의 날

1994년 인천직할시 복구 조례 제332호(인천직할시 복구구민의날 조례)와 제333호(인천직할시 복구구민상 조례) 제정을 통해 구민의 날을 10월 1일로 정하고 구민화합봉사상, 효행상, 산업증진상, 대민봉사상, 문화체육상, 교육연구상, 지속가능발전상(2016년 신설), 특별상(2016년 7월 신설) 등 각 분야별로 1명의 구민을 선정하여 시상한다.



❖ 제2회 부평구민의 날 행사(출처: 부평구청)

구민의 날 행사는 풍물축제와 연계하여 진행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풍물축제가 5월에서 6월 중 진행되었던 2003년에서 2011년까지는 별도 행사로 운영되어 주로 신트리 공원에서 축하 공연과 문화 행사를 진행하며 구민상 시상식을 함께 진행하였다.



❖ 2020년 제27회 구민상 심사위원회 (출처: 부평구청)



## 참고 문헌



### 단행본

- 김현석, 『우리 마을 속의 아시아태평양전쟁유적 : 인천광역시 부평구』, 도서출판 선인, 2019.
- 미쓰비시제강(주)사사편찬위원회, 『三菱製鋼 40年史』, 미쓰비시제강주식회사, 1985(부평역사박물관 소장).
- 배성수, 『시간을 담은 길-경인가로 따라 인천을 걷다』, 글누림, 2016.
- 부평사편찬위원회, 『부평사』1, 부평사편찬위원회, 2007.
- 부평역사박물관, 『개관 10주년 기념보고서-부평』, 부평역사박물관, 2017.
- 부평역사박물관, 『미쓰비시를 품은 여백, 사택마을 부평삼릉』, 부평역사박물관, 2016.
- 부평역사박물관, 『삶의 터전 부평시장』 1, 부평역사박물관, 2020.
- 부평역사박물관, 『이주민의 마을 부평 신촌』, 부평역사박물관, 2015.
- 이규보, 『동국이상국집』15.
- 이상의 면담 및 해제, 『일제의 강제동원과 인천육군조병창 사람들』, 국사편찬위원회, 2019.
- 인천광역시 부평구청 기획조정실, 『2020 부평 규정백서』, 인천광역시 부평구, 2020.
- 인천광역시 시사편찬위원회, 『인천의 지명』상, 인천광역시 시사편찬위원회, 2015.
- 인천문화재단 인천문화유산센터, 『인천역사통신』27, 인천문화재단, 2020.
- 조기준, 『부평사연구(富平史研究)』, 백암문집간행위원회, 1995.
- 조기준, 『지명유래지 : 부평의 땅 이름』, 부평문화원, 1999.
- 한국철도문화재단, 『2019 新한국철도사 총론』, 국토교통부, 2019.

### 신문

- 『경인일보』  
 『동아일보』  
 『매일경제』  
 『매일신보』  
 『연합뉴스』



- 『인천일보』  
 『조선일보』  
 『한겨레』  
 『한겨레신문』

### 웹사이트

- 부평구청 부평홍보관(<https://www.icbp.go.kr/publicity/#>)  
 부평구 보건소(<https://www.icbp.go.kr/clinic>)  
 인천시설공단(<http://www.insiseol.or.kr/main/>)  
 코레일 광역철도(<http://info.korail.com/>)  
 학교 알리미(<https://www.schoolinfo.go.kr>)  
 행정동별 소재 각 학교 홈페이지





# 제 4 장

## 산곡동(山谷洞)

- 제1절 \_ 마을 지명 유래
- 제2절 \_ 행정구역의 변천
- 제3절 \_ 일반 현황
- 제4절 \_ 문화유산 및 명소
- 제5절 \_ 교육기관
- 제6절 \_ 문화·체육·공공기관
- 제7절 \_ 축제

# 제4장 산곡동(山谷洞)



손 민 환(부평역사박물관 학예연구사)

**| 제1절 | 마을 지명 유래<sup>1</sup>**

**1. 동 이름 유래**

산곡동은 본래 부평도호부 마장면(馬場面) 산곡리(山谷里) 지역이다. 산(山)이 곳(串)으로 되었으므로 뫼꼬지, 뫼꽃말 또는 산화촌, 산곡이라 하였으며, 또 조선조 때 말을 먹이던 곳이므로 마장, 백마장이라 하였다.

‘뫼꽃말’은 이 마을의 서쪽 뒷산인 원적산(元積山 또는 元寂山)의 한 줄기가 동쪽으로 흘러 내려오다 이 마을에서 작은 동산을 이루고 끝나기 때문에 ‘뫼의 끝 마을’이라 해서 붙은 이름이다. ‘뫼꽃말’ 이외에 ‘뫼꽃말’ ‘뫼꽃말[산화촌(山花村)]’로도 불렸다. 이에 대해 산에 꽃이 많아 생긴 이름이라는 설명이 있지만, 이보다는 뫼꽃말의 발음이 변해 생긴 것이라 보아야 할 것이다. 또는 다른 지역에 있는 이름들과 비교해 볼 때 뫼꽃말이나 뫼꽃말은 ‘뫼꽃’에서 발음이 바뀐 것일 가능성도 크다. 뫼는 ‘산’을 뜻하고, 꽃은 산줄기가 뫼

<sup>1</sup> 『인천의 지명』상(인천광역시 시사편찬위원회, 2015)을 참고하되, 2020년을 기준으로 지명과 지형의 변화가 있는 경우 수정하고 보완 사항이 있는 경우 추가하였음을 밝힌다.



❖ 산곡동 관할구역(출처 : 국토정보플랫폼 국토정보맵)

어 내려오다 오뚝하게 솟은 곳을 가리킬 때 많이 쓴 글자다. ‘꽃’은 물론 육지에서 바다 쪽으로 삐죽하게 뻗어나간 곳을 말하기도 한다. 그런데 지금의 ‘꽃(花)’은 중세어에서 ‘꽃’이라고 했다. 이 때문에 땅 이름에서 ‘꽃’과 ‘꽃’이 종종 바뀌어 쓰이기도 했고, 한자로 바뀔 때도 그랬다. 이곳의 땅 모양이 뫼의 끝에서 오뚝하게 작은 동산을 이루고 끝났으니 처음에는 ‘뫼꽃’이라 불렀을 것인데, 이런 이유 때문에 ‘뫼꽃’으로 바뀌었을 수도 있다. 이와 비슷하게 또 다른 이름인 ‘뫼꼬지’도 ‘뫼가 불쑥 솟아 있어’ 붙은 말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이 때 ‘꼬지’는 ‘꽃아 놓았다’는 뜻으로 볼 수 있지만, 우리말의 뿌리로 좀 더 내려가면 ‘두드러지게 솟아 있음’을 뜻하는 말로 이어진다. ‘꼬지’가 나무나 풀에서 가장 돋보이게 솟아 있는 ‘꽃(花)’이나, 땅이 육지에서 바다 쪽으로 삐죽이 솟아 나가 있는 ‘꽃(串)’과 같은 뜻에서 출발한 단어이기 때문이다. ‘산화촌’이라는 이름은 이 중 뫼꽃말을 그대로 한자로 옮긴 것이니, 그 한자 뜻만으로는 동네 이름의 유래를 제대로 알기 어렵다.

이 마을은 이렇듯 산의 끝자락에 있었기 때문에 근세에 와서 부평부(富平府)가 동리(洞里) 이름을 새로 지을 때 ‘산(골)마을’이라는 뜻에서 ‘산곡리’가 되었고, 이것이 광복 뒤인 1946년 그대로 산곡동이 되었다.

## 2. 소지명 유래

### 1) 백마장(白馬場)

백마장은 마장로와 길주로가 교차하는 백마장사거리 일대에 있는 동네다. 그 한자 이름 때문에 흔히 ‘옛날 이곳에서 백마를 길렀기 때문에 생긴 이름’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하지만 산곡동이 옛날 인근의 효성동·청천동과 함께 나라에서 국영 목장을 세우고 말을 먹여 기른 곳이어서 마장(馬場) 또는 그 발음이 조금 변한 ‘마제이’라 불리기는 했어도 백마장은 이와 전혀 관계없이 생긴 이름이다. 광복 뒤에도 그대로 이어지며 일본식 행정 구역 명칭인 ‘町(정)’만 ‘장’으로 바뀌어 오늘날의 백마장이라는 이름이 생긴 것이다.

### 2) 뽕말, 뽕말, 뽕말, 뽕말(山花村), 꽃밭골(花田谷)

뽕말은 마을 서쪽 뒷산인 원적산 한 가닥 줄기가 동쪽으로 흘러내려 이 마을에 와서 뭉치어 아름다운 동산을 이루었는데 이 동산 밑에 마을이 생기면서 뽕의 끝이란 뜻에서 뽕말이라 한다. 뽕말을 뽕말이라고도 하는데 뽕말은 뽕의 남쪽은 작은 골짜기이고 북쪽은 큰 골짜기를 이루고 뽕 끝 좌우의 더 작은 골짜기에 마을이 있어 산골짜기의 마을이란 뜻으로 뽕(산골)말 혹은 산골리라 부르게 된 것이다. 뽕말이 뽕의 끝이기 때문에 뽕의 끝(串)이 되므로 뽕말이 되었다. 그러므로 뽕말은 뽕말이 후에 잘못 변화하여 된 것이지 결코 산에 꽃이 많아서 붙여진 이름은 아니다. 꽃밭골도 마찬가지다.

### 3) 밤재들(栗峴野)

마장뜰 중에 특히 밤고개 아래로 펼쳐진 들을 밤재들이라 한다.

### 4) 검정사택, 도깨비시장

검정사택은 집 벽을 타마구(아스콘) 기름으로 먹인 종이로 지은 집들이 많아서 붙여진 이름으로 미추홀신용협동조합 북쪽의 사택촌을 말한다. 검정사택 남쪽을 도깨비시장이라고 부르는데, 옛날 미군 부대의 미제 물건을 팔 때 단속이 나오면 게 눈 감추듯 순식간에 사라졌다 하여 도깨비시장이라 부르게 되었다. 검정사택은 청천1구역 재개발정비

사업으로 인하여 2020년 7월 철거되어 아파트가 건립되고 있다. 이로 인하여 도깨비시장 역시 옛 모습을 찾기 어렵게 되었다.

### 5) 장끝고개(場末峴), 장고개, 장현(場峴, 長峴)

산곡동에서 서구 가좌동으로 이어지는 나지막한 고개를 장고개라 부른다. 부평구와 서구의 경계에 있는 ‘철마산(鐵馬山)’의 동쪽 끝에 자리 잡은 고개다. 그 아래에 장끝마을이 있어 원래 ‘장끝고개’라 불렸었는데 언제부터인가 ‘끝’ 자가 떨어져 나가 장고개가 됐다. 한자로는 장고개를 흔히 ‘장말현(場末峴)’이나 ‘장현(場峴)’으로 쓰지만 때로는 ‘장현(長峴)’이라 쓰는 경우도 있다. 이 중 ‘장현(長峴)’은 이곳의 고갯길이 길어서 생긴 것이라고 한다. 하지만 이보다는 아마도 ‘장터 장(場)’을 ‘긴 장(長)’으로 잘못 알아 쓴 이름일 것이다.

어쨌든 지금의 효성동이나 청천동, 산곡동 일대에는 옛날 나라에서 말을 기르던 목장이 있어 ‘마장(馬場)’이라 불렸다. 그런데 이 동네가 바로 ‘마장의 남쪽 끝’에 있었기 때문에 ‘장끝마을(장끝말)’이라는 이름을 갖게 된 것이고, 그 마을의 위에 있는 고개여서 ‘장끝고개(장고개)’라 불리게 된 것이다.

### 6) 밤재, 밤고개(栗峴), 밤나무고개

뽕말 남쪽 지금의 마곡초등학교 남쪽 골짜기를 밤나무골이라 하는데 이 골짜기로 넘어 들어가는 작은 고개가 밤나무고개이다. 밤나무골에 있는 고개이기에 밤재, 밤고개, 혹은 밤나무고개라 한 것이다.

### 7) 할딱지

나이가 많으신 노인들이 언덕을 오를 때 숨이 차서 할딱할딱한다 해서 최근에 붙여진 이름으로 지금의 산곡북초등학교에서 마곡초등학교 쪽으로 올라가는 길을 말한다.

### 8) 양성골, 안성골, 성안골, 성안골

현재 한일초등학교가 자리한 골짜기를 말하며 그 생김이 마치 성을 쌓아 놓은 형국이라서 성안골 또는 성안골 하던 것이 반대로 안성골이 된 것이며 이것이 후에 양성골

이 된 것이다.

### 9) 밤나무골

퇴끝말 남쪽에 있는 작은 골짜기로 밤나무가 많은 곳이라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 10) 큰골, 꽃뫼초큰골

퇴끝말과 마재이(청천동) 사이에는 원적산에서 흐르는 큰 개울이 있어(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청천으로 잘못 알고 있다) 이것을 따라 올라가면 산 중턱에 넓은 벌판이 나오는데 이곳이 넓은 골이라 큰골이라 불렀다. 그리고 꽃뫼초큰골이란 산곡동에 있는 큰골이란 뜻이다.

### 11) 원적산(元積山, 元寂山)

부평부(富平府) 남쪽 15리에 있으며 남북으로 길게 뻗어 북쪽으로는 안하지고개에서 천마산으로 이어지고 남쪽으로는 장고개에서 원통산으로 이어진다. 이 산줄기는 옛 마장면과 석곶면을 경계한 산이고 지금도 부평구와 서구를 경계하는 산으로 되어 있다. 원적산의 원 자 한문 표기는 본래 원(怨)으로 원한 맺힌 산이란 뜻이다. 왜냐하면 경인운하를 굴착하는데 원통이고개를 파도 암석이 나와 실패하고 또 안하지고개를 파도 암석이 많아 실패를 하자 원통하고 원한이 맺힌 산이라고 해서 원적산(怨積山)이란 이름을 붙였다고 한다. 그런데 후대 사람들이 이것을 원적산(元積山)으로 고쳐 쓴 것이다.

### 12) 청천(淸川)

큰골에서 퇴끝말과 마재이 사이로 흐르는 이름 없는 이 개울을 청천으로 보는 사람도 있다. 이것은 40~50년 전만 해도 이 개울물이 아주 맑았기 때문이다.

### 13) 마장사거리

마장길과 길주로가 교차하는 사거리로 마장뜰에 있다 하여 마장사거리로 이름하였다.

### 14) 관동주

현재 산곡2동 행정복지센터가 있는 지역 일대를 말하며 한때 술집이 많이 있었다. 관동주는 부평조병창 확장공사 때 그 하청업자인 관동조(關東組)가 있었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으로 관동조가 관동주로 바뀐 것이다.

### 15) 안남로(安南路), 백마로(白馬路)

산곡2동과 산곡4동을 경계로 하는 도로를 말한다. 본래는 백마장(산곡동)에 있다 하여 백마로라 불러 왔으나 최근에 동수역사거리까지(지금은 산곡남중학교까지만 길이나 있음) 연결시켜 안남로로 개칭하였다. 안남로는 부평의 옛 이름 안남도호부(安南都護府)에서 따 온 것이다.

### 16) 화랑농장

산곡동 현대아파트 3차 단지와 부평서중학교 사이의 샛길을 따라 약수터가 있는 고개를 넘어가면 그 북쪽 골짜기에 ‘화랑농장’이라는 마을이 있다. 이곳은 일제 때까지만 해도 사람이 거의 살지 않는 곳이었다. 그런데 1953년 상이용사 출신으로 인천시 2대 시의원을 지낸 김국환(金國煥)이 동료 진상구(陳相龜)와 함께 이곳 산곡동 369번지에 상이용사들을 위한 자활촌(自活村)을 만들고 화랑농장이라는 간판을 달았다. 농장은 없어졌지만 사람들은 여전히 이곳을 화랑농장이라 부른다.

### 17) 구루지고개(九老峴), 구르지고개, 서산고개(西山峴)

화랑농장에서 서쪽 산을 넘어 가좌동이나 십정동으로 넘어가는 고개를 말한다. ‘굴러 넘어지지’ 하는 뜻에서 붙여진 이름이라 하기도 하고, 또는 일제 때 이 산에 군용으로 굴을 많이 파 놓았기 때문에 연유된 이름이라고도 한다. 즉 구르지는 군용지(軍用地)의 변음으로 본다. 구루지고개는 구르지고개의 변음이다. 그리고 한자 구로현(九老峴)은 구르지고개를 한자화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서산고개는 동리 서쪽에 있는 산을 넘는 고개 또는 서산에 있는 고개라는 뜻이다.

### 18) 함봉산

부평도서관 뒷산을 함봉산이라 한다. 옛날 이 산에는 나무가 울창하여 호랑이가 살았다는 말이 있다. 따라서 함봉산이란 호랑이가 우는 소리가 들리는 산이란 뜻인데 이것은 한자 풀이일 뿐 확실치 않다. 함봉산의 함(號) 자를 호(號) 자로 잘못 알고 호봉산이라 부르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것은 큰 잘못이다.

### 19) 서산(西山)

화랑농장 서쪽에 있는 산을 마을 사람들이 마을 서쪽에 있다 하여 서산이라 부른다. 함봉산 줄기이다.

### 20) 마장로, 청천로(淸川路)

산곡3동을 관통하는 길로 부평삼거리에서 신촌사거리, 원적사거리를 지나 새벼리사거리까지 이어지는 새로 생긴 큰 길이다. 이 길은 지금까지 청천동을 관통하는 길이라 하여 청천로라 하였는데 이번에 다시 마장로로 바꾸었다. 이것은 옛날에 산곡동, 청천동, 효성동 일대를 마장면(馬場面)이라 하였기 때문에 이 이름을 따서 붙인 것이다.

### 21) 경원대로

2001아울렛 부평점(옛 현대백화점) 앞을 지나가는 길을 예전에 신촌로라 하였는데 최근에 이 길을 원통로(圓通路)와 연결시켜 경원대로로 개칭하였다. 인천의 옛 이름 경원군(慶源郡)에서 그 이름을 딴 것이다.

## | 제2절 | 행정구역의 변천

### 1. 전통 시대

산곡동은 본래 부평도호부 마장면(馬場面) 산곡리(山谷里) 지역이다. 1698년경에 발간된 『부평부읍지(富平府邑誌)』를 살펴보면, 이 책의 서두에 부평부의 채색 지도가 그려져 있다. 주요 지명으로 읍내, 동면, 당산, 주화곶, 상오정, 하오정, 수탄, 옥산, 석천, 동소정, 서면, 마장, 서곶, 모월곶, 황어 등이 표기되어 있는데, 이 지명들은 면 단위의 지명이다. 그 중에서도 산곡동과 관련된 지명은 마장이다.



❖ '마장'이 표기된 『부평부읍지』(1698년경)

마장은 『부평부읍지』 지도상 계양산 아래 부평 읍내에서 서곶으로 가는 길목에 위치하고 있다. 마장에서 구십현(九十峴)을 넘어서면 서곶이다. 마장은 현재 부평구와 서구의 경계인 원적산에 둘러싸인 형세다.

위 『부평부읍지』에서는 채색 지도 이외에 마장과 관련된 다른 기록이 전혀 없다. 다만 지도를 통해서 마장이 17세기 후반에 존재하였고, 그 위치가 부평 읍내에서 서쪽으로 향하는 길목에 있었다는 점이 확인된다.



❖ '마장'이 표기된 『여지도』(18세기 중반)

18세기 중반 간행된 것으로 추정되는 『여지도』에는 '마장면'이 표기되어 있고, 1760년 경에 발간된 『여지도서』에도 마찬가지로 '마장면'이 표기되어 있다. 『여지도서』에는 각 면의 정보가 이전의 읍지보다 좀 더 상세하다.

#### 마장면

3개 마을이 있으며, 관문으로부터 남쪽으로 10리 거리에 있다.

90호가 거주하고 있는데, 남자가 146명, 여자가 166명이다.<sup>2</sup>

<sup>2</sup> 『여지도서』(1757~1765), 방리, 부평부.

이에 따르면 18세기 중반 마장면에는 3개 마을이 있었다. 위치는 부평부 관아(관문)로부터 남쪽으로 10리 거리에 있다고 하였는데, 당시 부평부 관아가 계양산 아래에 위치한 것을 감안하면 마장면은 지금의 산곡동과 청천동 일원이라고 할 수 있다. 18세기 중반 당시 마장면의 가구 수는 90호, 총 인구는 312명(남 146, 여 166)이다.

같은 시기 부평부에 소재하고 있는 다른 면의 마을 수, 가구 수, 인구 등에 대해서 비교해 보면, 마장면의 마을 수(3개 마을)는 다른 면에 비하여 적은 편이다. 이를 통해 18세기 중반 마장면은 부평부 내에서도 마을이 많지 않고, 거주하는 가구 수가 적으며, 인구 또한 많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그러한 원인을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많은 사람들이 모여 살면서 생활을 영위하기는 여의치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

이후에 간행된 『부평부읍지』(1842), 『부평부읍지』(1871), 『부평군읍지』(1899) 역시 마찬가지로 마장면에 대한 내용을 상세하게 다루지는 않았다.

#### 마장면

관문으로부터 10리 거리에 있다.<sup>3</sup>

#### 마장면

관문으로부터 서쪽으로 10리 거리에 있고 2개 마을이 있다. 94호가 거주하고 있는데, 남자가 163명, 여자가 113명이다.<sup>4</sup>

#### 마장면

관문으로부터 서쪽으로 10리 거리에 있고 3개 마을이 있다. 109호가 거주하고 있는데, 남자가 241명, 여자가 191명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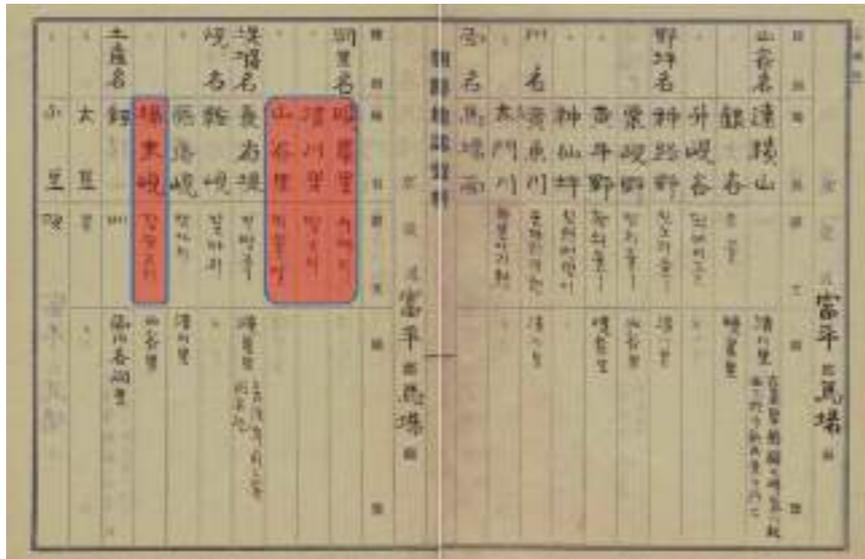
<sup>3</sup> 『부평부읍지』(1842), 방리.

<sup>4</sup> 『부평부읍지』(1871), 방리.

## 2. 일제강점기

1911년 조선총독부에서 발간한 『조선지리지자료』에는 경기도 부평군 소속으로 마장면이 기재되어 있다. 마장면의 산과 골짜기, 평야, 하천, 마을, 제언, 고개, 토산물 등을 종별로 나누고, 그에 해당하는 지명을 한자와 더불어 한글로 병기한 것이 특징이다.

이 중 마장면의 이름(洞里名)란에 세 개의 지명이 기재되어 있다. 효성리, 청천리, 산곡리라 명시하였고, 한글로 효성리는 서베리, 청천리는 말근내, 산곡리는 뽕말이라고 병기하였다.



❖ 『조선지리지자료』(1911)에 기재된 마장면의 지명

마장면은 1914년 3월 1일 행정구역의 폐합에 따라 장끝말을 병합하여 부천군 부내면에 편입되었다. 1920년대 초반부터 산곡동 일대는 일본 육군의 연습장(훈련장)으로 사용되면서 일반인들의 접근이 제한되었다. 인천육군조병창은 1939년 이 연습장 부지를 이관 받고 인근의 땅을 매수하여 산곡동 일원에 창설을 준비했다. 그 사이 1940년 4월 1일 인천부역 2차 확장 때 마장면은 인천부에 편입되어 일본식으로 백마정(白馬町)라 불렀다.

## 3. 해방 이후

1946년 4월 1일부터 일제식 동명 변경에 의하여 경기도 인천부 산곡동이 되었다. 산곡동은 계속적으로 인구가 증가하였으므로 효율적인 행정 관리를 위해, 1970년 7월 1일 시 조례 제628호에 의거하여 산곡1동과 2동으로 분동되었다. 그리고 1990년 1월 1일에는 인천직할시 북구 조례 제182호에 의거하여 부평3동을 부평3동과 산곡3동으로 분동하였고, 1993년 12월 1일 북구 조례 제322호에 따라서 산곡2동은 산곡2동과 4동으로 분동되었다. 1995년 인천직할시가 인천광역시로 확대됨에 따라 북구가 부평구와 계양구로 분구(分區)되면서 산곡1·2·3·4동은 부평구에 속하게 되었다.

### | 제3절 | 일반 현황<sup>5</sup>

#### 1. 산곡1동

법정동 산곡동 전체를 기준으로 볼 때 산곡1동은 좌측에 해당한다. 동으로는 마장로 백마장사거리, 서로는 원적산과 철마산, 남으로는 함봉산, 북으로는 뽕놀이공원까지 산곡1동의 행정구역이라고 할 수 있다.

산곡1동의 지리적 중심은 교통의 요충지인 원적사거리와 백마장사거리다. 백운고가 교로부터 이어지는 마장로는 원적로와 만나 원적사거리를, 길주로와 만나 백마장사거리를 이룬다. 이 두 사거리는 산곡1동으로 진입하는 관문인 동시에 상업의 요충지이다.

<sup>5</sup> 『2020 부평 구정백서』(인천광역시 부평구, 2020)를 참고하였다.



❖ 산곡1동 행정구역(출처 : 국토정보플랫폼 국토정보맵)

산곡1동의 남쪽에는 제3보급단이 위치하고, 북쪽으로는 노후한 아파트와 다세대 주택이 주를 이루고 있다. 그 중에서도 일제강점기 조선주택영단에서 운영하던 영단주택이 아직까지 남아 있다. 하지만 영단주택을 비롯하여 산곡1동 내에는 재개발이 진행되거나 추진되고 있는 부지가 많다. 현재 전체 인구 중 노인인구 비율이 매우 높으나 주택 재개발사업이 완료되면 젊은 층이 대거 유입될 것으로 기대되는 곳이다.

### 1) 인구·면적

산곡1동의 면적은 2.07km<sup>2</sup>로 부평구 전체 면적의 6.5%에 해당한다. 2019년 12월 31일 기준 세대수는 6,060세대, 인구수는 1만 3,568명(남자 6,837명, 여자 6,731명)이다. 행정구역은 31통 202반으로 구성되어 있고, 행정 인력은 15명이다. 민방위는 790명, 예비군은 618명이 편성되어 있다.

표 1 산곡1동 기본 현황

(2019.12.31.기준, 단위 : km<sup>2</sup>·%·세대·명)

면적	세대수	인구수			행정구역		행정인력	민방위	예비군
		계	남	여	통	반			
2.07 (구의 6.5)	6,060	13,568	6,837	6,731	31	202	15	790	618

### 2) 자생 단체

산곡1동의 자생 단체는 7종류이다. 각 자생 단체별 소속된 인원은 주민자치위원회 19명, 통장자율회 26명, 방위협의회 15명, 지역사회보장협의체 20명, 주민참여예산지역위원회 15명, 청소년지도위원회 10명, 풍물단 16명이다.

표 2 산곡1동 자생 단체 현황

(2019.12.31.기준, 단위 : 명)

주민자치위원회	통장자율회	방위협의회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주민참여예산지역위원회	청소년지도위원회	풍물단
19	26	15	20	15	10	16

### 3) 사회복지 대상자

산곡1동의 사회복지 대상 세대수는 3,107세대, 인구는 3,816명이다. 이 중 기초생활수급자는 639세대 948명, 한부모가족은 62세대 143명, 장애인은 875세대 875명, 기초연금수급 대상은 1,531세대 1,850명이다.

표 3 산곡1동 사회복지 대상 현황

(2019.12.31.기준, 단위 : 세대/명)

합계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장애인	기초연금
3,107/3,816	639/948	62/143	875/875	1,531/1,850

#### 4) 주요 시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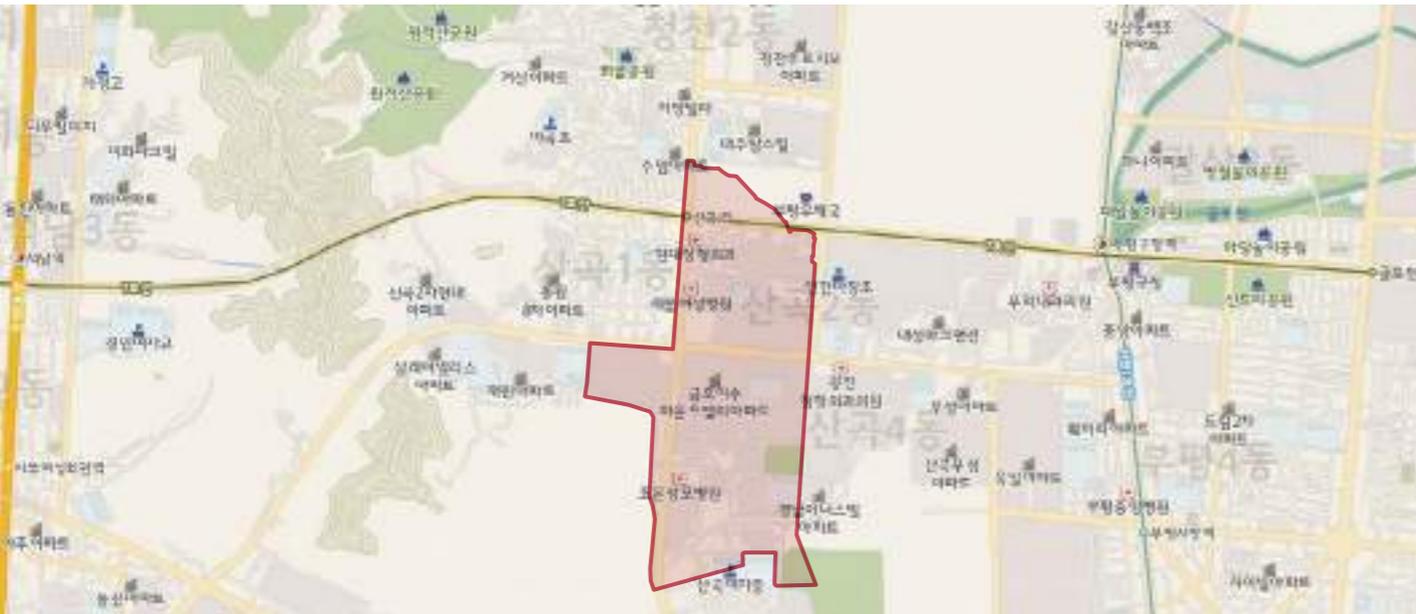
산곡1동의 주요 시설은 공공기관 2개소, 복지시설 9개소, 경로당 9개소, 어린이집 8개소, 학교 8개소, 병·의원 13개소, 약국 8개소, 금융기관 2개소, 종교시설 40개소 등이 있다.

표 4 산곡1동 주요 시설 현황

(2019.12.31.기준, 단위: 개소)

공공기관	복지시설	경로당	어린이집	학교	병·의원	약국	금융기관	종교시설
2	9	9	8	8	13	8	2	40

## 2. 산곡2동



❖ 산곡2동 행정구역(출처: 국토정보플랫폼 국토정보맵)

법정동 산곡동 전체를 기준으로 볼 때 산곡2동은 우측에 해당한다. 동으로는 안남로, 서로는 마장로, 남으로는 산곡남초등학교, 북으로는 부평우체국까지가 산곡2동의 행정 구역이라고 할 수 있다.

산곡2동의 지리적 중심은 교통의 요충지인 원적사거리와 백마장사거리다. 백운고가 교로부터 이어지는 마장로는 원적로와 만나 원적사거리를, 길주로와 만나 백마장사거리를 이룬다. 이 두 사거리는 산곡2동으로 진입하는 관문인 동시에 상업의 요충지이다.

산곡2동은 1980~1990년대 대규모로 개발된 아파트가 대부분이다. 주민의 90% 이상이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전형적인 도시 주거지역이다. 연식이 오래되었으나 생활 여건은 양호한 편이다.

#### 1) 인구·면적

산곡2동의 면적은 0.92km<sup>2</sup>로 부평구 전체 면적의 2.8%에 해당한다. 2019년 12월 31일 기준 세대수는 1만 930세대, 인구수는 3만 2,585명(남자 1만 6,088명, 여자 1만 6,497명)이다. 행정구역은 35통 224반으로 구성되어 있고, 행정 인력은 14명이다. 민방위는 1,779명, 예비군은 1,341명이 편성되어 있다.

표 5 산곡2동 기본 현황

(2019.12.31.기준, 단위: km<sup>2</sup>·%·세대·명)

면적	세대수	인구수			행정구역		행정 인력	민방위	예비군
		계	남	여	통	반			
0.92 (구의 2.8)	10,930	32,585	16,088	16,497	35	224	14	1,779	1,341

#### 2) 자생 단체

산곡2동의 자생 단체는 7종류이다. 각 자생 단체별 소속된 인원은 주민자치위원회 18명, 통장자율회 34명, 방위협의회 13명, 지역사회보장협의체 17명, 주민참여예산지역 위원회 15명, 청소년지도위원회 13명, 풍물단 21명이다.

표 6 산곡2동 자생 단체 현황

(2019.12.31.기준, 단위: 명)

주민자치위원회	통장자율회	방위협의회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주민참여예산지역위원회	청소년지도위원회	풍물단
18	34	13	17	15	13	21

3) 사회복지 대상자

산곡2동의 사회복지 대상 세대수는 2,392세대, 인구는 4,466명이다. 이 중 기초생활수급자는 309세대 546명, 한부모가족은 76세대 183명, 장애인은 1,242명, 기초연금 수급 대상은 1,944세대 2,495명이다.

표 7 산곡2동 사회복지 대상 현황

(2019.12.31.기준, 단위: 세대/명)

합계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장애인	기초연금
2,392/4,466	309/546	76/183	1,242	1,944/2,495

4) 주요 시설

산곡2동의 주요 시설은 공공기관 1개소, 복지시설 4개소, 경로당 16개소, 어린이집 25개소, 학교 4개소, 병·의원 33개소, 약국 11개소, 금융기관 8개소, 종교시설 27개소 등이 있다.

표 8 산곡2동 주요 시설 현황

(2019.12.31.기준, 단위: 개소)

공공기관	복지시설	경로당	어린이집	학교	병·의원	약국	금융기관	종교시설
1	4	16	25	4	33	11	8	27

3. 산곡3동



❖ 산곡3동 행정구역(출처: 국토정보플랫폼 국토정보맵)

법정동 산곡동 전체를 기준으로 볼 때 산곡3동은 남측에 해당한다. 동으로는 부원중학교, 서로는 화랑농장, 남으로는 신촌사거리, 북으로는 산곡남초등학교까지가 산곡3동의 행정구역이라고 할 수 있다.

산곡3동의 지리적 중심은 상업의 요충지인 2001아울렛 부평점(구 현대백화점)이다. 상권이 크게 형성되어 유동인구가 많은 편이다.

산곡3동은 원래 옛 화랑농장인데, 마장로 개통 이후 왼쪽에 화랑농장의 흔적이 많이 남아 있고 오른쪽은 대부분 사라져 사람들은 왼쪽만을 화랑농장으로 인식하고 있다. 왼쪽은 낙후한 다세대 주택이 주를 이루고 있고, 오른쪽은 현대아파트와 국민주택이 주를 이루고 있어 마장로를 기준으로 대비를 이룬다.

1) 인구·면적

산곡3동의 면적은 1.43km<sup>2</sup>로 부평구 전체 면적의 3.3%에 해당한다. 2019년 12월 31일

기준 세대수는 8,705세대, 인구수는 2만 3,211명(남자 1만 1,290명, 여자 1만 1,921명)이다. 행정구역은 27통 174반으로 구성되어 있고, 행정 인력은 15명이다. 민방위는 1,166명, 예비군은 1,076명이 편성되어 있다.

**표 9** 산곡3동 기본 현황

(2019.12.31.기준, 단위 : km<sup>2</sup>·%·세대·명)

면적	세대수	인구수			행정구역		행정인력	민방위	예비군
		계	남	여	통	반			
1.43 (구의 3.3)	8,705	23,211	11,290	11,921	27	174	15	1,166	1,076

## 2) 자생 단체

산곡3동의 자생 단체는 7종류이다. 각 자생 단체별 소속된 인원은 주민자치위원회 27명, 통장자율회 27명, 방위협의회 15명, 지역사회보장협의체 17명, 주민참여예산지역위원회 15명, 청소년지도위원회 14명, 풍물단 27명이다.

**표 10** 산곡3동 자생 단체 현황

(2019.12.31.기준, 단위 : 명)

주민자치위원회	통장자율회	방위협의회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주민참여예산지역위원회	청소년지도위원회	풍물단
27	27	15	17	15	14	27

## 3) 사회복지 대상자

산곡3동의 사회복지 대상 세대수는 4,181세대, 인구는 5,314명이다. 이 중 기초생활수급자는 645세대 946명, 한부모가족은 95세대 233명, 장애인은 1,272세대 1,272명, 기초연금 수급 대상은 2,169세대 2,863명이다.

**표 11** 산곡3동 사회복지 대상 현황

(2019.12.31.기준, 단위 : 세대/명)

합계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장애인	기초연금
4,181/5,314	645/946	95/233	1,272/1,272	2,169/2,863

## 4) 주요 시설

산곡3동의 주요 시설은 공공기관 2개소, 복지시설 6개소, 경로당 7개소, 어린이집 1개소, 학교 4개소, 병·의원 3개소, 약국 2개소, 금융기관 4개소, 종교시설 23개소 등이 있다.

**표 12** 산곡3동 주요 시설 현황

(2019.12.31.기준, 단위 : 개소)

공공기관	복지시설	경로당	어린이집	학교	병·의원	약국	금융기관	종교시설
2	6	7	1	4	3	2	4	23

## 4. 산곡4동

법정동 산곡동 전체를 기준으로 볼 때 산곡4동은 북측에 해당한다. 동으로는 부영로, 서로는 안남로, 남으로는 캠프 마켓, 북으로는 마장초등학교까지가 산곡4동의 행정구역이라고 할 수 있다.

산곡4동의 지리적 중심은 경남종합상가가 위치한 부평전화국사거리다. 남쪽 캠프마켓을 제외하고 대부분 대단위 아파트 단지로 형성되어 있다. 산곡4동은 미군 부대의 반환과 함께 주목을 받고 있다.



❖ 산곡4동 행정구역(출처 : 국토정보플랫폼 국토정보맵)

### 1) 인구·면적

산곡4동의 면적은 0.7km<sup>2</sup>로 부평구 전체 면적의 2.4%에 해당한다. 2019년 12월 31일 기준 세대수는 6,586세대, 인구수는 1만 8,581명(남자 8,929명, 여자 9,652명)이다. 행정 구역은 19통 126반으로 구성되어 있고, 행정 인력은 12명이다. 민방위는 1,018명, 예비군은 792명이 편성되어 있다.

표 13 산곡4동 기본 현황

(2019.12.31. 기준, 단위 : km<sup>2</sup>·세대·명)

면적	세대수	인구수			행정구역		행정인력	민방위	예비군
		계	남	여	통	반			
0.7 (구의 2.4)	6,586	18,581	8,929	9,652	19	126	12	1,018	792

### 2) 자생 단체

산곡4동의 자생단체는 6종류이다. 각 자생 단체별 소속된 인원은 주민자치위원회 22명, 통장자율회 19명, 방위협의회 14명, 지역사회보장협의체 26명, 주민참여예산지역위원회 16명, 청소년지도위원회 13명이다.

표 14 산곡4동 자생 단체 현황

(2019.12.31. 기준, 단위 : 명)

주민자치위원회	통장자율회	방위협의회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주민참여예산지역위원회	청소년지도위원회
22	19	14	26	16	13

### 3) 사회복지 대상자

산곡4동의 사회복지 대상 세대수는 2,301세대, 인구는 2,863명이다. 이 중 기초생활수급자는 206세대 318명, 한부모가족은 46세대 112명, 장애인은 714세대 749명, 기초연금 수급 대상은 1,335세대 1,684명이다.

표 15 산곡4동 사회복지 대상 현황

(2019.12.31. 기준, 단위 : 세대/명)

합계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장애인	기초연금
2,301/2,863	206/318	46/112	714/749	1,335/1,684

### 4) 주요 시설

산곡4동의 주요 시설은 공공기관 1개소, 복지시설 1개소, 경로당 8개소, 어린이집 14개소, 학교 2개소, 병·의원 23개소, 약국 7개소, 금융기관 3개소, 종교시설 13개소 등이 있다.

표 16 산곡4동 주요 시설 현황

(2019.12.31.기준, 단위: 개소)

공공기관	복지시설	경로당	어린이집	학교	병·의원	약국	금융기관	종교시설
1	1	8	14	2	23	7	3	13

제4절 문화유산 및 명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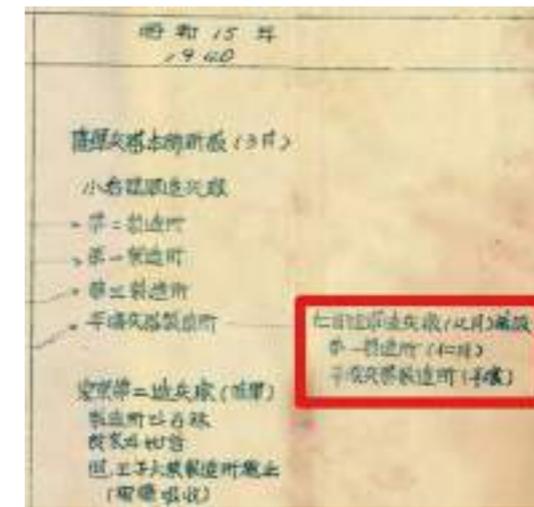
1. 인천육군조병창



❖ 인천육군조병창 전경(1948, 사진 Norb Faye)

인천육군조병창은 ‘조병창’, ‘부평조병창’, ‘인천조병창’ 등 제각각의 이름으로 불리고 있지만 일본 육군성의 자료 속 정식 명칭은 인천육군조병창이다. 1939년, 인천육군조병창의 본부와 제1제조소가 오늘날 부평구 산곡동, 부평동 일원에 건설될 계획이 수립되었고, 1940년 12월 인천육군조병창이 창설되어 1941년 5월 개창식을 거행한다.

당시 시대적인 분위기를 보면 일본의 제국주의가 심화되던 1930년대 말, 일제는 일본을 넘어 해외에 병기제조소 설립을 꾀했다. 애초에 일본은 1869년 도쿄에 포병 공장(砲兵工廠)을 설립하여 화약 및 서양식 병기를 제작하기 시작했다. 1923년 그 명칭을 일본육군조병창으로 개칭하여 본부를 도쿄에 두고, 나고야와 오사카에 공장을 두었으며, 고쿠라(小倉)와 평양에는 병기제조소를 두었다. 그러다가 1938년 중국 봉천(현 선양: 瀋陽)에 남만 공장을 신설하였는데 일본이 공장급을 국외에 설치한 것은 처음이었다.



❖ 인천육군조병창 창설 관련 연표(출처: 부평역사박물관)

중일전쟁 발발 후 일제는 전장으로의 원활한 물자 공급을 위해 한반도에 무기 생산을 위한 대규모 공장 건립을 계획하고 적당한 부지를 모색하였다. 그리고 낙점된 곳이 바로 부평이었다.

당시 부평은 인천항과 경인철도를 이용한 물자 수송이 용이하였고, 서울과 가까운 지리적 특성에 따라 공장 건설 및 운영에 필요한 인력의 모집도 수월할 것으로 판단하였기 때문에 부평에 조병창이 건립된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부평은 분지 지형으로 연합군의 공습을 피할 수 있다는 지리적 이점도 있었다. 1939년, 일본 육군은 부평에 조병창 건설 계획을 추진하기 시작했다. 가장 먼저 일본군 제20사단이 관할하던 부평연습장 70

만 8,000평을 우선 이관받기로 하였고, 인접한 민간 토지 43만 평을 추가로 매입해 마련하였다. 오늘날 부평구 산곡동 및 부평동 일대다.

1940년 일본 육군은 부평에 인천육군조병창을 신설하였고, 이에 따라 부평은 국내 최대의 군수지대로 변모하게 된다. 이곳에 강제 동원된 수많은 조선인 노동자들은 열악한 처우 속에서 고된 노역에 시달려야 했다. 한편 기존의 평양병기제조소는 인천육군조병창의 신설로 인하여 인천육군조병창 소속으로 편제가 바뀌게 되었다. 따라서 인천육군조병창은 부평의 제1제조소와 평양의 평양제조소를 관할하게 되었다.

1940년부터 해방 전까지 인천육군조병창에서는 수많은 무기가 생산되었다. 개창 당시 초기 생산 목표는 소총 2만 정, 경기관총 100정, 총검 2만 정, 군도 천 자루 제조였으나, 실제 월간 생산한 무기는(1943년 기준) 총검 1만 정, 소총 9,000정, 30kg 이하 소형 폭탄 2,800개, 100kg 중형 폭탄 2,000개에 달했다.



❖ 총검에 새겨진 인천육군조병창 마크



❖ 인천육군조병창 제작 총검(출처 : 부평역사박물관)

대규모 조병창의 건설은 물론이거니와 개창 이후 무기 생산을 위해서는 수많은 노동력이 필요했다. 우선 조병창 건설부터 살펴보자. 조병창은 군 시설물 공사였으나 공사는 민간 기업이 담당했다. 다다구미, 시미즈구미, 간토구미 등 당시 일본 굴지의 건설회사가 참여하였다. 민간 기업이 건설을 담당하였으나 노동은 근로보국대를 통해 이루어졌다. 강화와 김포 등지에서 근로보국대가 소집되었고, 학습권을 박탈당한 인천과 서울의 학생들은 노동력 착취의 희생양이 되었다. 개창 이후의 상황도 마찬가지였다. 생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희생된 것은 조선인이었다. 남녀노소 가릴 것 없는 많은 사람이 자신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매일같이 돌아가는 날카로운 기계 앞에 세워졌다. 무기를 생산해 내는 곳인 만큼 공장 내에서 부상을 입는 사람도 많았다.



❖ 인천육군조병창 기능자양성소 졸업증서(출처 : 부평역사박물관)



❖ 인천육군조병창 노동자 사진(출처 : 부평역사박물관)

일본육군조병창에서 일했던 경험이 있는 지영례에 따르면, 부평 산곡동에 거주하면서 소화고등여학교를 다니고 있었는데, 당시 마을 반장이 정신대(근로정신대) 모집을 위해 집집마다 돌아다니며 여학생의 이름을 적어가는 등 분위기가 험악했다고 했다. 그러다 조병창에서 일하면 정신대로 끌려가지 않는다는 말을 듣고는 하는 수 없이 들어가게 된 것이었다. 지영례는 조병창 내 병원 서무과로 배치를 받았는데, 하루에도 7-8명의 사람들이 손가락이 잘리거나 다리가 절단되어 병원으로 왔다고 했다. 다른 사람들에 비해 노동의 강도는 비교적 약한 편이었으나 매일같이 부상당한 사람들을 지켜봐야 했던 것은 지금까지도 잊혀지지 않을 만큼 끔찍한 일이라 했다.



❖ 캠프 마켓 내 남아 있는 인천육군조병창 건물

조선군관구 육군병기행정본부 소속이었던 인천육군조병창은 자체적으로 무기를 생산하기도 하였지만, 민간에 하청을 주기도 했다. 이 때문에 인천육군조병창 인근에 대규모 군수 시설이 들어서면서 부평은 한반도 최대의 군수기지로 변모하게 된다. 인천육군조병창을 필두로 히로나카상공, 국산자동차주식회사, 디젤자동차주식회사, 동경제강주식회사, 광양정공주식회사, 경성공작주식회사 등 다양한 공장들이 부평에 진출하면서 직원들을 위한 주택이 필요하게 되었으며 공장들은 각기 사택 및 기숙사, 합숙소 등을 지어 직원을 수용하였다. 공장의 진출과 함께 학교, 우편소, 극장 등도 생겨났다.<sup>6</sup>

6 『미쓰비시를 품은 여백, 사택마을 부평삼릉』(부평역사박물관, 2021) 143쪽을 참고해 수정하였다.



❖ 조선기계제작소 독(dock)의 잠수정(출처 : 화도진도서관)

인천육군조병창의 민간 하청공장 중 현재 동구 만석동에 있었던 조선기계제작소는 일본 육군의 잠수정을 만들기도 했다. 조선기계제작소는 용산공작주식회사, 부평의 히로나카상공주식회사와 더불어 조선의 3대 기계제작회사였다고 평가받는다. 조선기계제작소는 인천육군조병창으로부터 포탄강(砲彈鋼)을 납품하기도 하였으나 그 양이 많지는 않았다. 결국 조선기계제작소는 광산용 기계에서 선박용 기계제작으로 눈을 돌렸고, 마침 1942년 일본 육군이 잠수정 건조 계획인 마루유(まるゆ) 계획을 세우고 1943년 조선기계제작소를 건조 기업 중 하나로 지정하였다. 일본 육군병기행정본부(마루유 위원회)는 인천육군조병창을 통해 1943년 4월 말, 조선기계제작소에 잠수정 마루유를 연간 120척 건조하라는 명령을 하달하였다. 이를 대비하여 조선기계제작소는 신규 직원을 채용하였지만 자재, 부품의 조달에 난항을 겪고 경영난에 빠졌다. 잠수정 건조의 중심 시설인 독(dock) 건설도 지연되어 해방 때까지 단 4척만 건조했을 뿐이었다.<sup>7</sup>

7 인천광역시 동구사편찬위원회, 『동구사』상, 화도진문화원, 2019, 474-477쪽.

인천육군조병창을 비롯, 인근의 하청 군수공장에서 전쟁에 필요한 무기류를 만들기 위하여 필수적인 것이 바로 인력과 자원이었다. 일제는 1938년 4월 전시(戰時) 통제법인 「국가총동원법」을 공포하면서 인적 자원의 동원과 물적 자원의 공출(供出)을 이미 법제화한 상태였고, 이 법은 일본뿐만 아니라 식민지 조선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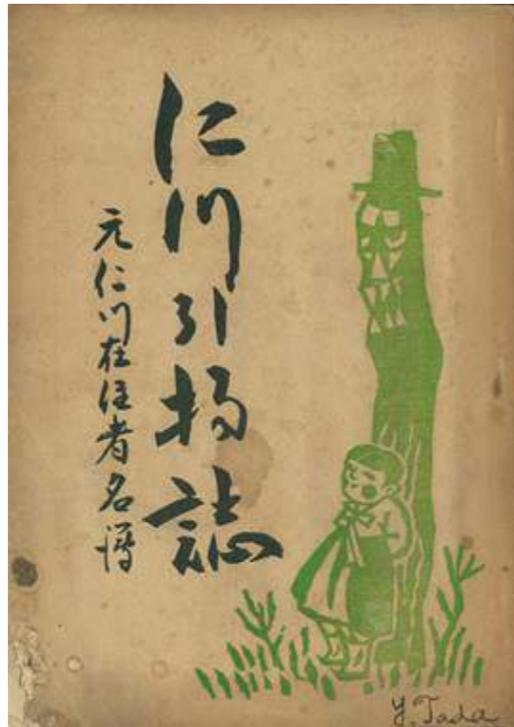
❖ 『인천』 1943년 6월호에 수록된 부평에서의 금속류 공출(출처 : 화도진도서관)



❖ 인천 경동에서 실시한 금속류 공출(출처 : 부평역사박물관)

일제는 무기 생산에 필요한 원료 확보를 위해 무자비한 광산 채굴은 물론 전국적으로 민간의 금속류 공출에 사활을 걸었다. 낫그릇과 제기, 세숫대야 등 일상생활에서 사용되는 물품은 물론이거니와 사찰의 불상과 동종에 이르기까지 금속으로 된 것은 그야말로 싹 거두어 간 것이다. 이렇게 공출된 금속류의 최종 종착지는 부평에 있는 인천육군조병창이었다. 인천육군조병창에서 낫그릇과 제기는 뜨거운 쇳물에 녹여진 후 서슬퍼런 기계 앞으로 끌려 온 조선인의 손을 거쳐 총검이 되었다.

최근, 인천육군조병창에 동원된 사람들을 구술한 구술자료집<sup>8</sup>이 편찬되어 인천육군조병창의 강제노동 실태에 대하여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게 되었다.



❖ 인천육군조병창 근무 인원의 귀환이 적혀 있는 『인천인양지(仁川引揚誌)』(1952)

8 이상의 면담·해제, 『일제의 강제동원과 인천육군조병창 사람들』, 국사편찬위원회, 2019.

1945년 8월 15일 해방 이후, 인천육군조병창은 일본 육군 대신 미군이 주둔하게 된다. 해방을 맞이하였으나 여전히 그곳은 금단의 땅으로 남아 있었다. 인천육군조병창을 접수한 미 제24군수지원사령부(ASCOM24)는 1945년 9월 16일 부평 주둔지를 애스컴 시티(ASCOM CITY)라 칭하였다. 인천육군조병창의 범위와 미군이 접수한 범위에 대해서는 명확한 연구 성과가 없으나, 1945년 미군이 접수할 당시에는 인천육군조병창 부지를 그대로 접수하였을 가능성이 크다.

## 2. 캠프 마켓



❖ 애스컴 시티 지도(출처: 부평역사박물관)

일제의 패망과 함께 인천육군조병창이 있던 부지는 미군이 점유하게 된다. 미군은 인천육군조병창을 포함한 군수산업단지를 접수하고 캠프 마켓, 캠프 하이에스(헤이즈), 캠프 그란트, 캠프 타일러, 캠프 아담스, 캠프 헤리슨, 캠프 테일러 등 7개 부대를 배치하

고 제24지원사령부(Army Service Command 24)를 주둔시켰다. 해방 후 인천항을 통해 들어온 미군이 인천육군조병창을 접수하였기 때문이다. 한국전쟁 발발로 인해 철수한 미군은 1·4 후퇴를 기점으로 하여 다시 조병창을 접수하였다. 이후 이곳은 주한미군 부대에 전쟁물자와 식량을 보급하는 보급창 역할을 담당했다.



❖ 1950년대 캠프마켓(출처: 부평역사박물관)

이처럼 일제강점기 일본 육군의 조병창이 있었던 곳은 해방과 한국전쟁을 거치면서 미군이 점유하게 되었다. 1973년 애스컴이 공식 해체하며 부평의 미군 부대는 캠프마켓만 남고 다른 부지들은 반환되었다.

1973년 애스컴 시티가 해체되면서 캠프마켓을 제외한 부지는 많은 변화를 맞이하였다. 그중에서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생겨난 것이 가장 큰 변화라 할 수 있다. 동아아파트, 현대아파트, 육일아파트, 대림아파트, 경남아파트, 우성아파트 등 부평동과 산곡동 일대에 대규모 아파트가 생겨나게 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부평의 경관 변화만을 가져온 것은 아니었다. 아파트 단지의 형성은 거주 인구의 급격한 증가를 가져왔을 뿐만 아니라, 유동 인구의 증가로 기존과 다른 상

권 형성으로 이어졌다. 특히 미군을 대상으로 한 상점들이 많았던 부평 3동 신촌의 경우, 애스컴 시티의 해체 후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상업 시설로 변화를 모색하거나 아예 주거 시설로 바꾸기도 하였다.

그럼에도 현대아파트와 동아아파트 사이에 있는 캠프마켓은 아직까지 미군의 군사 시설로 존재하고 있다. 더이상 부평 시내 한복판에 미군 부대가 남아 있을 이유가 없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되었다.

1996년 시민이 주축이 되어 반환 운동을 벌인 끝에 2002년 한미연합토지관리계획(Land Partnership Plan)이 체결되어 캠프마켓 부지의 전환이 마련되었다. 이후 2013년 7월, 인천시가 국방부 미군기지이전사업단과 「주한미군 반환 공여지(캠프마켓) 관리·처분 협약」을 체결하면서 캠프마켓 이전이 가시화되는 듯했다. 그런데, 평택 미군기지로의 캠프마켓 이전 시점을 예단할 수 없는 상황에서 캠프마켓 내 토양오염 문제가 제기되었다. 미군이 폐기물을 소각하고 난 뒤 생긴 맹독성 폐기물을 무단으로 땅에 매립하여 다이옥신을 비롯한 각종 독극물이 검출된 것이다. 따라서 기지 내 오염 지역은 정화처리에 들어갔다.

2019년 12월 11일, 국방부는 한미주둔군 지위 협정 합동위원회에서 캠프마켓 등 4개의 미군 부대를 즉시 반환받기로 합의하였다. 하지만 곧바로 캠프마켓이 시민의 품으로 돌아온 것은 아니었다. 오염 지역은 정화처리 작업을 수년간 진행해야 하며, 나머지 구역도 일반인의 출입이 제한되었다.

2020년 10월 14일, 캠프마켓의 남쪽 구역이 시민들에게 개방되었다. 언론에서는 80여 년 만의 개방이라 하였으나, 실제로 일본군의 군사 훈련 장소인 부평연습장이 설치되었던 시기를 감안하면 대략 100여 년만의 개방이었다. 개방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이다.

한편 캠프마켓의 건축물은 인천육군조병창 때부터 사용하던 건축물이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문화재청은 캠프마켓 내 근대건축물 현지조사를 실시하여 조병창과 관련 유적의 보존을 인천시에 권고하였고, ‘캠프마켓 반환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시민참여위원회’는 기존 건축물의 활용 가능성과 오염 정도를 토대로 건축물의 존치, 철거 여부를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혀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

### 3. 영단주택



❖ 영단주택 골목

산곡동 영단주택은 1941년 경인기업주식회사의 수탁사업으로 시작하여 건설된 노동자 주택으로 인천육군조병창의 임대주택으로 관리하였다. 1943년 조선주택영단은 경인기업주식회사에서 건설한 주택을 매입하였고, 1944년 조선주택영단은 214호의 추가 주택 건설을 계획하였다. 경인기업주식회사에서 건설한 주택과 조선주택영단에서 건설한 주택을 통칭하여 영단주택이라 부른다. 산곡동 주민들은 경인기업주식회사가 건설한 주

택을 ‘구사택’, 조선주택영단에서 건설한 주택을 ‘신사택’이라고 나누어 부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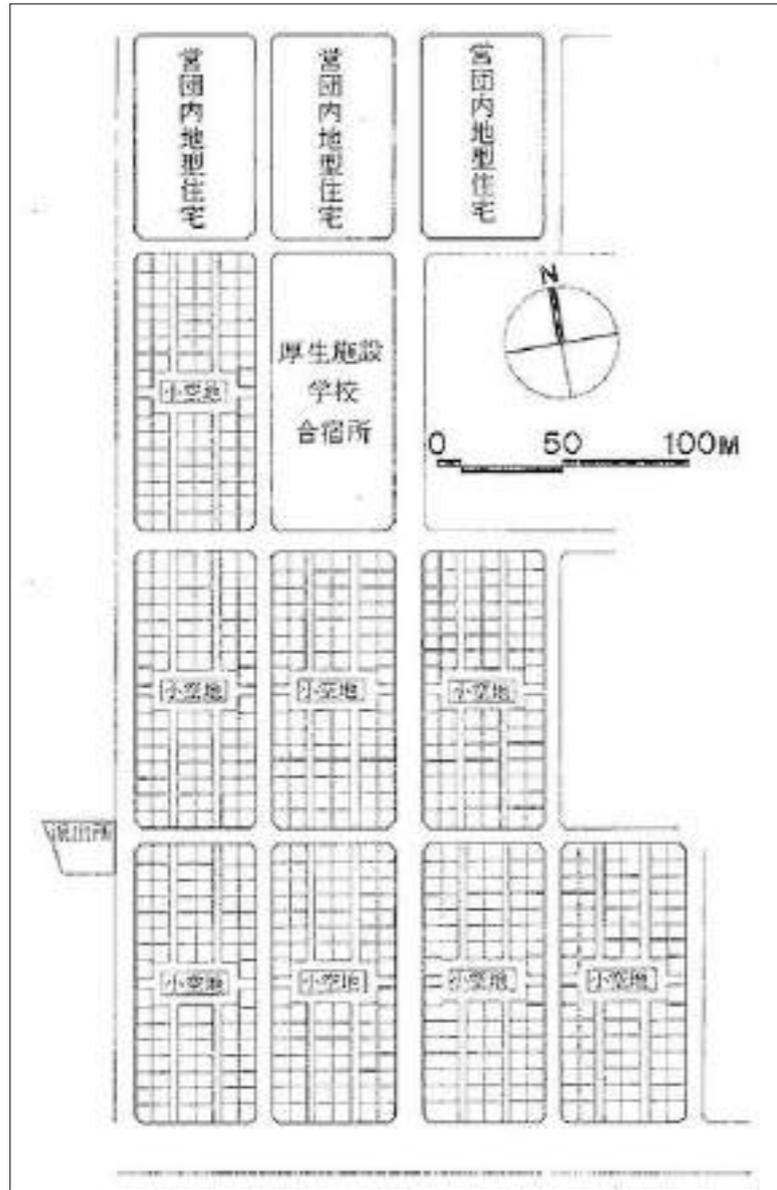
경인기업주식회사가 구사택을 건립한 경위부터 살펴보도록 하겠다. 1930년대 후반부터 부평에는 히로나카상공을 비롯하여 근대식 공장들이 들어서기 시작하였다. 1940년 인천부의 부역 확장과 경인시가지 계획에 맞추어 공장의 건설과 노동자의 유입이 급속히 증가되고 있었다. 당시 재계 인사들은 부평에 모여든 노동자들에게 공급할 노동자 주택을 건립하고자 했다. 전 상공회의소 소장이었던 가다 나오지(賀田直治)와 경성부 의원 조병상(曹秉相)을 중심으로 경인기업주식회사를 설립하였다. 경인기업주식회사는 1940년 2월 4일 발기인회를 개최하고 경기도로부터 부평공업지 내에 2만 평을 분양받아 1940년에 500호, 1943년까지 4,500호를 건설할 계획을 세웠다.<sup>9</sup> 1940년 7월 7일, 조병상이 사장으로 임명되었다. 경인주식회사는 ‘경인 간의 도시계획 안에 적응하여 주택지 및 공업지 조성 및 이에 대한 주택의 경영 및 이에 관련된 각종 사업’을 수행하고자 하였다. 경인기업주식회사가 공식적으로 설립된 것은 1940년 7월 18일이었다.

이들은 경인기업주식회사를 설립하고 경기도로부터 부평 내 토지 2만 평을 분양받아 근로자 주택 500호 건설을 계획하였다. 군수공장의 설립에 따라 부평에 많은 사람이 이주할 것으로 보고 사업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당시의 건설 계획을 살펴보면 전체 1만 3,013평의 부지에 8개의 블록을 만들었으며, 한 개의 블록에는 6동 88호를 배치하였다. 전체적으로 48동 704호의 조선식 목조가옥이 세워진 것이다. 1호당 크기는 6.25평이었다. 1940년대 초반에 완공을 이룬 경인기업주식회사의 주택에는 조병창의 노무자들이 입주하여 사택으로서의 역할을 하게 되었다.

경인기업주식회사 외에도 산곡동에 주택을 건설한 회사가 있다. 바로 조선주택영단이다. 조선주택영단은 1941년 조선총독부에서 설립한 법인체인데, 조선주택영단이 지은 주택을 조선영단주택 혹은 영단주택이라 부른다. 1944년 8월에 정지 공사를 끝낸 조선주택영단은 부평 산곡동에 500호를 건설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으나 곧이어 맞이한 해방으로 인해 실현시키지 못했다. 해방 전까지<sup>10</sup> 조선주택영단이 건설한 주택은 216호였다.

9 「경인기업 발기」, 『매일신보』, 1940년 2월 6일자.

10 해방까지 건설이 완료되지 않아 해방 이후에 준공되었다는 증언도 있다.



❖ 산곡동 영단주택 구성도(富井正憲 外, 『山谷洞舊營團受託(住宅地, 住宅)の計劃とその變容について』, 『日本建築學會大會 學術講演梗概集』, 1990)

경인기업주식회사와 조선주택영단의 주택 건설 사업의 표면적인 목적은 인구 급증에 따른 주택 부족의 해소였지만 실질적인 목적은 따로 있었다. 바로 한강 이남 최대의 군수단지였던 인천육군조병창으로의 원활한 노동력 공급을 위한 것이었다.

해방 이후, 미군정에 인수된 산곡동 영단주택은 인천육군조병창 노동자들이 아니라 부평 미군기지에서 근무하는 한국인 노동자로 채워졌다. 인천에 들어온 미군은 일본이 남겨 놓은 시설과 물자를 그대로 사용했다. 미군은 옛 조병창을 에스컴 시티(ASCOM City)로 이름 지었으며, 이후 미군을 위한 새로운 군수기지로서의 역할을 하게 되면서 영단주택에도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다. 가장 먼저 일어난 변화는 마을 구성원이었다. 해방 후 인천육군조병창 노동자들은 각자의 고향으로 돌아갔고, 영단주택은 에스컴 시티에서 근무하는 한국인 노동자가 대신 채웠다. 미군 부대 앞에서 종사하는 여성 접대부들도 많이 유입되었다.

1973년 에스컴 시티가 완전 해체하고 캠프 마켓만 남게 되면서 영단주택도 많은 변화가 생겼다. 에스컴 시티의 해체를 앞두고 이미 많은 미군 부대 관련 종사자들이 다른 지역으로 떠나고 있었다.

미군 부대 종사자들이 떠난 자리를 채운 것은 부평4공단 및 인근 공장 노동자들이다. 1968년 부평4공단을 비롯하여 주안5·6공단 등 부평을 포함한 인천 일대는 산업화의 물결 속에 많은 노동력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일자리를 찾아 공장에서 가까운 부평에 거주하는 노동자들이 늘어나게 되었다. 그들은 값싼 주거지를 찾아 영단주택으로 모여 들었다. 바로 대우자동차 부평공장과 한국베어링 그리고 부평공단에서 근무하는 노동자들이었다. 각 가정의 빨랫줄에 공장 작업복이 널려 있는 모습은 당시 뒷골마을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일상적인 모습이였다. 영단주택은 경인기업주식회사와 조선주택영단에 의해 계획적으로 만들어진 후 조병창과 미군기지를 거쳐 산업화 시대의 공장들과 함께 역사적 흐름을 같이해 왔다. 그리고 영단주택은 때마다 주인을 달리하며 노동자 주택으로서의 역할을 해왔다. 이처럼 영단주택은 일제강점기부터 지금까지 부평 근현대사의 산증인이라고 할 수 있다.

지난 2014년 부평역사박물관에서는 산곡동 영단주택에 대한 학술조사를 실시하여 『부평 산곡동 근로자 주택』을 발간하였고, 인천민속학회와 공동으로 학술회의를 진행한 바 있다. 산곡동 영단주택은 2010년 재개발예정구역으로 지정되어 2020년 4월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했다.

#### 4. 부평 지하호



❖ 부평 지하호 현장조사 모습(출처 : 부평문화원, 『토굴에서 부평을 찾다』, 2017)

부평 함봉산 기슭에는 일제강점기에 착굴한 지하호의 흔적이 여럿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지하호는 부평의 대표적인 네거티브 헤리티지(Negative Heritage)라 할 수 있다.

네거티브 헤리티지는 부정적 문화유산이다. 서울에 있는 서대문형무소, 중국의 뤄순 감옥, 폴란드에 있는 아우슈비츠수용소처럼 역사적으로 시대의 아픔이 담긴 건물이나 장소 등을 말한다. 우리나라에는 주로 일제강점기의 것들이 많다.

인천광역시 부평구에도 네거티브 헤리티지가 여럿 있다. 인천육군조병창, 삼릉 사택, 산곡동 영단주택 등이 대표적이다. 그리고 또 하나, 함봉산에 위치한 지하호가 있다. 그동안 새우젓을 숙성시키는 토굴로 언론에 소개된 적은 있어도 지하호 자체가 조명을 받지 못했다. 부평 지역 토박이나 인근 주민들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부평 사람들도 지하호의 존재 자체를 잘 모른다. 현재 지하호는 확인된 곳만 모두 24곳이다. 부평 함봉산 자락, 화랑농장 일대, 인근 군부대 등에 흩어져 있는 것으로 2016년 부평문화원의 조사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실증되었다.



❖ 부평 지하호 위치 안내도(출처 : 부평문화원, 『토굴에서 부평을 찾다』, 2017)

부평 지하호를 본격적으로 조사한 부평문화원에서는 지하호의 위치와 속성에 따라 크게 A-D까지 총 4개의 구역으로 나누었다. A구역은 산곡동 화랑농장 마을에 위치한 곳으로 모두 7곳이다. B구역은 과거의 위성사진으로 확인 가능하지만 지금은 매립된 4 곳이며, C구역은 새우젓 숙성 토굴로 알려진 함봉산 자락의 7곳, D구역은 인근 군부대 내에 있는 6곳이다. 지역민들은 이전에는 더 많은 지하호가 있었다고 하지만 현재는 확인이 불가능하다. 단지 추정만 할 수 있을 뿐이다.

새우젓 토굴이었던 C구역의 지하호들은 다른 곳보다 접근이 용이하고 규모가 크다. 그동안 조OO 씨가 운영해 왔다. 2016년 부평문화원에서 조사할 당시만 해도 지하호마다 숙성 중인 새우젓이 가득 차 있었지만 지금은 내부 문제로 운영을 중단했다.

C구역의 부평 지하호는 숫자와 크기 면에서도 타 지역의 지하호보다 우위에 있다. 새우젓 드럼통이 한곳에 1,000여 개 이상 들어갈 정도로 규모가 크다. C구역 지하호 전체 보관량을 따지면 어림잡아 7,000여 개는 거뜰하게 넣을 수 있다. 여기에 접근하려면 우선 부평 화랑농장 지역을 찾아가야 한다. 인평자동차고등학교 뒤쪽에 조그마한 산길을 따라 걷다 보면 산을 깎아 만든 절벽 아래에 지하호 입구가 군데군데 나타난다.

겉에서 볼 때는 허름한 철문에 입구도 좁아 마치 방치된 굴처럼 보이지만 안쪽으로 들어가면 뜻밖의 공간과 마주친다. 짧은 것은 40여 미터, 긴 것은 150여 미터에 달하는 암벽동굴이 산기슭의 속살을 뚫고 길게 이어져 있다. 지하호들의 폭은 거의 일정하게 4.5~6미터로 성인 두세 명이 나란히 걸어도 불편함이 없을 정도다. 높이 또한 2~3미터로

균일하다. 같은 목적 아래 계획적으로 판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지하호 내부를 걷다 보면 굴을 팠던 흔적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나무로 된 말뚝도 곳곳에 박혀 있고, 자연적으로 자란 중유석까지 확인이 가능하다. 천장에서 한두 방울씩 떨어지는 암반수로 인해 바닥에는 항상 물이 고여 있어 습도가 높다. 대신 일 년 내내 항상 같은 온도를 유지하기 때문에 새우젓을 숙성시키는 데는 최적의 환경이다.

어릴 적 십정동에 거주한 주민은 토굴 앞에서 사람들이 각 반별로 나뉘어 조병창에서 진행되는 일련의 작업을 했고, 거기에 물건도 보관했다는 증언을 해왔으나, 지금에 와서 직접 땅파기의 현장을 경험한 사례를 찾는 건 어려울 것으로 생각된다. 다만, 과거 젊었을 때 어른들로부터 들었던 토굴의 이야기가 마을에 계속 전해 내려와 전설처럼 남아 있을 뿐이다.

일본의 패망과 함께 존재 가치가 없어진 지하호들은 세월의 흐름에 따라 그 모습 또한 변화되었다. 건물이 생기면서 자연스레 없어졌고, 인명사고가 생겨 마을 주민들이 지하호를 폐쇄시키기도 했다. 개인 사유지로 편입되면서 냉장고나 창고, 버섯 재배 공간으로 쓰이기도 하고 새우젓 숙성 공간으로도 사용되어 왔다. 부평 지하호는 부정적 문화유산인 동시에 우리의 삶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곳으로 시대에 따라 변화하고 있었다.

2016년 부평문화원에서는 부평 함봉산에 있는 지하호(당초 토굴이라고 명시하였으나 추후 지하호로 사업 명칭 변경)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였고, 조사 결과는 자료집으로 편찬되어 큰 호응을 받았다. 지역 언론의 집중 스포트라이트를 받는다면, 공영방송 KBS에서 취재를 나와 전국적인 이슈가 되기도 하였다.

특히 이 조사 사업이 의미가 있었던 것은 다름 아닌 지역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였다. 부평문화원에서 진행한 ‘부평토굴 생활문화역사콘텐츠 발굴 프로젝트’ 사업에는 부평 지역의 역사와 문화에 관심이 많은 어르신들이 콘텐츠발굴단으로 참여하여 의미를 더했다.

이 사업을 통하여 함봉산 일대 부평 지하호 24개소의 위치도가 그려졌고, 지하호를 조성한 시기와 목적을 추정하였으며, 지하호 일대의 역사와 변화상에 대해 알 수 있었다.

전통 시대 부평의 중심지는 관아가 위치한 계양산 밑자락이었다. 그러다가 1899년 경인철도가 부설되며 부평의 중심은 지금의 부평역 일대로 옮겨온다. 철도는 이동과 물자 수송의 편리에 활용하였으나 한편으로는 수탈의 도구로 이용되었다.

1930년대 후반, 아시아·태평양전쟁이 본격화되기 시작되며 부평은 일제의 야욕을 실현시키기 위한 군수기지로 전략한다. 일본 육군은 부평역 앞에 조병창(造兵廠)이라고 하는 병기 공장을 설립하였다. 이 시기를 전후하여 조병창 인근에는 대규모 군수공장과 하청을 맡은 중소 공장들이 생겨나 조병창에 군수물자를 납품하는 형국이었다. 조병창과 인근 군수공장에 징용당한 조선인 노동자들은 위험한 작업 환경으로 내몰려야만 했다.



❖ 캠프 마켓 내부 군용철도

일제강점기의 자료를 보면 부평역으로부터 부평 지하호 인근까지 군수 철도 지선(支線)이 닿는다. 현재까지도 부평역을 출발하여, 캠프 마켓을 경유해 제3보급단 내부까지 이어지는 선로가 남아 있다. 이 때문에 단순한 방공호가 아니라 소규모 군수 장비를 보관하는 장소였다는 추측도 제기되었다.

군수 목적으로 조성된 지하호, 이곳은 또 다른 강제 동원의 현장이었다. 1938년 4월, 전시(戰時) 통제법인 「국가총동원법」이 공포되며 인적 자원의 동원(動員)과 물적 자원의

공출(供出)이 법제화되었다. 이 법은 일본뿐만 아니라 식민지 조선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었다. 이로써 일제는 한반도 내 인적, 물적 자원을 통제할 수 있게 되었다. 군수기지 부평은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 지하호 조성에 수많은 조선인들이 이곳에서 강제 노역을 했을 것이라 추정하는 이유다.

부평 지하호는 한동안 새우젓 저장고로 이용되었다. 예전에 부평구청이 이곳의 실태를 조사할 때 ‘함봉산 새우젓 동굴 현황’이라 한 것처럼 꽤 오랫동안 새우젓을 저장하고 숙성시키는 곳으로 이용되었다. 일 년 내내 내부 온도가 12~15℃를 유지하여 저온 숙성에 유리한 조건이었다.

지하호와 성격은 다르지만 갯도에 새우젓을 보관하여 특산화한 사례는 우리에게 익숙하다. 바로 광천토굴의 새우젓은 광천 지역의 대표적 산물이 되었다. 한편 경기도 광명시에서는 폐쇄된 가학광산을 활용, 광명동굴로 브랜드화하여 지명의 명소가 되기도 했다.

몇 해 전부터 부평 지하호는 더 이상 새우젓 동굴로 불리지 않는다. 냉동저장고의 발달로 이용이 감소하였고, 강화된 위생지침에 따라 부적합 시설로 판정되면서 부평 지하호 속의 새우젓은 사라져버렸다.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만 남겨질 부평 지하호를 다시 수면으로 끌어올린 것은 서두에 언급했던 조사 사업이었다. 조사 사업에 이어 그 다음 해에 사업에 참여하신 어르신들이 중심이 되어 ‘부평 토굴의 노래’라는 이름의 노래를 만들고 ‘아픈 역사의 현장, 부평토굴’이라는 그림자극을 제작하였다. 현재 이 두 영상은 유튜브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0년 현재, 안타깝게도 사유지인 관계로 부평토굴에 대해서 일반 관람은 불가능한 상태다. 부평문화원에서 진행되는 답사 프로그램을 통해 제한적으로 관람이 가능할 따름이다. 부평이라는 도시의 역사성을 간직한 현장이라는 데 의미가 있다고 의견이 모아지고 있으며, 이에 대한 활용 방안도 긍정적으로 검토 중에 있다.

함봉산에 있는 지하호 이외에도 부영공원 내에 지하호가 존재한다. 2014년 부영공원 문화재 시굴조사 당시 부영공원 내 지하호의 존재를 확인했으나, 토양오염 정화사업을 위한 목적으로 실시된 시굴조사였기 때문에 지하호에 대한 후속 조사로 이어지지 않고 지하 시설이 훼손되지 않도록 입구를 봉쇄하였다. 부영공원이 인천육군조병창 제1제조소에 속했기 때문에 이 또한 일본군이 만든 지하 시설일 가능성이 크다. 하자마구미(間組)가 공사를 맡아 조병창 지하에 조성하던 중 일본의 패전을 맞아 미완성 상태가 된

구조물이다. 인천조병창에서 생산한 군수물자를 수송하기 위한 목적으로 조성했다고 알려져 있다.<sup>11</sup> 그러다가 2020년 인천시는 부영공원 내 지하호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어, 앞으로 연구 결과와 활용 방안이 기대된다.



❖ 부영공원 전경(2001, 부평구청)

## 5. 검정사택(도쿄제강 사택)

‘검정사택’은 일제강점기 군수기지화된 부평 산곡동과 청천동에 걸쳐 있는 사택이다. 사택이라고 하면, 회사에서 운용하거나 임차해서 쓰는 주택을 의미하는데 그동안 이 사택을 짓거나 운영한 주체에 대해서는 알려진 게 없었다. 다만 인천육군조병창과 인근 군수공장의 확장과 관련 있을 것이라는 추정이 있을 뿐이었다.

검정사택의 명칭 또한 명확히 알려지지 않았다. 지붕이 검정색이어서, 혹은 벽체가 검정색이어서, 혹은 콜타르가 함유된 종이를 벽지로 사용해서 검정사택이라고 부른다는 이야기만 있을 뿐이었다.

11 정해경, 「일제하 부평 인천육군조병창과 연계시설」, 『3.1운동 100주년 기념 토크콘서트 - 인천愛독립운동과 부평의 조병창 이야기』, 2019, 11쪽.

2020년 부평역사박물관에서는 검정사택에 대한 학술조사를 진행하였다. 검정사택이 포함된 구역이 '청천1주택재개발 사업'으로 인하여 철거를 앞둔 시점에서 검정사택의 역사와 건축, 민속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기록으로 남기고자 한 것이다. 이를 통하여 그동안 알려지지 않았던 검정사택이 일본 도쿄제강(동경제강) 조선공장의 사택임을 확인하였다.

1940년대 초, 도쿄제강은 조선 진출을 염두에 두고 공장과 사택 부지로 부평을 택하였다. 당시 경기도는 인천육군조병창이 있는 부평에 대규모 공업용지를 조성하여 기업을 유치하고 있었다. 도쿄제강은 지금 한국GM 부평공장의 남서면에 해당하는 부지를 공장 부지로 매입하고, 공장 왼쪽으로 한 블록 건너에 사택을 마련하였다.



❖ 검정사택(출처 : 부평역사박물관)

도쿄제강은 일제강점기 무기 공장인 인천육군조병창의 민간 하청 공장이었다. 1940년대 초반 경기도 공업용지 조성 문서 도면에는 도쿄제강 공장 부지와 사택 부지의 규모 및 매입 가격이 나와 있고, 『도쿄제강 70년사』에 조선공장(부평공장)의 건설과 운영, 폐망 후 손실액 등이 상세히 적혀있다. 또한 『동경제강 100년사』에 공장 부지와 사택 부지에 대한 간략한 위치도가 첨부되어 있는데, 검정사택의 위치와 동일하다.



❖ 검정사택 지역(출처 : 부평역사박물관)



❖ 검정사택 내부 실측(좌)과 건축자재 시료 채취 모습(출처 : 부평역사박물관)

2020년 7월, 검정사택이 철거되었다. 그러나 철거 이전 부평역사박물관에서 수행한 건축물 실측조사와 건축 자재 시료 분석, 역사 조사, 건축 조사, 구술 조사 등을 통해서 검정사택의 실체가 어느 정도 규명되었다.

## 6. 화랑농장<sup>12</sup>



❖ 1953년 5월 6일 화랑농장 창설 기념 사진(출처: 부평역사박물관)

1953년 화랑농장은 이북 출신의 상이용사 김국환이 중심이 되어 형성된 협동농장이다. 화랑농장은 신라시대 화랑도 정신을 계승하자는 의미에서 붙인 이름이라고 한다. 김국환은 화랑농장의 창설자이면서 농장장으로, 후에 2대 인천시의회 시의원을 지낸 인물이다.

김국환은 어린 시절을 만주에서 보냈다. 일본군에 입대하였다가 탈영 후 독립군에 들어가 항일 투쟁을 펼쳤다. 해방 이후 고향으로 돌아갔으나 공산당에 의하여 옥고를 치르고 월남하였다. 1949년 육군에 자원입대하여 한국전쟁을 맞이하였다가 포항 영덕 지구 전투 중에 오른쪽 어깨에 총상을 입고 부산 제5 육군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그러다

가 부산에 있는 원호부대인 육군 제839부대로 배속되어 1951년 상이군인으로 명예 제대를 했다. 김국환은 제대 이후 이북으로 가지 않고 도립 인천병원에서 치료를 받았고, 그러던 중 부평에 터를 잡고 상이용사들을 규합하게 되었다.

김국환을 중심으로 산곡동 함봉산 자락에 상이용사들이 집단 거주하게 된 것은 1951년 가을부터였다. 김국환 특유의 통솔력으로 산곡동에 모여든 그들은 모두 이북 출신의 국군 상이용사였다. 남한 출신의 상이용사와는 다르게, 이북 출신의 상이용사들은 전쟁 중에 고향으로 돌아갈 수가 없었기 때문이었다.

초기 이곳으로 모여든 상이용사의 수는 대략 30명 내외라고 추정된다. 그들은 일제 강점기 일본군이 함봉산 자락에 군사용으로 파 놓은 지하호에 모여 살았다고 한다. 이것이 화랑농장의 시작이었다.

이곳은 일본 육군에서 운영하던 인천육군조병창 부지의 일부로 한국전쟁 당시에는 미군이 점유하고 있었다. 주민들의 증언에 의하면 미군들이 이곳을 지나다가 사람들이 굴속에서 나와 놀랐다고 한다. 그때 굴속에 거주하던 사람들이 바로 김국환을 필두로 한 이북 출신의 국군 상이용사였다.

1953년 5월 6일, 김국환은 상이용사들의 자활을 위한 협동농장을 만들고 '신라의 화랑도 정신을 본받자는 의미'로 화랑농장이라 이름 붙였다. 김국환 유족이 소장한 화랑농장 창설 기념 사진에는 '화랑농장본부' 현판이 달린 단층 건물 앞에 상이용사들이 40명 모여있다.

1952년 2월, 김영직은 아들 김국환에게 교회 예배당을 세우자고 하였다. 지금의 산곡 3동 협성원 자리에 천막을 세우고 천막 위에 십자가를 달았다. 그리고 교회 이름을 '화랑교회'라고 하였다. 농장보다 교회가 먼저 생겨났으니, 화랑농장이라는 지명의 기원은 화랑교회라 보아도 무방하다고 할 수 있다.

천막 교회에서는 30여 명의 상이용사들이 숙식을 하면서 예배를 드렸다. 화랑교회의 초대 목사인 우태호는 김국환이 미군과의 통역을 위하여 초빙해 왔다고 전한다. 한국 정부의 지원을 기대하기 힘들었던 시절, 목사이면서도 영어에 능통한 우태호 목사는 미군의 협조를 이끌어내고자 하였다.

1952년 9월, 미 제1해병대의 군목인 존. H. 물러 대위가 화랑교회에 관심을 가지며 큰 도움을 주었다. 상이용사들에게 식량을 지원해 주는가 하면, 교회 예배당을 건축할 자재

12 『상이용사의 보금자리, 부평 화랑농장』(부평역사박물관, 2019)을 참고하였다.

도 제공해 주었다. 1953년 2월, 약 100여 명을 수용할 수 있는 목재로 된 예배당이 세워졌다. 이것이 현재 화랑교회의 전신이라 할 수 있다.

1953년 화랑농장에 들어온 상이용사들의 수는 급증하였다. 1953년 5월에는 화랑농장에 192명의 상이용사가 있었는데, 1955년 2월에는 200여 명의 상이용사가 있다고 보도되었다. 초기 30여 명이 모였던 것과 비교해 볼 때 괄목할 만한 수치이다.

화랑농장의 형성에는 상이용사 출신이자 제2대 시의원을 지낸 김국환의 공이 컸다. 1950년대 초 정부는 상이용사들에 대한 보훈 정책과 처우 개선 등에 집중할 수 없는 형편이었다. 따라서 상이용사들을 한곳에 모아 놓고 스스로 자활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도움을 주고자 하였다. 화랑농장 역시 그중 한곳으로, 김국환을 중심으로 상이용사들이 동참하여 협동농장을 조성한 것이다.



❖ 화랑농장 내 '경기정양원 인천분실'(출처 : 부평역사박물관)

상이용사 김지수의 아들 김문용 화랑교회 장로의 증언에 따르면, 화랑농장은 상이용사들의 자활 농장인 동시에 중앙상이군인 정양원(靜養院)이었다고 한다. 화랑농장은 경

기정양원의 분실(分室)이었다. 화랑농장에 들어온 상이용사들은 각 기수가 있어서 1기 정양원, 2기 정양원, 3기 정양원 등으로 구분되었다고 한다.

한편, 화랑농장에 들어온 상이용사들의 삶은 순탄하지 않았다. 사회부 관할로 정양원이라는 간판을 달고 있었지만 국가의 지원은 많지 않았다.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김국환이 자활 농장을 만들었으나 산지가 많아 척박한 땅이었고 개간한 땅 역시 본래 미군의 부지라고 하여 다시 수용당하기도 했다.



❖ 화랑농장 신축 공사(1955, 부평역사박물관)

한미재단의 도움을 받아 산곡동 369번지 일대에 협동농장이 조성되었다. 1955년 3월 5일, 화랑농장 개소식이 열렸는데, '대한뉴스'에 소개될 만큼 큰 이슈였다. 개소식 참석자 명단을 보면, 최재유 보건사회부 장관, 이익홍 경기도지사는 물론 맥카오 주한미군 후방지원 사령관 등이 참석하였을 정도였다. 화랑교회 설립 때부터 맺어온 미군과의 인연은 화랑농장 조성에도 큰 도움이 되었다. 미군은 산등성이를 평탄화하고, 길을 내어 주고, 물자를 원조해 주었다.



❖ 경기정양원 화랑농장 신축공사 낙성식 연설(1955.3.5., 국가기록원)

화랑농장에서는 발농사뿐만 아니라 소와 돼지 등도 키웠다. 1955년 8월, 4H구락부에서 한국 4H구락부에 보내온 가축 중 젓소 4두와 돼지 4두가 인천시 분으로 할당되었는데, 화랑농장 내의 4H구락부와 산곡동 4H구락부에 각각 배당되었다.

화랑농장은 정부의 지원 없이 자립적으로 운영되다가 얼마 못 가 자금난에 봉착하게 되었다. 1956년 상이용사 중 일부는 안산(현 화랑유원지)으로 이주하였다. 1950년대 말 화랑농장이 문을 닫게 된 이후 농장 지대에는 외지인들이 정착하게 되면서 주거지로 개발되어 현재에 이른다.

화랑농장의 농장 기능은 1961년 농장 폐쇄와 함께 소멸된다. 이에 따라 상이용사들도 뿔뿔이 흩어졌다. 화랑농장이라는 통속 지명만이 농장이 있었음을 기억하게 할 뿐이었다.

1962년 농장장이었던 김국환이 사회사업에 참여하기 시작하면서 화랑농장에 변화가 있었다. 경기도 측에서 기존 화랑농장의 건물들을 부녀보호시설로 활용할 것을 제안해 와 1962년 김국환은 모든 재산을 재단법인화하여 협성원을 출범하였다.

【富平】女子技術敎導院  
開設 昨 1 日 始 行 2 時  
산곡동산의 25번지에서 열린  
락 여성들에게 자립생활  
의 길을 열어주기 위한 협  
정 여자기술교도원 개원  
식이 거행되었다. 개원  
은 6개월부터 67명의 원생들  
양재와 자동차운전을 습  
득할 것이며, 침식은 물론  
교육기간에 필요한 모든  
학용품 일체를 동교도원  
에서 무료로 제공한다.

❖ 협성여자기술교도원 개설 기사(『경향신문』, 1962년 12월 4일자)

1962년, 부녀보호소이자 직업훈련원인 협성여자기술교도원이 설립되었다. 관보 3252호에 따르면 보건사회부 장관이 1962년 9월 20일 재단법인 협성여자기술교도원의 설립을 허가하였다. 소재지는 인천시 산곡동 산25번지로, 설립 목적은 「윤락행위등 방지법」에 의한 요보호 여자 갱생사업이었다.

당시 한국 사회는 윤락 여성을 교화 대상이자 선도의 대상으로 인식했다. 1961년 윤락행위등 방지법이 공포되면서 교화 시설이 설치되었다. 윤락 여성의 60%가 몰려 있던 경기도에서는 1962년 5월 국립 부녀보호소를 인수하여 도립 부녀보호소를 설립하는가 하면, 사설 부녀보호소의 설립도 이어졌다.

그에 대한 일환으로 부평에 설치된 것이 바로 협성여자기술교도원이었다. 부평 신촌에는 미군을 상대로 하는 윤락 여성이 많았다. 협성여자기술교도원에 입소하는 여성들은 대개 신촌과 인근 지역에서 활동하던 윤락 여성이었다. 김국환이 이들의 갱생을 위하여 화랑농장에 기숙사와 실습장을 지은 것이다. 1962년 9월 20일 허가를 받은 협성여자기술교도원은 1962년 12월 1일 개원식을 거행한다.



❖ 협성여자기술교도원 졸업식(1965.12.28., 부평구청)  
\*초상권 관계로 블라인드 처리

이후 협성여자기술교도원은 몇 차례 이름을 바꾼다. 1968년 8월 협성여자기술양성원으로 이름을 바꾸었고, 1973년 5월 법인 명칭을 협성여자기술양성원에서 협성원으로 변경한다. 이후 1992년 6월 노인복지시설로 인가되어 같은 해 7월에 협성양로원을 설립하였고, 1995년 12월에는 노인요양시설로 인가되어 협성요양원을 개원하였다. 현재 협성양로원과 협성요양원이 운영 중이다.

한편 김국환은 화랑농장에 협성원과 별도로 부평청소년직업보도원을 설립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된 직접적인 건립 기록을 확인하지는 못했으나, 김국환 유족이 제공한 사진 앨범에 이와 관련된 사진 1건이 확인된다.



❖ 부평청소년직업보도원 작업장 앞에서(출처 : 부평역사박물관)

부평청소년직업보도원의 운영은 1960년에 준공한 대전소년직업교도원의 사례를 통해 어느 정도 짐작 가능하다. 보건사회부에서 관할하는 대전소년직업교도원은 양재, 편물, 목공, 미용, 이발, 철공, 타자, 라디오, 시계, 사진 등의 과목을 설치하고, 전국 각 고아원에 있는 18세 이상의 아동을 선발하여 보도원에 입소시킨 다음 각자 기능에 따라 직업을 습득하게 하고 앞으로 사회에 진출하게 하여 자립된 생활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sup>13</sup> 화랑농장에 설립된 부평청소년직업보도원도 크게 다르지 않았을 것이다.

당시 부평은 한국전쟁으로 인해 많은 고아가 발생하였다. 이 고아들이 유랑하지 않고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여러 고아원에서 이들을 분산 수용하였다. 김국환이 운영한 청소년직업보도원 또한 같은 맥락이라 할 수 있다. 김국환은 고아들을 부평청소년직업보도원에 수용하여 직업 교육을 통해 이들의 자립을 도왔다. 다만, 언제부터 언제까지 운영하였는지, 몇 명의 인원을 배출하였는지 등의 상세 자료는 발견되지 않았다.

1970년대에는 철거민 수용을 위한 국민주택뿐만 아니라 연립주택과 단독주택이 화랑농장에 들어선다. 이 부지들은 대부분 상이용사들이 불하받았던 땅이었고, 화랑농장을 떠나면서 헐값에 매각한 것이었다.

13 「신축공사 착수 소년직업보도원」, 『동아일보』, 1960년 11월 11일자.

1990년 마장로의 건설은 화랑농장을 양분하는 계기가 되었다. 기존의 구도로(현 화랑로)가 김포와 부평을 연결하는 주요 도로였는데, 마장로가 건설되며 주요 도로의 지위를 마장로가 차지하게 되었다. 동시에 왕복 6차선에 이르는 도로의 탄생은 화랑농장의 동과 서를 단절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2000년대 후반, 화랑농장에 '재개발'이라는 새로운 바람이 불기 시작했다. 오래된 구도심답게 부평에 산재해 있는 주거 개선이 시급한 곳 중 하나가 바로 화랑농장이다. 마장로를 기준으로 왼쪽 일부가 산곡5구역 주택 재개발지역으로, 오른쪽 일부가 산곡7구역 주택 재개발지역으로 지정된 바 있다.<sup>14</sup>

농장은 이미 사라졌으나, '화랑농장'이라는 통속 지명은 여전히 사람들 사이에서 통용되고 있으며, 도로명 주소에도 반영되어 있다. '농장'이라는 문구 때문인지 화랑농장이 여전히 가치를 키우거나 농사를 짓는 곳으로 생각하기 쉽다. 하지만 농장이 있던 자리는 주택지가 대신하고 있다. 다만 화랑교회에 상이용사와 관련된 가족들이 여전히 다니고 있고, 길가에 화랑농장이 표기된 간판이 남아 지명의 생명력을 보여주고 있다.

**| 제5절 | 교육기관<sup>15</sup>**

**1. 초등학교**

산곡동 소재 초등학교는 대정초등학교, 마곡초등학교, 미산초등학교, 부마초등학교, 부곡초등학교, 산곡초등학교, 산곡남초등학교, 산곡북초등학교, 한일초등학교 등 9개소로, 인천광역시 북부교육지원청에서 관할한다.

<sup>14</sup> 재개발과 관련된 내용은 인천광역시 고시와 부평구 고시 등을 참조하여 정리하였다.

<sup>15</sup> 학교 알리미 홈페이지(<https://www.schoolinfo.go.kr>) 및 각 학교 홈페이지를 참고하였다.

**1) 대정초등학교**

공립 대정초등학교는 1987년 3월 1일에 설립되었다. 2020년 기준, 학생 수는 834명(남 427명, 여 407명), 교원 수는 46명(남 8명, 여 38명)이다. 1학년은 5학급 117명, 2학년은 6학급 116명, 3학년은 5학급 125명, 4학년은 6학급 143명, 5학년은 6학급 150명, 6학년은 5학급 132명이고, 특수학급은 1학급 6명이다. 교원 중 수업 교원은 40명으로, 수업 교원 1인당 학생 수는 20.9명인데 부평구 평균 18.5명에 비하여 많은 편에 속한다.

대정초등학교는 인천광역시 부평구 안남로 115(산곡동 311-150)에 있다.

**표 17** 대정초등학교 기본 현황

(2020년 기준, 단위: 명, 비교: 괄호는 특수학급임)

구분	학생 및 학급 수									교원 수	수업 교원 수	수업 교원 1인당 학생 수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5학년	6학년	특수 학급	순회 학급	계			
학급 수	5	6	5	6	6	5	1	0	34(1)			
학생 수	117	116	125	143	150	132	6	0	834(6)	46(1)	40	20.9
학급당 학생 수	23.4	26.8	25	23.8	25	26.4	6	0	24.5			

**2) 마곡초등학교**

공립 마곡초등학교는 1989년 9월 1일에 설립되었다. 2020년 기준, 학생 수는 99명(남 54명, 여 45명), 교원 수는 16명(남 4명, 여 12명)이다. 1학년은 1학급 12명, 2학년은 1학급 12명, 3학년은 1학급 20명, 4학년은 1학급 14명, 5학년은 1학급 18명, 6학년은 1학급 16명이고, 특수학급은 2학급 7명이다. 교원 중 수업 교원은 9명으로, 수업 교원 1인당 학생 수는 11명인데 부평구 평균 18.5명에 비하여 적은 편에 속한다.

마곡초등학교는 인천광역시 부평구 마곡로27번길 16(산곡동 68)에 있다.

표 18 마곡초등학교 기본 현황

(2020년 기준, 단위: 명, 비고: 괄호는 특수학급임)

구분	학생 및 학급 수									교원 수	수업 교원 수	수업 교원 1인당 학생 수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5학년	6학년	특수 학급	순회 학급	계			
학급 수	1	1	1	1	1	1	2	0	8(2)			
학생 수	12	12	20	14	18	16	7	0	99(7)	16(3)	9	11.0
학급당 학생 수	12	12	20	14	18	16	3.5	0	12.4			

### 3) 미산초등학교

공립 미산초등학교는 2001년 3월 1일에 설립되었다. 2020년 기준, 학생 수는 350명(남 177명, 여 173명), 교원 수는 29명(남 4명, 여 25명)이다. 1학년은 2학급 46명, 2학년은 3학급 63명, 3학년은 3학급 59명, 4학년은 2학급 54명, 5학년은 3학급 62명, 6학년은 3학급 62명이고, 특수학급은 1학급 4명이다. 교원 중 수업 교원은 20명으로, 수업 교원 1인당 학생 수는 17.5명인데 부평구 평균 18.5명에 비하여 적은 편에 속한다.

미산초등학교는 인천광역시 부평구 원적로 391(산곡동 128-60)에 있다.

표 19 미산초등학교 기본 현황

(2020년 기준, 단위: 명, 비고: 괄호는 특수학급임)

구분	학생 및 학급 수									교원 수	수업 교원 수	수업 교원 1인당 학생 수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5학년	6학년	특수 학급	순회 학급	계			
학급 수	2	3	3	2	3	3	1	0	17(1)			
학생 수	46	63	59	54	62	62	4	0	350(4)	29(1)	20	17.5
학급당 학생 수	23	21	19.7	27	20.7	20.7	4	0	20.6			

### 4) 부마초등학교

공립 부마초등학교는 2000년 3월 1일에 설립되었다. 2020년 기준, 학생 수는 790명(남 410명, 여 380명), 교원 수는 43명(남 11명, 여 32명)이다. 1학년은 5학급 112명, 2학년은 6학급 141명, 3학년은 5학급 130명, 4학년은 5학급 137명, 5학년은 5학급 132명, 6학년은 5학급 127명이고, 특수학급은 2학급 11명이다. 교원 중 수업 교원은 38명으로, 수업 교원 1인당 학생 수는 20.8명인데 부평구 평균 18.5명에 비하여 많은 편에 속한다.

부마초등학교는 인천광역시 부평구 안남로253번길 41(산곡동 100-87)에 있다.

표 20 부마초등학교 기본 현황

(2020년 기준, 단위: 명, 비고: 괄호는 특수학급임)

구분	학생 및 학급 수									교원 수	수업 교원 수	수업 교원 1인당 학생 수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5학년	6학년	특수 학급	순회 학급	계			
학급 수	5	6	5	5	5	5	2	0	33(2)			
학생 수	112	141	130	137	132	127	11	0	790(11)	43(2)	38	20.8
학급당 학생 수	22.4	23.5	26	27.4	26.4	25.4	5.5	0	23.9			

### 5) 부곡초등학교

공립 부곡초등학교는 1995년 9월 1일에 설립되었다. 2020년 기준, 학생 수는 1,298명(남 664명, 여 634명), 교원 수는 73명(남 9명, 여 64명)이다. 1학년은 8학급 192명, 2학년은 9학급 240명, 3학년은 8학급 213명, 4학년은 8학급 207명, 5학년은 9학급 226명, 6학년은 9학급 216명이고, 특수학급은 1학급 4명이다. 교원 중 수업 교원은 62명으로, 수업 교원 1인당 학생 수는 20.9명인데 부평구 평균 18.5명에 비하여 많은 편에 속한다.

부곡초등학교는 인천광역시 부평구 마장로272번길 73(산곡동 148-5)에 있다.

표 21 부곡초등학교 기본 현황

(2020년 기준, 단위: 명, 비교: 괄호는 특수학급임)

구분	학생 및 학급 수									교원 수	수업 교원 수	수업 교원 1인당 학생 수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5학년	6학년	특수 학급	순회 학급	계			
학급 수	8	9	8	8	9	9	1	0	52(1)	73(1)	62	20.9
학생 수	192	240	213	207	226	216	4	0	1,298(4)			
학급당 학생 수	24	26.7	26.6	25.9	25.1	24	4	0	25.0			

6) 산곡초등학교

공립 산곡초등학교는 1953년 10월 10일에 설립되었다. 2020년 기준, 학생 수는 248명(남 126명, 여 122명), 교원 수는 22명(남 2명, 여 20명)이다. 1학년은 2학급 33명, 2학년은 2학급 42명, 3학년은 2학급 39명, 4학년은 2학급 37명, 5학년은 2학급 43명, 6학년은 2학급 46명이고, 특수학급은 2학급 8명이다. 교원 중 수업 교원은 16명으로, 수업 교원 1인당 학생 수는 15.5명인데 부평구 평균 18.5명에 비하여 적은 편에 속한다.

산곡초등학교는 인천광역시 부평구 길주로 354번길 39(산곡동 87-236)에 있다.

표 22 산곡초등학교 기본 현황

(2020년 기준, 단위: 명, 비교: 괄호는 특수학급임)

구분	학생 및 학급 수									교원 수	수업 교원 수	수업 교원 1인당 학생 수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5학년	6학년	특수 학급	순회 학급	계			
학급 수	2	2	2	2	2	2	2	0	14(2)	22(2)	16	15.5
학생 수	33	42	39	37	43	46	8	0	248(8)			
학급당 학생 수	16.5	21	19.5	18.5	21.5	23	4	0	17.7			

7) 산곡남초등학교

공립 산곡남초등학교는 1986년 1월 25일에 설립되었다. 2020년 기준, 학생 수는 618명(남 316명, 여 302명), 교원 수는 40명(남 6명, 여 34명)이다. 1학년은 4학급 98명, 2학년은 4학급 92명, 3학년은 4학급 101명, 4학년은 4학급 93명, 5학년은 5학급 112명, 6학년은 5학급 110명이고, 특수학급은 2학급 12명이다. 교원 중 수업 교원은 35명으로, 수업 교원 1인당 학생 수는 17.7명인데 부평구 평균 18.5명에 비하여 적은 편에 속한다.

산곡남초등학교는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흥로144번길 30(산곡동 231-1)에 있다.

표 23 산곡남초등학교 기본 현황

(2020년 기준, 단위: 명, 비교: 괄호는 특수학급임)

구분	학생 및 학급 수									교원 수	수업 교원 수	수업 교원 1인당 학생 수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5학년	6학년	특수 학급	순회 학급	계			
학급 수	4	4	4	4	5	5	2	0	28(2)	40(2)	35	17.7
학생 수	98	92	101	93	112	110	12	0	618(12)			
학급당 학생 수	24.5	23	25.3	23.3	22.4	22	6	0	22.1			

8) 산곡북초등학교

공립 산곡북초등학교는 1984년 3월 1일에 설립되었다. 2020년 기준, 학생 수는 390명(남 192명, 여 198명), 교원 수는 31명(남 7명, 여 24명)이다. 1학년은 3학급 56명, 2학년은 3학급 63명, 3학년은 3학급 66명, 4학년은 3학급 56명, 5학년은 3학급 75명, 6학년은 3학급 66명이고, 특수학급은 2학급 8명이다. 교원 중 수업 교원은 24명으로, 수업 교원 1인당 학생 수는 16.3명인데 부평구 평균 18.5명에 비하여 적은 편에 속한다.

산곡북초등학교는 인천광역시 부평구 산청로 18(산곡동 39-1)에 있다.

표 24 산곡북초등학교 기본 현황

(2020년 기준, 단위: 명, 비교: 괄호는 특수학급임)

구분	학생 및 학급 수									교원 수	수업 교원 수	수업 교원 1인당 학생 수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5학년	6학년	특수 학급	순회 학급	계			
학급 수	3	3	3	3	3	3	2	0	20(2)	31(2)	24	16.3
학생 수	56	63	66	56	75	66	8	0	390(8)			
학급당 학생 수	18.7	21	22	18.7	25	22	4	0	19.5			

9) 한일초등학교

사립 한일초등학교는 1965년 3월 1일에 설립되었다. 2020년 기준, 학생 수는 283명(남 143명, 여 140명), 교원 수는 17명(남 12명, 여 5명)이다. 1학년은 2학급 46명, 2학년은 2학급 56명, 3학년은 2학급 47명, 4학년은 2학급 46명, 5학년은 2학급 37명, 6학년은 2학급 51명이다. 교원 중 수업 교원은 15명으로, 수업 교원 1인당 학생 수는 18.9명인데 부평구 평균 18.5명에 비하여 많은 편에 속한다.

한일초등학교는 인천광역시 부평구 원적로 247(산곡동 179-79)에 있다.

표 25 한일초등학교 기본 현황

(2020년 기준, 단위: 명, 비교: 괄호는 특수학급임)

구분	학생 및 학급 수									교원 수	수업 교원 수	수업 교원 1인당 학생 수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5학년	6학년	특수 학급	순회 학급	계			
학급 수	2	2	2	2	2	2	0	0	12(0)	17(0)	15	18.9
학생 수	46	56	47	46	37	51	0	0	283(0)			
학급당 학생 수	23	28	23.5	23	18.5	25.5	0	0	23.6			

2. 중학교

산곡동 소재 중학교는 부평서중학교, 산곡남중학교, 산곡여자중학교, 산곡중학교 등 4개소로, 인천광역시 북부교육지원청에서 관할한다.

1) 부평서중학교

공립 부평서중학교는 1980년 3월 12일에 설립되었다. 2020년 기준, 학생 수는 319명(남 319명), 교원 수는 33명(남 8명, 여 25명)이다. 1학년은 5학급 106명, 2학년은 5학급 109명, 3학년은 5학급 100명, 특수학급은 1학급 4명이다. 교원 중 수업 교원은 28명으로, 수업 교원 1인당 학생 수는 11.4명인데 부평구 평균 14.9명에 비하면 적은 편에 속한다.

부평서중학교는 인천광역시 부평구 화랑로 29(산곡동 310-23)에 있다.

표 26 부평서중학교 기본 현황

(2020년 기준, 단위: 명, 비교: 괄호는 특수학급임)

구분	학생 및 학급 수						교원 수	수업 교원 수	수업 교원 1인당 학생 수
	1학년	2학년	3학년	특수학급	순회학급	계			
학급 수	5	5	5	1	0	16(1)	33(1)	28	11.4
학생 수	106	109	100	4	0	319(4)			
학급당 학생 수	21.2	21.8	20	4	0	19.9			

2) 산곡남중학교

공립 산곡남중학교는 1987년 3월 1일에 설립되었다. 2020년 기준, 학생 수는 873명(남 873명), 교원 수는 58명(남 14명, 여 44명)이다. 1학년은 9학급 300명, 2학년은 9학급 267명, 3학년은 9학급 299명, 특수학급은 2학급 7명이다. 교원 중 수업 교원은 46명으로, 수업 교원 1인당 학생 수는 19명인데 부평구 평균 14.9명에 비하면 많은 편에 속한다.

산곡남중학교는 인천광역시 부평구 안남로 187(산곡동 261-4)에 있다.

표 27 산곡남중학교 기본 현황

(2020년 기준, 단위: 명, 비교: 괄호는 특수학급임)

구분	학생 및 학급 수						교원 수	수업 교원 수	수업 교원 1인당 학생 수
	1학년	2학년	3학년	특수학급	순회학급	계			
학급 수	9	9	9	2	0	29(2)	58(3)	46	19.0
학생 수	300	267	299	7	0	873(7)			
학급당 학생 수	33.3	29.7	33.2	3.5	0	3.1			

### 3) 산곡여자중학교

공립 산곡여자중학교는 1990년 3월 2일에 설립되었다. 2020년 기준, 학생 수는 812명(여 812명), 교원 수는 61명(남 8명, 여 53명)이다. 1학년은 10학급 284명, 2학년은 10학급 263명, 3학년은 10학급 256명, 특수학급은 1학급 9명이다. 교원 중 수업 교원은 51명으로, 수업 교원 1인당 학생 수는 15.9명인데 부평구 평균 14.9명에 비하면 많은 편에 속한다.

산곡여자중학교는 인천광역시 부평구 마장로204번길 37(산곡동 235-4)에 있다.

표 28 산곡여자중학교 기본 현황

(2020년 기준, 단위: 명, 비교: 괄호는 특수학급임)

구분	학생 및 학급 수						교원 수	수업 교원 수	수업 교원 1인당 학생 수
	1학년	2학년	3학년	특수학급	순회학급	계			
학급 수	10	10	10	1	0	31(1)	61(1)	51	15.9
학생 수	284	263	256	9	0	812(9)			
학급당 학생 수	28.4	26.3	25.6	9	0	26.2			

### 4) 산곡중학교

공립 산곡중학교는 1984년 3월 1일에 설립되었다. 2020년 기준, 학생 수는 398명(남 398명), 교원 수는 35명(남 9명, 여 26명)이다. 1학년은 6학급 157명, 2학년은 5학급 115명, 3학년은 5학급 117명, 특수학급은 2학급 9명이다. 교원 중 수업 교원은 29명으로, 수업 교원 1인당 학생 수는 13.7명인데 부평구 평균 14.9명에 비하면 적은 편에 속한다.

산곡중학교는 인천광역시 부평구 원적로300번길 14(산곡동 180-356)에 있다.

표 29 산곡중학교 기본 현황

(2020년 기준, 단위: 명, 비교: 괄호는 특수학급임)

구분	학생 및 학급 수						교원 수	수업 교원 수	수업 교원 1인당 학생 수
	1학년	2학년	3학년	특수학급	순회학급	계			
학급 수	6	5	5	2	0	18(2)	35(3)	29	13.7
학생 수	157	115	117	9	0	398(9)			
학급당 학생 수	26.2	23	23.4	4.5	0	22.1			

## 3. 고등학교

산곡동 소재 고등학교는 명신여자고등학교, 부광고등학교, 산곡고등학교, 세일고등학교, 인평자동차고등학교, 인천외국어고등학교 등 6개소로, 인천광역시 교육청에서 관할한다.

### 1) 명신여자고등학교

사립 명신여자고등학교는 1971년 3월 4일에 설립되었다. 2020년 기준, 학생 수는 553명(여 553명), 교원 수는 63명(남 39명, 여 24명)이다. 1학년은 9학급 180명, 2학년은 9학급 206명, 3학년은 9학급 167명이다. 교원 중 수업 교원은 57명으로, 수업 교원 1인당 학생 수는 9.7명인데 부평구 평균 11.1명에 비하여 적은 편에 속한다.

명신여자고등학교는 인천광역시 부평구 원적로 260(산곡동 180-147)에 있다.

표 30 명신여자고등학교 기본 현황

(2020년 기준, 단위: 명, 비교: 괄호는 특수학급임)

구분	학생 및 학급 수					교원 수	수업 교원 수	수업 교원 1인당 학생 수
	1학년	2학년	3학년	특수학급	순회학급			
학급 수	9	9	9	0	0	27(0)		
학생 수	180	206	167	0	0	553(0)	63	57
학급당 학생 수	20.0	22.9	18.6	0	0	20.5		9.7

## 2) 부광고등학교

공립 부광고등학교는 1995년 3월 1일에 설립되었다. 2020년 기준, 학생 수는 650명(남 650명), 교원 수는 61명(남 20명, 여 41명)이다. 1학년은 9학급 207명, 2학년은 9학급 235명, 3학년은 9학급 201명, 특수학급은 1학급 7명이다. 교원 중 수업 교원은 53명으로, 수업 교원 1인당 학생 수는 12.3명인데 부평구 평균 11.1명에 비하여 많은 편에 속한다.

부광고등학교는 인천광역시 부평구 화랑로 28(산곡동 310-30)에 있다.

표 31 부광고등학교 기본 현황

(2020년 기준, 단위: 명, 비교: 괄호는 특수학급임)

구분	학생 및 학급 수					교원 수	수업 교원 수	수업 교원 1인당 학생 수
	1학년	2학년	3학년	특수학급	순회학급			
학급 수	9	9	9	1	0	28(1)		
학생 수	207	235	201	7		650(7)	61(1)	53
학급당 학생 수	23.0	26.1	22.3	7.0	0	23.2		12.3

## 3) 산곡고등학교

공립 산곡고등학교는 2006년 3월 1일에 설립되었다. 2020년 기준, 학생 수는 585명(남 299명, 여 286명), 교원 수는 62명(남 19명, 여 43명)이다. 1학년은 8학급 191명, 2학년은 8학급 199명, 3학년은 8학급 181명, 특수학급은 2학급 14명이다. 교원 중 수업 교원은 50명으로, 수업 교원 1인당 학생 수는 11.7명인데 부평구 평균 11.1명에 비하여 많은 편에 속한다.

산곡고등학교는 인천광역시 부평구 원적로416번길 25(산곡동 137-2)에 있다.

표 32 산곡고등학교 기본 현황

(2020년 기준, 단위: 명, 비교: 괄호는 특수학급임)

구분	학생 및 학급 수					교원 수	수업 교원 수	수업 교원 1인당 학생 수
	1학년	2학년	3학년	특수학급	순회학급			
학급 수	8	8	8	2	0	26(2)		
학생 수	191	199	181	14	0	585(14)	62(2)	50
학급당 학생 수	23.9	24.9	22.6	7.0	0	22.5		11.7

## 4) 세일고등학교

사립 세일고등학교는 1982년 10월 26일에 설립되었다. 2020년 기준, 학생 수는 661명(남 661명), 교원 수는 54명(남 43명, 여 11명)이다. 1학년은 9학급 224명, 2학년은 9학급 232명, 3학년은 9학급 205명이다. 교원 중 수업 교원은 49명으로, 수업 교원 1인당 학생 수는 13.5명인데 부평구 평균 11.1명에 비하여 많은 편에 속한다.

세일고등학교는 인천광역시 부평구 원적로 245(산곡동 179-79)에 있다.

표 33 세일고등학교 기본 현황

(2020년 기준, 단위: 명, 비교: 괄호는 특수학급임)

구분	학생 및 학급 수					교원 수	수업 교원 수	수업 교원 1인당 학생 수
	1학년	2학년	3학년	특수학급	순회학급			
학급 수	9	9	9	0	0	27(0)		
학생 수	224	232	205	0	0	661(0)	54	49
학급당 학생 수	24.9	25.8	22.8	0	0	24.5		13.5

5) 인평자동차고등학교

사립 인평자동차고등학교는 1983년 11월 22일에 설립되었다. 2020년 기준, 학생 수는 419명(남 419명), 교원 수는 42명(남 29명, 여 13명)이다. 학과는 에코자동차과, 자동차IT과가 있다. 1학년은 6학급 136명, 2학년은 6학급 143명, 3학년은 6학급 140명이다. 교원 중 수업 교원은 37명으로, 수업 교원 1인당 학생 수는 11.3명인데 부평구 평균 11.1명에 비하여 많은 편에 속한다.

인평자동차고등학교는 인천광역시 부평구 화랑로 111(산곡동 369-303)에 있다.

표 34 인평자동차고등학교 기본 현황

(2020년 기준, 단위: 명, 비교: 괄호는 특수학급임)

구분	학생 및 학급 수					교원 수	수업 교원 수	수업 교원 1인당 학생 수
	1학년	2학년	3학년	특수학급	순회학급			
학급 수	6	6	6	0	0	18(0)		
학생 수	136	143	140	0	0	419(0)	42	37
학급당 학생 수	22.7	23.8	23.3	0	0	23.3		11.3

6) 인천외국어고등학교

사립 인천외국어고등학교는 1985년 3월 6일에 설립되었다. 2020년 기준, 학생 수는 605명(남 254명, 여 351), 교원 수는 57명(남 42명, 여 15명)이다. 학과는 영·중국어과, 영·일본어과, 영·스페인어과가 있다.

1학년은 9학급 201명, 2학년은 9학급 197명, 3학년은 9학급 207명이다. 교원 중 수업 교원은 54명으로, 수업 교원 1인당 학생 수는 11.2명인데 부평구 평균 11.1명에 비하여 많은 편에 속한다.

인천외국어고등학교는 인천광역시 부평구 원적로 262(산곡동 180-147)에 있다.

표 35 인천외국어고등학교 기본 현황

(2020년 기준, 단위: 명, 비교: 괄호는 특수학급임)

구분	학생 및 학급 수					교원 수	수업 교원 수	수업 교원 1인당 학생 수
	1학년	2학년	3학년	특수학급	순회학급			
학급 수	9	9	9	0	0	27(0)		
학생 수	201	197	207	0	0	605(0)	57	54
학급당 학생 수	22.3	21.9	23.0	0	0	22.4		11.2

| 제6절 | 문화·체육·공공기관

1. 외골문화회관

외골문화회관은 산곡동, 청천동 지역의 주민 복합 희망 공간으로 조성되었다. 2011년 행정안전부 희망마을 만들기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문화시설이 열악한 산곡동 일대의 문화 복지 증진을 위해 건립되었다. 희망마을 사업은 공동이용시설이 열악한 밀집 지

역에서 사회적 소통, 문화적 여유, 경제적 풍요가 어우러지는 공간으로 재창조하는 사업이다. 특히 이 사업은 주민이 주체가 되어 관리·운영하는 것이 특징이다.<sup>16</sup>

외골문화회관은 우리동네 희망마을 주민협의체와 외골문화회관의 관리·운영에 대한 민간위탁 협약을 체결하고 2013년 10월 11일에 개관했다. 주민협의체는 공모사업부터 설계, 공사, 운영 준비에 이르기까지 구와 함께 외골문화회관 개관에 적극 참여해 왔다.

외골문화회관은 외골문화공원 내에 지상 2층, 연면적 411㎡ 규모로 들어섰다. 1층에는 카페와 공중화장실, 2층에는 아릅인(人)도서관, 모임방, 주민교육실, 사무실, 수유실 등이 갖추어졌다. 각종 직업 교육과 주민 문화·복지 프로그램, 지역주민 모임방, 청소년 동아리 지원 등 주민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다.

외골문화회관은 인천광역시 부평구 세월천로 82(산곡동 58-3)에 있다.



❖ 외골문화회관 개관식(2013, 부평구청)

16 「희망을 나누는 동네 사랑방, 외골문화회관이 문을 열었어요」, 『부평사람들』, 2013년 10월 25일자.

## 2. 북부교육문화센터<sup>17</sup>



❖ 북부교육문화센터 개관식(2018, 부평구청)

2018년 2월 1일 인천광역시 북부교육지원청은 미산초등학교 원편 유휴지를 활용하여 인천 최초의 학교 복합 시설인 북부교육문화센터를 개관하였다. 인천광역시 북부교육지원청은 부평구시설관리공단과 위수탁 협약을 맺고 운영 중이다. 북부교육문화센터 내 주요 시설 중 미산초등학교 급식시설 및 다목적 강당은 2017년 9월부터 학생들이 사용하였고, 수영장·GX실·강의실·소공연장은 철저한 안전 점검 및 시범운영을 통해 개관 일로부터 정식으로 일반인 대상 강습이 시작되었다.<sup>18</sup>

인천광역시 부평구 원적로 391에 있는 북부교육문화센터는 지하 2층, 지상 3층, 건축면적 1,773.91㎡, 연면적 7,657.96㎡ 규모로 건립되었다. 지하 2층과 중층에는 물탱크, 전기실 등 시설 관리를 위한 장비들이 있고, 지하 1층에는 수영장, 단체운동1~2실(GX), 안내데스크, 남녀탈의(샤워)실, 의무실, 휴게실, 시설사무실, 창고, 지하 주차장 등이 있다.

17 북부교육문화센터 홈페이지(<https://bsports.bpss.or.kr>)를 참고하였다.

18 「인천시북부교육문화센터 정식 개관」, 『아주경제』, 2018년 2월 2일자.

1층에는 운영 사무실, 학부모 운영실(교육청), 관리실, 급식실(미산초등학교)이 있다. 2층에는 다목적강당, 방송실, 창고, 문화강좌1~2실이 있다. 지상 3층에는 소공연장, 준비실이 있다.

북부교육문화센터는 미산초등학교 학생들의 급식시설 개선, 공공 수영교육과 함께 지역 주민의 건강 증진을 동시에 달성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 제7절 | 축제

1. 원적산 마을축제



❖ 원적산 마을축제 포스터(2008)

원적산 마을축제는 '풀벌레 우는 원적산 마을축제'라는 이름으로 2008년 9월 27일 처음 개최되었다. 제1회 원적산 마을축제는 원적산축제추진위원회가 주관하였는데, 원적산축제추진위원회는 부평의제21, 부평문화원, 퇴골문화센터, 산곡1동 주민자치위원회, 청천1동 주민자치위원회로 구성되었다. 산곡동뿐만 아니라 인근의 청천동과 함께 마을공동체를 형성한 것이 특징적이다.

유아 마당, 어린이 마당, 어르신 마당, 생태체험 마당, 전통놀이 마당, 차 나눔 마당, 어린이 자전거 면허시험, 부평어린이 글쓰기 대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준비되었고, 장기 자랑 및 공연, 야외 영화제 등의 다양한 볼거리가 제공되었다. 원적산 마을축제는 2014년 인천시마을공동체만들기 공모사업 우수사례로 선정되기도 했다.

2. 청천·산곡마을 단오제



❖ 청천·산곡마을 단오제(2017, 부평구청)

1998년 IMF로 인하여 청천동과 산곡동에는 생활이 어려워진 주민들이 많아졌다. 경영이 어려워진 공장이 문을 닫자 생계를 이어가기 힘든 가정이 늘어나고 결식아동, 독거

노인이 증가하였다. 몇몇 주민이 어려운 이웃을 위하여 산곡동 피골공원에서 조출한 마을 잔치를 열고 음식을 나누어 먹고, 어르신을 위한 경로잔치를 함께 열었다.

이러한 취지로 시작한 마을잔치는 ‘동네야놀자’에서 주관하는 ‘청천·산곡마을 단오제’로 이어져 해마다 단오 무렵에 열렸다. 여느 단오 축제와 마찬가지로 창포물로 머리 감기, 단오씨름 등 세시풍속과 관련된 행사들이 열리고 마을 주민이 준비한 공연, 장터, 무료한방진료, 경로잔치, 체험놀이 등이 볼거리를 더했다.

청천·산곡마을 단오제는 주민들이 직접 행사를 기획하고 참여하고 즐기는 공동체 축제라는 점에서 의의가 깊다.

### 3. 화랑북로 골목 축제



❖ 화랑북로 골목 축제(2016, 부평구청)

산곡동 화랑북로는 산곡119안전센터로부터 우성4차 아파트 405동 방향으로 뻗은 약 390m의 길이다. 이 길을 중심으로 펼쳐진 골목길 역시 화랑북로에 속한다. 1975년 중랑천이 철거되면서 발생한 철거민들이 각지로 분산 수용되었는데, 그 중 한 곳이 화랑

농장이었다. 한 신문 보도에 의하면, 서울시 중랑천 무허가 건물 철거 주민에게 인천시에서 국민주택 225동을 건립하여 분양하기로 했다. 인천시는 건설부에 국민주택건립사업 승인을 받아 인천시 북구 산곡동 317에 건설하기로 계획했다. 이들은 서울시 도시정비계획에 따라 1975년에 44가구가 십정동에 이미 입주했고, 나머지 225가구가 1976년에 화랑농장으로 입주하기로 계획된 것이다.<sup>19</sup> 그때 입주한 국민주택을 남북으로 가르는 길이 지금의 화랑북로다.

1976년 국민주택으로 건립된 이곳은 오래된 주택이 많고 상권은 쇠퇴해져 갔다. 산곡3동 산곡119안전센터 옆 골목으로, 대로인 마장로에서 우성4차 아파트까지 400m 정도의 길. 이 골목의 이름이 화랑북로다. 이곳엔 상점 50여 개가 있다. 골목 일대에는 오래된 주택이 많고, 상권은 쇠퇴했다.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 대형 마트가 들어서면서 상권은 더 어려워졌다.

작은 도서관인 ‘청개구리도서관’이 개관하면서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하여 골목 축제를 기획하였고, 청개구리도서관이 주관한 1회 축제가 2013년 10월 26일에 열렸다. 부평대건신협, 산곡3동 천주교회, 산곡3동 주민자치위원회·새마을부녀회·통장협의회, 인천여성회 등이 축제추진위원회에 참가했다. 골목 상점들은 문을 활짝 열었고, 주민들은 재능 기부로 함께했다.

주민과 상인들이 소통하는 마을축제인 화랑북로 골목 축제는 해가 갈수록 많은 단체들의 참여와 다양한 프로그램 진행으로 골목에 활기를 불어넣고 있다.

<sup>19</sup> 부평역사박물관, 『상이용사의 보금자리, 부평 화랑농장』, 부평역사박물관, 2019, 40~41쪽.



## 참고 문헌



### 단행본

- 부평문화원, 『토굴에서 부평을 찾다』, 부평문화원, 2017.  
 부평역사박물관, 『상이용사의 보금자리, 부평 화랑농장』 I·II, 부평역사박물관, 2019.  
 이상의 면담·해제, 『일제의 강제동원과 인천육군조병창 사람들』, 국사편찬위원회, 2019.  
 인천광역시 동구사편찬위원회, 『동구사』상, 화도진문화원, 2019.  
 인천광역시 부평구 기획조정실, 『2020 부평 구정백서』, 인천광역시 부평구, 2020.  
 인천광역시 시사편찬위원회, 『인천의 지명』상, 인천광역시 시사편찬위원회, 2015.

### 신문

- 『경향신문』  
 『동아일보』  
 『매일신보』  
 『부평사람들』  
 『아주경제』

### 사료

- 『부평군읍지』(1899)  
 『부평부읍지』(1842)  
 『부평부읍지』(1871)  
 『여지도서』(1757~1765)  
 『조선지리지자료』(1911)



### 자료집

- 부평문화원, 『3·1운동 100주년 기념 토크콘서트 - 인천愛독립운동과 부평의 조병창 이야기』, 부평문화원, 2019.

### 웹사이트

- 부평구청 부평홍보관(<https://www.icbp.go.kr/publicity/#>)  
 북부교육문화센터 홈페이지(<https://bsports.bpss.or.kr>)  
 학교 알리미 홈페이지(<https://www.schoolinfo.go.kr>)  
 행정동별 소재 각 학교 홈페이지





# 제 5 장

## 삼산동(三山洞)

제1절 \_ 마을 지명 유래

제2절 \_ 행정구역의 변천

제3절 \_ 일반 현황

제4절 \_ 문화유산 및 명소

제5절 \_ 교육기관

제6절 \_ 문화·체육·공공기관

제7절 \_ 축제

# 제5장 삼산동(三山洞)

손 민 환(부평역사박물관 학예연구사)



## | 제1절 | 마을 지명 유래<sup>1</sup>

### 1. 동 이름 유래

삼산동의 예전 이름은 ‘후정리(後井里)’로 ‘뒤에 있는 우물마을’이라는 뜻이다. 한자 이름보다는 당연히 우리말 이름이 먼저였을 테니 순우리말로 ‘뒤우물말’ 정도로 불리던 것이 언제부터인가 한자로 바뀌어 후정리가 되었을 것이다.

옆 동네인 갈산동(葛山洞)은 갈산(葛山) 아래에 있어 갈월리(葛月里)라 불리던 곳이었는 데, 삼산동은 그 갈산 동쪽 등성이 너머에 있는 마을이다. 지난 1977년 이후 갈산동에 속해 있다가 1992년에 갈라져 나와 삼산동으로 독립했는데, 땅 모양이 마치 삼태기의 안쪽처럼 구름으로 둘러싸인 이곳에 옛날 사람들이 큰 우물을 파고 살기 시작했다고 한다.

먼저 사람이 살았던 갈월리의 입장에서 이를 보면 산등성이 뒤쪽(後)에 우물(井)을 만들고 생긴 동네이니 ‘뒤우물말’이라 불렀던 것이다. 후정리에는 100여 m 높이의 ‘영성산

<sup>1</sup> 『인천의 지명』상(인천광역시 시사편찬위원회, 2015)을 참고하되, 2020년을 기준으로 지명과 지형의 변화가 있는 경우 수정하고 보완 사항이 있는 경우 추가하였음을 밝힌다.



❖ 삼산동 관할구역(출처 : 국토정보플랫폼 국토정보맵)

(靈成山)’이 있었으며, 이 이름은 옛 지도에 나오는 것처럼 원래 ‘염성산(廉成山)’이었다가 발음이 바뀐 것이다. 하지만 염성산은 그 이름의 유래를 짐작하기 어렵다.

어쨌든 이 산 아래 생긴 마을은 산 이름을 따라 영성리 또는 영성미 등으로 불리웠고, ‘벼락바위’나 ‘흙더미’라는 동네도 주변에 있었다. ‘벼락바위’는 영성산 남쪽 기슭에 위쪽이 벼락에 맞은 것처럼 부서진 큰 바위가 있어 붙은 것이라고 한다. ‘흙더미’는 1924년 이곳에 부평수리조합을 만들 당시 영성산과 갈산을 잇는 산등성을 뚫고 용수로(用水路)를 만들었는데, 이때 제방을 쌓고 남은 흙을 마을 입구에 모아둔 것이 동네 이름이 된 것이라 전해온다.

그러나 영성산은 1942년 무렵 경인고속도로의 전신(前身)인 이른바 ‘국방도로’를 건설할 때 흙을 얻기 위해 모두 파내는 바람에 산의 형태가 거의 없어져 버렸다. 삼산동은 1946년에 새롭게 붙인 이름으로, 일제 말인 1940년 일본인들이 자기들 식으로 ‘삼립정(三笠町)’이라 부르던 이름을 다시 우리 식으로 바꾼 것이다.

‘삼산동’이나 ‘삼립정’ 모두 이 마을에 3개의 작은 산이 있다는 뜻이지만, 그 3개의 산이 어디 어디인지는 의견이 갈린다. 일반적으로는 영성산과 갈산 외에 앞서 말한 ‘흙더미’

를 하나의 산으로 보아 3개의 산이 된다고 해석하곤 한다.

## 2. 소지명 유래

### 1) 후정리(後井里), 뒤우물

후정리(後井里)는 갈산의 동쪽 줄기가 길게 흘러 영성산으로 이어져 갔다. 갈산 밑에 갈월리 마을에서 동쪽을 바라 봤을 때, 조그마한 골짜기에 대동 우물을 파고 마을이 생겼다고 하여 뒤우물 또는 후정리라 하게 된 것이다.

### 2) 영성산(靈成山)

후정리 동쪽 500m 정도인 삼산동 90번지 일대에 높이 100m에 불과한 산이 영성산(靈成山)이다. 1914년 이전부터 이 영성산 밑에 마을이 생겨서 산 이름을 따서 영성리(靈成里)라 한 것이 변하여 영성미, 영성포가 된 것이다. 영성(靈成)은 신령이 다시 이루어진다는 뜻인데 그 유래는 자세히 알 수 없다. 그런데 이 영성산은 1943년 경인고속도로의 전신인 국방도로의 건설 때 토취장(土取場: 사용하기 위해 흙을 파내는 곳)으로 흙을 모두 다 파 가서 산의 형태가 없어지고 지금은 산 밑등만 그 흔적을 남기고 있다.

### 3) 벼락바위

영성산 줄기 남쪽으로 마을을 지나 방죽머리에 큰 바위가 있었는데, 이 바위 상부가 모두 부서져 이곳 사람들은 벼락바위라 불렀다. 그런데 이 말이 먼저 벼락바위는 영성미를 가리키는 마을 이름이 되기도 한다.

1924년 부평수리조합을 설치할 당시 갈산에서 영성산에 이어지는 산줄기 등성을 끊고 서부간선수로를 뚫었는데, 이 때 흙을 파서 제방을 쌓고 남는 흙을 마을 입구인 삼산동 76번지 일대에 높이 쌓아 놓았다. 여기에 주막이 몇 집 생기므로 흙터머지 또는 흙터미라 부르게 되었는데 나중에는 이것이 이곳 전체의 마을 이름이 되고 말았다.

1930년경에는 모든 자연부락 단위로 농촌진흥회가 생겨 후정리 본동을 1구(區)로 하고 영성미를 2구(區)라 하여 2구라고도 불렀다. 그리하여 영성미, 벼락바위, 흙터미, 2구

등은 모두 이 마을을 가리키는 말이다.

### 4) 데부뚝

서부간선수로의 뚝을 흔히 데부뚝이라 한다. 데부뚝은 대보(大深) 뚝의 변음으로 역시 큰 뚝이란 뜻이다. 그러나 영성미 앞을 막은 차씨네 뚝(약 10정보)이나 더 남쪽으로 있는 천일농장 뚝(약 60정보)이나 북쪽의 도두머리방죽 뚝(약 180정보)도 일반 사람들은 다 데부뚝이라 한다.

### 5) 배바위, 배다리, 강암(缸巖)

부평군 읍지 산천조를 보면 영성산은 부평부 동남쪽 넓은 벌판 가운데 1,600m쯤 되는 곳에 있고 그 오른쪽에 큰 돌이 있어 배바위 즉 강암(缸巖)이라 하였다 한다. 왜냐하면 이 바위는 삼강(三江)이 합류하는 삼산동 148번지의 바다 같은 넓은 물 가운데에 홀로 우뚝 서 있어서 마치 항해 중인 돛을 단 배와 같다고 하여 그렇게 부른 것이다. 또 이 바위 하부에는 다리처럼 구멍이 뚫려 있어서 배다리라고도 하며 이곳 사람들은 그 구멍 사이로 배가 지나들었다고 전하여 말하고 있다. 그리고 이 바위 상부는 모두 부서져 있었는데 이것은 옛적에 벼락이 떨어져 만들어졌다고 생각하고 배다리를 벼락바위라고도 부른다.

### 6) 뒤우물

갈월리 마을 동쪽 등성이 넘어 작은 삼태안 같은 골짜기에 큰 우물이 있고 마을이 생겼는데 이 큰 우물이 갈월리로서는 등성이 뒤에 있어서 뒤우물이라 부르게 되었다.

### 7) 목숙통, 목수통

목숙교가 있는 근방을 말하는데 이곳이 지대가 높아 삼강(三江)이 합류한 물을 인공으로 파내어 직포(直浦)로 통수시켰으므로 목숙통이라 부른다. 목숙이란 이름은 이곳이 콩과에 속하는 월년초로서 목초로 많이 사용되는 거여목(개자리)이 자생하는 지역이라서 붙여진 이름이다. 목수통은 목숙통의 변음이다.

### 8) 직포, 직포천(直浦川)

목수통에서 벌말까지 이르는 개울을 곧게 뿜기 때문에 직포 또는 직포천이라 따로 부른다.

### 9) 장천이개(長川溪), 장천이내

장도못에 연결되는 내(川)로 영성산에서 흘러내린다. 장도못이 큰 못이므로 이와 연결된 조그마한 개천도 큰 개울로 생각하고 긴 장(長)자를 써서 장천이개라 한 것 같다. 한편 앞의 원통천이 매우 긴 개천이 되므로 이곳에서는 특별히 이 개울을 장천이내로 부른 것이 아닌가 생각되기도 한다.

### 10) 장두못(長頭池), 장수못, 장도지(長陶池)

장두못이란 지소(池沼)가 도두머리 앞쪽으로 더 가깝게 있었는데, 도두머리와 까치말 사이의 곤논틀 물이 이 장두못으로 흘러들었으며 이 물이 다시 장성제보 뚝 밖으로 흘러 목숙통에서 직포로 흘러들어갔다. 그러나 1924년 부평수리조합이 생겨 이곳에 배수로를 설치함으로써 연못은 없어지고 지하통수로의 물이 솟아 웅덩이가 되었다. 장두못의 장(長)과 두(頭)는 모두 크다는 뜻으로 매우 큰 못 또는 중요한 못으로 풀이된다. 한편 장도지의 도(陶)는 질그릇 도(陶)로서 매우 큰 질그릇 모양에 담긴 연못이란 뜻이다. 그리고 가뭄이 심할 때에는 이 장두못에서 기우제를 올렸다고 하는데, 이런 점으로 장두못과 신령이 다시 이루었다는 영성산(靈成山)과는 어떤 밀접한 관계가 있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장수못은 장두못의 변음 또는 변형이다.

## | 제2절 | 행정구역의 변천

### 1. 전통 시대

삼산동은 옛 부평도호부 서면 후정리(後井里) 지역이다.

### 2. 일제강점기

일제강점기인 1914년 지방행정구역 조정 때 부천군 부내면에 편입되었다가, 1940년 제2차 인천부역 확장으로 인천부에 편입되어 삼립정(三笠町)으로 변경되었다.

### 3. 해방 이후

1946년 삼산동으로 개칭되었고 1977년에는 갈산동에 편입되어 갈산동 관할에 있었으나, 1992년 다시 갈산동에서 분동되었다. 1996년 3월 1일 인천광역시의 설치로 북구가 부평구와 계양구로 분구되면서 부평구에 속하게 되었다. 2006년 4월 10일 삼산동은 삼산1동과 삼산2동으로 분동되었다.

## | 제3절 | 일반 현황<sup>2</sup>

### 1. 삼산1동

법정동 삼산동 전체를 기준으로 볼 때 삼산1동은 북측에 해당한다. 동으로는 송내대로, 서로는 장제로, 남으로는 평천로, 북으로는 경인고속도로까지가 삼산1동의 행정구역이라고 할 수 있다.

2 『2020 부평 구정백서』(인천광역시 부평구청 기획조정실, 2020)를 참고했다.



❖ 삼산1동 행정구역(출처 : 국토정보플랫폼 국토정보맵)

삼산1동의 지리적 중심은 삼산삼거리다. 삼산1동의 남쪽 경계인 평천로 상에 있는 삼산삼거리는 삼산1동을 동서의 양분하는 지점인 동시에 삼산2동과 연결하는 지점이다.

삼산1동은 1970~1980년대 들어선 다세대 주택과 2000년대 초반 들어선 대규모 아파트 단지로 주거 환경이 나뉜다. 서부간선수로를 중심으로 왼쪽은 노후한 다세대 주택이 많은 지역이었는데, 최근 들어 불어온 재개발 이슈로 새로운 아파트가 생겨났거나 계획 중인 곳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향후 많은 변화가 생길 예정이다. 서부간선수로 오른쪽은 노후한 다세대 주택과 2000년대 초반 대규모 택지 개발을 통해 등장한 미래타운을 비롯한 아파트 단지가 주를 이룬다. 노후한 다세대 주택과 개인 주택들은 영성마을이라는 이름으로 마을공동체 활동이 활발하다.

### 1) 인구·면적

삼산1동의 면적은 2.13km<sup>2</sup>로 부평구 전체 면적의 6.7%에 해당한다. 2019년 12월 31일 기준 세대수는 1만 4,186세대, 인구수는 3만 5,789명(남자 1만 7,532명, 여자 1만 8,257명)이다. 행정구역은 41동 266반으로 구성되어 있고, 행정 인력은 21명이다. 민방위는 2,172

명, 예비군은 1,707명이 편성되어 있다.

표 1 삼산1동 기본 현황

(2019.12.31. 기준, 단위 : km<sup>2</sup>·%·세대·명)

면적	세대수	인구수			행정구역		행정 인력	민방위	예비군
		계	남	여	통	반			
2.13 (구의 6.7)	14,186	35,789	17,532	18,257	41	266	21	2,172	1,707

### 2) 자생 단체

삼산1동의 자생 단체는 8종류이다. 각 자생 단체별 소속된 인원은 주민자치위원회 15명, 통장자율회 38명, 방위협의회 15명, 지역사회보장협의체 10명, 부녀회 13명, 주민참여예산 지역위원회 15명, 청소년지도위원회 15명, 풍물단 12명이다.

표 2 삼산1동 자생 단체 현황

(2019.12.31. 기준, 단위 : 명)

주민자치위원회	통장자율회	방위협의회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부녀회	주민참여예산 지역위원회	청소년지도위원회	풍물단
15	38	15	10	13	15	15	12

### 3) 사회복지 대상자

삼산1동의 사회복지 대상은 세대수는 7,423세대, 인구는 1만 071명이다. 이 중 기초생활수급자는 2,515세대 3,488명, 한부모가족은 252세대 620명, 장애인은 1,764세대 2,523명, 기초연금 수급 대상은 2,892세대 3,440명이다.

표 3 삼산1동 사회복지 대상 현황

(2019.12.31. 기준, 단위 : 세대/명)

합계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장애인	기초연금
7,423/10,071	2,515/3,488	252/620	1,764/2,523	2,892/3,440

4) 주요 시설

삼산1동의 주요 시설은 공공기관 5개소, 복지시설 1개소, 경로당 23개소, 어린이집 29개소, 학교 5개소, 병·의원 20개소, 약국 8개소, 금융기관 3개소, 종교시설 40개소 등이 있다.

표 4 삼산1동 주요 시설 현황

(2019.12.31. 기준, 단위 : 개소)

공공기관	복지시설	경로당	어린이집	학교	병·의원	약국	금융기관	종교시설
5	1	23	29	5	20	8	3	40

2. 삼산2동

법정동 삼산동 전체를 기준으로 볼 때 삼산2동은 남측에 해당한다. 동으로는 수변로와 체육관로, 서로는 장제로, 남으로는 길주로, 북으로는 평천로까지가 삼산2동의 행정구역이라고 할 수 있다.



❖ 삼산2동 행정구역(출처 : 국토정보플랫폼 국토정보맵)

삼산2동의 지리적 중심은 상권이 밀집해 있는 삼산타운주공 7단지 남쪽이다. 삼산2동에는 삼산타운주공 1단지부터 7단지까지 2000년대 초반 대규모 택지 개발로 조성된 아파트가 주를 이루고, 삼산2동행정복지센터, 인천삼산경찰서, 삼산동우체국, 삼산119안전센터, 삼산월드체육관, 부평역사박물관 등 공공기관과 문화체육시설이 밀집해 있다. 삼산타운주공 7단지 앞에 대규모 상권이 형성되어 있고, 다른 단지 인근에는 상권이 소규모로 형성되어 있다.

삼산2동은 택지개발을 통하여 새롭게 개발된 계획도시로 공원 및 녹지 공간이 풍부하며, 굴포천이 흐르는 쾌적한 주거지역이다. 또한, 수도권 전철 7호선, 경인고속도로 및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옛 서울외곽순환도로) 등이 인접하여 교통이 편리하다.

1) 인구·면적

삼산2동의 면적은 1.26km<sup>2</sup>로 부평구 전체 면적의 3.94%에 해당한다. 2019년 12월 31

일 기준 세대수는 1만 279세대, 인구수는 3만 241명(남자 1만 4,692명, 여자 1만 5,549명)이다. 행정구역은 23통 133반으로 구성되어 있고, 행정 인력은 13명이다. 민방위는 1,526명, 예비군은 1,165명이 편성되어 있다.

**표 5** 삼산2동 기본 현황

(2019.12.31. 기준, 단위: km<sup>2</sup>·%세대명)

면적	세대수	인구수			행정구역		행정인력	민방위	예비군
		계	남	여	통	반			
1.26 (구의 3.94)	10,279	30,241	14,692	15,549	23	133	13	1,526	1,165

## 2) 자생 단체

삼산2동의 자생 단체는 7종류이다. 각 자생 단체별 소속된 인원은 주민자치위원회 20명, 통장자율회 23명, 지역사회보장협의체 17명, 주민참여예산지역위원회 15명, 청소년지도위원회 12명, 자율방범대 24명, 풍물단 11명이다.

**표 6** 삼산2동 자생 단체 현황

(2019.12.31. 기준, 단위: 명)

주민자치위원회	통장자율회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주민참여예산지역위원회	청소년지도위원회	자율방범대	풍물단
20	23	17	15	12	24	11

## 3) 사회복지 대상자

삼산2동의 사회복지 대상은 세대수는 3,359세대, 인구는 4,235명이다. 이 중 기초생활수급자는 633세대 1,109명, 한부모가족은 82세대 209명, 장애인은 1,222명, 기초연금수급 대상은 1,422세대 1,695명이다.

**표 7** 삼산2동 사회복지 대상 현황

(2019.12.31. 기준, 단위: 세대/명)

합계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장애인	기초연금
3,359/4,235	633/1,109	82/209	1,222	1,422/1,695

## 4) 주요 시설

삼산2동의 주요 시설은 공공기관 5개소, 복지시설 17개소, 경로당 7개소, 어린이집 24개소, 학교 7개소, 병·의원 37개소, 약국 10개소, 금융기관 8개소, 종교시설 12개소 등이 있다.

**표 8** 삼산2동 주요 시설 현황

(2019.12.31. 기준, 단위: 개소)

공공기관	복지시설	경로당	어린이집	학교	병·의원	약국	금융기관	종교시설
5	17	7	24	7	37	10	8	12

## | 제4절 | 문화유산 및 명소

### 1. 부평두레놀이

부평두레놀이는 부평구 삼산동에서 전승되는 두레 농악을 말하는 것으로, 지역 이름을 따서 부평삼산두레농악(부평삼산두레풍물)이라고 부른다. 지금은 택지 개발로 인하여 아파트를 중심으로 주거지가 형성되었지만, 택지 개발 이전인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삼산동에는 논이 많았다.



❖ 도드리놀이공원(삼산1동) 내 '부평 삼산 두레 풍물 전승마을' 기념비

부평두레놀이 중 마을굿은 기굿-당산굿-쌈굿으로 구성된다. 가정을 축원하는 집들이 또는 지신밟기는 문굿-성주굿-조왕굿-우물굿-철룡굿-굿간굿-외양간굿-간굿-마당굿으로 구성된다. 부평두레놀이는 삼산동에서 농사일을 할 때 두레를 짜서 농사일의 신명을 돌우던 두레패 농악을 계승한 것이다. 부평두레놀이는 농사일 시작 전 의식 및 두레기 받기를 기원하는 당산제, 모찌기, 모심기, 김매기 등의 농사 재현, 농사일이 끝나고 호미를 씻어 걸어두는 호미걸이, 일년 농사를 모두 끝내고 당산에 가서 제사하는 당산제의 네 마당으로 구성된다.<sup>3</sup>



❖ 부평두레놀이 시연 장면(출처 : 문화재청 국가문화유산포털)



3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http://encykorea.aks.ac.kr/>)을 참고하였다.

부평두레놀이에 사용되는 가락은 무겁기보다는 막히지 않는 경쾌함, 구르기보다는 맺음이 분명한 겹가락, 잔가락의 기교보다는 힘이 있는 속도감 등이 있다. 특히 칠채(길군악)가락에서는 타 지역과는 달리 가락마다 끊어치는 것이 특징이다. 칠채에 이어 마당일채에서는 암가락, 순가락 구분하여 치고 덩덕쿵이가락으로 넘어가 마당삼채로, 마지막에는 자진가락으로 맺는다. 자진가락에서 다드래기 또는 얹어빼기가락을 치는데 여기서 굿가락으로 부른다.

다른 지역에 비해 가락의 종류는 많지 않지만 변주가 매우 다양하다. 또한 경기, 충청 지역 농악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굿거리가락을 부평두레놀이에서는 사용한다. 특히 굿거리 가락이 점점 빨라져 덩덕쿵이로 넘어가는데 전체적으로 가락이 힘이 넘치고 북가락을 펴서 강하게 치는 것이 특징이다. 부평두레놀이에 사용되는 가락은 모두 10종류인데, 그중 가장 특징적인 가락은 길군악 칠채이며 이 외에 마당일채, 마당삼채, 자진가락, 더드래기(굿가락), 삼채(삼동지), 좌우치기, 굿거리, 동리삼채, 인사굿 등이 있다.<sup>4</sup>



❖ 부평두레놀이보존회 전승공연(2019, 부평구청)

4 부평풍물대축제 홈페이지(<https://portal.icbp.go.kr/bpf/pungmul/story02.asp>)를 참고하였다.

### 1. 초등학교

산곡동 소재 초등학교는 굴포초등학교, 삼산초등학교, 영선초등학교, 진산초등학교, 한길초등학교, 후정초등학교 등 6개소로 인천광역시북부교육지원청에서 관할한다.

#### 1) 굴포초등학교

공립 굴포초등학교는 2004년 9월 1일에 설립되었다. 2020년 기준, 학생 수는 1,011명(남 528명, 여 483명), 교원 수는 59명(남 11명, 여 48명)이다. 1학년은 7학급 167명, 2학년은 6학급 163명, 3학년은 7학급 183명, 4학년은 7학급 173명, 5학년은 6학급 162명, 6학년은 6학급 161명이고, 특수학급은 1학급 2명이다. 교원 중 수업 교원은 46명으로, 수업 교원 1인당 학생 수는 22명인데 부평구 평균 18.5명에 비하여 많은 편에 속한다.

굴포초등학교는 인천광역시 부평구 충선로234번길 19(삼산동 454-1)에 있다.

표 9 굴포초등학교 기본 현황

(2020년 기준, 단위: 명, 비교: 괄호는 특수학급임)

구분	학생 및 학급 수									교원 수	수업 교원 수	수업 교원 1인당 학생 수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5학년	6학년	특수 학급	순회 학급	계			
학급 수	7	6	7	7	6	6	1	0	40(1)	59(1)	46	22.0
학생 수	167	163	183	173	162	161	2	0	1,011(2)			
학급당 학생 수	23.9	27.2	26.1	24.7	27	26.8	2	0	25.3			

### 2) 삼산초등학교

공립 삼산초등학교는 1986년 3월 1일에 설립되었다. 2020년 기준, 학생 수는 617명(남 308명, 여 309명), 교원 수는 40명(남 10명, 여 30명)이다. 1학년은 3학급 77명, 2학년은 4학급 89명, 3학년은 5학급 106명, 4학년은 4학급 103명, 5학년은 5학급 113명, 6학년은 5학급 125명이고, 특수학급은 1학급 4명이다. 교원 중 수업 교원은 32명으로, 수업 교원 1인당 학생 수는 19.3명인데 부평구 평균 18.5명에 비하여 많은 편에 속한다.

삼산초등학교는 인천광역시 부평구 후정동로 44(삼산동 58-2)에 있다.

표 10 삼산초등학교 기본 현황

(2020년 기준, 단위: 명, 비교: 괄호는 특수학급임)

구분	학생 및 학급 수									교원 수	수업 교원 수	수업 교원 1인당 학생 수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5학년	6학년	특수 학급	순회 학급	계			
학급 수	3	4	5	4	5	5	1	0	27(1)	40(1)	32	19.3
학생 수	77	89	106	103	113	125	4	0	617(4)			
학급당 학생 수	25.7	22.3	21.2	25.8	22.6	25	4	0	22.9			

### 3) 영선초등학교

공립 영선초등학교는 2005년 9월 1일에 설립되었다. 2020년 기준, 학생 수는 856명(남 433명, 여 423명), 교원 수는 51명(남 4명, 여 47명)이다. 1학년은 5학급 128명, 2학년은 6학급 156명, 3학년은 6학급 133명, 4학년은 6학급 137명, 5학년은 6학급 148명, 6학년은 6학급 148명이고, 특수학급은 1학급 6명이다. 교원 중 수업 교원은 42명으로, 수업 교원 1인당 학생 수는 20.4명인데 부평구 평균 18.5명에 비하여 많은 편에 속한다.

영선초등학교는 인천광역시 부평구 충선로 293(삼산동 438-7)에 있다.

<sup>5</sup> 학교 알리미 홈페이지(<https://www.schoolinfo.go.kr>) 및 각 학교 홈페이지를 참고하였다.

표 11 영선초등학교 기본 현황

(2020년 기준, 단위: 명, 비교: 괄호는 특수학급임)

구분	학생 및 학급 수									교원 수	수업 교원 수	수업 교원 1인당 학생 수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5학년	6학년	특수 학급	순회 학급	계			
학급 수	5	6	6	6	6	6	1	0	36(1)	51(1)	42	20.4
학생 수	128	156	133	137	148	148	6	0	856(6)			
학급당 학생 수	25.6	26	22.2	22.8	24.7	24.7	6	0	23.8			

4) 진산초등학교

공립 진산초등학교는 2004년 9월 1일에 설립되었다. 2020년 기준, 학생 수는 384명(남 206명, 여 178명), 교원 수는 32명(남 6명, 여 26명)이다. 1학년은 2학급 43명, 2학년은 2학급 49명, 3학년은 3학급 60명, 4학년은 3학급 72명, 5학년은 3학급 73명, 6학년은 3학급 77명이고, 특수학급은 2학급 10명이다. 교원 중 수업 교원은 22명으로, 수업 교원 1인당 학생 수는 17.5명인데 부평구 평균 18.5명에 비하여 적은 편에 속한다.

진산초등학교는 인천광역시 부평구 굴로포 194-10(삼산동 456-1)에 있다.

표 12 진산초등학교 기본 현황

(2020년 기준, 단위: 명, 비교: 괄호는 특수학급임)

구분	학생 및 학급 수									교원 수	수업 교원 수	수업 교원 1인당 학생 수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5학년	6학년	특수 학급	순회 학급	계			
학급 수	2	2	3	3	3	3	2	0	18(2)	32(2)	22	17.5
학생 수	43	49	60	72	73	77	10	0	384(10)			
학급당 학생 수	21.5	24.5	20	24	24.3	25.7	5	0	21.3			

5) 한길초등학교

공립 한길초등학교는 2000년 9월 1일에 설립되었다. 2020년 기준, 학생 수는 751명(남 372명, 여 379명), 교원 수는 42명(남 7명, 여 35명)이다. 1학년은 5학급 114명, 2학년은 5학급 128명, 3학년은 5학급 129명, 4학년은 5학급 123명, 5학년은 5학급 119명, 6학년은 5학급 130명이고, 특수학급은 1학급 8명이다. 교원 중 수업 교원은 36명으로, 수업 교원 1인당 학생 수는 20.9명인데 부평구 평균 18.5명에 비하여 많은 편에 속한다.

한길초등학교는 인천광역시 부평구 영성중로 32(삼산동 393-1)에 있다.

표 13 한길초등학교 기본 현황

(2020년 기준, 단위: 명, 비교: 괄호는 특수학급임)

구분	학생 및 학급 수									교원 수	수업 교원 수	수업 교원 1인당 학생 수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5학년	6학년	특수 학급	순회 학급	계			
학급 수	5	5	5	5	5	5	1	0	31(1)	42(1)	36	20.9
학생 수	114	128	129	123	119	130	8	0	751(8)			
학급당 학생 수	22.8	25.6	25.8	24.6	23.8	26	8	0	24.2			

6) 후정초등학교

공립 후정초등학교는 2003년 9월 1일에 설립되었다. 2020년 기준, 학생 수는 517명(남 273명, 여 244명), 교원 수는 36명(남 3명, 여 33명)이다. 1학년은 3학급 74명, 2학년은 4학급 82명, 3학년은 4학급 89명, 4학년은 4학급 82명, 5학년은 4학급 82명, 6학년은 4학급 99명이고, 특수학급은 2학급 9명이다. 교원 중 수업 교원은 29명으로, 수업 교원 1인당 학생 수는 17.8명인데 부평구 평균 18.5명에 비하여 적은 편에 속한다.

후정초등학교는 인천광역시 부평구 영성서로 56(삼산동 390-1)에 있다.

표 14 후정초등학교 기본 현황

(2020년 기준, 단위: 명, 비교: 괄호는 특수학급임)

구분	학생 및 학급 수									교원 수	수업 교원 수	수업 교원 1인당 학생 수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5학년	6학년	특수 학급	순회 학급	계			
학급 수	3	4	4	4	4	4	2	0	25(2)	36(2)	29	17.8
학생 수	74	82	89	82	82	99	9	0	517(9)			
학급당 학생 수	24.7	20.5	22.3	20.5	20.5	24.8	4.5	0	20.7			

## 2. 중학교

삼산동 소재 중학교는 부일중학교, 삼산중학교, 진산중학교 등 3개소로 인천광역시 북부교육지원청에서 관할한다.

### 1) 부일중학교

공립 부일중학교는 1992년 2월 25일에 설립되었다. 2020년 기준, 학생 수는 509명(남 273명, 여 236명), 교원 수는 51명(남 8명, 여 43명)이다. 1학년은 8학급 182명, 2학년은 8학급 155명, 3학년은 8학급 160명, 특수학급은 2학급 12명이다. 교원 중 수업 교원은 42명으로, 수업 교원 1인당 학생 수는 12.1명인데 부평구 평균 14.9명에 비하여 적은 편에 속한다.

부일중학교는 인천광역시 부평구 영성로 3(삼산동 388-5)에 있다.

표 15 부일중학교 기본 현황

(2020년 기준, 단위: 명, 비교: 괄호는 특수학급임)

구분	학생 및 학급 수						교원 수	수업 교원 수	수업 교원 1인당 학생 수
	1학년	2학년	3학년	특수학급	순회학급	계			
학급 수	8	8	8	2	0	26(2)	51(2)	42	12.1
학생 수	182	155	160	12	0	509(12)			
학급당 학생 수	22.8	19.4	20	6	0	19.6			

### 2) 삼산중학교

공립 삼산중학교는 2005년 3월 1일에 설립되었다. 2020년 기준, 학생 수는 1,089명(남 559명, 여 530명), 교원 수는 70명(남 11명, 여 59명)이다. 1학년은 12학급 397명, 2학년은 12학급 361명, 3학년은 10학급 323명, 특수학급은 1학급 8명이다. 교원 중 수업 교원은 58명으로, 수업 교원 1인당 학생 수는 18.8명인데 부평구 평균 14.9명에 비하여 많은 편에 속한다.

삼산중학교는 인천광역시 부평구 충선로 308(삼산동 445-1)에 있다.

표 16 삼산중학교 기본 현황

(2020년 기준, 단위: 명, 비교: 괄호는 특수학급임)

구분	학생 및 학급 수						교원 수	수업 교원 수	수업 교원 1인당 학생 수
	1학년	2학년	3학년	특수학급	순회학급	계			
학급 수	12	12	10	1	0	35(1)	70(1)	58	18.8
학생 수	397	361	323	8	0	1,089(8)			
학급당 학생 수	33.1	30.1	32.3	8	0	31.1			

### 3) 진산중학교

공립 진산중학교는 2005년 3월 1일에 설립되었다. 2020년 기준, 학생 수는 1,014명(남 509명, 여 505명), 교원 수는 57명(남 9명, 여 48명)이다. 1학년은 11학급 370명, 2학년은 11학급 343명, 3학년은 9학급 295명, 특수학급은 1학급 6명이다. 교원 중 수업 교원은 51명으로, 수업 교원 1인당 학생 수는 19.9명인데 부평구 평균 14.9명에 비하여 많은 편에 속한다.

진산중학교는 인천광역시 부평구 충선로234번길 70(삼산동 454-11)에 있다.

표 17 진산중학교 기본 현황

(2020년 기준, 단위: 명, 비교: 괄호는 특수학급임)

구분	학생 및 학급 수						교원 수	수업 교원 수	수업 교원 1인당 학생 수
	1학년	2학년	3학년	특수학급	순회학급	계			
학급 수	11	11	9	1	0	32(1)	57(1)	51	19.9
학생 수	370	343	295	6	0	1,014(6)			
학급당 학생 수	33.6	31.2	32.8	6	0	31.7			

### 3. 고등학교

삼산동 소재 고등학교는 삼산고등학교, 영선고등학교, 진산과학고등학교 등 3개소로 인천광역시교육청에서 관할한다.

#### 1) 삼산고등학교

공립 삼산고등학교는 2001년 3월 1일에 설립되었다. 2020년 기준, 학생 수는 624명(남 325명, 여 299명), 교원 수는 59명(남 16명, 여 43명)이다. 1학년은 8학급 200명, 2학년은 8학급 213명, 3학년은 8학급 206명, 특수학급은 1학급 5명이다. 교원 중 수업 교원은 48명으로, 수업 교원 1인당 학생 수는 13명인데 부평구 평균 11.1명에 비하여 많은 편

에 속한다.

삼산고등학교는 인천광역시 부평구 영성중로 54(삼산동 391-2)에 있다.

표 18 삼산고등학교 기본 현황

(2020년 기준, 단위: 명, 비교: 괄호는 특수학급임)

구분	학생 및 학급 수						교원 수	수업 교원 수	수업 교원 1인당 학생 수
	1학년	2학년	3학년	특수학급	순회학급	계			
학급 수	8	8	8	1	0	25(1)	59(2)	48	13.0
학생 수	200	213	206	5	0	624(5)			
학급당 학생 수	25.0	26.6	25.8	5.0	0	25.0			

#### 2) 영선고등학교

공립 영선고등학교는 2006년 3월 1일에 설립되었다. 2020년 기준, 학생 수는 669명(남 348명, 여 321명), 교원 수는 59명(남 14명, 여 45명)이다. 1학년은 8학급 196명, 2학년은 9학급 240명, 3학년은 9학급 222명, 특수학급은 2학급 11명이다. 교원 중 수업 교원은 52명으로, 수업 교원 1인당 학생 수는 12.9명인데 부평구 평균 11.1명에 비하여 많은 편에 속한다.

영선고등학교는 인천광역시 부평구 체육관로 179(삼산동 448-5)에 있다.

표 19 영선고등학교 기본 현황

(2020년 기준, 단위: 명, 비교: 괄호는 특수학급임)

구분	학생 및 학급 수						교원 수	수업 교원 수	수업 교원 1인당 학생 수
	1학년	2학년	3학년	특수학급	순회학급	계			
학급 수	8	9	9	2	0	28(2)	59(3)	52	12.9
학생 수	196	240	222	11	0	669(11)			
학급당 학생 수	24.5	26.7	24.7	5.5	0	23.9			

### 3) 진산과학고등학교

공립 진산과학고등학교는 2006년 3월 1일에 설립된 특수목적 고등학교이다. 2020년 기준, 학생 수는 210명(남 169명, 여 41명), 교원 수는 42명(남 21명, 여 21명)이다. 1학년은 4학급 84명, 2학년은 4학급 79명, 3학년은 4학급 47명이다. 교원 중 수업 교원은 33명으로, 수업 교원 1인당 학생 수는 6.4명인데 부평구 평균 11.1명에 비하여 많은 편에 속한다.

진산과학고등학교는 인천광역시 부평구 굴포로 194-9(삼산동 456-6)에 있다.

표 20 진산과학고등학교 기본 현황

(2020년 기준, 단위: 명, 비교: 괄호는 특수학급임)

구분	학생 및 학급 수						교원 수	수업 교원 수	수업 교원 1인당 학생 수
	1학년	2학년	3학년	특수학급	순회학급	계			
학급 수	4	4	4	0	0	12(0)	42	33	6.4
학생 수	84	79	47	0	0	210(0)			
학급당 학생 수	21.0	19.8	11.8	0	0	17.5			

## 제6절 문화·체육·공공기관

### 1. 부평구노인복지관<sup>6)</sup>

부평구노인복지관은 노인의 복지 향상, 문화 창달, 건강 증진, 여가 선용, 기타 노인 복지 증진 등을 위하여 설치된 기관이다. 1993년 8월 인천시는 북구(현 부평구) 부평4동, 남동구 간석동, 남구 주안3동 등에 노인복지회관을 건립하기로 결정하였다.<sup>7)</sup> 세 곳은 모두 지하 1층, 지하 3층 규모로 계획되었다. 당시 보도된 신문기사에 따르면 부평구에는 부평4동 914번지(현 부평구어울림센터 소재, 부평구 장제로 235)에 연면적 550평 규모의 노인복지회관이 들어설 예정으로 1994년 말까지 완공을 목표로 하였는데,<sup>8)</sup> 1년 정도 준공이 지연되었다.

1995년 10월 27일, 지금의 부평구어울림센터 자리에서 부평구노인복지관이 개관하였다. 노인 문화의 산실로 노인의 복지 향상에 이바지하던 부평구노인복지관은 건물이 협소한 점이 수차례 제기되어 새로운 건물로 이전을 준비하였다. 부평구 굴포로 114(삼산동)에 부지를 마련하고 2008년 11월 착공하여 2012년 준공하였다. 그리고 같은 해 7월 18일에 개관 기념식을 거행하였다.

새로 만든 부평구노인복지관은 총 사업비 103억 3,600만 원 예산이 투입되어 건축 면적 894.94㎡, 연면적 4,066.56㎡(지하 1층, 지상 5층)으로 당시 인천시 유일의 현대적 시설을 갖춘 노인복지관으로 탄생했다.<sup>9)</sup>

부평구노인복지관의 시설 현황은 다음과 같다.

6 부평구노인복지관 홈페이지(<http://bpsenior.or.kr>)를 참고하였다.

7 「노인복지회관 건립」, 『매일경제』, 1993년 8월 4일자.

8 「노인회관 3곳에 건립, 인천 내년 말까지 완공」, 『경향신문』, 1993년 8월 7일자.

9 「부평노인복지관 신관 이전 개관식」, 『오마이뉴스』, 2012년 7월 19일자. 면적은 부평구노인복지관 홈페이지를 참고하여 수정하였음을 밝힌다.

표 21 부평구노인복지관 주요 시설 현황

구분	시설 현황
5층	대강당, 지회장실, 지회사무실, 노인대학
4층	컴퓨터실, 어학실, 도서실, 당구실
3층	교육실, 서예실, 바둑실, 경로식당(별관)
2층	관장실, 강사대기실, 소강당, 사무실, 체력단련실, 탁구실, 탈의실, 샤워실
1층	물리치료실, 사무실, 이미용실, 카페(별관)
지하	주차장, 기계실

2020년 기준, 부평구노인복지관의 조직은 복지정책과(교육정책팀, 서비스운영팀)와 복지지원과(여가지원팀, 일자리관리팀)로 구성되어 있다. 교육정책팀에서는 평생학습사업, 종합상담사업, 건강증진사업, 기획홍보사업, 셔틀버스 등을 담당하고, 서비스운영팀에서는 노인맞춤돌봄서비스사업, 노인맞춤돌봄특화서비스사업, 경로식당사업, 복리후생사업, 자원봉사사업, 후원사업 등을 담당하고, 여가지원팀에서는 경로당여가문화보급사업을 담당하고, 일자리관리팀에서는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등을 담당하고 있다.

부평구노인복지관은 인천광역시 부평구 굴포로 114(삼산동 441-2)에 있다.



❖ 부평구노인복지관(출처 : 부평구노인복지관 홈페이지)

## 2. 부평구청소년성문화센터<sup>10</sup>

부평구청소년성문화센터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문화, 성지식 교육과 건전한 성가치관 함양을 위하여 설립되었다.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아동·청소년 대상 성교육 전문기관의 설치·운영)」에 근거하여 운영되는 청소년 성교육 전문 특화시설이다.



❖ 부평구청소년성문화센터(2020, 부평구청소년성문화센터 홈페이지)

부평구청소년성문화센터는 2011년 11월23일 부평구청소년수련관 개관과 함께 동 건물 3층에서 운영을 시작하였다. 2013년 3월 부평구청소년성문화센터가 별도의 기관으로 분리되었다. 성교육 자원활동가 양성교육, 찾아가는 성교육, 성폭력예방 역할극, 성인 지 감수성 향상 프로그램 진행 등 다양한 성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10 부평구청소년성문화센터 홈페이지(<https://www.icbp.go.kr/gender>)를 참고하였다.

2020년 기준, 부평구청소년성문화센터는 운영지원팀, 교육문화팀으로 구성되어 있다. 추진 중인 문화사업으로 성문화캠페인 활동, 평생교육, 생활체육 사업이 있고, 교육 사업으로 성문화교육관 운영, 찾아가는 성교육, 방학 특강, 부모와 함께하는 성교육, 토요일 프로그램 성장놀이터가 있다. 조직사업으로 성교육활동가 양성, 청소년성문화 동아리 운영이 있고, 상담사업을 통해 성적 고민을 전화·면접·출장 등의 방식으로 상담하고 있다.

부평구청소년성문화센터는 체험관 성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만남방(섹슈얼리티와 나), 거울방, 자궁방, 사춘기방, 탄생방, 사회 속의 성문화방, 우주 속의 나 등 7개방으로 나뉘어져 아동, 청소년, 성인을 대상으로 체험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부평구청소년성문화센터는 인천광역시 부평구 체육관로 76(삼산동 458-2)에 있다.

### 3. 부평구청소년수련관<sup>11</sup>

부평구청소년수련관은 청소년의 건전한 가치관을 확립하고 청소년의 정서 함양과 수련 활동 등 건전한 청소년 육성지원을 위하여 설립되었다. 「청소년기본법」 제18조에 따라 제정된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가 부평구청소년수련관 설립의 근거가 된다.

부평구청소년수련관은 2011년 11월 23일 개관하였다. 개관 이후 인천광역시 북부교육지원청, 인천광역시 교육청 외 관내 학교들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각종 청소년 프로그램을 운영하였다. 그리고 청소년활동프로그램, 청소년자치조직, 평생교육 및 생활체육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2018년부터 인천광역시평생학습관으로 지정되어 청소년뿐만 아니라 일반 주민들의 평생교육에도 이바지하고 있다.

부평구청소년수련관의 조직은 청소년지원팀, 청소년활동팀, 청소년교육문화팀, 방과후아카데미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11 부평구청소년수련관 홈페이지(<https://portal.icbp.go.kr/bpy>)를 참고하였다.

부평구청소년수련관의 운영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다.

표 22 부평구청소년수련관 주요 운영 프로그램

분류	프로그램		
청소년 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국제청소년성취포상제</li> <li>청소년 자원봉사활동</li> <li>대학생 전공현장실습</li> <li>영상캠프</li> <li>서해 섬 탐방</li> <li>별자리 캠프</li> <li>역사 속으로 풍덩!</li> <li>문화 감성 공간 "통"</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고교생 레포츠 캠프</li> <li>창의적체험활동</li> <li>함께해서 좋은세상</li> <li>학교폭력예방활동</li> <li>청소년 동아리활동</li> <li>대학생 자원봉사단</li> <li>청소년 영상기자단</li> <li>영상미디어센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가족 1박 2일 캠핑</li> <li>토요일엔 즐겨찾기</li> <li>청소년한마당축제</li> <li>3대3 농구대회</li> <li>지역 간 청소년 교류활동</li> <li>모여라 희망 레포츠 캠프</li> <li>지역사회 참여활동</li> </ul>
평생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청소년, 유아, 성인들의 다양한 활동을 통하여 창의적인 사고 능력과 감성적인 지적 능력을 향상시키는 다양한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운영</li> <li>- 정규강좌, 특성화청소년교실</li> </ul>		
생활체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청소년 및 지역 주민을 위한 체력증진 여가 선용 프로그램 운영</li> <li>- 정규 강좌, 사회적 배려 청소년교실, 생활체육증진</li> </ul>		

부평구청소년수련관은 인천광역시 부평구 체육관로 76(삼산동 458-2)에 있다.



❖ 부평구청소년수련관(2011, 부평구청)

#### 4. 부평문화원

부평문화원은 부평 지역 문화의 진흥과 전통 문화에 뿌리를 둔 문화 융성을 위하여 설립되었다. 「지방문화원진흥법」에 따라 제정된 「인천광역시 부평구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운영하고 있다.

부평문화원은 1998년 7월 9일 개원하였다. 개원에 앞서 1998년 2월 27일 부평문화원 설립추진위원회를 발족하고 1998년 5월 1일 창립총회를 열고 초대 원장을 선출하였다. 같은 해 7월 4일 지방문화원 설립이 인가되어 7월 9일 개원을 맞이하여 현판식 및 개원식을 개최하였다. 원사의 위치는 옛 부평구청 의회 청사 자리인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흥로 287(부평동 442-3)였다. 2013년 7월 1일부터 부평역사박물관을 위탁관리하며 원사를 부평역사박물관으로 옮겼고, 2013년 7월 9일 원사 이전 현판식을 거행하였다.

2020년 기준, 부평문화원의 조직은 총무과와 사업과로 구성되어 있다. 추진 중인 사업은 크게 전통문화계승사업, 문화재전승발전사업, 지역문화진흥사업, 문화예술교육사업으로 나뉜다.<sup>12</sup> 이 외에 2007년과 2021년 『부평사(富平史)』 편찬 사업을 주관하였다.

표 23 부평문화원 주요 사업

전통문화계승사업	문화재전승발전사업	지역문화진흥사업	문화예술교육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스마트부평전통놀이</li> <li>· 정월대보름 in부평</li> <li>· 초록골포 단오놀이</li> <li>· 이엉엮기</li> <li>· 전통성년식</li> <li>· 두레천하</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평두레놀이 공연</li> <li>· 부평두레놀이 교육</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평지하호</li> <li>· 부평에 샘길따라 탐방</li> <li>· 해설가 양성과정</li> <li>· 실버문화사업</li> <li>· 초록골포그림그리기대회</li> <li>· 신년인사회</li> <li>· 부평워킹투어</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아침문화강좌</li> <li>· 시니어극단</li> <li>· 주니어극단</li> <li>· 학교지역연계</li> </ul>

부평문화원은 인천광역시 부평구 굴포로 151(삼산2동 451-1)에 있다.

12 부평문화원 홈페이지(<https://portal.icbp.go.kr/bpcc>) 및 『함께 걸어온 20년 다시 뛰는 부평문화원』(부평문화원, 2018)를 참고하였다.



❖ 부평문화원(원사) 개원식(1998, 부평구청)

#### 5. 부평안전체험관(부평구민방위교육장)<sup>13</sup>

부평안전체험관은 유사시 구민들의 재난 대처 능력 향상을 위해 건립되었다. 당초 2012년 부평구민방위교육장 안에 체험관으로 조성되어 있다가 2015년 부평안전체험관이라는 이름으로 확대 개편하였다.

부평구민방위교육장은 2012년 5월 1일 개관하고, 같은 해 5월 29일 개관식을 가졌다. 민방위교육장은 지난 2009년 12월에 공사를 착공해 2012년 4월에 준공된 건물로 3층에는 재난 발생 시 대처 요령 등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체험관이 마련되었다. 인천 최초로 만들어진 재난체험관은 지하철 탈출, 지진, 풍수해, 완강기 탈출, 연기 탈출, 화재 진압, 심폐소생술, 생활 속 안전 체험 등을 경험할 수 있는 공간이었다.<sup>14</sup>

2014년 8월, 행정자치부에서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공모한 ‘지자체 안전교육 인프라 구축사업’에 선정되어 부평구민방위교육장을 ‘안전+문화 체험시설’ 위주로 활용하여 시민들이 일상생활에서 접할 수 있는 재난 상황을 체험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2014년

13 부평안전체험관 홈페이지(<https://portal.icbp.go.kr/safe>)를 참고하였다.

14 「인천 부평구, 민방위 교육장 개관」, 『뉴스1』, 2012년 5월 29일자.

12월부터 착공에 들어갔다.<sup>15</sup>

2015년 6월 1일, 부평안전체험관은 유사시 구민들의 재난 대처 능력 향상을 위하여 개관한 재난 체험공간이다. 기존에는 부평구민방위교육장 부속 체험관에 불과하였으나, 확대 개관 이후에는 부평안전체험관이라는 이름으로 각종 재난 대처와 관련된 체험관을 운영함과 동시에 부평구민방위교육 업무도 수행하게 되었다. 안전체험관은 지진·심폐소생술 체험, 해상풍수해 체험, 교통안전 체험, 생활안전 체험, 지하공간 탈출 체험, 완강기 탈출 체험, 엘리베이터 탈출 체험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종 재난 상황을 가상으로 설정하여 구민들이 직접 보고, 듣고, 느끼고, 체험할 수 있다.

2020년 기준, 부평안전체험관의 조직은 민방위 담당, 부평안전체험관 담당, 실전체험강사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민방위 담당은 민방위대 편성 및 자원관리, 민방위교육 및 강사관리, 시설물 및 운영·관리, 민방위교육장 대강당 대관, 사회복지무요원 관리 등의 업무를, 부평안전체험관 담당은 부평안전체험관 교육운영 전담, 체험전시시설 및 홈페이지 관리 등의 업무를, 실전체험강사는 부평안전체험관 생활안전강의 등을 담당하고 있다.

부평안전체험관은 인천광역시 부평구 굴포로 110(삼산동 441-2)에 있다.



❖ 부평안전체험관 교육 모습(2015, 부평구청)

15 「인천 부평구에 안전문화체험관 착공」, 『연합뉴스』, 2014년 12월 7일자.

## 6. 부평역사박물관<sup>16</sup>

부평역사박물관은 부평의 역사와 문화를 바로 알리고 지역 주민에게 정주의식을 함양시키고자 2007년 3월 29일에 개관하였다. 2003년 인천광역시는 2008년까지 9개소의 박물관을 건립할 계획을 세웠는데, 부평향토박물관이 포함되었다.<sup>17</sup> 2014년 부평향토박물관은 부평역사박물관이라는 이름으로 삼산택지지구 내에 건립하기로 하여 2005년 7월 27일 기공식을 가졌다. 당초 2006년 개관을 목표로 했던 부평역사박물관은 2007년 3월 29일에 개관식을 거행하였다.

부평역사박물관은 지하 1층, 지상 2층 연면적 3,056㎡ 규모로 건립되었다. 2020년 기준, 지하 1층에 강의실과 다목적실, 수장고, 1층에 사무실과 기증전시실, 기획전시실, 2층에 부평역사실, 농경문화실, 회랑, 카페 등이 있다.



❖ 부평역사박물관 부평역사실(2020)

16 부평역사박물관 홈페이지(<https://portal.icbp.go.kr/bphm>)를 참고하였다.

17 「인천에 테마박물관 붐...2008년까지 9곳 세워질 듯」, 『동아일보』, 2003년 12월 2일자.



❖ 부평역사박물관 전경(2018, 부평구청)

부평역사박물관은 그동안 부평의 역사와 문화를 상설전시로 소개하고, 지속적인 연구를 통해 특별기획전을 기획하였다. 「부평부사선정비림 탁본」, 「수집유물 공개전」, 「부평의 명가」, 「부평의 근대 교육사」, 「부평 자동차 산업사 48년」, 「부평골에 울려 퍼진 기적 소리」, 「부평의 근현대사」, 「기증, 아름다운 추억의 나눔」, 「소녀, 공순이 되다」, 「백운 거사 이규보와 떠나는 부평의 시간탐험대」, 「원적산 너머 뫼골마을 이야기」, 「신촌 다시 보기」, 「...살고 싶었던 시인, 한하운」, 「삼릉, 멈춰버린 시간」, 「부평」, 「부평 마지막 달동네-열우물 연가」, 「해방공장, 1945년 군수기지 부평의 기억」, 「아직 끝나지 않은 이야기, 피와 땀 그리고 눈물」, 「헬로우 에스컴시티, 굿바이 캠프마켓」, 「부평시장, 시대를 사고 팝니다」 등의 특별 기획전을 개최하여 상설전시에서 깊게 다루지 못했던 주제들을 심도 있게 다루었다.

또한 지역사 연구에도 중점을 두고 2014년부터 학술 총서를 발간하였다. 『부평 산곡동 근로자 주택』, 『이주민의 마을, 부평 신촌』, 『미쓰비시를 품은 여백, 사택마을 부평 삼릉』, 『맑은내 마을, 부평 청천동』, 『열우물마을, 부평 십정동』, 『부평 도심의 재발견, 만월산과 경인가도』, 『상이용사의 보금자리 부평 화랑농장』, 『삶의 터전, 부평시장』 등의 학술총서를 발간하여 배포하였다.

부평역사박물관은 각종 성인 교육과 어린이 교육 등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지역사를 공부하는 평생학습기관으로서의 역할도 수행하고 있다.

부평역사박물관은 인천광역시 부평구 굴포로 151(삼산2동 451-1)에 있다.

## 7. 삼산농산물도매시장<sup>18</sup>

삼산농산물도매시장은 현대화된 유통시설 확충으로 농산물 유통기능 강화 등 유통구조 개선과 수급 안정 및 거래 질서 확립으로 생산자와 소비자를 동시 보호하고 도심지 유사 농산물도매시장의 통폐합 정비 및 주민 숙원 사업을 해결하기 위하여 2001년 5월 9일 개장하였다.



❖ 삼산농산물도매시장 개장식(2001, 부평구청)

18 삼산농산물도매시장 홈페이지(<https://www.incheon.go.kr/sm/index>)를 참고하였다.

삼산농산물도매시장은 1997년 12월 삼산동 택지지구 내에 시설 공사를 착공하여 2000년 12월에 준공 후, 2001년 5월 9일에 개장하였다. 사업비는 약 809억 원으로, 하루 1,500톤의 농산물을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었다. 개장 당시 도매시장 채소류 도매는 오전 2시부터 오전 12시까지, 과일류 도매는 오전 4시부터 오후 12시까지 이루어지고 3개 도매 법인(공판장)에 432명의 중도매인이 농산물 유통업무에 종사하였다. 또한 주민들의 요구에 따라 오후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시한부로 소매도 허용하였다.<sup>19</sup>

2020년 기준, 채소동, 과일동, 무배추경매장, 쓰레기처리장 등이 있다. 채소동 1층에는 경매장, 저온저장고, 하역반 대기실, 2층에는 중도매인 사무실, 3층에는 사무실, 4층에는 도매법인 사무실, 5층에는 관리사무소, 전산실, 대회의실 등이 있다. 과일동 1층에는 경매장, 저온저장고, 하역반 대기실, 2층에는 중도매인 사무실, 3·4층에는 임대 사무실이 있다. 무배추경매장 1층에는 경매장, 2층에는 중도매인 사무실, 하역반 대기실, 출하 대기실이 있다. 쓰레기처리장 1층에는 적치장, 처리 시설, 2층에는 사무실이 있다. 지하에는 경비실과 화장실이 있다.

삼산농산물도매시장은 인천광역시 부평구 영성동로 46(삼산동 7-1)에 있다.

## 8. 삼산도서관<sup>20</sup>

삼산도서관은 2012년 5월 7일 부평구립도서관으로 개관하였다. 부평구립도서관은 부개도서관, 삼산도서관, 부평기적의도서관, 청천도서관, 갈산도서관, 부개어린이도서관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부평구립도서관은 도서관마다 각자의 색깔과 특색을 가지고 있으며 이를 지속적으로 강화하여 전문화되고 차별화된 도서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19 「인천 삼산농산물도매시장 9일 개장」, 『한국경제』, 2001년 5월 9일자.

20 삼산도서관 홈페이지(<https://www.b ppl.or.kr/samsan/index.do>)를 참고하였다.



❖ 삼산도서관 개관식 행사(2012, 부평구청)

삼산도서관은 영어 자료 특화 도서관으로 영어와 관련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연중 운영되는 영어 자료 전시를 비롯하여, 유아와 어린이를 위한 영어 프로그램, 관내 고등학교 영어 동아리 학생들의 재능 기부 강좌, 영어 뮤지컬 등 영어를 주제로 하는 다양한 독서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2020년 10월 기준, 장서는 동양서 5만 536권, 서양서 9,646권, 비도서 1,523점, 전자책 3,513권 등 총 6만 5,218권(점)의 장서를 소장하고 있다. 규모는 지하 1층, 지상 4층, 연면적 1,592.1㎡이다. 1층에는 어린이자료실, 사무실, 화장실, 장애인화장실, 2층에는 영어·멀티자료실, 휴게실, 문화아지트, 화장실, 장애인화장실, 3층에는 종합자료실, 화장실, 장애인화장실, 4층에는 다목적실, 화장실, 장애인화장실이 있다.

삼산도서관은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북로 445(삼산동 390-2)에 있다.



❖ 인천삼산월드체육관 전경(2018, 부평구청)

## 9. 삼산월드체육관<sup>21</sup>

삼산월드체육관은 2006년 10월 14일 인천 최대 규모의 실내 체육관으로 개관하였다. 인천광역시는 삼산동에 시립 체육관을 건립하기로 하고 2004년 10월 착공식을 가졌다. 2년여 간의 공사 끝에 2006년 준공을 앞두고 삼산시립체육관(공사명)의 공식 명칭을 ‘인천삼산월드체육관’으로 결정하고 개관을 맞이하였다. 2014년 아시안게임 유치권을 원하던 인천광역시가 시 최대 규모의 종합실내체육관을 개관한 것이었다.

삼산월드체육관의 규모는 대지면적 5만 20㎡, 건축면적 9,887㎡, 연면적 4만 3,029㎡으로, 지하 2층, 지상 3층이다. 삼산월드체육관은 비행기 모양의 날렵한 외관과 7,500여 석 규모의 실내주경기장, 570여 석 규모의 보조경기장, 250명 수용 규모의 컨벤션센터, 25m 6레인 규모의 수영장, 대형 헬스장, 야외 축구장, 야외 족구장, 야외 농구장 등 국제 경기를 치르기에 손색이 없는 시설들을 두루 갖추었다. 또 스카이박스, 레스토랑, 분수 광장, 수석 정원, 축제 광장 등을 구비하였다.<sup>22</sup>

<sup>21</sup> 삼산월드체육관 홈페이지([http://www.insiseol.or.kr/institution\\_guidance/samsan](http://www.insiseol.or.kr/institution_guidance/samsan))를 참고하였다.

<sup>22</sup> 「아시아 최고 체육시설로 '날갯짓」, 『인천일보』, 2006년 9월 26일자.

2020년 기준, 실내 경기시설로 실내 체육관과 보조 경기장, 야외 구장으로 축구장, 농구장, 족구장, 생활체육시설로 수영장, 헬스장, 피트니스실, 집회 및 공연 시설로 컨벤션센터, 웨딩홀 등을 운영 중에 있다.

지하 2층에는 보조경기장, 기계전기실, 주차장, 지하 1층에는 보조경기장 관람석, 생활체육시설, 주차장, 지상 1층에는 실내 체육관, 경기운영 시설, 방송보도실, 컨벤션센터, 지상 2층에는 VIP석, 임원석, 콘코스, 관람객 편의시설, 지상 3층에는 관람석, 스카이박스 있다.

삼산월드체육관은 인천광역시 부평구 체육관로 60(삼산동 458-1)에 있다.

## | 제7절 | 축제

부평구 삼산동에서 실시되는 마을축제는 다양하다. 굴포천 통통통 환경축제, 서부간 선수로 마을축제, 영성마을 마을축제, 정원대보름 in부평, 초록굴포 단오놀이 등이다. 삼산동에서 기원한 풍물을 활용한 부평풍물대축제 역시 삼산동의 축제라 할 수 있으나, 이는 별도의 장에서 상세히 다루니 여기서는 생략하도록 하겠다.

### 1. 굴포천 통통통 환경축제

굴포천 통통통(通通通) 환경축제는 매해 가을 개최되어 2019년 9회째를 맞았다. 주민과 함께 어우러지는 환경축제로, 마을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여 환경 사랑으로 하나 되는 마을축제다. 도시화로 인한 실생활에서의 환경 사랑 실천 및 굴포천 살리기 운동 등을 통해 주민 스스로가 환경문제를 함께 나누며 즐기는 축제다.

축제 이름의 ‘통통통’은 주민과 ‘통’하고 마을과 ‘통’하고 세상과 ‘통’한다라는 뜻에서 ‘통’자를 따왔다. 환경문제를 주민에서 시작해서 마을, 그리고 세상과 통해 해결하겠다



❖ 제9회 굴포천 통통통 환경축제(2019, 부평구청)

는 의미이다.

굴포천 통통통 환경축제는 주관 단체가 이색적이다. 해마다 주관 단체가 일부 변경되고 있으나 대개 굴포천 인근 삼산타운 7개 단지가 축제를 직접 주관한다. 기관에서 축제를 기획하고 실행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들의 손으로 직접 축제가 만들어지는 점이 큰 특징이다. 주민들이 만들고, 주민들이 함께 즐기는 축제로, 사라져가는 마을공동체 의식 함양에 이바지하고 있다.

환경축제답게 환경을 생각하고 체험할 수 있는 코너들이 주를 이룬다. 환경 사진 전시회, 재활용작품 만들기, 친환경 빨래비누 만들기, EM 주방세제&활성액 만들기, 수세미 뜨기, 전통 고추장 만들기, 면 생리대 만들기, 나만의 컵 만들기, 양말 인형 만들기, 미니 화분 만들기, 천연염색하기, 다육이 심기, 폐목재를 활용한 독서대 만들기 등의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이 밖에도 나눔 장터와 농산물직거래장터 등 먹거리장터가 함께 열려 주민들에게 크게 호응을 받고 있다.

2020년에는 코로나-19(COVID-19) 관계로 굴포천 통통통 환경축제는 열리지 않았다.

## 2. 부평 초록굴포 단오놀이

세시풍속 중 하나인 단오(음력 5월 5일)를 맞이하여 부평구에서는 ‘초록굴포 단오놀이’를 거행하고 있다. 2015년 제1회 ‘부평 굴포천 단오놀이’라는 이름으로 행사를 준비하다가 메르스(MERS) 사태로 인하여 9월이 되어서야 ‘부평 굴포놀이 한마당’이 개최되었다. 2016년부터 ‘부평 초록굴포 단오놀이’라는 이름으로 단오 무렵에 행사를 진행하였다.



❖ 제5회 초록굴포 단오놀이 중 성년식(2019, 부평구청)

단오는 모내기를 끝내고 풍년을 기원하는 날로, 단오떡을 해 먹고 창포물에 머리를 감고 씨름을 하면서 하루를 보낸다. 대개 부평 초록굴포 단오놀이는 부평역사박물관 뒷마당에서 열리는데, 전통 성년식, 초록굴포 그림그리기 대회, 초등부 씨름 대회, 한복 콘테스트, 전통 활쏘기, 투호, 제기차기, 맨손 미꾸라지 잡기, 창포머리 감기, 단오부채 만들기, 봉숭아 물 들이기, 단오 컬러비즈 만들기, 페이스 페인팅, 전통악기 체험, 전통의상 입어보기 등 세시 풍속을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2017년에는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AI) 확산, 2020년에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하여 행사가 취소되었다.

### 3. 서부간선수로 마을축제

서부간선수로 마을축제는 삼산1동 친수 생태 공간인 다양한 지역문화를 함께 공유하고 서부간선수로를 친수 생태 하천으로 가꾸기 위한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주민들이 직접 만들어가는 축제로 기획되었다. 이름은 서부간선수로 마을축제지만 실제로는 삼산1동 축제추진위원회에서 개최하는 마을축제라 할 수 있다.



❖ 제3회 서부간선수로 마을축제(2018, 부평구청)

제1회 축제는 2013년 10월 27일에 개최되었다. 삼산두레 풍물길놀이를 시작으로 서부간선수로의 과거·현재·미래를 만날 수 있는 사진 전시회, 주민노래자랑, 어린이 사생대회, 친환경생물인 미꾸라지 방생, EM흙공 던지기, 연날리기, 거리 공연 등 다채로운 행사로 꾸며졌다.

제2회 축제는 2016년 10월 22일에 개최되었다. 삼산두레농악의 길놀이를 시작으로 서부간선수로 사진전, 어린이 그림그리기 대회, 걷기 대회, 주민노래자랑, 체험행사 및 아나바다 바자회, 수질 정화를 위한 미꾸라지 방생 등 남녀노소 전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다채로운 행사가 펼쳐졌다.

제3회 축제는 2018년 10월 27일에 개최되었다. 학교 동아리 공연을 시작으로 어린이 그림그리기 대회, 먹거리 장터, 사진 전시 등의 프로그램이 이어졌다.

### 4. 영성마을 마을축제

영성마을은 부평구 삼산1동에 있는 마을공동체로 마을회관 개관 1주년을 기념하여 2019년 11월 8일 영성마을 축제를 개최하였다. 영성마을이 있는 곳은 삼산1동의 다세대 주택, 빌라가 밀집해 있는 구역이다.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되었다가 해제되면서 주민간의 갈등이 심화되고 마을공동체가 붕괴되었다.

주민들이 직접 나서 주민협의체를 구성하면서 마을에 새로운 전기가 마련되었다. 주민 20명이 '원도심 저층주거지 관리사업 지구 주민협의회'를 구성하였다. 공모 사업에 선정되어 예산을 지원받아 주변 환경을 개선하고 마을회관을 짓는다면, 영성두레마을협동조합 인가도 받았다.



❖ 영성마을 마을축제 작은음악회(2019, 부평구청)

영성마을 마을회관 개관 1주년을 맞이하여 개최된 마을축제 역시 마을공동체가 기획하고 참여하였다. 마을회관 지하 강당에서는 ‘이쁘게 봐주세요’ 작은 음악회가 열렸다. 기타, 노래교실, 성악, 댄스, 요가, 풍물 공연 등이 열렸는데 주민들이 연습하여 무대에 섰다. 마을회관 주변 도로에는 ‘먹거리 풍성’ 바자회가 열렸고, 창착 공작소와 마을회관 전시장에서는 ‘숨씨자랑’ 작품전시회가 열려 주민들이 제작한 도자기, 문인화, 민화 등이 전시되었다.

삼산동에서 가장 최근에 개최되기 시작한 영성마을 마을축제의 앞날이 더욱 기대된다.

### 5. 정월대보름 in 부평

해마다 부평구에서는 정월대보름에 부평 구민의 안녕과 한해의 평온을 기원하는 정월대보름 축제가 열린다. 기존에는 ‘정월대보름맞이 행사’라고 불렀다가 2016년부터 ‘정월대보름 in 부평’으로 명칭을 바꾸어 지역의 이름을 강조하였다.

❖ 정월대보름맞이 축제(2001, 부평구청)



❖ 정월대보름 in 부평 중 달집태우기 행사(2019, 부평문화원)

행사는 대개 부평구청 어울림마당에서 각 풍물단들이 모여 부평 구민의 평안과 건강을 기원하고, 유수지 체육공원에서 본 행사를 시작한다. 연 날리기, 소원지 쓰기, 윷놀이, 투호놀이, 활쏘기, 쥐불놀이 등의 체험 행사가 진행되고, 축하 공연이 이어진다. 정월대보름 축제의 하이라이트인 달집태우기와 대동 마당을 끝으로 정월대보름 축제는 막을 내린다.

2017년에는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AI) 확산, 2020년에는 코로나-19(COVID-19) 확산으로 인하여 정월대보름 행사가 취소되었다.



## 참고 문헌



### 단행본

인천광역시 부평구청 기획조정실, 『2020 부평 구정백서』, 인천광역시 부평구, 2020.  
 인천광역시 시사편찬위원회, 『인천의 지명』상, 인천광역시 시사편찬위원회, 2015.

### 신문

『경향신문』  
 『뉴스1』  
 『동아일보』  
 『매일경제』  
 『연합뉴스』  
 『오마이뉴스』  
 『인천일보』  
 『한국경제』



### 웹사이트

부평구노인복지관(<http://bpsenior.or.kr>)  
 부평구립삼산도서관(<https://www.bppl.or.kr/samsan/index.do>)  
 부평구청소년성문화센터(<https://www.icbp.go.kr/gender>)  
 부평문화원(<https://portal.icbp.go.kr/bpcc>)  
 부평안전체험관(<https://portal.icbp.go.kr/safe>)  
 부평역사박물관(<https://portal.icbp.go.kr/bphm>)  
 삼산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https://www.incheon.go.kr/sm/index>)  
 인천광역시부평구문화재단 부평구청소년수련관(<https://portal.icbp.go.kr/bpy>)  
 인천시설공단 삼산월드체육관([http://www.insiseol.or.kr/institution\\_guidance/samsan](http://www.insiseol.or.kr/institution_guidance/samsan))

### 기타

부평문화원, 『함께 걸어온 20년 다시 뛰는 부평문화원』, 부평문화원, 2018.





# 제 6 장

## 십정동(十井洞)

제1절 \_ 마을 지명 유래

제2절 \_ 행정구역의 변천

제3절 \_ 일반 현황

제4절 \_ 문화유산 및 명소

제5절 \_ 교육기관

제6절 \_ 문화·체육기관

제7절 \_ 축제

# 제6장 십정동(十井洞)



손 민 환(부평역사박물관 학예연구사)

### | 제1절 | 마을 지명 유래<sup>1</sup>



❖ 법정동 십정동 관할구역(출처 : 국토정보플랫폼 국토정보맵)

1 『열우물마을, 부평 십정동』(부평역사박물관, 2017)을 참고하여 정리하였음을 밝힌다.

### 1. 동 이름 유래

십정동(十井洞)은 인천광역시 부평구 관할 법정동으로, 행정동 십정1동과 십정2동으로 이루어져 있다. 근래 한자로 된 동명(洞名)을 우리말로 바꾸어 ‘열우물마을’이라는 친숙하고도 정감 어린 표현으로 부르기도 한다. 애초에 ‘열우물’이라고 불렀던 마을 명칭을 십정(十井)으로 한자화하였다가 최근에 다시 열우물이라고 부르고 있다는 견해도 있으나 확실한 것은 아니다.

십정동이 ‘십정’의 이름을 가진 것은 그리 오래되지 않았다. 고려 시대까지 십정동과 관련된 지명은 찾아볼 수 없다. 다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십정동이 우물(井)과 관련이 깊다는 점이다. 고문헌과 고지도에서 이 일대 옛 지명을 살펴보면 이러한 사실을 어렵지 않게 알 수 있다.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과 강석규의 시문집인 『오아재집(鰲齋集)』(1916) 등에 기재된 정항(井項), 각종 고지도에 표기된 정항현(井項峴), 그리고 행정구역 명칭으로서 십정(十井)이 포함된 십정리, 상십정리, 하십정리, 십정동 등이 그러하다.



❖ 『신증동국여지승람』(좌)과 『오아재집』(우)에 표기된 '정항'

한편 사람들은 십정동을 우리말로 풀어 열우물마을이라고 부른다. 이는 '열 개가 넘는 우물이 있는 동네'로 마을 이름을 해석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해석의 근거는 사실 명확하지 않다. 십(十)이 정확히 열 개를 의미하는 게 아니고 열 개가 넘는 정도로 우물이 많았다는 의견이 있는가 하면, 더 나아가 정(井)은 우물이 아니라 일반적인 마을을 지칭하는 표현이라는 의견도 있다.<sup>2</sup>

실제로 각종 지명 유래집과 향토 자료 등에서는 십정동의 유래에 대해 많은 설(說)이 소개되어 있다. 그중 대표적인 것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sup>3</sup>

제1설, 열(十) 개의 우물(井) / 열 개가 넘는 우물

제2설, 열(熱)이 많이 나는 우물

제3설, 십(十)자로 교차된 산맥

제1설은 가장 일반적으로 알려져 고착화된 설로, 마을에 열 개의 우물이 있어서 십정(十井)이라 불렀다는 것이다. 정확히 우물이 열 개라기보다는 열 개가 넘는 정도로 많았다고 이해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전통적으로 지명에 우물(井)이 들어가는 경우는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사람들이 모여들어 마을이 형성되고 하천에서 식수를 구하기 어려운 경우, 마을에 공동 우물은 판다거나 집 안에 개인 우물을 파는 경우는 흔하다. 따라서 사람들이 사는 마을 이름에 우물(井)이 포함되는 것은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것이라 할 수 있다.

마을 사람의 증언에 따르면 상십정리라 불리는 윗열우물마을에만 해도 수십여 개의 우물이 있었다고 한다. 다른 마을에서는 대동우물 하나 파기에도 온 마을 사람들이 서둘러 몇 날 몇 달이 걸렸는데 이 마을에서는 혼자서 몇 시간이면 우물을 팔 수 있어서 몇 집 안 되는 마을 사람들이 너도나도 우물을 파서 마을에 우물이 많았다고 한다. 하지만 지금은 사용하지 않아 매몰되거나 도로가 나서 없어진 경우가 많다고 한다.

제2설은 열(熱)이 많이 나는 우물이 있어서 열우물[熱井]이라고 하였는데, 이것을 한

자 표기로 고칠 때 열우물[十井]로 잘못 표기하였다는 것이다. 현 상정초등학교가 있는 위쪽에 큰 대동우물이 있어 물량이 많고 아무리 추위도 물이 따뜻해 열(熱)이 많이 나는 우물이 있었다는 말도 있다.

제3설은 이 동네의 산맥이 십(十)자로 교차한 모습을 하고 있어 십정(十丁)이라 하였는데, 나중에 십정(十井)으로 변하였다는 것이다. 북쪽 계양산 남쪽 줄기인 원적산과 동쪽 소래산 산맥이 주안산에 이르러 이 마을에서 교차하는 형세여서 대정(大丁)도 생기고 십정(十丁)도 생겼다는 것이다.

열우물마을의 유래에 대하여 단정 지을 수는 없다. 제각각 나름의 근거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제1설은 가장 근거가 명확하고 사람들이 이해하기 쉽다. 제2설은 자연 현상에 대한 구술이 뒷받침되고 있다. 제3설은 자연환경에 대한 지리적 접근을 통하여 설득력을 더한다. 제2설과 제3설에서 한자 표기가 변하게 된다고 지적한 것 역시도 지명 유래에 있어서 일상적으로 제기되는 현상이기도 하다.

분명한 것은 십정동은 '열 개의 우물이 있는 마을'을 의미하는 '열우물마을'로 불리고 있고, 앞으로 더욱 고착화될 것이라는 점이다. 지명이라는 것은 그 시대를 사는 사람들에게 의하여 생성되고 변모하게 된다. 열우물마을이라는 표현과 그 의미는 마을 사람들은 물론 관공서, 시민단체, 언론 등에서도 호응받아 지속적으로 사용하고 있기에 그 생명력이 이어질 것이라 본다.

## 2. 소지명 유래<sup>4</sup>

### 1) 밤섬, 밤동산

현재 서울제강(부평구 가재울로 174)이 있는 부근으로 염전 가운데 섬처럼 불쭉 나와 큰 소나무도 자라고 해서 십정동 사람들은 이것을 밤섬이라 불렀다. 밤섬이란 이 섬이 밤에 바닷물에 떠밀려 들어왔다 해서 붙인 이름이다. 한편 이 섬을 밤동산이라고도

2 인천광역시 시사편찬위원회, 『인천의 지명』상, 인천광역시 시사편찬위원회, 2015, 240쪽.

3 『부평사연구(증보판)』(조기준, 1995) 및 『인천의 지명 유래』(인천광역시, 1998)를 참고하였다.

4 『인천의 지명』상(인천광역시 시사편찬위원회, 2015)을 참고하되, 2020년을 기준으로 지명과 지형의 변화가 있는 경우 수정하고 보완 사항이 있는 경우 추가하였음을 밝힌다.

부르는데 이것은 문 씨네 산으로 실제 밤나무가 있었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라고도 한다.

## 2) 열우물, 십정(十井), 십정리(十井里)

백운역에서 동암역 사이의 고개를 열우물고개[十井峴]라 하고 이 고개 너머 산중턱에 있는 마을을 열우물이라 한다. 열우물은 다른 마을에서는 대동우물 하나 파기에도 온 마을 사람들이 서둘러 몇 날 몇 달이 걸렸는데 이 마을에서는 혼자서 몇 시간이면 우물을 팔 수 있어서 몇 집 안 되는 마을 사람들이 너도나도 우물을 파서 한 마을에 우물이 열 개도 넘는다 하여 열우물이라 하였다고 전한다. 십정이나 십정리는 열우물을 한자로 표기한 것이다. 일설에는 십정(十井)은 십정(十丁)의 오기로 십정리(十丁里)는 이곳에서 산맥이 십(十)자로 교차되어 생긴 이름이라고 한다. 즉 소래산 산맥이 서쪽으로 흘러 주안산에 이르러 크게 꺾이어 계양산 남쪽 줄기인 원적산 줄기와 교차되어 대정(大丁)도 생기고 십정(十丁)도 생겼다는 것이다.

## 3) 대도정(大島町)

일제강점기 때 지은 일본식 동명으로 유래를 알 수 없다. 동학농민혁명 당시 일본 공사로 군대를 이끌고 경복궁에 들어가 청일 전쟁의 단초를 제공한 정치가 오토리 게이스케(大島圭介)의 이름을 따서 서울시 용산구 용문동 일대를 대도정(大島町)이라 하였는데, 십정동 또한 같은 이유에서 대도정으로 하였는지는 알 수 없다.

## 4) 윗열우물, 상십정리(上十井里), 안터, 윗말

대체로 현 십정1동으로 함봉산 바로 밑에 있는 마을이 윗열우물마을이다. 함봉산 밑으로 삼태안 같은 곳에 음지편, 양지편, 구석말 등 세 마을이 아늑하게 자리하고 있어 안터라고도 하고 흔히 위에 있는 마을이기 때문에 윗열우물마을 또는 윗말, 상십정리라 부른다. 옛 십정리의 원마을이기도 하다.

## 5) 아랫열우물, 하십정리(下十井里), 아랫말

지금의 수출 5공단 자리에 주안염전이 있어서 여기에 종사하는 염부(鹽夫)들이 염전

옆에 모여 살던 염부 마을이 있었다. 윗열우물마을 아래에 있기 때문에 아랫열우물마을 또는 아랫말, 하십정리라 부른다.

## 6) 양짓말, 양지편

십정동 62번지 일대로서 해가 잘 드는 양지 편에 있는 마을이므로 양지편 또는 양짓말이라 한다.

## 7) 음짓말, 음지편

십정동 22번지와 144번지 일대로서 함봉산 서쪽 산밑이라 해가 짧아 음지편 또는 음짓말이라 부른다.

## 8) 구석말

동합사가 있는 일대로서 양짓말과 음짓말 사이로 쭉 들어가 있어 구석말이라 한다.

## 9) 큰말, 녘말

옛날 서쪽 가는 길을 사이에 두고 아랫열우물마을이 형성되어 있었는데 서쪽편 마을은 크고 동쪽 마을은 작았다. 그래서 큰 쪽을 큰말이라 하고 작은 쪽을 작은말이라 불렀다. 또한 작은말 쪽에서는 큰말이 길 너머에 있기 때문에 녘말이라 불렀고 큰말 쪽에서는 작은말을 마찬가지로 이유로 녘말이라 하였다.

## 10) 작은말, 녘말

아랫열우물마을인데 길을 사이에 두고 동쪽 마을은 마을이 작기 때문에 작은말이라 한다. 또한 큰 마을 쪽에서는 길 너머에 있기 때문에 녘말이라고도 불렀다.

## 11) 잿말

예전에는 정원아파트 인근에 집이 2채 정도 있었다고 한다. 이곳이 등성이에 있기 때문에 잿말이라 하였다.

## 12) 행길새

동암신동아아파트 건너편 동네를 행길새라 한다. 부평에서 철길을 따라 원통이고개를 넘어 가면 윗열우물마을로 가는 길과 아랫열우물마을로 가는 갈림길이 나온다. 이 갈림길 사이에 당시 어려운 사람들이 6~7채 정도 모여 살았다. 이곳을 두 길 사이에 있는 마을이라는 뜻으로 행길새라 부른다.

## 13) 참새미, 삼새미

백운공원 입구 부근인데 예전에 집이 5채 정도 있었으며 이곳에 물 좋은 우물이 있어서 이 우물을 참샘이라 불렀으므로 이 마을을 참새미라 하였다. 한편 이곳에 집이 3채 정도 있었기 때문에 삼새미라 불렀다고도 한다.

## 14) 서낭당고개

양짓말에서 가좌동으로 넘어가는 고개인데 지금도 성황당 나무가 서 있다.

## 15) 뒷고개

구석말에서 현재 가좌동 변전소가 있는 쪽으로 넘어가는 고개를 말한다. 마을 뒤에 있는 고개이기 때문에 뒷고개라 한다.

## 16) 수렁고개

구석말에서 함봉산 구루지고개로 가는 고갯길이다. 고개 넘어 쪽이 물기가 많아 항상 수렁이 지므로 수렁고개라 한다. 이쪽에 약수가 흐른다.

## 17) 오양고개

경원대로(옛 원통로)에서 윗열우물마을로 들어가는 길인데 약간 언덕으로 되어 있다. 이름의 유래는 미상이다.

## 18) 잣배기고개

오양고개를 지나 음지편 뒤쪽으로 올라가는 길이다. 유래는 미상이다.

## 19) 여우재비

열우물경기장 쪽에서 가좌동으로 넘어가는 고개를 말한다. 이곳에 여우가 있어서 여우재비라 한다.

## 20) 한가지고개, 서낭고개, 열우물고개

열우물입구사거리에서 한국아파트 정문으로 올라가는 가파른 고개를 말한다. 한가지산에 있는 고개이기 때문에 한가지고개라 한다. 이곳에도 서낭당이 있어 서낭고개이기도 하다. 그러나 마을 사람들은 이 고개를 열우물고개로 보기도 한다. 열우물고개는 열우물에 있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다.

## 21) 긴골

아랫열우물마을 쪽에서 윗열우물마을 쪽으로 깊이 나 있는 긴 골짜기를 긴골이라 한다.

## 22) 고렐논

양짓말 끝 앞으로 있는 논을 말한다. 고렐논은 물이 풍부해 아무리 가물어도 마르지 않는다고 한다. 고렐논은 논이 좋다는 걸한 논을 의미하지 않나 생각된다. 한편 고렐은 골 앞이란 뜻이라고도 한다.

## 23) 오동재

음지편 아래 끝으로 있는데 밋밋한 산으로 지금은 밭으로 변해 있다. 오동재의 유래는 미상이다.

## 24) 가마밭

오동재 밑으로 있는 밭이다. 가마솔은 큰 솔을 말하듯이 가마밭은 큰 밭이란 말이다.

## 25) 주랑방죽, 두랑방죽, 두랑축

십정교에서 윗열우물마을 쪽으로 긴 골이 시작되는 곳에 있는 방죽이다. 두랑방죽이나 두랑축은 도랑(개울)의 뜻으로 보이며 주랑방죽은 두랑방죽의 변음이다.

### 26) 주랑축, 두랑축들, 주랑방죽들

열우물사거리에서 윗열우물마을 쪽으로 긴 골이 시작되는 넓은 들을 말한다. 두랑방죽을 쌓아 생긴 들이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다.

### 27) 한가지산, 봉황산(鳳凰山)

한가지고개에 있는 산인데 이 산은 서낭당이 있는 신성한 산이라서 봉황산이라 하였으며 또 거기에는 큰 나무가 하나 서 있어서 한가지산이라 부르게 되었다 한다. 이 산의 일부가 깎여 현재 백운공원이 되었다.

### 28) 뒷산

구석말의 뒤에 있기 때문에 뒷산이라 부른다. 가좌동과 경계를 이루는 산이다.

### 29) 참샘

백운공원 입구 부근에 참새미라는 마을이 있었는데 이 마을에 수량도 많고 아주 물맛이 좋은 우물이 하나 있었다 한다. 이 우물물이 너무 맛이 좋아 참샘이라 하였다.

### 30) 열우물고개, 우물목고개(井項峴)

1899년(광무 3)에 발행된 도면에는 열우물고개로 나와 있고 보다 전인 1842년(헌종 8)에 편찬된 도면에는 우물목고개로 나와 있다. 이 고개는 부평삼거리에서 경인도로를 따라 동암역 쪽으로 넘어가자면 동암초등학교 못 미처서 오른쪽으로 십정동으로 가는 고개를 말한다. 이 고개는 열우물마을로 가는 고개 또는 열우물마을에 있는 고개이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다. 특히 우물목고개는 부평 시내에서 열우물마을로 가는 중요한 길목이 되는 고개라는 뜻이다. 이렇게 볼 때 크게 보면 열우물고개와 원통이고개가 같은 고개가 되는 셈인데, 자세하게 보면 고개가 둘이 있어서 부평 쪽의 것은 원통이고개이고 십정동 쪽의 것은 열우물고개가 되는 것이다. 한편 십정동 사람들은 한가지고개를 열우물고개라 한다.

### 31) 배꼬지고개

십정종합시장이 있는 등성을 말하는데(주안변전소 쪽으로) 염전이 들어서기 전에는 이곳에 배가 들어 왔던 배곶(船串)이었기 때문에 배꼬지고개라 한다.

### 32) 사래골(士來谷), 사리골(沙利谷), 성지골

서희스타힐스부평센트럴 아파트가 있는 쪽에서부터 선래개울(仙來川)이 흐르던 계곡을 말한다. 이 골짜기는 모래가 많이 흘러 내려왔다 해서 본래는 모래 사(沙)자의 사래골(沙來谷)인데 사래골(士來谷)로 변형 표기되었으며 사리골도 사래골이 변음된 것이다. 또한 이 골짜기를 성지골이라고도 하는데 그 이유는 잘 알 수 없다.

### 33) 선내들방죽

십정종합시장이 있는 근처에 있었으며 배가 닿았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다.

### 34) 구뚜레방죽

십정종합시장 아랫길 근처에 있었으며 마치 소의 코뚜레같이 생겼다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 35) 선내들다리(仙來橋)

인천광역시농업기술센터 앞에 있었으며 선내개울을 건너 서쪽으로 가도록 놓아진 다리이다. 선내뜰에 있기 때문에 선내뜰다리라 한다.

### 36) 선래개울(仙來川)

사래골에서 흘러내리는 개울을 선래개울이라 한다. 선래개울은 원래 이곳에 배가 들어왔었다는 뜻인데 한자를 배 선(船)자에서 신선 선(仙)자로 바꾸어 쓴 것 같다. 반래천이라고 적고 있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선래천(船來川)을 잘못 읽은 것이다.

### 37) 벽돌막사거리

백범로와 석정로가 교차하는 지점에 있으며, 전에 이곳 근처에 벽돌 공장이 있어서

벽돌막사거리로 하였다.

### 38) 동암역

1960년대까지만 해도 지금의 동암역 주변은 인가(人家)가 거의 없는 산비탈 불모지였고, 흔히 그 일대와 합쳐 열우물이라 불렸던 곳이다. 향토사학자들 사이에서는 이 주변의 땅이 구리와 같은 광물질을 많이 갖고 있어 불그스름한 색깔이었기 때문에 이런 이름이 붙게 되었다고 하는 설명이 우세하다. 이 설명은 주변의 사정을 볼 때 어느 정도 설득력을 갖고 있다. 동암역에서 멀지 않은 남동구 간석동 신명여고 주변은 예전에 ‘쇠(金)를 파낸다’는 뜻에서 ‘쇠판이’라고 불렸던 곳이다. 이곳에 광물질이 많이 묻혀 있었다는 얘기가. 또 이곳에서 멀지 않은 시청 옆에도 이전에 불그스름한 땅 때문에 ‘붉은고개’라는 이름을 가진 동네가 있었던 것으로 볼 때 동암역 일대도 비슷한 상황이었고, 거기서 동(銅)자를 쓴 동암이라는 이름이 생겼다는 말이다.

## | 제2절 | 행정구역의 변천<sup>5</sup>

### 1. 전통 시대

현재 십정동은 조선 시대 내내 인천부 소속이었는데, 인천부 내 우측에 위치하여 부평부와는 경계에 있었다. 산천을 기준으로 행정구역을 구분하였던 전통적 인식을 고려하였을 때, 원적산과 주안산(현 만월산)이 경계의 기준이었다.

1725~1776년 사이에 편찬된 『여지도서(輿地圖書)』에 따르면 “주안면(朱岸面)은 인천부로부터 10리 떨어져 있다. 238호(戶)로, 남정(男丁) 450구(口), 여정(女丁) 616구가 있

5 『열우물마을, 부평 십정동』(부평역사박물관, 2017)을 참고하였다.

다. 부평부와와의 경계다”라고 하였다. 여기에 ‘십정’이라는 지명이 기재되어 있지는 않다. 다만 이후 시기에 등장하는 ‘십정’이라는 지명이 인천부 주안면에 소속되어 있었기에 18세기 후반 역시 동일하였을 것이고, 부평부와와의 경계가 되는 곳이 바로 ‘십정’으로 추정된다.

당시 주안면 자체에 호수와 구수가 많지는 않으나 인천부에 속한 다른 면과 비교하였을 때 적지 않은 사람들이 거주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지금 십정동 일대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거주하였는지는 알 수 없다.

그러다가 19세기 들어 ‘십정’이라는 지명이 등장하게 된다. 1842년경 편찬된 『인천부읍지(仁川府邑誌)』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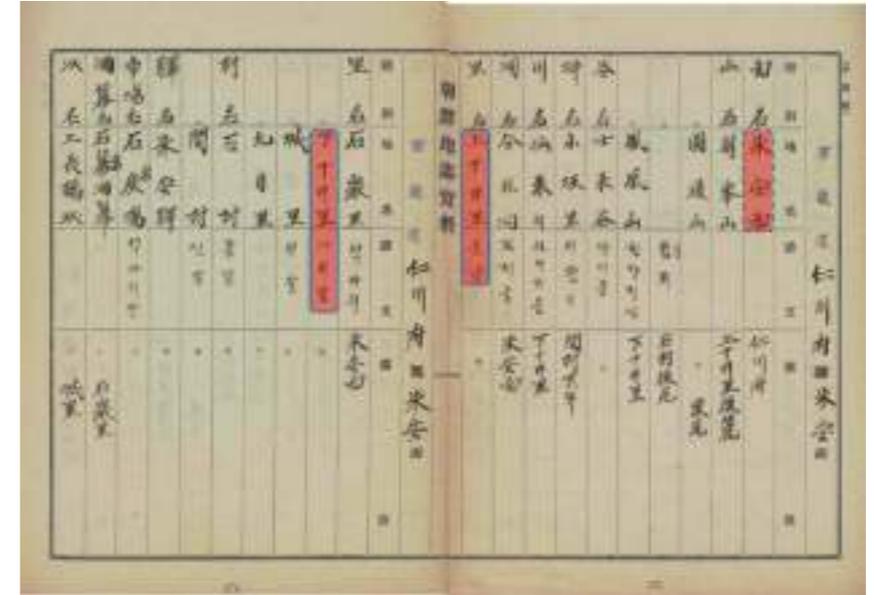
주안면(朱鴈面)은 관아로부터 동쪽으로 10리 떨어져 있다. 상십정리(上十井里), 하십정리(下十井里), 석촌리(石村里), 간촌리(間村里), 성리(城里), 구월리(九月里), 지상리(池上里), 전자리(前子里)가 있다.<sup>6</sup>

이 기록에 따르면 당시에는 인천부 주안면 소속으로 상십정리(上十井里)와 하십정리(下十井里)가 편제되어 있었다. 이보다 이른 시점에 십정리가 있었고, 마을이 커져 윗마을 격인 상십정리와 아랫마을 격인 하십정리로 행정구역을 분할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6 『인천부읍지』(1842), 방리.



❖ 『인천부읍지』 1871년 편찬본(좌)과 1899년 편찬본(우)에 표기된 상십정리와 하십정리



❖ 『조선지리지자료』(1911)에 표기된 상십정리와 하십정리

『인천부읍지』는 1871년과 1899년에 다시 편찬한 바 있는데, 그때도 마찬가지로 상십정리와 하십정리는 인천부 주안면에 소속되어 있었다. 따라서 조선 후기부터 개항 이후까지도 십정동은 부평부가 아니라 인천부에 소속되었다고 볼 수 있다.

## 2. 일제강점기

1910년 국권을 상실하여 조선총독부가 설치되자 칙령 354호 「조선총독부관제(朝鮮總督府官制)」와 357호 「조선총독부 지방관관제(地方官官制)」의 공포에 따라 부(府)가 설치되고 부행정(府行政)이 실시되었다.

1911년 조선총독부에서 발간한 『조선지리지자료(朝鮮地誌資料)』에는 경기도 인천부 주안면 소속으로 상십정리와 하십정리가 기재되어 있는데, 한글로 독문(讀文)이 달려 있는 것이 특징이다. 상십정리의 경우 ‘웃말’, 하십정리의 경우 ‘아르 1 말’이라고 적혀 있다.

여기서 흥미로운 사실은 주안면에 있는 산, 골짜기, 하천이 기재되어 있는데 그 위치를 통하여 상십정리와 하십정리의 위치도 짐작할 수 있다는 점이다. 상십정리는 하봉산(荷峯山)과 원통산(圓通山)의 위치를 통하여 파악할 수 있다. 하봉산은 현재 함봉산인데 그 위치를 상십정리후록(上十井里後麓)이라 하여 상십정리의 뒷 산기슭이고, 원통산은 현재 만월산인데 그 위치를 상십정리동미(上十井里東尾)라 하여 상십정리의 동쪽 꼬리라 하였다.

하십정리는 봉황산(鳳凰山), 선래천(仙來川)의 위치를 통하여 파악할 수 있다. 봉황산은 서낭당이 있는 신성한 산이라서 붙은 이름인데, 산에 큰 나무가 하나 서 있어서 한가지산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봉황산은 상십정리와 하십정리에 걸쳐 있었는데, 그 사이 고개를 한가지고개라고 했다. 한가지고개가 지금의 열우물로이고, 산의 일부가 깎여 십정공원이 만들어졌다. 선래천은 서해로부터 하십정리 쪽으로 자연 발생한 갯골에 배가 드나들어서 생긴 선래천(船來川)이 변형된 것이다. 선래천은 지금의 십정시장 인근에 있었다. 이를 종합적으로 본다면 상십정리는 현재 윗열우물마을, 하십정리는 현재 아랫열우물마을의 위치와 일치한다.

1914년 4월 1일, 조선총독부령 111호 「도의 위치, 관할구역 및 부군 명칭, 위치 관할구역」(1913년 12월 29일)에 의하여 부·군·면을 통합하였는데, 인천은 부역이 대폭 축소되어 개항장으로 국한되었다. 이때 종래의 인천부 10개 면 중에서 부내면 전역과 다소면(多所面)의 일부만 인천부에 편입되고, 9개 면은 그대로 부평군과 합하여 신설된 부천군(富川郡)에 편입되었다. 부천은 부평과 인천의 한 글자씩을 따서 만든 지명이었다.

이때 상십정리와 하십정리 역시 신설된 부천군에 편입되었는데, 다소면과 주안면(朱雁面)을 합쳐 만든 다주면(多朱面) 소속이었다. 1917년 발간된 『신구대조조선전도부군면리동명칭일람(新舊對照朝鮮全道府郡面里洞名稱一覽)』에 의하면 다주면으로 편제가 변경될 당시 약간의 행정구역 변동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상십정리와 하십정리는 다주면에 소속되며 ‘십정리’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십정리는 하십정리 일부와 상십정리가 통합된 것으로, 하십정리를 중심으로 통합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하십정리의 다른 일부는 간석리(間石里)에 편제되었다.

1917년 지형도를 보면 십정리라 표기되어 있고 그 아래 하십정리가 부기 되어 있으며, 상십정리는 십정리 동북쪽에 별도로 표기되어 있다. 당시는 1907년 현재 부평구 십정동 558번지에 만들어진 우리나라 최초의 천일염전인 주안염전이 계속해서 규모를 확장해 나가는 시기였다. 하십정리 쪽에는 염전 전매국 관사가 있었고, 염전 인부들이 모여 살았다.



◆ 1917년 지형도에 나타난 십정리

1936년 10월 1일, 조선총독부령 93호 「대정2년 조선총독부령 제111호(도의 위치, 관할구역 급부군의 명칭, 위치, 관할구역) 중 개정」(1936년 9월 26일)에 의거하여 부천군 문학면의 학익리, 옥련리, 관교리, 승기리의 일부와 다주면의 도화리, 용정리, 사충리, 자의리, 간석리의 일부를 인천부에 병합하여 인천부의 부역이 크게 확장되었다. 이때 십정리는 인천부 확장 대상 지역에서 제외되면서, 경기도 부천군 문학면 일부 지역으로 편제되었다.

1940년 4월 1일, 조선총독부령 제40호(1940년 3월 28일)에 의하여 문학면, 남동면, 부내면, 서곶면이 인천부에 편입되며 인천부의 부역이 다시 한번 확장되었다. 이때 십정리도 인천부 확장 대상 지역에 포함됨과 동시에 일본식 지명인 대도정(大島町)으로 개칭되었다.

### 3. 해방 이후

1945년 해방 이후, 일본식 지명을 우리 지명으로 바꾸려는 움직임이 생겨났다. 1946년 대도정은 옛 십정리의 '십정'을 딴 '십정동'으로 개칭되며 옛 이름을 되찾았다. 1962년에 부평3동에 인접한 십정동 지역에 새로운 마을이 생겨나 행정 편의상 십정동을 십정1동과 십정2동으로 분동하고, 십정2동을 부평3동과 합친 행정동으로 하여 부평출장소가 관할하였다. 그러나 1968년 1월 1일, 인천시는 구제(區制)를 실시하며 중구, 동구, 남구, 북구를 설치하였고, 인천시 북구 십정동이 되었다.

1977년 5월 10일, 시 조례 제1075호에 의거하여 부평3동과 십정2동을 합하여 부평3동으로 개칭하고, 십정1동을 다시 십정동으로 고쳤다. 그 후 1981년 인천시가 직할시로 승격되면서 십정동은 인천직할시 북구 십정동이 되었다.

1985년 11월 15일, 시 조례 제1895호에 의해 십정동은 다시 십정1동과 십정2동으로 분동되었다. 1989년 자치 구간 행정구역 경계 조정으로 인하여 남동구 간석1동의 일부가 십정2동으로 편입되었고, 북구 십정2동의 일부가 남동구 간석1동으로 편입되었다.

1995년 1월 1일 인천광역시로 발족하였고, 같은 해 3월 1일 북구를 부평구로 개칭하며 인천직할시 북구 십정1동과 십정2동은 인천광역시 부평구 십정1동과 십정2동으로 개칭되어 지금에 이른다.

### | 제3절 | 일반 현황<sup>7</sup>

법정동 십정동은 행정동 십정1동과 십정2동으로 이루어져 있다. 일반 현황은 각 행정동 별로 살펴보도록 하겠다.

7 『2020 부평 규정책서』(인천광역시 부평구청 기획조정실, 2020)를 참고하였다.

### 1. 십정1동



❖ 십정1동 행정구역(출처 : 국토정보플랫폼 국토정보맵)

법정동 십정동 전체를 기준으로 볼 때 십정1동은 좌측에 해당한다. 동으로는 지금 공사 중인 부평더샵아파트, 서로는 열우물경기장, 남으로는 6공단입구사거리, 북으로는 함봉산 아래까지가 십정1동의 행정구역이라고 할 수 있다.

십정1동의 지리적 중심은 열우물사거리다. 열우물사거리를 중심으로 남북으로 경원대로가, 동서로 열우물로가 지난다. 열우물사거리의 남쪽에는 십정사거리가 있는데, 십정사거리는 남북으로 경원대로가, 동서로 백범로가 지난다.

인근에 주안국가산업단지가 있어서 산업단지에서 근무하는 노동자들이 많이 모여 사는 배후 도시이기도 했는데, 그들이 모여 살던 달동네는 철거되고 2020년 현재 부평더샵아파트 공사가 진행 중이다. 또한 공사 중인 부평더샵아파트 위쪽으로 백운주택이 철거되고 부평힐스테이트 아파트 공사가 진행 중에 있어, 향후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조성될 예정이다.

### 1) 인구·면적

십정1동의 면적은 1.79km<sup>2</sup>로 부평구 전체 면적의 5.6%에 해당한다. 2019년 12월 31일 기준 세대수는 5,824세대, 인구수는 13,244명(남자 6,785명, 여자 6,459명)이다. 행정구역은 37통 231반으로 구성되어 있고, 행정 인력은 14명이다. 민방위는 1,116명, 예비군은 653명이 편성되어 있다.

표 1 십정1동 기본 현황

(2019.12.31. 기준, 단위: km<sup>2</sup>·%·세대·명)

면적	세대수	인구수			행정구역		행정 인력	민방위	예비군
		계	남	여	통	반			
1.79 (구의 5.6)	5,824	13,244	6,785	6,459	37	231	14	1,116	653

### 2) 자생 단체

십정1동의 자생 단체는 8종류이다. 각 자생 단체별 소속된 인원은 주민자치위원회 31명, 통장자율회 23명, 방위협의회 31명, 지역사회보장협의체 26명, 부녀회 6명, 주민참여예산 지역위원회 16명, 청소년지도위원회 15명, 풍물단 16명이다.

표 2 십정1동 자생 단체 현황

(2019.12.31. 기준, 단위: 명)

주민자치 위원회	통장 자율회	방위 협의회	지역사회 보장협의체	부녀회	주민참여예산 지역위원회	청소년 지도위원회	풍물단
31	23	31	26	6	16	15	16

### 3) 사회복지 대상자

십정1동의 사회복지 대상은 세대수는 2,943세대, 인구는 3,760명이다. 이 중 기초생활수급자는 604세대 925명, 한부모가족은 97세대 249명, 장애인은 851세대 851명, 기초연금 수급 대상은 1,391세대 1,735명이다.

표 3 십정1동 사회복지 대상 현황

(2019.12.31. 기준, 단위: 세대/명)

합계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장애인	기초연금
2,943/3,760	604/925	97/249	851/851	1,391/1,735

### 4) 주요 시설

십정1동의 주요 시설은 공공기관 3개소, 복지시설 22개소, 경로당 5개소, 어린이집 18개소, 학교 4개소, 병·의원 3개소, 약국 4개소, 금융기관 4개소, 종교시설 4개소 등이 있다.

표 4 십정1동 주요시설 현황

(2019.12.31. 기준, 단위: 개소)

공공기관	복지시설	경로당	어린이집	학교	병·의원	약국	금융기관	종교시설
3	22	5	18	4	3	4	4	4

## 2. 십정2동



❖ 십정2동 행정구역(출처: 국토정보플랫폼 국토정보맵)

법정동 십정동 전체를 기준으로 볼 때 십정2동은 우측에 해당한다. 동으로는 동암역 입구사거리, 서로는 하정초등학교, 남으로는 동암역남광장입구사거리, 북으로는 백운초등학교까지가 십정2동의 행정구역이라고 할 수 있다.

십정2동의 지리적 중심은 교통의 요충지인 동암역이다. 수도권 전철 1호선이 지나는 동암역을 중심으로 동으로는 동암남로가 서로는 열우물로가 지난다. 주요 상권 없이 동암역을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다.

동암역을 중심으로 주택단지가 형성되어 있는데, 대규모 아파트보다는 다세대 주택, 빌라 등이 대다수이고, 최근, 외국인·다문화 가정이 많아지고 있는 추세이다. 일부 지역은 주택 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설립되어 재개발을 추진 중에 있어, 향후 변화가 예상된다.

### 1) 인구·면적

십정2동의 면적은 1.09km<sup>2</sup>로 부평구 전체 면적의 3.4%에 해당한다. 2019년 12월 31일 기준 세대수는 1만 1,576세대, 인구수는 2만 4,479명(남자 1만 2,677명, 여자 1만 1,802명)이다. 행정구역은 36통 239반으로 구성되어 있고, 행정 인력은 16명이다. 민방위는 1,625명, 예비군은 1,563명이 편성되어 있다.

표 5 십정2동 기본 현황

(2019.12.31. 기준, 단위: km<sup>2</sup>·%·세대·명)

면적	세대수	인구수			행정구역		행정인력	민방위	예비군
		계	남	여	통	반			
1.09 (구의 3.4)	11,576	24,479	12,677	11,802	36	239	16	1,625	1,563

### 2) 자생 단체

십정2동의 자생 단체는 7종류이다. 각 자생 단체별 소속된 인원은 주민자치위원회 25명, 통장자율회 36명, 방위협의회 14명, 지역사회보장협의체 21명, 주민참여예산지역위원회 15명, 청소년지도위원회 12명, 품물단 17명이다.

표 6 십정2동 자생 단체 현황

(2019.12.31. 기준, 단위: 명)

주민자치위원회	통장자율회	방위협의회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주민참여예산지역위원회	청소년지도위원회	품물단
25	36	14	21	15	12	17

### 3) 사회복지 대상자

십정2동의 사회복지 대상은 세대수는 5,923세대, 인구는 7,176명이다. 이 중 기초생활수급자는 1,232세대 1,785명, 한부모가족은 161세대 314명, 장애인은 2,159세대 2,177명, 기초연금 수급 대상은 2,371세대 2,900명이다.

표 7 십정2동 사회복지 대상 현황

(2019.12.31. 기준, 단위: 세대/명)

합계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장애인	기초연금
5,923/7,176	1,232/1,785	161/314	2,159/2,177	2,371/2,900

#### 4) 주요 시설

십정2동의 주요 시설은 공공기관 6개소, 복지시설 6개소, 경로당 7개소, 어린이집 4개소, 학교 4개소, 병·의원 33개소, 약국 11개소, 금융기관 5개소, 종교시설 42개소 등이 있다.

표 8 십정2동 주요 시설 현황

(2019.12.31. 기준, 단위: 개소)

공공기관	복지시설	경로당	어린이집	학교	병·의원	약국	금융기관	종교시설
6	6	7	4	4	33	11	5	42

## 제4절 | 문화유산 및 명소

### 1. 최초의 천일염전터



❖ 한국 최초의 천일염전지 표지석(표지석 뒷면에는 “1989년 1월 30일 건립, 인천직할시장”이라고 적혀있다)

우리나라 최초로 천일염전이 조성된 곳이 열우물마을이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다. 인천에서 오래 거주한 사람들의 경우도 그러하다. 이곳에 천일염전이 있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조차도 우리나라 천일염전의 시작이 열우물마을이라고는 생각하지 못

하는 경우가 많다. 최초 천일염전의 명칭이 ‘주안염전’이고, 지금의 행정구역상 주안동이 인천광역시 남구에 속하기 때문에 비롯된 오해라고 생각된다. 하지만 원래 ‘주안’이라는 이름은 지금의 열우물마을과 간석동 일원이었는데 주안역이 개통되며 지명이 옮겨간 것이다.

1907년,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식 천일염전인 주안염전이 주안면 십정리(현 부평구 십정동)에 조성되었다. 처음에는 중국인 기술자를 고용하여 시험용 염전을 축조하였는데, 여기서 생산한 소금의 품질이 양호하였다. 이를 계기로 1909년부터 서해로부터 이어지는 갯골을 따라 대규모 염전 지대를 조성하여 본격적인 생산에 들어갔다. 주안염전을 시작으로 인천 짠물의 시대가 펼쳐졌다. 이후 1920년대 남동염전, 1930년대 소래염전이 들어서며 인천은 전국 최대의 소금 산지가 되었다.

주안에 최초의 천일염전이 들어선 이유는 무엇일까. 우리나라에서 주안염전이 천일제염(天日製鹽)에 가장 적합한 장소였기에, 이곳에 천일제염시험장을 축조한 것일까. 사실 주안염전은 천일제염에 있어 최적의 장소는 아니었다. 그럼에도 주안에 천일제염시험장이 들어서게 된 데에는 한국 정부가 목포의 천일제염시험장 개발에 대하여 허가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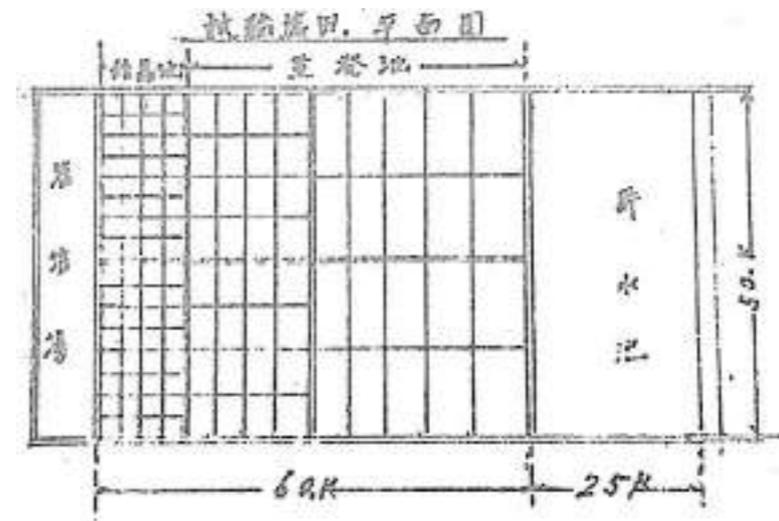
그런데 인천에는 천일제염이 아닌 재래식 제염법이긴 하지만, 이미 1899년부터 농상공부(農商工部)가 관할하는 제염시험장이 설치되어 있었다. 현재까지 인천제염시험장의 정확한 위치는 확인되지 않는다. 그러나 이곳이 주안염전 부지에 위치하였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한다. 부산의 명호도나 목포와 마찬가지로 주안 역시 조선 시대 이래로 계속 제염 작업이 이루어진 오래된 자염 생산지이다.

윗열우물마을 토박이 성영모의 말에 따르면, 근대식 천일염전인 주안염전이 들어서기 전부터 자신의 선조들이 전통식 자염(煮鹽)을 생산하여 많은 수익을 얻었다고 한다. 그 장소를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갯골로 들어오는 물을 받아 제염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한다. 따라서 전통식 자염이 행해지던 공간에 근대식 천일염전인 주안염전이 들어섰을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

본격적인 주안염전의 개발에 앞서 통감부는 1907년 십정동에 1정보(3,000평) 규모의 천일제염시험장을 설치하였다. 이를 위하여 1906년 대장성 기사인 오쿠젠조(奧建藏)를 초빙하여 실지를 조사하고, 오쿠젠조의 의견에 따라 십정동에 시험장을 설치한 것이다.



❖ 천일제염시험장 표시 지도. '소화 41년(음희 2, 1908) 조선에서 처음 나타난 주안천일제염 시험장'이라고 표기되어 있다(『전매국 주안출장소 관계자료』, 국가기록원, CTA0002798).



❖ 시험염전 평면도(友邦協會, 『朝鮮の鹽業』, 1983)

1907년 9월에 준공한 천일제염시험장은 1정보의 증발지(蒸發池) 및 결정지(結晶池), 그리고 같은 1정보의 저수지(貯水池)를 포함하는 총 2정보의 규모로 축조되었다. 이밖에 함수류(鹹水溜), 수로(水路) 및 배수구 등의 부속시설을 갖추었다. 준공 직후 곧바로 채염작업에 돌입하였는데, 그 품질은 일본 내지염(內地鹽)의 1~2등급에 상당하는 품질을

거두었고, 색깔 등에 있어서도 청국염이나 대만염에 비해 손색이 없다고 하였다. 천일제염시험장은 1909년 2월까지 1년간 활동을 끝으로 폐지되었고, 이후 주안염전의 제1구염전이 되었다.

이후 천일제염시험장의 성공으로 주안염전은 점차 확장되었다. 주안염전은 1907년부터 1919년까지 총 8구로 확장해 갔다. 1907년 8월 제1구가 준공된 것을 시작으로 1909년 5월 제2구, 1909년 6월 제3구, 1910년 5월 제4구, 1911년 7월 제5구가 조성되었다. 그러다가 1919년 3월에 제6구, 제7구, 제8구가 조성되었다.

이와 같은 주안염전의 확장은 십정동에 위치했던 천일제염시험장에서의 성공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것이다. 이후 1920년대 남동염전과 군자염전, 1930년대 소래염전이 조성되어 인천에서 많은 소금이 생산되기에 이른다.

그렇다면 천일제염시험장의 위치는 어디였을까. 국가기록원 소장 「전매국 주안출장소 관계자료」에서 천일제염시험장의 위치가 어느 정도 확인된다. 지금의 지형과는 많은 변화가 있으나, 시기별 항공사진의 비교 검토를 통하여 그 위치를 파악할 수 있다.

1922년 천일제염시험장의 위치가 그려진 지도, 1947년 항공사진, 2015년 항공사진 등의 비교 검토를 통하여 파악한 옛 천일제염시험장 위치는 현 십정동 557번지 일원이다. 부지 일부는 도로로 편입되었고 일부는 종교시설, 상업시설 등으로 이용되고 있다.

## 2. 열우물벽화마을

십정동 달동네의 다른 명칭은 열우물벽화마을이다. 마을 곳곳에 벽화가 있기 때문에 붙은 명칭이다. 인기리에 방영되었던 영화 ‘은밀하게 위대하게’, TV 드라마 ‘응답하라 1988’ 등의 촬영지라는 이유로 이 동네가 주목을 받으면서 자연스레 열우물벽화마을에 대한 관심도 늘어갔다.

실제로 벽화를 보기 위하여 관광객이 방문하기 시작하였는데, 이 중에는 외국인 관광객도 꽤 있었다. 열우물벽화마을은 십정동 중에서도 이주민의 마을 신덕촌을 말한다. 신덕촌은 십정동 216번지 일원으로 1960년대 말부터 형성된 마을이다. 각자의 사정에 의하여 새로운 거처를 찾아 헤매던 사람들이 공동묘지가 있던 야산에 집터를 잡고, 말뚝

을 박고 새끼줄을 꼬아 담을 만들어 생활하던 것이 시작이었다. 이후 흙벽돌로 집을 짓고 생활하던 전형적인 달동네로, 지금 ‘부평의 마지막 달동네’로 불리는 곳이다.



❖ 신덕촌(달동네) 전경(1999, 해남방)

이 마을에 벽화가 생기기 시작한 것은 영화나 드라마의 방영보다 더 이른 시기의 일이다. 이곳은 마을 생성 시기부터 주거 환경이 좋은 편이 아니었고, 지속적인 개발 요구가 있었으나 몇 번이나 지연되었다. 말만 무성한 재개발에 대한 기대로 집과 상가의 수선은 뒷전으로 밀렸고, 갈수록 주거 환경이 악화되었다. ‘재개발이 멈춘 곳’, 신덕촌의 분위기는 날이 갈수록 침체되어갔다.

1997년 봄, ‘열우물벽화마을’로 거듭나게 되는 첫걸음을 내딛었다. ‘벽화를 모색하던 몇 사람’은 해남공부방 외벽에 벽화를 담자고 제안하였다. 주민, 해남공부방 실무자들과 논의를 거쳐 며칠에 걸쳐 해남공부방 외벽에 벽화를 그렸다. 산동네의 주택 하나로만 국한될 수 있었던 ‘해남방’이 벽화를 통해서 그 존재가 확실하게 인식되었다. 이어서 명진 미용실 건물의 뒷벽에도 벽화를 그렸다.

첫 벽화를 그려진 지 몇 달이 지나지 않은 그해 겨울 12월 26일, 공동체를 위한 공공 미술 그룹인 ‘거리의미술’이 창립되었다. ‘벽화를 모색하던 몇 사람’이 주체가 되어 사람이 사는 거리와 장소에 소통이 중심이 되는 미술을 실현하고자 노력하는 미술 그룹을 만든 것이다.

당시 대한민국은 외환위기를 맞았다. 이른바 국제통화기금(IMF)의 구제금융을 받아 위기를 극복하고자 하였으나, 대한민국 곳곳에서 부도가 나고 경제 상황은 서민들의 허리띠만 졸라매는 형국이 되었다.

십정동의 상황은 더욱 심각했다. 인근에 위치한 주안공단에 근무하는 거주자가 많았던 동네 특성상, IMF의 여파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컸다. 많은 수의 실직자가 발생하여 가정은 물론 상권이 흔들렸다.

더 문제가 되었던 것은 주거 환경이었다. 1960년대 말, 이주민의 마을로 시작된 십정동 신덕촌의 경우 당초 건립된 가옥의 상태가 좋지 못하였고, 세월의 풍파에도 수선이 제때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러한 이유로 개별적인 수선보다는 마을 자체를 주거환경개선 지구로 지정하자는 이야기가 수차례 논의되었다.

1997년 부평구 십정동 216번지 일대가 주거환경개선 지구로 지정되었으나 IMF의 여파와 사업 타당성 문제로 인하여 1999년 지구 지정이 해제되었다. 그 사이 동네는 초입에 제법 그럴싸한 벽돌 건물들이 여러 채 들어서 있어 예전 산동네의 모습은 많이 벗어나 있지만, 안을 들여다보면 너무 낡아 세도 안 나가는 빈집, 빈방들이 많고 가게들은 대부분 문을 닫아 동네는 갈수록 썰렁해졌다. 주민들 대다수가 원해서 주거환경개선사업 지구로 지정되기까지 했으나 IMF국제금융 위기에 맞물린 탓인지 사업자로 나서야 할 대한주택공사가 인천에는 미분양 아파트도 남아두고 이 동네의 경우 개발해도 수익성이 없다는 이유로 사업하기를 거부해 지구 지정이 해제된 것이다.

IMF의 여파는 쉽게 사그라지지 않았다. 마치 신덕촌을 집중 강타한 듯, 활기차던 동네의 모습은 사라져 버렸다. 일거리를 잃고 경기가 어려워지자, 주민들의 표정도 무거워졌다. 2000년대에 들어서자 동네에는 파란색 양철지붕들이 부쩍 늘었다. 비가 새고 벽에 금이 간 집에서 버텨 왔던 주민들이 개발이 지연되자 어쩔 수 없이 지붕만 수리한 까닭이었다.

골목 옆으로 다닥다닥 붙어 햇볕조차 들지 않는 집, 가진 것이라고는 없는 사람들, 경

기가 풀려도 점점 더 가난해진 곳, 외국인 노동자들 빼고는 세 들기도 꺼려하는 곳, 아이러니하게도 이곳을 에둘러 고층 아파트들이 세워지고 있었다.

2002년, 이 공간에 벽화를 통해서 희망을 색칠하는 열우물길프로젝트가 시작되었다. 열우물길프로젝트는 2016년까지 계속되며 공공 미술을 실현해 나갔다. 2002년부터 2016년까지 실시한 작업으로 100여 곳이 넘는 곳에 벽화가 그려졌다. 2011년에는 소방도로 윗길에 열우물벽화 안내도를 그려 마을 내 벽화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다.

◆ 벽화 ‘열우물야경’(2008, 거리미술)





❖ 계단 벽화 작업 모습(2008, 거리의미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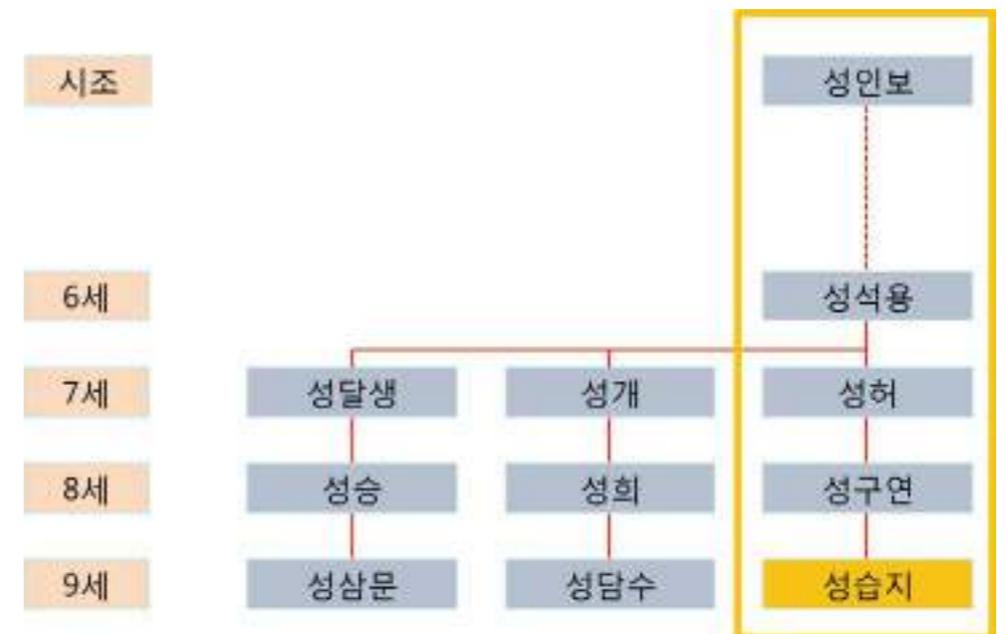
❖ 전봇대 벽화(2010, 거리의미술)

열우물벽화마을은 십정2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부지 내에 포함되어 2020년 기준 부평더샵아파트 공사로 사라졌다.

### 3. 창녕 성씨 묘역



❖ 창녕 성씨 묘역(왼쪽부터 성구연, 성허, 성습지 순)



❖ 창녕 성씨 세계도



❖ 성습지 봉분 앞 옛 묘표



❖ 성습지 새 묘표

윗열우물마을은 십정동의 원마을로 조선 시대 집성촌이었다. 경원대로와 열우물로가 교차하는 열우물사거리의 서북쪽에 위치하는데, 함봉산이 마을을 삼태기처럼 감싸고 있는 형세다. 배후에 산이 있고 앞에는 논이 펼쳐져 있어 자연 마을이 발달하기에 적합한 곳이었다.

윗열우물마을은 시대에 따라 지명이 달라졌다. 조선 시대와 근대에 상십정리라고 하던 것을 나중에 마을 사람들은 윗마을이라는 뜻에서 상동(上洞)이라고 부르는가 하면, 윗마을 혹은 웃마을 등으로도 불렀다. 해방 이후 공식적으로 십정동이라는 공식 지명이 생겨났으나, 마을 사람들은 여전히 상동, 윗마을, 웃마을 등으로 불렀다. 그러다가 십정동을 우리말로 풀이하여 열우물마을이라고 지칭하기 시작하면서 자연스럽게 이곳을 윗열우물마을로 부르게 되었다.

이곳에 언제부터 사람들이 모여 살았는지는 알 수 없으나, 조선 시대 집성촌이 조성되었던 것으로 확인되는 만큼 적어도 조선 시대에는 마을이 형성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창녕 성씨(昌寧成氏), 반남 박씨(潘南朴氏), 능성 구씨(綾城具氏), 영월 신씨(寧越申氏), 언양 김씨(彦陽金氏) 등이 많이 살았다고 전한다. 현재까지도 창녕 성씨, 반남 박씨 등이 윗열우물마을에 많이 거주하고 있다.

십정동에서 태어나 지금까지 거주하고 있는 창녕 성씨 회곡파(檜谷派) 열우물 종중 전 총무 성영모(79세)의 말에 따르면 윗열우물마을의 창녕 성씨는 단종의 복위를 모의하다가 순절한 성삼문(成三問, 1418~1456)과 관련이 있다고 한다. 성삼문은 집현전 학사로 목숨으로 신하의 절의를 지킨 사육신(死六臣) 중의 한 사람이다. 벼슬에서 물러나 절의를 지킨 생육신(生六臣) 성담수(成聃壽) 또한 같은 일가이다. 그들의 모의가 발각되

자 창녕 성씨 일가는 고신첩(告身帖)을 환수당하고 모진 국문(鞫問)을 받았으며 변방으로 뿔뿔이 흩어졌다.

그중 성습지(成習之)가 윗열우물마을로 이주하여 윗열우물마을의 창녕 성씨 입학조가 되었다. 성인보(成仁輔)를 시조로 하는 창녕 성씨는 6세에 파가 갈리는데 회곡(檜谷) 성석용(成石瑢) 이하 일가를 회곡파라 한다. 성석용은 성달생(成達生), 성개(成概), 성허(成栩) 등 세 아들을 두었다. 장남 성달생의 계보는 8세 성승, 9세 성삼문으로 이어진다. 차남 성개의 계보는 성희, 성담수로 이어진다. 삼남 성허의 계보는 성구연, 성습지로 이어진다. 따라서 성습지는 사육신 성삼문, 생육신 성담수와 모두 6촌 사이로, 병자사화(丙子士禍)로 인하여 더 이상 조정에서 벼슬을 할 수 없는 처지가 된 것은 물론 생명을 보장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에 이곳으로 이주한 것으로 추정된다.

그런데 성습지가 굳이 윗열우물마을로 이주한 까닭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 수 없다. 문중 자료에서도 정확히 기록된 것이 없고 묘비에서도 마찬가지다. 다만 성습지의 부인(배위) 달성 서씨와 연관이 있을 수도 있다는 의견이 있을 뿐이다. 실제로 윗열우물마을에서 좌측으로 함봉산을 넘어서면 서구 가좌동 견지골이라는 옛 마을이 있는데, 이곳이 달성 서씨의 집성촌이었기에 성습지의 배위 달성 서씨와 관련이 있을 수도 있다. 하지만 가좌동에 세거하던 달성 서씨와 성습지의 배위 달성 서씨와의 관련성 또한 입증하기는 어렵다.

현재 윗열우물마을에는 창녕 성씨 회곡파 열우물 종중의 선산이 있다. 입학조 성습지, 성습지의 아버지 성구연, 성습지의 할아버지 성허의 무덤이 있다.

성습지의 묘역은 성습지 봉분과 숙인 달성 서씨의 봉분, 옛 묘표 1기와 새 묘표 2기, 상석과 향로석, 망주석 1쌍, 문인석 1쌍으로 구성되어 있다. 옛 묘표 1기는 마모가 심하여 비문을 판독할 수 없다.

성구연의 묘역은 봉분 없이 조성된 사단(祀壇)으로 상석과 향로석, 망주석 1쌍으로 구성되어 있다.

성허의 묘역은 성허와 숙부인 반남 박씨의 합분, 상석과 향로석, 망주석 1쌍으로 구성되어 있다. 성허의 묘는 실전(失傳)된 것으로 알려졌으나 충청북도 충주에서 묘표를 발견하고 1931년 윗열우물마을로 이장하였고, 이어 1985년 배위 반남 박씨의 분묘도 옮겨 합장하였다.

현재까지 성습지의 후손들이 윗열우물마을에서 대를 이어 거주하고 있다.

#### 4. 고래우물



❖ 고래우물(2014, 부평구청)

윗열우물마을에는 이름에 걸맞게 우물이 여러 기 있었다. 윗열우물마을의 우물들은 마을 주민들이 공동으로 우물을 파서 사용하는 공동 우물, 그리고 개인이 우물을 파서 사용하던 개인 우물 등이 있다. 대개의 경우 공동 우물을 많이 사용하였기에 우물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기도 하였다.

최근 부평구에서는 윗열우물마을의 우물을 조사하여 안내 패널을 세웠다. 패널에 따르면 현재 사용하는 우물은 8기이고 매립한 우물은 2기이다. 10기 중에 공동 우물은 8기, 개인 우물은 2기이다. 공동 우물 중 2기는 매립된 상태다. 하지만 윗열우물마을 주민에 따르면 조사된 우물 수보다 더 많은 수의 우물이 있었다고 전한다.

여러 우물 중 십정동 77-1번지 소망교회 건너편 공원 부지에 위치한 고래우물은 윗열

우물마을에서 가장 유서 깊은 우물이다. 이 우물이 있던 자리가 열우물경기장 부지에 포함되었으나 다행히 보존되었다. 주민들은 이 우물이 약 300~400년 정도 되었을 것으로 추정하였으며, 3~4m 깊이에 바닥이 흰회 보일 정도로 맑은 물을 담고 있다고 하였다.

고래우물은 긴 세월만큼이나 윗열우물마을의 여러 이야기를 간직하고 있다. 신종백(전 십정1동 주민자치위원장)씨는 “일제강점기 때 9년 동안 가뭄이 극심해 대부분 지역에 흉년이 들었는데 그때에도 ‘고래우물’은 물이 항상 넘쳐나 주변 논밭이 아무런 피해를 입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또 “1964년에 들었던 극심한 가뭄에도 물이 없어 벼농사를 짓지 못했던 아랫마을 사람들이 고래우물에서 물을 길어다 사용했던 일도 있었다.”고 한다. 그는 “사람들의 애환이 담긴 고래우물이 사장되지 않고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잘 보존하고 가꾸는 것이 주민들의 바람”이라고 말했다. 성기석 씨는 십정경기장 부지로 논이 수용되기 직전까지 고래우물을 사용해 농사를 지었다. 그는 “고래우물은 십정1동 주민들이 공동으로 사용했던 우물로, 식수는 물론 농업용수와 빨래터로도 사용되었다.”고 증언하였다.



❖ 고래우물에 고유제를 지내는 모습(2017)

## 5. 한하운 시비

한센인 시인으로 유명한 한하운(1921~1975)은 부평에 한센인들의 자활 농장을 세우고 거주하였다. 정부가 한센인 거주 시설을 부평에 세우고 각지에 흩어져 있던 한센인들을 부평으로 이주시켰는데, 그때 한하운이 정부와 교섭을 했다. 한하운은 만월산 중턱에 성계원을 세우고 이곳에서 양계, 양돈 사업을 실시하여 한센인들의 자활을 모색하였다. 1960년 국립부평나병원으로 이름을 바꾸고 한센인들의 치료소로 이용되었고, 이곳에서 음성 판정을 받은 한센인들은 인근의 십정농장과 청천농장으로 이주하여 집단생활을 하였다. 하지만 1968년 국립부평나병원이 소록도 병원으로 통합되면서 폐원되었고, 이곳은 부평농장이라 불렸다.



❖ 한하운 시비(2017)

1975년 2월 28일, 한하운은 부평구 십정동 산39번지에서 사망했다. 전라남도 고흥군 소록도에 시비가 건립되었고, 김포 장릉공원묘지에 안장되었다. 그는 대표작 『보리피리』와 자서전 『고고한 생명-나의 반생기』를 부평에서 저술했다. 그럼에도 부평에서는 한하운을 기리는 움직임은 크게 없었다.

그러다가 2016년 인천광역시에서 공모한 ‘인천가치재창조 선도사업’에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한 한하운 재조명 사업’이 선정되어 부평역사박물관이 조사·연구사업, 홍보사업, 추모·기념사업을 수행하였다. 이 사업의 일환으로 부평구 관내에 한하운 시비(詩碑)를 건립하기로 결의하였다.

부평역사박물관은 2017년 12월 14일 십정동 백운공원에 한하운 시비를 세웠다. 시비는 책을 펼친 형상으로 시비 왼쪽에는 한하운의 대표작 보리피리, 오른쪽에는 한하운 약력이 소개되었다. 약력 위에는 파랑새가 앉아있다.

## | 제5절 | 교육기관<sup>8</sup>

### 1. 초등학교

십정동 소재 초등학교는 동암초등학교, 백운초등학교, 상정초등학교, 신촌초등학교, 십정초등학교, 하정초등학교 등 6개소로, 인천광역시 북부교육지원청에서 관할한다.

#### 1) 동암초등학교

공립 동암초등학교는 1967년 5월 11일에 설립되었다. 2020년도 기준, 학생 수는 418명(남 217명, 여 201명), 교원 수는 33명(남 6명, 여 27명)이다. 1학년은 3학급 66명, 2학

<sup>8</sup> 학교 알리미 홈페이지(<https://www.schoolinfo.go.kr>) 및 각 학교 홈페이지를 참고하였다.

년은 3학급 68명, 3학년은 4학급 79명, 4학년은 3학급 73명, 5학년은 3학급 61명, 6학년은 3학급 66명이고, 특수학급은 1학급 5명이다. 교원 중 수업 교원은 25명으로, 수업 교원 1인당 학생 수는 16.7명인데 부평구 평균 18.5명에 비하여 적은 편에 속한다.

동암초등학교는 인천광역시 부평구 동암남로35번길 4(십정동 501)에 있다.

표 9 동암초등학교 기본 현황

(2020년 기준, 단위: 명, 비교: 괄호는 특수학급임)

구분	학생 및 학급 수									교원 수	수업 교원 수	수업 교원 1인당 학생 수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5학년	6학년	특수 학급	순회 학급	계			
학급 수	3	3	4	3	3	3	1	0	20(1)			
학생 수	66	68	79	73	61	66	5	0	418(5)	33(1)	25	16.7
학급당 학생 수	22	22.7	19.8	24.3	20.3	22	5	0	20.9			

## 2) 백운초등학교

공립 백운초등학교는 2000년 9월 1일에 설립되었다. 2020년도 기준, 학생 수는 555명(남 313명, 여 242명), 교원 수는 36명(남 3명, 여 33명)이다. 1학년은 4학급 91명, 2학년은 4학급 88명, 3학년은 4학급 102명, 4학년은 4학급 83명, 5학년은 4학급 87명, 6학년은 4학급 104명이다. 교원 중 수업 교원은 28명으로, 수업 교원 1인당 학생 수는 19.8명인데 부평구 평균 18.5명에 비하여 많은 편에 속한다.

백운초등학교는 인천광역시 부평구 아트센터로 130(십정동 541-31)에 있다.

표 10 백운초등학교 기본 현황

(2020년 기준, 단위: 명, 비교: 괄호는 특수학급임)

구분	학생 및 학급 수									교원 수	수업 교원 수	수업 교원 1인당 학생 수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5학년	6학년	특수 학급	순회 학급	계			
학급 수	4	4	4	4	4	4	0	0	24(0)			
학생 수	91	88	102	83	87	104	0	0	555(0)	36(0)	28	19.8
학급당 학생 수	22.8	22	25.5	20.8	21.8	26	0	0	23.1			

## 3) 상정초등학교

공립 상정초등학교는 1989년 3월 1일에 설립되었다. 2020년 기준, 학생 수는 228명(남 126명, 여 102명), 교원 수는 19명(남 4명, 여 15명)이다. 1학년은 2학급 38명, 2학년은 2학급 44명, 3학년은 2학급 28명, 4학년은 2학급 35명, 5학년은 2학급 45명, 6학년은 2학급 30명, 특수학급은 1학급 8명이다. 교원 중 수업 교원은 16명으로, 수업 교원 1인당 학생 수는 14.3명인데 부평구 평균 18.5명에 비하여 적은 편에 속한다.

상정초등학교는 인천광역시 부평구 상정로 50(십정동 198)에 있다.

표 11 상정초등학교 기본 현황

(2020년 기준, 단위: 명, 비교: 괄호는 특수학급임)

구분	학생 및 학급 수									교원 수	수업 교원 수	수업 교원 1인당 학생 수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5학년	6학년	특수 학급	순회 학급	계			
학급 수	2	2	2	2	2	2	1	0	13(1)			
학생 수	38	44	28	35	45	30	8	0	228(8)	19(1)	16	14.3
학급당 학생 수	19	22	14	17.5	22.5	15	8	0	17.5			

#### 4) 신촌초등학교

공립 신촌초등학교는 1982년 9월 1일에 설립되었다. 2020년 기준, 학생 수는 346명(남 183명, 여 163명), 교원 수는 28명(남 4명, 여 24명)이다. 1학년은 2학급 41명, 2학년은 3학급 53명, 3학년은 3학급 48명, 4학년은 3학급 54명, 5학년은 3학급 50명, 6학년은 4학급 86명이고, 특수학급은 2학급 14명이다. 교원 중 수업 교원은 22명으로, 수업 교원 1인당 학생 수는 15.7명인데 부평구 평균 18.5명에 비하여 적은 편에 속한다.

산곡북초등학교는 인천광역시 부평구 경원대로 1215(십정동 186-346)에 있다.

표 12 신촌초등학교 기본 현황

(2020년 기준, 단위: 명, 비교: 괄호는 특수학급임)

구분	학생 및 학급 수									교원 수	수업 교원 수	수업 교원 1인당 학생 수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5학년	6학년	특수 학급	순회 학급	계			
학급 수	2	3	3	3	3	4	2	0	20(2)			
학생 수	41	53	48	54	50	86	14	0	346(14)	28(2)	22	15.7
학급당 학생 수	20.5	17.7	16	18	16.7	21.5	7	0	17.3			

#### 5) 십정초등학교

공립 십정초등학교는 1984년 3월 1일에 설립되었다. 2020년 기준, 학생 수는 276명(남 145명, 여 131명), 교원 수는 25명(남 4명, 여 21명)이다. 1학년은 2학급 31명, 2학년은 2학급 55명, 3학년은 2학급 38명, 4학년은 2학급 49명, 5학년은 2학급 46명, 6학년은 2학급 45명, 특수학급은 2학급 12명이다. 교원 중 수업 교원은 16명으로, 수업 교원 1인당 학생 수는 17.3명인데 부평구 평균 18.5명에 비하여 적은 편에 속한다.

십정초등학교는 인천광역시 부평구 배곶북로 10-6(십정동 298-1)에 있다.

표 13 십정초등학교 기본 현황

(2020년 기준, 단위: 명, 비교: 괄호는 특수학급임)

구분	학생 및 학급 수									교원 수	수업 교원 수	수업 교원 1인당 학생 수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5학년	6학년	특수 학급	순회 학급	계			
학급 수	2	2	2	2	2	2	2	0	14(2)			
학생 수	31	55	38	49	46	45	12	0	276	25(2)	16	17.3
학급당 학생 수	15.5	27.5	19	24.5	23	22.5	6	0	19.7			

#### 6) 하정초등학교

공립 하정초등학교는 1991년 2월 21일에 설립되었다. 2020년 기준, 학생 수는 151명(남 64명, 여 87명), 교원 수는 13명(남 5명, 여 8명)이다. 1학년은 1학급 22명, 2학년은 1학급 18명, 3학년은 1학급 22명, 4학년 1학급 27명, 5학년 1학급 24명, 6학년 2학급 32명, 특수학급은 1학급 6명이다. 교원 중 수업 교원은 9명으로, 수업 교원 1인당 학생 수는 16.8명인데 부평구 평균 18.5명에 비하여 적은 편에 속한다.

하정초등학교는 인천광역시 부평구 이규보로 14(십정동 393)에 있다.

표 14 하정초등학교 기본 현황

(2020년 기준, 단위: 명, 비교: 괄호는 특수학급임)

구분	학생 및 학급 수									교원 수	수업 교원 수	수업 교원 1인당 학생 수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5학년	6학년	특수 학급	순회 학급	계			
학급 수	1	1	1	1	1	2	1	0	8(1)			
학생 수	22	18	22	27	24	32	6	0	151(6)	13(1)	9	16.8
학급당 학생 수	22	18	22	27	24	16	6	0	18.9			

## 2. 중학교

십정동 소재 중학교는 동암중학교, 부평서여자중학교, 상정중학교 등 3개소로, 인천광역시 북부교육지원청에서 관할한다.

### 1) 동암중학교

공립 동암중학교는 1985년 3월 1일에 설립되었다. 2020년 기준, 학생 수는 281명(남 281명), 교원 수는 34명(남 6명, 여 28명)이다. 1학년은 5학급 77명, 2학년은 5학급 90명, 3학년은 5학급 109명, 특수학급은 1학급 5명이다. 교원 중 수업 교원은 28명으로, 수업 교원 1인당 학생 수는 10명인데 부평구 평균 14.9명에 비하여 적은 편에 속한다.

동암중학교는 인천광역시 부평구 동암산로 43번길 12(십정동 589)에 있다.

표 15 동암중학교 기본 현황

(2020년 기준, 단위: 명, 비교: 괄호는 특수학급임)

구분	학생 및 학급 수						교원 수	수업 교원 수	수업 교원 1인당 학생 수
	1학년	2학년	3학년	특수학급	순회학급	계			
학급 수	5	5	5	1	0	16(1)			
학생 수	77	90	109	5	0	281(5)	34(1)	28	10.0
학급당 학생 수	15.4	18	21.8	5	0	17.6			

### 2) 부평서여자중학교

공립 부평서여자중학교는 1978년 3월 10일에 설립되었다. 2020년 기준, 학생 수는 464명(여 464명), 교원 수는 42명(남 3명, 여 39명)이다. 1학년은 7학급 182명, 2학년은 7학급 142명, 3학년은 7학급 136명, 특수학급은 1학급 4명이다. 교원 중 수업 교원은 37명으로, 수업 교원 1인당 학생 수는 12.5명인데 부평구 평균 14.9명에 비하여 적은 편에 속한다.

부평서여자중학교는 인천광역시 부평구 경원대로 1213(십정동 186-519)에 있다.

표 16 부평서여자중학교 기본 현황

(2020년 기준, 단위: 명, 비교: 괄호는 특수학급임)

구분	학생 및 학급 수						교원 수	수업 교원 수	수업 교원 1인당 학생 수
	1학년	2학년	3학년	특수학급	순회학급	계			
학급 수	7	7	7	1	0	22(1)			
학생 수	182	142	136	4	0	464(4)	42(1)	37	12.5
학급당 학생 수	26	20.3	19.4	4	0	21.1			

### 3) 상정중학교

공립 상정중학교는 2008년 3월 1일에 설립되었다. 2020년 기준, 학생 수는 290명(남 163명, 여 127명), 교원 수는 33명(남 9명, 여 24명)이다. 1학년은 5학급 97명, 2학년은 5학급 99명, 3학년은 4학급 85명, 특수학급은 2학급 9명이다. 교원 중 수업 교원은 26명으로, 수업 교원 1인당 학생 수는 11.2명인데 부평구 평균 14.9명에 비하여 적은 편에 속한다.

상정중학교는 인천광역시 부평구 경원대로 1083(십정동 128-4)에 있다.

표 17 상정중학교 기본 현황

(2020년 기준, 단위: 명, 비교: 괄호는 특수학급임)

구분	학생 및 학급 수						교원 수	수업 교원 수	수업 교원 1인당 학생 수
	1학년	2학년	3학년	특수학급	순회학급	계			
학급 수	5	5	4	2	0	16(2)			
학생 수	97	99	85	9	0	290(9)	33(2)	26	11.2
학급당 학생 수	19.4	19.8	21.3	4.5	0	18.1			

### 3. 고등학교

십정동 소재 고등학교는 상정고등학교, 제일고등학교 등 2개소로, 인천광역시 교육청에서 관할한다.

#### 1) 상정고등학교

공립 상정고등학교는 2009년 3월 1일에 설립되었다. 2020년 기준, 학생 수는 565명(남 565명), 교원 수는 56명(남 21명, 여 35명)이다. 1학년은 8학급 180명, 2학년은 8학급 213명, 3학년은 8학급 169명, 특수학급은 1학급 3명이다. 교원 중 수업 교원은 51명으로, 수업 교원 1인당 학생 수는 11.1명인데 부평구 평균 11.1명과 같다.

상정고등학교는 인천광역시 부평구 경원대로 1109(십정동 136-4)에 있다.

표 18 상정고등학교 기본 현황

(2020년 기준, 단위: 명, 비교: 괄호는 특수학급임)

구분	학생 및 학급 수						교원 수	수업 교원 수	수업 교원 1인당 학생 수
	1학년	2학년	3학년	특수학급	순회학급	계			
학급 수	8	8	8	1	0	25(1)			
학생 수	180	213	169	3	0	565(3)	56(1)	51	11.1
학급당 학생 수	22.5	26.6	21.1	3.0	0	22.6			

#### 2) 제일고등학교

사립 제일고등학교는 1977년 3월 1일에 설립되었다. 2020년 기준, 학생 수는 480명(남 480명), 교원 수는 49명(남 39명, 여 10명)이다. 1학년은 8학급 158명, 2학년은 8학급 171명, 3학년은 8학급 151명이다. 교원 중 수업 교원은 46명으로, 수업 교원 1인당 학생 수는 10.4명인데 부평구 평균 11.1명에 비하여 적은 편에 속한다.

제일고등학교는 인천광역시 부평구 경인로759번길 28(십정동 576-1)에 있다.

표 19 제일고등학교 기본 현황

(2020년 기준, 단위: 명, 비교: 괄호는 특수학급임)

구분	학생 및 학급 수						교원 수	수업 교원 수	수업 교원 1인당 학생 수
	1학년	2학년	3학년	특수학급	순회학급	계			
학급 수	8	8	8	0	0	24(0)			
학생 수	158	171	151	0	0	480(0)	49	46	10.4
학급당 학생 수	19.8	21.4	18.9	0	0	20.0			

### 4. 특수학교

사립 혜광학교는 1961년 4월 3일에 설립된 시각장애학교로, 인천광역시 교육청에서 관할한다. 2020년 기준, 학생 수는 94명(남 57명, 여 37명), 교원 수는 37명(남 20명, 여 17명)이다. 유치부는 1학급 3명이다. 초등부는 1학년 1학급 3명, 2학년 1학급 2명, 3학년 1학급 3명, 4학년 1학급 3명, 5학년 1학급 1명, 6학년 1학급 3명이다. 중등부는 1학년 1학급 3명, 2학년 2학급 7명, 3학년 1학급 4명이다. 고등부는 1학년 2학급 8명, 2학년 2학급 9명, 3학년 1학급 4명이다. 전공과는 6학급 41명이다.

혜광학교는 인천광역시 부평구 경인로769번길 27(십정동 576)에 있다.

표 20 혜광학교 기본 현황

(2020년 기준, 단위: 명, 비교: 괄호는 특수학급임)

구분	학생 및 학급 수													전공과	총계
	유치부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1	2	3	4	5	6	1	2	3	1	2	3		
학급 수	1	1	1	1	1	1	1	2	1	2	2	1	6	22	
학생 수	3	3	2	3	3	1	3	3	7	4	8	9	4	41	94
학급당 학생 수	3	3	2	3	3	1	3	3	3.5	4	4	4.5	4	6.8	4.3

십정동 소재 문화·체육기관은 부평도서관, 부평구문화재단(부평아트센터·부평생활문화센터 공감168), 열우물경기장, 열우물어울림센터 등이 있다.

### 1. 부평도서관<sup>9</sup>

인천광역시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부평도서관은 1982년 5월 18일 개관하였다. 1981년 12월 14일 부평도서관 설치 조례(인천광역시 조례 제1431호)를 공포, 1981년 12월 29일 청사를 준공하고 1982년 5월 18일 개관을 맞이한 것이다.

조직은 관장을 중심으로 3개 위원회와 3개 과가 운영 중에 있다. 위원회는 강사선정위원회, 도서관운영위원회, 자료심의위원회가 있으며, 독서문화과, 정보자료과, 관리과 등 3개 과가 있다. 직원은 총 49명이다.

2020년 11월 기준, 도서는 24만 4,403권, 비도서는 1만 7,941점으로, 자료 총계는 26만 2,344권(점)이다. 연속 간행물은 신문 26종, 잡지 62종 등 88점을 보유하고 있다.



❖ 부평도서관

9 부평도서관 홈페이지(<https://lib.ice.go.kr/bupyeong>)를 참고하였다.

부평도서관은 대지면적 5,663㎡, 건물면적 3,373.74㎡ 규모로 건립되었다. 4층 규모이며 별관이 있다. 1층에는 어린이자료실, 이야기방, 나래울1실(평생학습), 관장실, 관리과, 2층에는 종합자료실, 보존자료실, 열우물실, 독서문화과, 3층에는 디지털·특허정보자료실, 정보자료과, 휴게실, 4층에는 1열람실(스마트석 96석), 휴 앤 Book(북카페형 130석), 2열람실(일반석 78석), 보존자료실, 휴게실이 있다. 별관에는 순회문고, 나래울2실(평생학습), 휴먼라이브러리, 열관리실, 전기관리실, 시설관리실, 전시실 등이 있다.

부평도서관은 인천광역시 부평구 경원대로 1191(십정동 186-454)에 있다.

### 2. 부평구문화재단<sup>10</sup>

부평구문화재단은 부평구 출자출연기관으로 2007년 1월 1일 업무를 개시하였다. 재단의 설립을 위하여 2005년 3월 21일 부평구문화재단 설립 타당성 연구용역을 발주하고, 같은 해 12월 4일 「인천광역시부평구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다. 이어 2006년 10월 12일 설립 발기인 총회를 열고, 같은 해 12월 4일 설립 허가 및 등기를 완료하였다.

부평구문화재단은 설립 이후 순차적으로 부평기적의도서관, 부평역사박물관, 부평아트센터, 부평구공공도서관, 부평구청소년수련관, 부평구문화사랑방, 부평구청소년성문화센터, 부평구립예술단 등을 위·수탁 운영(부평역사박물관 위수탁 종료)하다가, 지난 2015년 1월 1일 사무국과 부평아트센터, 부평구문화사랑방의 조직을 통합하였다. 2017년 2월 1일 조직을 통합하여 3본부, 2개의 위탁기관으로 재구성하였다. 2017년 3월 8일 부평생활문화센터 공감168, 같은 해 4월 1일 BP음악산업센터를 개관하였다.

10 부평구문화재단 홈페이지(<http://www.bpcf.or.kr>)를 참고하였다.



❖ 부평아트센터 일대 전경(2018, 부평구청)

2020년 현재 이사장(부평구청장), 대표이사를 중심으로 기획경영본부(기획조정팀, 경영지원팀, 시설관리팀), 문화사업본부(공연사업팀, 문화사업팀, 사랑방운영팀, 무대기술팀), 도서관본부(부개도서관, 삼산도서관, 부평기적의도서관, 청천도서관, 갈산도서관, 부개어린이도서관) 등 3본부가 있으며, 문화도시 추진에 따른 문화도시추진단이 신설되었다. 위탁 기관으로는 청소년수련관(청소년지원팀, 청소년활동팀, 청소년교육문화팀), 청소년성문화센터(운영지원팀, 교육문화팀) 등이 있다.

### 1) 부평아트센터

부평구문화재단에서 운영하는 부평아트센터는 2010년 4월 2일 개관하였다. 부평아트센터는 문화예술활동 진흥과 주민의 문화 향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건립된 복합 문화공간으로, 2009년 6월 19일 제정된 「인천광역시부평구 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조성되었다. 조례에서 이 문화예술회관의 이름을 부평아트센터로 명명(2009년 12월 31일 개정)하여 지금까지 동일 명칭을 사용하고 있다.

부평구문화재단에서는 2009년 6월 25일 부평아트센터의 위·수탁 운영계약을 체결

하여 2010년 4월 2일 개관을 맞이하였다. 2012년 12월 28일 위·수탁 운영계약을 다시 체결하였다가, 2015년 1월 1일 조직 통합을 통하여 부평구문화재단에서 직접 운영하게 되어 현재에 이른다.

2020년 기준, 부평아트센터 홈페이지에서는 ‘수준 높은 공연과 전시, 전문성이 강화된 예술교육으로 지역 공동체를 위한 문턱 낮은 참여마당을 만들어가겠습니다’라는 포부를 밝히고 있다. 다양한 공연과 축제, 기획 전시, 문화예술 교육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공연 창작 집단인 앤드씨어터가 상주하고 있다.

부평아트센터는 대지면적 1만 3,386㎡, 건축면적 5,008㎡(연면적 1만 7,237㎡) 규모로 건립되었다. 지하 2층, 지상 3층 규모이다. 지하 2층에는 해누리극장, 단체분장실, 밴드부스, 연습실, 분장실E, 전기자동차 급속충전기, 주차장, 지하 1층에는 해누리극장, 달누리극장, 갤러리 꽃누리, 분장실 A·B·C·D·F·G, 수유실, 놀이방, 카페, 주차장, 1층에는 해누리극장, 안내 데스크, 사무실, 상주단체 사무실, 2층에는 해누리극장, 커뮤니티홀 호박, 스튜디오 A·B·C, 세미나실, 3층에는 식당이 있다. 옥상에는 옥상공연장 별누리가 있다.

부평아트센터는 인천광역시 부평구 아트센터로 166(십정동 186-22)에 있다.



❖ 부평아트센터 전경(2019, 부평구청)

## 2) 부평생활문화센터 공감168

부평구문화재단은 2017년 3월 8일 부평생활문화센터 공감168을 개관했다. 공감168은 주민들의 생활문화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설립한 것으로, 부평아트센터의 북쪽에 위치한 송학사(옛 안기부 인천지부) 건물을 리모델링하였다.

‘문화생활’은 누군가가 만들어 놓은 예술·콘텐츠를 즐기는 것이라고 한다면 ‘생활문화’는 나 또는 우리가 주체가 되어 예술·콘텐츠를 만드는 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 문화생활은 부평아트센터에서, 생활문화는 공감168에서 일상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

주요 사업으로 다양한 계층과 세대를 대상으로 한 생활문화 프로그램 운영, 지역 내 문화예술 동아리 활동 활성화를 위한 공간 지원, 예술 단체 및 지역 내 기관 또는 단체의 연습 및 전시·발표를 위한 대관 진행 등을 수행하고 있다.

이를 위해 지하 1층, 지상 1층 규모에 13개 공간으로 구획되었다. 지하 1층에는 연습실(1, 2, 3, 4), 영상편집실, 준비실 등이, 지상 1층에는 다목적홀(전시실), 모임방(1, 2, 3, 4), 준비실, 프로그램실(1, 2), 커뮤니티 카페 등이 있다.

부평생활문화센터 공감168은 인천광역시 부평구 아트센터로 168(십정동 186-408)에 있다. 공감168이라는 이름의 168은 도로명 주소인 아트센터로 168에서 따왔다.



❖ 부평생활문화센터 공감168 개관식(2017, 부평구청)

## 3. 열우물경기장<sup>11</sup>

열우물경기장은 지난 2014년 인천아시안게임 당시 10개 신설 경기장 중 하나로 2013년 9월 14일 개장하였다. 개장 이전에는 경기장의 소재지인 십정동의 명칭을 따서 ‘십정경기장’이라고 불리다가, 시민 공모를 통해 십정동의 옛 지명인 ‘열우물’을 사용한 ‘열우물테니스·스쿼시경기장’이 선정되어 공식 명칭이 되었다.

2014년 인천아시안게임 당시 이곳에서 테니스, 스쿼시, 정구 대회 등을 치렀다. 인천 아시안게임 이후 주민들에게 건강한 삶을 위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복합체육시설로 이용되고 있다. 지상에는 테니스 코트, 건물 내에는 스쿼시장과 수영장, 헬스장 등이 있다.

열우물경기장은 인천광역시 부평구 열우물로 164(십정동 620)에 있다.



❖ 열우물경기장(2017)

11 열우물경기장 홈페이지(<http://www.icyum.or.kr>)를 참고하였다.

### 1. 열우물단오축제

열우물단오축제는 2016년부터 열우물경기장 앞 주차장 및 고래우물 터 인근에서 실시된 단오축제로, 2016년, 2017년, 2019년에 개최되었다. 행사 장소인 열우물경기장 앞 주차장 및 고래우물 터는 윗열우물마을이 있는 곳으로, 십정동의 원마을이라고 할 수 있다.

열우물단오축제는 우리 고유 명절 단오를 맞아 지역 전통문화를 돌아보며 주민의 화합과 소통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그중에서 2016년에 열린 제1회 열우물단오축제는 열우물단오축제위원회가 주최하고, 윗열우물마을운영위원회, 부녀회, 노인회가 주관하였다. 주요 행사는 마을길놀이, 개회식, 우물고유제, 개막 공연, 단오잔치, 초청 공연, 경품 추첨 등으로 구성되었고, 먹거리 마당과 전시 및 전통 체험 코너가 별도로 마련되었다. 제2회(2017), 제3회(2019) 때 구성의 변화가 약간 있었지만 큰 틀에서는 동일하게 행사가 진행되었다.



❖ 제2회 열우물 단오축제(2017)

### 2. 열우물마을잔치

열우물마을잔치는 열우물단오축제가 윗열우물마을에서 열린 것과 다르게 지금은 없어진 십정2구역 신덕촌 일대에서 벌어졌던 마을잔치를 말한다. 소위 달동네라 부르던 곳이다. 거창한 축제라는 이름보다 마을잔치라는 소박한 이름으로 진행되었다. 현재 십정2구역 개발로 인하여 주민들이 흩어지면서 열우물마을잔치는 막을 내렸다.

1980년대부터 열우물 달동네에서는 정월대보름 행사, 단오 행사 등 많은 행사가 주민들의 힘으로 생겨났다. 그러다가 2010년 ‘한가위맞이 열우물마을잔치’가 시작되었다. 오랫동안 열우물 달동네에서 이어오던 공동체 문화를 되살리는 의미를 담았다. 2010년 첫 잔치에는 열우물마을 공동준비위원회(십정동 주민사업센터 ‘해님방’, 문화예술분야 사회적기업 ‘자바르떼 인천지부’, 십정1동 주민자치위원회, 십정1동 통우회, (주)열우물길프로젝트)가 주축이 되어 주민 노래자랑, 해님방 바자회, 거리 공연, 사진 전시, 마을 영화 상영, 먹거리 나눔 등의 행사가 진행되었다.



❖ 열우물마을잔치(2010, 부평구청)

이후 해마다 이어져 열우물마을잔치 ‘열정’이라는 이름으로 2016년까지 계속되었다. 2016년에는 ‘마지막 마을잔치 열정’이라는 타이틀로 진행되었다. 매년 신명나게 진행되는 마을공동체를 느낄 수 있었던 이 행사는 십정2구역 개발을 앞두고 마지막 마을잔치로 준비한 것이었다.



## 참고 문헌

### 단행본

- 부평역사박물관, 『열우물마을, 부평 십정동』, 부평역사박물관, 2017.  
 인천광역시 부평구청 기획조정실, 『2020 부평 구정백서』, 인천광역시 부평구, 2020.  
 인천광역시 시사편찬위원회, 『인천의 지명』상, 인천광역시 시사편찬위원회, 2015.  
 인천광역시, 『인천의 지명 유래』, 인천광역시, 1998.  
 조기준, 『부평사연구(증보판)』, 부평문화원, 1995.  
 友邦協會, 『朝鮮の鹽業』, 1983.

### 사료

- 『신구대조조선전도부군면리동명칭일람(新舊對照朝鮮全道府郡面里洞名稱一覽)』(1917)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1969)  
 『여지도서(輿地圖書)』(1725~1776)  
 『오아재집(鰲齋齋集)』(1916)  
 『인천부읍지』(1842·1871·1899)  
 『조선지리지자료(朝鮮地誌資料)』(1911)  
 「전매국 주안출장소 관계자료」, 1922(국가기록원, CTA0002798).

### 웹사이트

- 부평구문화재단(<http://www.bpcf.or.kr>)  
 부평구청 부평홍보관(<https://www.icbp.go.kr/publicity/>)  
 인천광역시교육청부평도서관(<https://lib.ice.go.kr/bupyeong>)  
 인천광역시체육회 열우물경기장(<http://www icyum.or.kr>)  
 학교 알리미(<https://www.schoolinfo.go.kr>)  
 행정동별 소재 각 학교 홈페이지





# 제 7 장

## 일신·구산동 (日新·九山洞)

제1절 \_ 마을 지명 유래

제2절 \_ 행정구역의 변천

제3절 \_ 일반 현황

제4절 \_ 문화유산 및 명소

제5절 \_ 교육기관

제6절 \_ 문화·체육·보건기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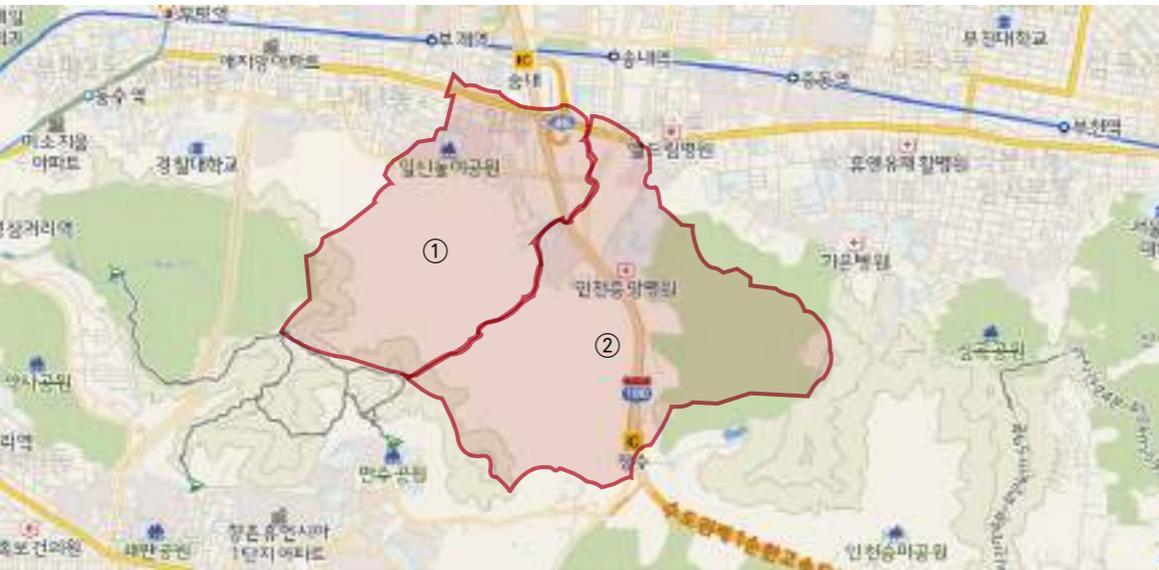
# 제7장 일신·구산동(日新·九山洞)

이슬아(인하대학교박물관 연구원)



## | 제1절 | 마을 지명 유래

### 1. 동 이름 유래



❖ 일신(①)·구산동(②) 관할구역(출처 : 국토정보플랫폼 국토정보맵)

행정동으로는 일신동(日新洞)이지만, 법정동으로 보았을 때 일신동은 일신동과 구산동으로 나뉘어 진다. 전통 시대부터 각기 다른 두 개의 마을이 해방 후에도 이어져 온 것으로 인구수가 적어 하나의 행정구역이 되었다.

우선 일신동에서의 ‘일신’이라는 지명은 해방 이후 1946년 1월 1일 일본식 동명 폐지에 따라 새로 만든 지명이다. 뜻은 한자 그대로 새롭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전통 시대 일신동의 지명은 ‘항동리(航洞里)’이다. 항동은 ‘항굴’, ‘항굴’이라고도 불렀다. 지명을 한자 뜻대로 풀이하자면 ‘배 모양의 마을’이 된다. 마을이 지금의 부개산 능선을 따라 골짜기에 길게 들어앉아 있어 마치 남쪽에서 보면 배 모양같이 생겼다고 하여 ‘배 항(航)’ 자에 마을을 뜻하는 우리말 ‘골(굴)’이 붙었다는 것이다. 한편으로는 항굴 혹은 항굴이라 발음하던 것에 착안하여 우리말로 풀어 ‘큰 동네’나 ‘큰 골짜기 마을’을 뜻하는 ‘한골(한굴)’로부터 유래하였다는 견해도 있다. 항동의 이름과 관련하여 전해지는 얘기도 있다. ‘배 모양의 마을’이기 때문에 마을 안에 우물을 파면 배 밑창을 뚫는 것과 같아 마을 안에는 우물을 파지 못하게 했었다고 한다. 따라서 마을 안에 우물이 없고 대신 마을 바깥의 우물에서 물을 길어다가 먹었는데, 일제강점기에 미신 타파가 성행하면서 마을의 젊은이들이 동네에 우물을 팠고 결국 마을이 모두 일본군의 군수기지로 수용당해 마을이 철거되는 결과를 가져왔다는 것이다.

구산동의 ‘구산’은 조선시대까지 쓰여 온 지명인 ‘구산리’를 그대로 따른 것이다. 동네 뒷산의 모양이 거북이 등같이 생겼다고 하여 ‘거북이 구(龜)’ 자를 써서 산 이름을 불렀는데, 산 아래의 마을이라고 하여 이름을 붙였다고 전해진다. 아니면 ‘앞산말(마을)’이라는 명칭에서 변한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앞산말에서 ‘아홉산’으로 변해 한자를 표기할 때 구산으로 표기하였다는 것이다.

구산이라는 명칭은 일제강점기인 1914년 행정구역 통폐합 당시 구산(龜山)의 한자를 바꾸어 ‘구산(九山)’으로 표기하였고 지금까지 ‘아홉 구(九)’ 자를 쓴다.

## 2. 소지명 유래<sup>1</sup>

### 1) 성현(비루고개)과 수현(무네미고개)

성현(비루고개)과 수현(무네미고개)은 부평의 일신동 마을에서 현재 남동구 만수동의 마을까지 넘어가는 길목의 이름이다.

성현은 조선시대 한양에서 황해 바다나 인천을 향하는 주요 길목으로, 지금의 부평구에서 성현을 넘으면 오달기주막(구월동)으로 해서 능허대로로 향하는 길이나 수산동포구까지 가서 황해 바다로 향하는 길이 나왔다. 서울에 배를 타러 나서는 사람들이 이곳에서 작별 인사를 나누었다고 하여 ‘별리고개’, ‘별리현(別離峴)’이라 부르던 것이 비루고개로 변하였다고 전해진다. 그리고 이것이 ‘별고개’가 되어 한자로 표기할 때 ‘별성(星)’자를 써서 표기한 것이 ‘성현(星峴)’이 되었다고 한다. 한편으로는 고구려 시조 동명왕이 죽자 온조와 비류 형제가 남하하는데 온조와 헤어진 비류가 미추홀에 도움을 청할 때 이 고개를 넘었다고 하여 ‘비류고개’라고 한 것이라는 주장도 있다. 현재 성현은 군부대 내에 있어 지나다닐 수 없다. 부평구에서 남동구로 넘어가는 지금의 무네미고개와는 다른 길이다.

수현(水峴)은 현재 부평구와 남동구를 잇고 있는 무네미길에 해당하며, ‘물넘이고개’가 변음된 것이라 한다. 조선시대 중종 때 김안로(金安老)가 굴포천을 뚫는데 원통현에 암반이 있어 뚫지 못하자 이곳으로 고개를 뚫어서 물을 넘기려 하였다고 하여 생긴 이름이다. 결국엔 이곳도 뚫지 못하고 고개로 남았다. 장수동에 고개 이름을 딴 ‘수현마을’이 있으며, 고개 이름을 따라 무네미길이라는 도로명이 붙었다. 또한 도로 위로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가 지난다.



❖ ‘무네미마을’이라고 적힌 버스정류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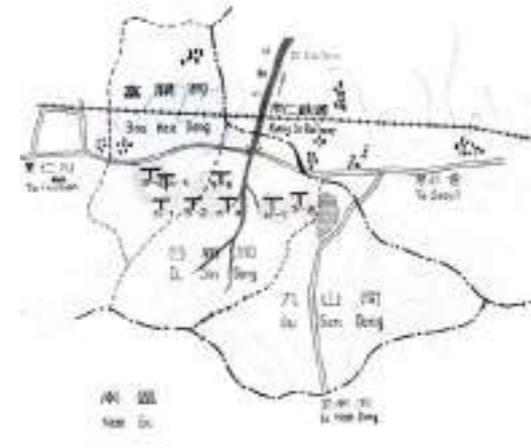
### 2) 장두무들

일신동의 북쪽으로 지금은 주거지로 형성된 평야지대를 이르는 말이다. 서쪽과 북쪽으로는 부개동 일대의 평야와 연결된다. 명칭의 유래는 알려진 바가 없다.

폭우가 쏟아지면 남쪽의 금마산으로부터 발원한 개울물이 불어나 홍수가 나는 경우가 잦은 땅이었다고 한다. 따라서 과거 일신동과 구산동의 마을은 습한 평야를 피해 산 아래에 자리 잡았다. 금마산으로부터 발원하여 장두무들을 지나 부천 쪽으로 흐르는 하천에 대해 과거에는 일신천이라고 불렀다. 1910년경의 자료인 『조선지지자료(朝鮮地誌資料)』에 따르면 향동에는 ‘저피늪보’라 하여 십여 년 전에 쌓은 보(淤)가 있다고 하는데, 이로 보아 예로부터 물이 풍부한 지역임을 알 수 있다.

한편 장두무들의 근처에 있을 것이라 추측되는 ‘항동교’라는 다리가 있다. 마을의 이름을 따와 붙인 이름인데, 일신천과 경인로가 맞닿은 곳에 있던 다리로 추측된다. 지금의 황굴삼거리 부근에 해당한다.

<sup>1</sup> 『인천의 지명』상(인천광역시 시사편찬위원회, 2015)을 참고하되, 2020년을 기준으로 지명과 지형의 변화가 있는 경우 수정하고 보완 사항이 있는 경우 추가하였음을 밝힌다.



❖ 일신천(농업용수개발계획도)(출처 : 국가기록원)



❖ 1973년 일신동의 하천(출처 : 국토지리정보원)

### 3) 금마산, 용봉산, 구산

구산동 및 일신동은 산 아래에 형성된 마을이기 때문에 산의 지명이 많이 남아있다. 대체로 마을 주변의 산을 이르는 말인데 현재는 군부대가 주둔해 있다.

금마산(錦馬山)은 유래를 알 수 없어 한자 그대로 풀이하자면 비단결 같은 말과 같다는 뜻이다. 부개동과 가까이에 있는 산을 일컬었다고 한다. 용봉산(龍鳳山)은 무네미고개(수현) 서쪽의 산을 말하며 부평구와 남동구의 경계를 이루는 자연 지형이다. 구산(九山)은 한자로 ‘구산(龜山)’이라고도 쓰며 구산동 동쪽의 산을 말한다. 이 산의 이름을 따와 동리명으로 썼으며 부평구와 경기도 부천의 경계를 이루는 자연 지형이다.

### 4) 범골, 상아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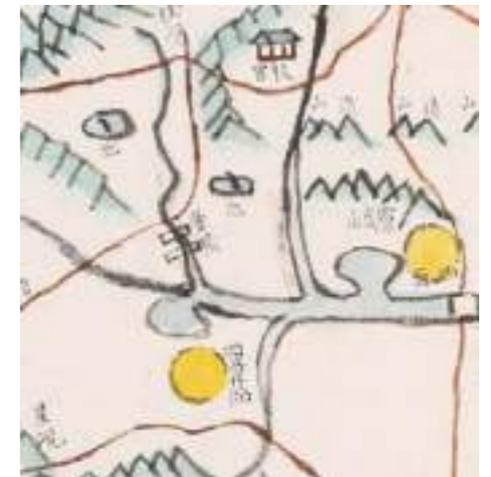
산과 가깝기 때문에 산을 넘는 길목, 골짜기에 대한 명칭도 많다. 범골 혹은 ‘범골’, ‘범고개’라고 하는 골짜기는 금마산의 동남쪽에 있으며 금마산 안쪽으로 나 있는 깊은 골짜기로, 옛날에 범이 살았다고 하여 붙인 이름이다. 상아굴은 지금의 근로복지공단 인천병원의 남쪽에 있던 골짜기로, 군부대 입구가 자리 잡고 있다. 상아굴 또는 ‘상마굴’이라 불렀는데 크기가 커서 코끼리나 말에 비유한 것이라고 한다. 현재는 ‘사단 입구’라는 명칭이 더 익숙하다.

## | 제2절 | 행정구역의 변천

### 1. 전통 시대

지금의 구산동과 일신동 일대는 조선시대에 경기도 부평도호부(富平都護府)의 동소정면(同所井面)에 속한다. 부평은 1895년(고종 32)에 잠시 인천관찰부 소속의 부평군이 되었다가 그다음 해인 1896년(건양 1)에는 경기도 소속 부평군이 된다.

동소정면(同所井面)은 지금의 부평동의 옛 이름인 대정리(大井里)와 함께 ‘우물 정(井)’ 자를 쓴다. 한자를 그대로 해석하여 마을에 큰 우물이 있어 ‘정(井)’ 자를 썼다고도 풀이하지만, 한편으로는 전통 시대의 마을에 우물이 있는 것은 흔한 일이며 단순히 마을의 이름을 짓기 위해 흔히 쓰는 단어에 지나지 않는다고 보기도 한다. 동소정면은 부평부(富平府) 내 15개의 면 중 하나로 부평의 중심지(현 계양구 계산동 일대)의 관문에서 남쪽으로 20리 정도 떨어진 곳에 있으며, 인천도호부와 서울을 오가는 길목에 형성되어 있었다.



❖ 『경기읍지』(1871) 속 동소정면(좌)과 『부평군읍지』(1899) 속 동소정면(우)(출처 :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18세기 중반에 편찬한 지리지 『여지도서(輿地圖書)』에서 동소정면(同所井面)은 부평부(富平府) 내 15개면 중 하나로 관문에서 남쪽으로 20리 떨어진 곳에 있으며, 5개의 마을이 있고 총 162호에 남자가 290명, 여자가 346명으로 기록되어 있다. 1789년(정조 13) 『호구총수(戶口總數)』에는 191호에 총 702명으로, 남자가 379명, 여자가 323명으로 되어 있다. 1899년(광무 3)에 편찬한 『부평군읍지(富平郡邑誌)』에는 4개의 마을에 총 173호가 있고 남자가 385명, 여자가 290명이라고 되어 있다. 『호구총수』(1789) 기준으로 하여 당시 부평 내 각 면(面)의 호수는 읍내면(邑內面) 242호, 동면(東面) 174호, 당산면(堂山面) 150호, 주화곶면(注火串面) 165호, 상오정면(上梧亭面) 186호, 하오정면(下梧亭面) 201호, 수탄면(水呑面) 192호, 옥산면(玉山面) 200호, 석천면(石川面) 233호, 마장면(馬場面) 83호, 서면(西面) 181호, 석곶면(石串面) 305호, 모월곶면(毛月串面) 354호, 황어면(黃魚面) 312호로 기록되어 있는데, 동소정면은 191호이다. 주변의 면과 비교하였을 때 동소정면의 마을 규모는 평균이거나 평균보다 조금 작은 편이었다고 짐작할 수 있다.

동소정면 일대를 ‘동수재이’라고도 하였는데, 동소정면이 변음하여 ‘동소정이’, ‘동수재이’ 등으로 부른 것이다. 한편 동수재이는 지금의 부평6동을 중심으로 지금도 널리 쓰인다. 부평6동이 되기 이전에 잠시 ‘부평2동, 동수동’이라는 지명으로도 쓰였으며 현재는 동수재이의 한자로 ‘동수(東樹)’라고 표기하기도 한다. 또한, 인천1호선의 역명으로도 쓰인다. 『호구총수』에 표기된 동소정면의 마을은 4곳으로, 구산리(龜山里), 향동리(項洞里), 마분리(馬墳里), 대정리(大井里)이다. 여기서 구산리는 구산동, 향동리는 지금의 일신동이 된다. 마분리는 지금의 부개동, 대정리는 지금의 부평동으로 이어진다.

西面	元戶	東所井面	元戶	石川面	元戶	玉山面	元戶	水呑面	元戶
181	191	191	201	233	200	192	150	174	242
남자 181	남자 290	남자 379	남자 346	남자 305	남자 385	남자 354	남자 312	남자 290	남자 385
여자 181	여자 346	여자 323	여자 379	여자 305	여자 290	여자 312	여자 290	여자 323	여자 323

❖ 『호구총수』(1789) 속 '동소정면'(출처 :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 2. 일제강점기

1910년 국권을 침탈한 조선총독부는 칙령 제 357호로 「조선총독부지방관관제」를 공포하여, 한반도에 13개의 도(道)와 부(府) 그리고 군(郡)을 두었다. 또한 각 부군과 하부에는 읍면(邑面)과 리(里)·동(洞)을 두도록 하였다. 이때 구산리와 향동리는 경기도 부평군 동소정면에 속하였고, 1914년에는 행정구역 통폐합으로 부천군(富川郡) 부내면(府內面)에 편입된다. 그리고 부천은 부평의 ‘부’와 인천의 ‘천’을 따와 만들면서 ‘부천’이라는 지명이 이때 처음 생겨났다. 부제(府制)가 실시되고 행정구역이 폐합되면서 인천항 앞 조계지를 중심으로 인천부(仁川府)가 결정되는데, 인천부의 부내면과 다소면의 일부만 인천부가 되고 나머지 인천 영역과 부평군을 합한 지역으로 부천군(富川郡)을 새로 만

들었다. 부내면은 그 이전 부평군의 군내면, 서면, 마장면, 동소정면을 합한 영역이다.



❖ 1910년대 말 향동리와 구산리(출처 :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

부천군 부내면의 구산리와 향동리는 1940년대에 인천의 영역으로 편입된다. 1930년대 인천부는 부외 지역에 대한 공업적 개발을 목표로 부역(府域)의 확장을 추진하여, 1936년에 부천군에 속하였던 문학면과 다주면의 일부를 인천부에 편입시켰다. 이어서 1930년대 말부터 조선총독부의 병참기지화 정책으로서 부평역 중심의 평야 일대가 군수공업단지로 조성된다는 내용의 경인시가지계획으로 부평 지역 일대는 경성부 혹은

인천부로의 편입을 앞두고 있었는데<sup>2</sup>, 1940년 조선총독부령 제40호로 인천부가 2차로 부역을 확장하면서 과거 부평도호부 영역 대부분이 인천으로 편입된다. 이때 인천부로 편입되면서 향동리는 향취정(香取町), 구산리는 이등정(伊藤町)이라는 일본식 지명으로 변경되었다. ‘향취(香取)’는 일본 치바현의 지명이기도 하지만 일제의 배 이름인 향취환(香取丸, 카토리마루)의 이름을 따온 것으로 보인다. ‘이등(伊藤)’은 이토 히로부미(伊藤博文)의 이름에서 유래했다.

### 3. 해방 이후

1945년 8월 15일 광복 이후 9월 19일에 미군정청(美軍政廳)이 설치되면서 미군은 일제강점기의 조선총독부의 권한을 장악하고 지방 정부를 재조직하였다. 마분리는 해방 직전에 인천부 영역으로 편입되었으므로 해방 이후에도 인천부의 영역으로 남았다. 인천부는 1945년 10월 12일에 잠시 ‘제물포시’가 되었다가 10월 27일에 ‘인천시’로 변경된다. 그리고 11월 1일에 인천시가 아닌 다시 ‘인천부’로 변경되었다. 1946년 1월 1일에는 인천 내 일본식 이름을 철폐하면서 향취정과 이등정이 없어지고 지금의 동명인 일신동과 구산동이 되었다.

인천부는 1948년 11월 17일 법률 제8호 「지방행정에 대한 임시조치법」을 통해 행정구역상 법적인 지위를 가지게 되었고, 1949년 7월 4일에 공포된 법률 제32호 「지방자치법」에 의해 기초 자치단체가 되면서 ‘인천시’가 되었다. 그리하여 일신동과 구산동은 경기도 인천시 일신동 및 구산동으로서 인천 본청의 부평출장소 관할에 속하였다. 해방 직후 일신동과 구산동 그리고 부개동의 인구가 적었기 때문에 1955년 10월 1일에 세 동을 합쳐 부개·일신·구산동이 되었다.

1966년 12월 21일 인천시는 거주 인구 52만 명을 넘어가면서 구 설치를 추진하여, 1967년 3월 30일에 「인천시 구 설치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고 1968년 1월 1일부터 구제도(區制度)를 도입하여 인천에 중구, 동구, 남구, 북구가 설치되었다. 이때 부개·일신·

2 「大擴張되는京城府域」, 『동아일보』, 1939년 10월 2일자.

구산동은 북구 관할구역에 속하였다. 1977년 5월 10일에는 동명(洞名)에 일신동과 구산동을 없애고 부개동이라고만 칭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후에 인구가 증가하면서 1982년 9월 1일에 일신동이 분동(分洞)하여 지금에 이른다. 이때 구산동의 영역도 함께 분동하였으며, 구산동은 법정동으로만 남았다.

표 1 연도별 부평과 일신동, 구산동의 인구

(단위: 년·명)

연도	일신동	구산동	부평	비고
1965	1,017	606	83,669	
1970	1,197	416	125,886	
1975			193,561	12,939(부개동과 통합)
1980			322,406	26,359(부개동과 통합)
1985	2,530		464,604	
1990	12,011		616,818	
1995	8,155		489,621	
2000	13,608		529,569	
2005	13,365		548,068	
2010	14,738		547,395	
2015	14,533		514,385	

❖ 출처: 인천광역시, 『인천통계연보』, 각 연도(1965~1985년); KOSIS 국가통계포털(1990~2015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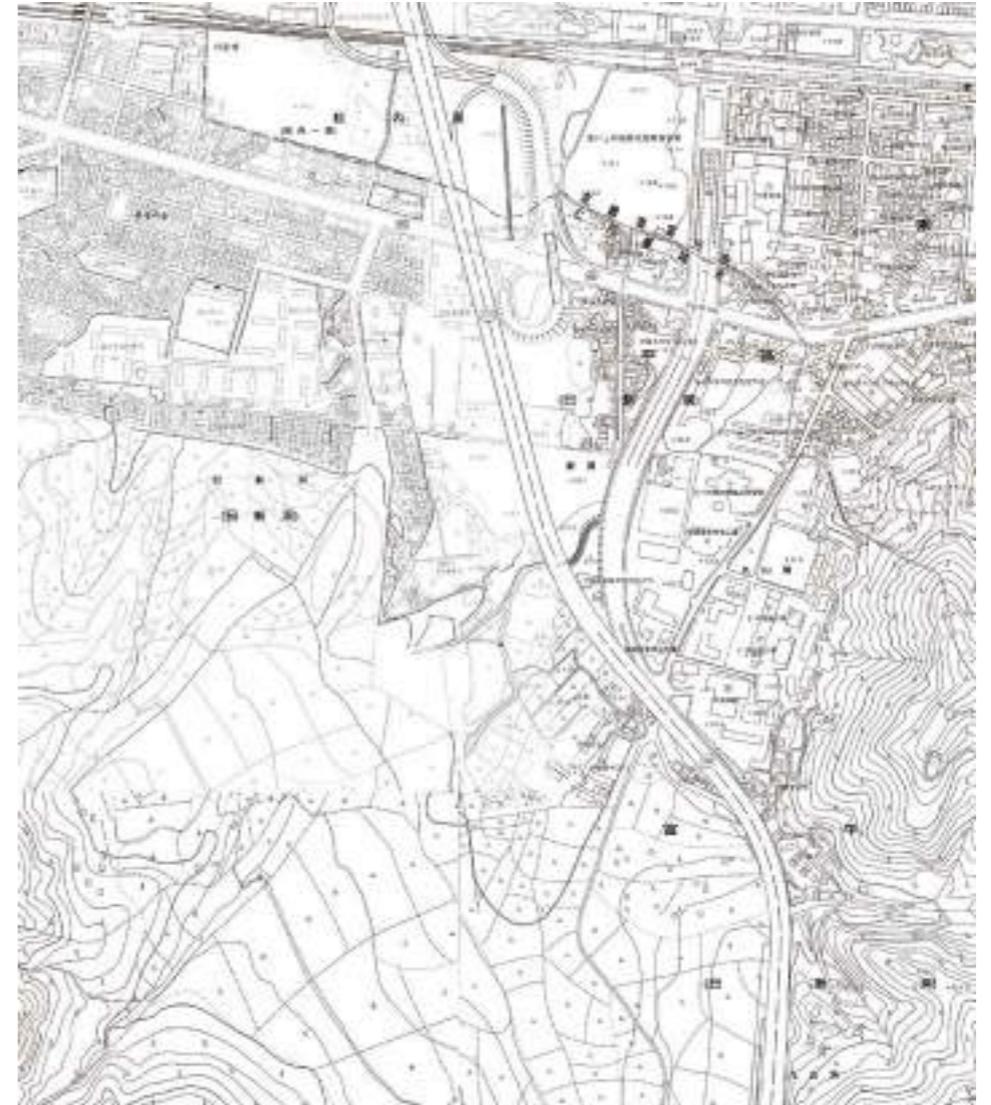
구산동과 일신동 일대는 1940년대 일본군의 군용지로 수용되면서 전통 시대의 마을 공간이 지금까지 이어지지 못하였다. 또한 해방 후에도 군부대가 자리 잡으면서 마을은 산으로부터 멀어져 경인로의 주변으로 조성되었다. 일신동은 부개동 마을과 연계되어 빠르게 인구가 증가하는 한편 구산동의 경우는 주요 도로와 거리가 있어 인구 유입이 적은 편이었는데 남동구로 이어지는 도로(무네미길)가 놓이면서 인구가 점차 유입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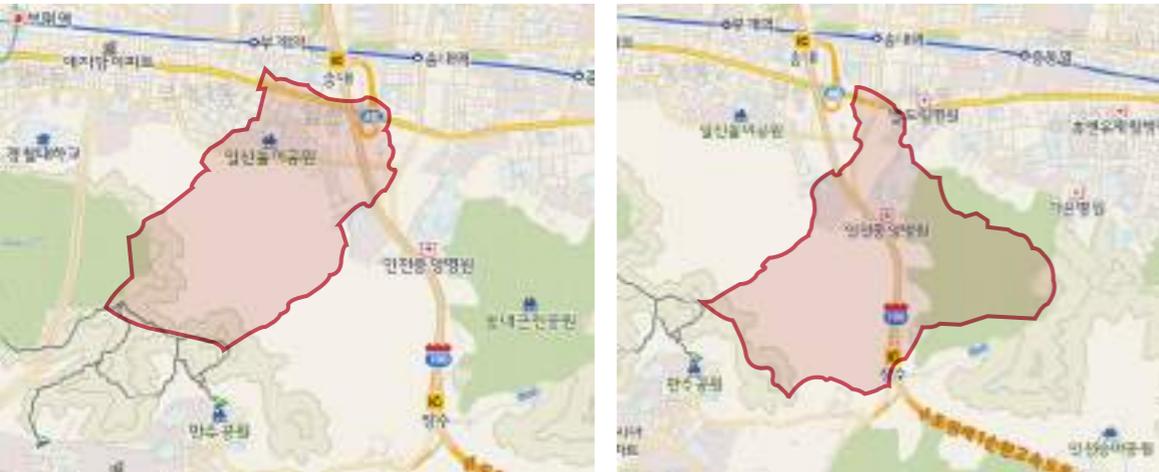
❖ 1976년 일신동과 구산동(출처: 국토지리정보원)



❖ 1987년 일신동과 구산동(출처 : 국토지리정보원)



❖ 2001년 일신동과 구산동(출처 : 국토지리정보원)



❖ 일신동 구역(법정 경계)  
(출처 : 국토정보플랫폼 국토정보맵)

❖ 구산동 구역(법정 경계)  
(출처 : 국토정보플랫폼 국토정보맵)

부평구의 동남쪽에 있는 구산동과 일신동은 북서쪽에 부개동과 부평동, 동쪽으로는 부천시, 남쪽으로는 남동구와 맞닿아 있다. 부평구와 남동구의 경계 역할을 하는 광학산 및 거마산의 아래에 있고 남북으로는 고가도로인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가 지난다. 또한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아래에는 남동구부터 부천 송내역까지 잇는 길인 무네미로가 있다.

행정동으로서의 일신동은 법정동인 일신동과 구산동을 포함한다. 일신동과 구산동의 절반 이상은 군부대가 차지하고 있고 부개동 및 부천과 맞닿아 있는 북부에만 시가지가 형성되어 있다.

2019년 12월 기준 일신동의 현황은 다음과 같다. 행정동을 기준으로 구산동은 일신동에 속하므로 다음의 내용은 일신동과 구산동의 합산이다.

3 인천광역시 부평구청 기획조정실, 『2020 부평 구정백서』, 인천광역시 부평구, 2020.

### 1) 인구·면적

일신동의 면적은 4.31km<sup>2</sup>로 부평구 전체의 13.3%에 해당한다. 2019년을 기준으로 세대수는 5,221세대이고 인구는 1만 3,368명이다. 부평구 내 행정동 중 가장 면적이 크지만 인구수는 청천1동 다음으로 가장 적다. 행정구역 및 인력 구성은 아래와 같다.

표 2 일신동 기본 현황

(2019.12.31. 기준, 단위 : km<sup>2</sup>·%·세대·명)

면적	세대수	인구수			행정구역		행정인력	민방위	예비군
		계	남	여	통	반			
4.31 (구의 13.3)	5,221	13,368	6,861	6,507	12	120	12	862	590

### 2) 자생 단체

일신동 내 자생 단체는 8종류이며, 주민자치위원회 25명, 통장자율회 20명, 방위협의회 21명, 지역사회보장협의체 13명, 부녀회 9명, 주민참여예산지역위원회 15명, 청소년지도위원회 8명, 풍물단 18명이 활동하고 있다.

표 3 일신동 자생 단체 현황

(2019.12.31. 기준, 단위 : 명)

주민자치위원회	통장자율회	방위협의회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부녀회	주민참여예산지역위원회	청소년지도위원회	풍물단
25	20	21	13	9	15	8	18

### 3) 사회복지 대상자

2019년을 기준으로 일신동 내 사회복지 대상자는 총 2,707명으로, 기초생활수급자 437명, 한부모가족 110명, 장애인 780명, 기초연금 1,380명이 해당된다.

표 4 일신동 사회복지 대상 현황

(2019.12.31. 기준, 단위: 세대/명)

합계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장애인	기초연금
2,193/2,707	302/437	45/110	780/780	1,066/1,380

#### 4) 주요 시설

2019년을 기준으로 일신동에는 공공기관 1개소, 복지시설 3개소, 경로당 5개소, 어린이집 12개소, 학교 3개소, 병·의원 12개소, 약국 9개소, 금융기관 2개소, 종교시설 18개소가 있는 것으로 집계되었다.

표 5 일신동 주요 시설 현황

(2019.12.31. 기준, 단위: 개소)

공공기관	복지시설	경로당	어린이집	학교	병·의원	약국	금융기관	종교시설
1	3	5	12	3	12	9	2	18

### | 제4절 | 문화유산 및 명소

#### 1. 중앙직업훈련원과 소년직업훈련원

현 구산동의 한국폴리텍Ⅱ인천대학의 전신인 중앙직업훈련원은 1968년 노동청 산하 기관으로 세워졌다. 1960년대 경제개발계획으로 국내 산업의 기능 인력을 양성하고 산업 현장에 보급하기 위해 설립한 것으로, 유엔개발계획(UNDP)의 재정지원과 국제노동기구(ILO)의 기술지원이 있었다. 시설은 당시 보건사회부가 운영하고 있던 국립 소년

직업보도소를 이관 받고 이를 전환 및 확장하여 개원한 것이다.<sup>4</sup>

1969년 3월에 개소하였으며 그 해에 대학 진학을 포기한 고교 졸업생 중 선별된 200명의 훈련공이 입소하였다. 훈련원에서는 일반 기능공을 양성하였는데 훈련 대상은 기계공, 기계조립공, 다듬질공, 용접공, 판금공, 배관공, 전기기기수리공, 전공, 라디오 및 TV공, 통신조립공, 주물공, 단조공, 목형공, 건축목공, 가구공, 창호공, 자동차정비공, 내연기관전기공, 기계운전공, 공업제도공 등이었다.<sup>5</sup>

1971년부터는 일반 기능공을 양성할 수 있는 직업훈련교사 양성과정도 설치하였다. 훈련교사의 경우 전원 국비장학생으로 대우하였으며 해외 유학도 장려하였다. 여기서 정규 과정을 거친 교사들은 노동청 산하의 훈련소 및 공공직업훈련소 등에서 교사로 활동하였다.<sup>6</sup> 당시 대통령의 지시로 훈련원 내 교사를 위한 아파트를 신축할 정도로 1970년대 국내 경제개발 산실로서 여겨졌다.<sup>7</sup> 그 후 1991년 1월에 인천기능대학(仁川技能大學)으로 개편되었다.



❖ 국립 소년직업훈련원 낙성식(출처: 『경향신문』, 1963년 9월 23일자)

4 「大規模 직업훈련소設置」, 『매일경제』, 1967년 4월 26일자; 「대한민국 산업화의 동반자 한국폴리텍 대학(1)」, 『영남일보』, 2020년 8월 11일자.  
 5 「職業훈련원開所」, 『경향신문』, 1969년 3월 12일자.  
 6 「중앙직업훈련원」, 『중앙일보』, 1974년 10월 29일자.  
 7 「기능공은 바로 국력」, 『중앙일보』, 1975년 11월 26일자.

중앙직업훈련원의 전신인 국립 소년직업훈련원은 ‘소년직업보도소(少年職業輔導所)’라고도 일컬었다. 전쟁 이후 사회적 문제로 야기된 부랑아 문제를 해결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부족한 산업 인력을 양성하겠다는 목적으로 고아들을 수용하면서 이들을 기술자로 양성하는 기관이었다. 훈련원은 14세부터 18세까지의 연장 고아들을 대상으로 한 해에 5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정도의 규모였으며, 주로 농축, 목공, 철공, ‘프린트’ 기술, 원예, 이발공예 등을 가르칠 예정이었다. 건물은 기업가 3인이 사회복지사업으로 기부한 2,000만 원의 자금을 바탕으로 1962년 3월부터 착공하여 7월에 준공하였다. 훈련원이 생기기 이전에도 고아들을 대상으로 직업훈련을 실시하던 기관이었는데, 규모를 크게 확충한 것이었다. 1962년 7월 19일에 치러진 국립 소년직업훈련소 낙성식에는 이주일 최고회의 부의장을 비롯한 정희섭 보건사회부 장관, 김병삼 내각 사무처장 등이 참석했다. 이때 이주일 부의장이 대독한 축사를 통해 박정희 의장은 “직업훈련에 그치지 말고 인간 개조에 하나의 발판이 되어야 한다. 많은 고아들이 기술을 배워 복지사회 건설에 이바지해야 한다”고 전하였다.<sup>8</sup>

한편 소년직업훈련소는 계획 당시 고아 문제가 해소되면 건물을 아동 병원으로 쓰고 전시에는 고아들을 육군병으로 쓰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sup>9</sup>

8 「國立少年 職業訓練所」, 『경향신문』, 1962년 2월 6일자; 「6萬孤兒배움집 國立少年職業훈련소落成式성대」, 『경향신문』, 1962년 7월 20일자.

9 「國立少年 職業訓練所」, 『동아일보』, 1962년 2월 6일자.

## 1. 초등학교

### 1) 일신초등학교

공립 일신초등학교는 인천광역시 부평구 향동로75번길 36(일신동 112-3번지)에 있다. 1985년 9월 1일에 1~3학년, 12학급으로 개교하였다. 2006년 금마초등학교가 생기기 이전에는 일신동(구산동 포함)의 유일한 초등학교였다. 학생 수는 1995년에는 24학급에 1,080명, 2005년에는 41학급에 1,330명이었다. 2020년에는 총21학급에 학생 수는 421명이다.

표 6 일신초등학교 기본 현황

(2020년 기준, 단위: 명, 비고: 괄호는 특수학급임)

구분	학생 및 학급 수									교원 수	수업 교원 수	수업 교원 1인당 학생 수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5학년	6학년	특수 학급	순회 학급	계			
학급 수	3	3	4	3	3	3	2	0	21(2)	32(3)	24	17.5
학생 수	66	82	82	68	58	57	8	0	421(8)			
학급당 학생 수	22	27.3	20.5	22.7	19.3	19	4	0	20.0			

### 2) 금마초등학교

공립 금마초등학교는 인천광역시 부평구 일신로 88(구산동 357)에 있다. 2006년 9월 28일에 6학급으로 개교하였다. 구산동에 유일한 초·중등학교 기관이다. 2020년 총 20학급에 학생 수는 368명이다.

10 학교 알리미 홈페이지(<https://www.schoolinfo.go.kr>) 및 각 학교 홈페이지를 참고하였다.

표 7 금마초등학교 기본 현황

(2020년 기준, 단위: 명, 비교: 괄호는 특수학급임)

구분	학생 및 학급 수									교원 수	수업 교원 수	수업 교원 1인당 학생 수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5학년	6학년	특수 학급	순회 학급	계			
학급 수	3	3	3	3	3	3	2	0	20(2)			
학생 수	64	62	61	63	61	47	10	0	368(10)	30(2)	23	16.0
학급당 학생 수	21.3	20.7	20.3	21	20.3	15.7	5	0	18.4			

## 2. 대학교

### 1) 한국폴리텍대학 인천캠퍼스



◆ 한국폴리텍대학 인천캠퍼스(출처: 한국폴리텍대학 인천캠퍼스 홈페이지)

인천광역시 부평구 무네미로 448번길 56(구산동)에 있는 한국폴리텍대학 인천캠퍼스는 1968년 6월에 설립된 중앙직업훈련원으로부터 비롯된다. 노동청에서 산업 인력 양성을 목적으로 설립한 중앙직업훈련원은 현재 전국 한국폴리텍대학의 전신이다. 1992년에 인천기능대학(仁川技能大學)으로 개편되었으며, 2006년에 기능대학이 직업전문학교와 통합되면서 ‘한국폴리텍대학’이 출범하였다. 이때 미추홀구에 있었던 인천

직업전문학교와 통합되었고 인천기능대학은 지금과 같이 한국폴리텍Ⅱ대학의 인천캠퍼스가 되었다. 현재 한국폴리텍Ⅱ대학은 인천, 남인천, 화성, 광명융합기술교육원으로 나뉜다.

학위과정으로는 2년제 학위과정(산업학사)과 학위 전공심화과정이 있으며, 비학위 직업훈련과정도 있다.

표 8 한국폴리텍대학 인천캠퍼스 교육 과정

과정	학위 및 세부과정	학과
2년제 학위	산업학사	스마트금형
		기계시스템
		산업설비자동화
		자동차
		전기에너지시스템
		메카트로닉스
		시용합소프트웨어
		정보통신
		방송미디어
		산업디자인
학위전공심화	공학사	신소재응용
		건축설계
		금형공학
		메카트로닉스공학
		자동차공학
		전기공학
비학위 직업훈련과정	기능장과정	정보통신공학
		기계시스템
		자동차
	하이테크과정	전기에너지시스템
		전기에너지시스템
		스마트팩토리
		전문기술과정

### 1. 근로복지공단 인천병원

인천광역시 부평구 무네미로 446(구산동 47-3)에 있는 근로복지공단 인천병원은 노동부 산하의 근로복지공단이 운영하는 병원으로서 1972년 산업재활원으로 시작하였으며, 과거에는 ‘중앙병원’이라고도 했다. 산업재해 환자를 위한 병원으로 설립되어 산업재해 전문 병원의 역할을 하고 있으나 일반 환자에 대한 진료도 하고 있다.

산업재활원으로부터 시작한 병원은 1983년부터 중앙병원을 신설하였고 1996년에 산업재활원과 중앙병원이 통합하여 지금의 모습을 갖추었다. 2001년에는 인천중앙병원으로, 2010년에는 근로복지공단의 통합으로 인천산재병원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가 2014년에 지금과 같이 근로복지공단 인천병원이 되었다.



❖ 근로복지공단 인천병원

2021년을 기준으로 내과, 외과, 소아청소년과, 여성의학과, 정신건강의학과, 치과, 정형외과, 신경과, 비뇨의학과, 재활의학과, 응급의학과, 영상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 진

단검사의학과, 건강관리센터, 이비인후과의 진료과가 있으며, 특히 재활의학과가 전문적이다. 2006년에는 재활전문센터를 두고 수중운동재활관을 설치하였다. 또한 근로자 건강진단, 보건대행, 작업환경측정 등 산업보건사업도 함께하고 있다. 한국폴리텍Ⅱ대학, 안전보건공단 인천광역본부와 더불어 노동부 주도의 산업 관련 기관이다.

### 2.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인천광역본부

인천광역시 부평구 무네미로 478-1(구산동 34-3)에 있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인천광역본부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기관으로서 1987년 12월에 한국산업안전공단으로 출범하였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1987년 5월에 「한국산업안전공단법」의 공포로 그해 12월에 설립되었으며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기관이다. 산업재해의 예방을 위한 제도와 시스템을 구축하고 각종 사업장의 안전 보전에 관해 교육 및 점검을 하고 있다. 또한 사업장에 유해한 환경이 있는지 작업 환경에 관한 실태를 조사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산재 사고에 관한 조사도 담당한다.

공단 설립 이전에 구산동에는 국립노동과학연구소가 있었으며 「한국산업안전공단법」이 공포된 그해 9월에 공단 설립위원회가 국립노동과학연구소에 사무실을 마련하고 공단 설립을 진행하였다.<sup>11</sup> 또한 10월에는 산업안전교육원 청사가 준공되었으며 12월에 한국산업안전공단이 출범하자 공단의 산하 기관으로 흡수되었다.<sup>12</sup> 국립노동과학연구소는 1997년에 폐소하였으며, 그해 5월 안전체험교육장을 설치하였다.<sup>13</sup> 현재 구산동의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인천광역본부는 인천 전역의 산업안전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11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안전을 넘어 행복을 향해 안전보건공단 30년사(1987~2017)』, 2017, 36쪽.

12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안전을 넘어 행복을 향해 안전보건공단 30년사(1987~2017)』, 2017, 68쪽.

13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안전을 넘어 행복을 향해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30년사(1987~2017)』, 2017, 380쪽.



## 참고 문헌



### 단행본

- 부평사편찬위원회, 『부평사』1, 부평사편찬위원회, 2007.  
 인천광역시 부평구청 기획조정실, 『2020 부평 구정백서』, 인천광역시 부평구, 2020.  
 인천광역시 시사편찬위원회, 『인천의 지명』상, 인천광역시 시사편찬위원회, 2015.  
 인천광역시, 『인천통계연보』, 각 해당 연도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안전을 넘어 행복을 향해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30년사(1987~2017)』, 2017.

### 신문

- 『경향신문』  
 『동아일보』  
 『매일경제』  
 『영남일보』  
 『중앙일보』  
 『UPI뉴스』

### 웹사이트

-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https://kyu.snu.ac.kr>)  
 학교 알리미(<https://www.schoolinfo.go.kr>)  
 행정동별 소재 각 학교 홈페이지  
 한국폴리텍대학 인천캠퍼스(<https://www.kopo.ac.kr/>)  
 KOSIS 국가통계포털(<https://kosis.kr>)



부평사  
富平史



# 제 8 장

## 청천동(淸川洞)

- 제1절 \_ 마을 지명 유래
- 제2절 \_ 행정구역의 변천
- 제3절 \_ 일반 현황
- 제4절 \_ 문화유산 및 명소
- 제5절 \_ 교육기관
- 제6절 \_ 문화·체육·보건기관(공공기관)

# 제8장 청천동(淸川洞)



이 슬 아(인하대학교박물관 연구원)

## | 제1절 | 마을의 지명 유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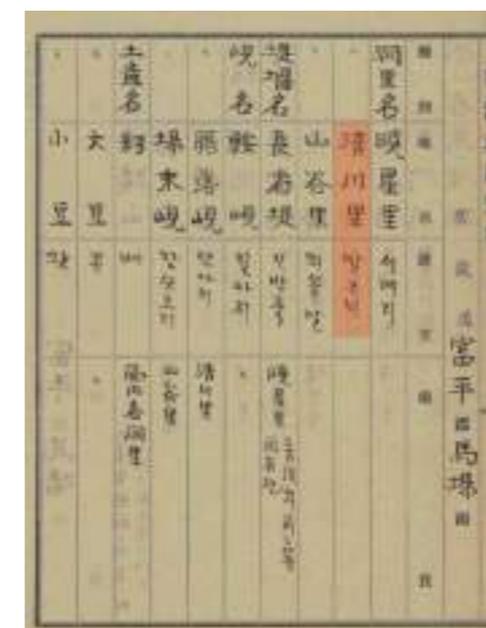
### 1. 동 이름 유래



❖ 청천동 관할구역(출처 : 국토정보플랫폼 국토정보맵)

청천동(淸川洞)은 인천광역시 부평구 관할의 법정동으로, 행정상 청천1동과 청천2동으로 나누어져 있다. 청천동이라는 이름은 마을의 앞으로 흐르는 하천인 청천천(淸川川)의 이름을 붙인 것으로 보인다. ‘청천(淸川)’이라고도 하는 청천천은 효성동의 천마산이 그 발원지로 알려져 있다. 효성동에서 내려온 청천천은 청천동 마을의 외곽을 따라 흐르다가 굴포천으로 합류하였다.

‘청천’이라는 마을의 이름은 조선 후기부터 각종 고문서에 나타나는데, 청천리(淸川里)는 효성리(曉星里), 산곡리(山谷里)와 함께 부평부 마장면(馬場面)에 속하는 마을이었다. 그리고 냇물의 이름으로서의 ‘청천’도 조선 후기에 작성된 『부평부읍지(富平府邑誌)』에서 그 이름을 확인할 수 있다. 적어도 조선 후기부터 ‘청천’이라는 이름은 마을과 그 마을에 흐르는 냇물의 이름으로 사용되었다고 할 수 있다. 『조선지리지(朝鮮地誌資料)』(1911)에서 청천리는 한글로 ‘말근내’라고 표기되어 있다. ‘말근내’는 ‘맑은 내’로, 청천(淸川)과 뜻이 같다.



❖ 『조선지리지』(1911) 속 ‘맑은 내’



❖ 『부평부읍지(富平府邑誌)』의 청천(淸川). ‘부(府, 부평부)의 서쪽 7리에 있다’고 적혀 있다. (출처 :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마을 이름으로서의 청천은 1940년 인천부(仁川府)의 영역이 부평 일대까지 확장되면서 일본식 지명을 붙이는 과정에서 잠시 사라진다. 당시의 이름은 천상정(川上町)이었다. 1945년 해방과 동시에 일본식 동명 철폐가 곧장 이루어지고, 청천리는 청천이라는 지명을 다시 되찾아 지금의 청천동이 되었다. 비록 일제에 의해 잠시 ‘청천’이 아닌 다른 이름을 가지기도 했지만, 천상정(川上町) 또한 마을 옆을 흐르는 개천의 존재에 영향을 받은 작명이라고 짐작된다. 결과적으로 청천동이라는 이름은 조선 후기부터 지금까지 ‘냇가 옆 마을’이라는 뜻을 지킨 채 이어져 왔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청천천은 경인고속도로 부근에서 잠시 모습을 드러냈다가 평천로 아래로 흘러 갈산역을 지나서야 그 모습이 드러난다. 청천동에서는 그 모습을 보기가 어려운 셈이다. 복개하기 전의 청천천은 청천초등학교 앞 평천로에 해당하는 길로 흐르다가 현 한국GM 부평공장을 대각선으로 가로질렀다. 그리고 부평구청역 부근에서 굴포천과 합류하였다. 해방 이후부터 점차 확대되어 청천동 평야의 상당 면적을 차지하게 된 현 한국GM 부평공장 부지는 물길에도 영향을 주었다. 1962년 새나라자동차 공장 건설 때 청천천은 지금의 평천로를 따라 곧은 직선으로 흘러 지금의 갈산역 사거리를 지나 굴포천으로 합류하는 방향으로 물길을 돌렸다. 공장 부지를 우회한 것이다. 한편 청천동에 있는 다리라고 하여 세림병원 앞의 다리의 이름을 청천교라 하였다고 하는데, 1950년대 지명 조사에 따르면 청천교는 갈산동에 있는 지금의 서부2교를 말한다. 굴포천으로 흘러 들어가는 청천천이 갈산천과 합류하는 지점에 있다.

## 2. 소지명 유래<sup>1</sup>

### 1) 마제이

마제이는 조선시대 청천동을 비롯하여 효성동, 산곡동 일대의 지명이었던 마장면(馬場面)과 같은 맥락의 지명이다. 이 일대가 역새풀이 무성한 들판이었는데, 고려시대부터

<sup>1</sup> 『인천의 지명』상(인천광역시 시사편찬위원회, 2015)을 참고하되, 2020년을 기준으로 지명과 지형의 변화가 있는 경우 수정하고 보완 사항이 있는 경우 추가하였음을 밝힌다.

말을 사육하던 곳이라고 하여 ‘마장(馬場)’과 들판의 뜻을 가진 이름이 붙었다고 전해진다. 동소정면을 동수재이라고 부르듯 마장면을 마제이라고도 불렀으며, 마장뜰이라고도 불렀다.

마장면의 면사무소가 청천리에 있었으므로 효성동과 산곡동, 청천동을 아우르던 말인 마제이는 한편으로는 청천리를 지칭하는 말이기도 하였다.

### 2) 청천농장, 양계마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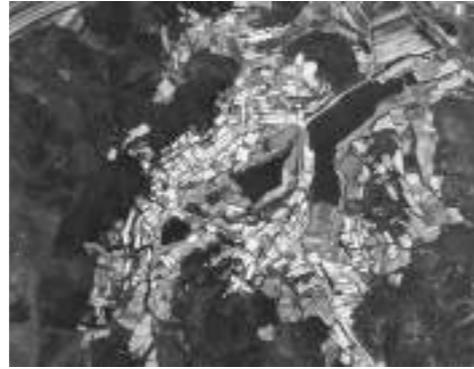
청천농장 및 양계마을은 1960년대부터 청천동의 산골짜기에 형성된 음성 나환자촌 마을로부터 생겨난 지명이다. 청천농장은 장수산과 원적산으로 둘러싸인 분지를 말하며 인천나비공원과 맑은내공원의 서쪽에 있다. 현재는 청천공단으로도 불린다. 양계마을은 지금의 퇴골놀이공원에서 원적산으로 향하는 골짜기에 있었던 마을로, 세월천을 사이에 두고 산곡동과 맞닿아 있었다.



❖ 2020년 청천농장(청천공단)(출처 : 국토정보플랫폼 국토정보)



❖ 1966년 청천농장(출처: 국토지리정보원)



❖ 1974년 청천농장(출처: 국토지리정보원)

청천농장은 1961년 음성 나환자들의 자활 마을로 조성된 공간이다. 1950년대부터 부평 일대에 한센인 관련 마을 및 시설이 설치되었던 것과 관련이 있다. 1949년 한센병 환자들을 수용하는 국립수용소를 인천에 설치하기로 결정하면서 그해 12월부터 정부는 서울, 춘천, 수원 등지에 모여 살던 한센인들을 부평으로 이주시켰다. 이때 각 지역에서 집단을 이루고 있었던 한센인들이 한데 모였기 때문에 집단 간의 다툼이 끊이지 않는 문제가 발생하기도 하였다. 당시 한센인들의 자치위원장으로 취임한 사람이 시인 한하운이다. 그의 주도로 한센인 마을이 형성되면서 1957년 ‘성계원(成蹊園)<sup>2</sup>’이라 이름을 붙였다.

1951년 국립 나요양소로부터 출발하였던 성계원은 1960년에 국립 부평병원이 되었다가 1968년 익산·칠곡·부평의 나병원이 소록도 병원에 통합되면서 폐원되었다. 그 후 지금의 부평농장(인천가족공원 부근)이 되었다.

청천농장은 십정동에 있었던 십정농장과 마찬가지로 성계원에서 음성 판정을 받은 한센인들이 정착한 자활 마을이었다. 천주교인이 대체로 십정농장으로 간 반면, 청천농장은 기독교인들을 중심으로 마을을 형성하였다. 장수산과 원적산으로 둘러싸인 분지였던 청천농장의 부지는 그 이전에는 국유림이었으며 농장 부지는 총 20만 평에 해당하였다. 입주식은 1961년 12월 27일에 거행되었다. 부평병원의 음성 환자 155명 77세대가 입주하였고 보건사회부에서 건설한 3평짜리 간소 주택이 주어졌다. 당시 정착민의 대표는

2 '도리불인 하자성혜(桃李不信 下自成蹊, 복숭아나무와 오얏나무는 말을 하지 않아도 절로 길이 난다)'에서 착안하였다고 한다.

신태준이었다.<sup>3</sup> 청천농장은 양돈·양계사업에 주력하였다. 1971년 당시 국내 86개 한센인 정착촌 중에서 청천농장은 자립능력 지원사업으로 돼지를 배당받았다. 암돼지를 키워 낳은 새끼를 가까운 정착촌에 배당하면서 점차 규모를 키우겠다는 목적의식이 있었다.<sup>4</sup>

청천농장은 양계사업도 활발하였다. 1976년 당시 청천농장에서 키우는 닭은 15만 마리로, 달걀은 하루에 6만 개를 생산해 내면서 경제적으로 부유한 축산업 단지를 형성하고 있었다. 당시 청천농장 입구에는 공동 사료 창고와 축산조합분회 사무소가 자리 잡고 있었다. 그리고 농장의 주요 도로를 따라 들어가면 현재와 같은 자리에 청농교회가 자리하고 있었다.

### 천형(天刑) 딛고 선 청천농장<sup>5</sup>

음성(陰性) 나환 6백 명이 황무지 18만 평 일귀  
닭 15만 수(首)-달걀 생산 하루 6만 개  
사료값만 하루에 백 20만 원어치

청천농장의 음성나환자들은 가축 건설에 힘이 겹지만 앞으로 더 잘살게 될 것을 생각하면 힘이 솟는다. 경인고속도로 부평 인터체인지에서 남쪽으로 먼발치, 3면이 나지막한 야산에 둘러싸인 분지 18만 평이 단위부락으로는 전국 제1의 부농임을 자랑하는 인천시 북구 청천동 청천농장이다. 널찍한 분지에 시골학교 건물만큼씩한 계사와 돼지우리가 꼭 들어차 마치 공장지대를 연상케 하는 이 농장엔 현재 닭이 15만 마리나 되며 돼지도 1천여 마리이다. 지난 61년 12월 맨주먹으로 이곳에 정착한 1백 54가구, 6백여 명의 음성나환자들은 그동안 무던히도 고생을 했다. 이 농장의 김춘기(金春基)회장(50)은 “성하지 못한 몸을 이끌고 땅을 일구다 엄두가

3 「癩患에自活의길」, 『동아일보』, 1961년 12월 28일자.

4 「나환자처에 돼지보내 양지출 自立돕기위해」, 『동아일보』, 1971년 11월 19일자.

5 「천형(天刑) 딛고 선 청천농장」, 『동아일보』, 1976년 2월 11일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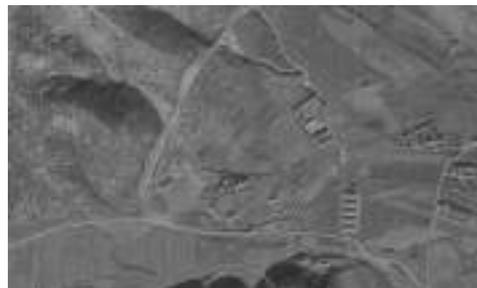
나지 않아 주저앉기도 여러 번했다”고 말했다. 이들은 또 인근 주민들의 냉대가 천형(天刑)의 아픔을 더하기도 했지만 그럴 때마다 서로 격려하면서 마을을 가다듬고 견디었다고 했다. …… 처음에는 이곳이 황량하기만 해 인근 농민들도 거들떠보지 않던 황무지. 농장주민들은 “황무지에 의지를 뿌린 보람이 있어 지금은 80여 음성나환자 정착촌 가운데서도 협동과 재력 면에서 첫손을 꼽게 됐다”고 자랑했다. 가구당 가축 보유 수는 평균 닭 1천여 마리와 돼지 10마리 정도. 상수도 시설과 전화 없는 집이 없고 텔레비전도 2가구에 1대꼴이다. …… 한권옥(韓權沃)씨(53)는 닭 9백 마리에 마을을 맡기고 종일 고된 일을 하다가도 따끈하고 뽀얀 달걀을 거둘 때면 “저절로 힘이 솟는다”고 말했다.

장수산 동남쪽, 청천동의 남쪽에 형성된 양계마을도 청천농장과 비슷하게 한센병 환자들로 구성된 마을이었다. 마을의 위치는 장수산 골짜기 아래, 퇴골놀이공원과 장수산 사이에 있었다. 산 아래 골짜기는 크기가 커서 ‘큰골’이라고도 하고 양계하는 마을이 있다고 하여 ‘양계골’이라고도 불렀다고 한다.

장수산과 세월천 사이의 평지에 자리를 잡은 양계마을은 1970년대부터 농장 건물이 들어서면서 마을이 형성되었다. 청천농장과 양계마을은 마을 형성 당시의 마을의 구성원과 그들이 종사하는 직업이 매우 흡사한데, 청천농장의 형성 시기가 앞선다. 장수산과 원적산 사이를 넘는 길을 따라 청천농장이 확장한 것으로 보인다. 청천농장과 양계마을을 이어주는 이 길을 ‘청천동 고개’라고도 하였다. 현재 세월천로에 해당한다. 그리고 두 마을을 잇는 청천동 고갯길의 남쪽, 지금의 원적산 공원에 해당하는 곳에도 1970년대 양계장 및 목장이 형성되어 있었다. 따라서 1970년대 장수산과 원적산 사이 골짜기에는 양계를 중심으로 하는 축산업이 넓게 퍼져 축산업 단지를 형성하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 2016년 양계마을(출처 : 국토지리정보원)



❖ 1966년 양계마을(출처 : 국토지리정보원)



❖ 1974년 양계마을(출처 : 국토지리정보원)



❖ 1976년 청천동 고개를 사이에 둔 청천농장과 양계마을(출처 : 국토지리정보원)

양계마을도 청천농장과 마찬가지로 당시 정부의 장려 사업이었던 양계 및 양돈 사업에 종사하여 1970년대에는 10만 평 대지에 성계 6~7만 마리, 양돈 200마리 정도의 규모를 보였다. 양계 사업은 정부의 주도 사업이었기 때문에 이윤이 많이 남았는데, 이곳의 한센병 환자들은 비록 나환자라고 주위의 시선이 곱지 못하였어도 청천동의 다른 주민들보다는 경제력이 좋았다고 전해진다.

양계마을은 청천동의 주거지와 논밭을 끼고 약간 거리를 두고 있었는데, 점차 산 아래의 주거지 영역이 확장되면서 그 거리가 좁혀지게 되었고, 양계장의 분노 냄새로 인해 주민들의 불만이 속출하자 자연스럽게 사라졌다. 양계마을이 있었던 곳에는 ‘양지마을’이라는 이름이 붙어 최근까지 표기되고 있다.<sup>6</sup>

양계마을은 주변 마을이 점차 확장되면서 자연스럽게 주거지로 흡수되었다. 반면 청천농장은 청천천 주변의 공장들과 더불어 공장 부지로 변화하였다. 1987년 이후부터 기계, 장비, 조립금속제품 제조업 위주의 영세 중소기업이 입주하기 시작하여 소규모의 공업단지를 형성하였다.

### 3) 신노개들, 신너개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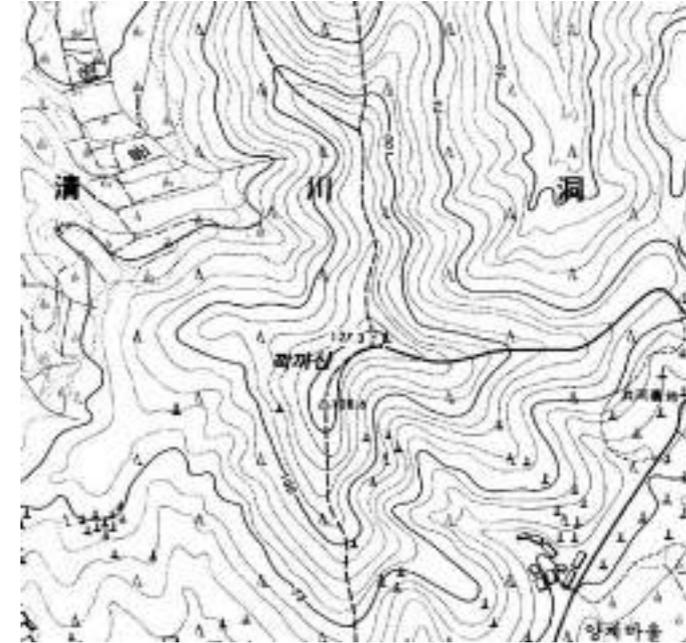
1910년대 『조선지리지자료』에 청천동 내 평야 이름으로 수록되어 있다. 현재 한국GM 부평공장을 중심으로 하는 평야지대를 말하는 것으로 추측된다. 빗물에 의지하여 벼를 심을 수 있는 천수답(天水畓)이었기 때문에 신노개들[神路野]을 풀이하여 비를 관장하는 신과 연관시켜 풀이하나 정확한 유래는 알 수 없다.<sup>7</sup> 청천천이 지금의 한국GM 부평 공장 부지를 가로질러 흘렀었으나 현재는 부지 외곽으로 물길을 돌리고 복개하여 현재의 평천로가 되었다.

### 4) 장수산, 깎은산, 깎까산, 깎까산

청천1동의 산을 장수산, 깎은산, 깎까산이라고 불렀다. 넓게 보면 원적산인데 청천동 고개(세월천로)를 사이에 두고 분할되어 있어 다른 이름을 가진다.

6 국토지리정보원 국토정보플랫폼(<http://map.ngii.go.kr/mn/mainPage.do>)

7 부평사편찬위원회, 『부평사』2, 부평사편찬위원회, 2007, 698쪽.



◆ 1976년 깎까산(출처 : 국토지리정보원)

장수산(長壽山)이란 이름은 유래를 알 수 없으며 최근에 붙인 이름으로 보인다. 산 위의 팔각정을 장수정(長壽亭)이라 하였다. 장수산이라고 하기 전에는 깎까산, 깎은산이라고 불렀다. 일제강점기 때 군용으로 산봉우리를 깎았다고 해서 붙인 이름이다. 미군들이 헬기장으로 이용했다고 하여 산봉우리를 ‘헬기장’이라고도 불렀다.

### 5) 천상교(川上橋)

청천천 위에 놓인 경인고속도로상의 다리 이름이다. 1940년 인천부(仁川府)의 부역 확장으로 인해 청천동이 일본식 지명으로 천상정(川上町)이라고 이름 붙여지면서 그 이름이 남았다.

### 6) 청천, 세월천, 눈다리개천, 윤다리개천, 육문이개천

청천동과 인근의 효성동, 산곡동 일대에는 산으로부터 내려오는 여러 개천들이 평지를 흘러 굴포천으로 합류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개천의 이름이 많이 남아있다.

현재 청천동의 하천으로는 ‘청천천’과 ‘세월천’을 꼽는데, 일부를 제외하고 대부분은 복개 공사를 마쳐 마을에서 하천의 모습을 보기는 어렵다. ‘청천(淸川)’이라고도 하는 청천천은 효성동의 천마산이 발원지로 알려져 있다. 1960년대의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청천천은 청천동의 외곽으로 흐르는 하천이었다. 그리고 세월천은 원적산으로부터 흘러내려와 청천동을 가로질러 굴포천으로 합류한다. 원적산으로부터 내려오는 세월천 상류의 물줄기는 산곡동과 청천동을 구분 짓는 잣대이기도 하였다. 청천의 존재는 『부평부읍지(富平府邑誌)』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1910년대 『조선지리지』에는 청천동의 하천으로서 눈다리개천(黃魚川), 육문이개천(六門川)이 기록되어 있다. 눈다리개천은 한자로 표기하자면 황어천(黃魚川)으로 주변에 황어, 즉 잉어가 많아 붙은 이름이다. 현 계양구 일대에 있었던 장터의 이름인 황어장과 함께 부평 일대가 잉어 산지였음을 나타내는 명칭으로 윤다리개천이라고 변음하여 부르기도 하였다.

### 7) 새벼리사거리

마장로와 부평북로가 만나는 사거리의 이름이다. 청천동 아이즈빌아울렛 앞에 있으며 청천동에서 계양구 효성동으로 넘어가는 길에 속한다. 새벼리는 효성동의 옛 이름이다. 1995년 현재 계양구가 북구로부터 분구하기 이전에는 효성동에 속하던 곳이다.

### 8) 김산, 금산(金山)

지금은 부평 한국수출국가산업단지(4공단)가 있는 곳으로, 김해 김씨의 종산이 있어 이름 붙인 지명이다. 지금은 남아있지 않다.

### 9) 안아지고개, 안하지고개

안하지고개는 부평구 청천동과 계양구 효성동 사이에 있으며 부평구 및 계양구에서 서구 가정동으로 넘어가는 길목이다. 전통적으로 부평 내륙에서 현재 서구에 해당하는 해안가를 잇는 교통로로 이용되었다. 조선 후기에는 현 서구 원창동에 해당하는 곳에 전조창(轉漕倉)이 설치되면서 삼남(충청·전라·경상도)의 대동미를 서울로 운반하는 길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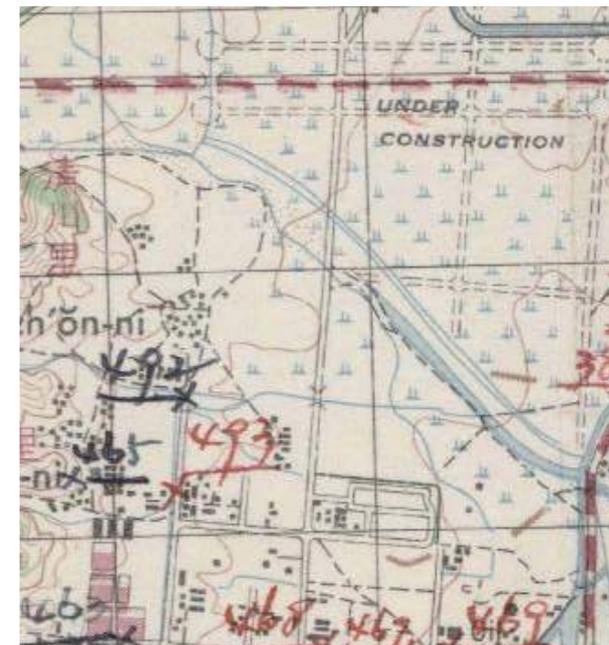
속하였다. 이때부터 개항 이전까지 안하지고개에 사람들이 자주 드나들자 주막이 생겨났다고 한다.

‘안하지’라는 지명의 유래는 여러 가지가 있다. 골짜기에서 흐르는 물로 형성된 연못에 기러기가 살아서 기러기가 있는 연못이라는 뜻으로 안하지(雁下池)라 하였다는 설, 그리고 조선 후기에 생겨난 주막의 주모 이름이 안아지(安阿只)였다는 설 등이 있다.

한편 구십현(九十峴)이라는 이름도 있다. 이성계가 무학대사를 시켜 새 도읍지를 물색하게 하는데, 이 과정에서 부평을 돌아보며 골짜기를 세어 보니 이곳이 아흔 번째라서 고개의 이름을 구십현이라고 붙였다는 것이다. 『부평군읍지』(1899)의 고지도에도 안하지고개는 구십현으로 표기되어 있다.

### 10) 안남로(安南路), 백마로(白馬路)

현 청천2동을 가로지르는 도로인 안남로는 부평의 옛 명칭인 ‘안남도호부(安南都護府)’에서 따 온 것이다. 부평동에서부터 효성동까지 약 6km, 최대 왕복 4차로의 이 도로는 청천동을 양분하여 동쪽으로는 공장 용지가 넓게 형성되어 있다.



◆ 1950년대 후반 안남로(출처 : 국토지리정보원)

안남로는 인근의 마장로와 부평대로보다 먼저 생겨 1950년대에는 이미 형성되어 있었다. 그리고 안남로와 연결되어 현재 부평 한국수출국가산업단지(4공단)를 지나는 직선 도로들(지금의 평천로, 새벌로, 부평북로, 부평대로)은 1950년대 중반에 한창 공사 중이었다.

한편 과거에는 백마로라고 부르기도 했다. 백마로는 백마장에 있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백마장(白馬場)은 산곡동 사택 밀집 군사지역을 일컫는 지명으로 쓰였다. 현재도 산곡초등학교 부근의 '백마장사거리'로 그 이름이 남아있다. 백마장이란 이름의 유래는 한자 그대로 해석하여 일본군 군사훈련 때 쓰인 백마를 따라 이름을 붙였다고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마장면'의 변용이라고 보기도 한다.

### 11) 영아다방사거리

지금의 마장로와 세월천로가 만나는 지점을 마을 사람들은 '영아다방사거리'라고 불렀다. 1950년대부터 있었던 인근 '영아다방'의 영향이다. 영아다방사거리는 부평동 혹은 부평역에서부터 청천동으로 진입할 때 마을의 입구 역할을 하였으며 부평구 일대 주민들에게는 산곡동과 청천동의 중심지를 일컫는 지명으로 지금까지 이어져 왔다. 영아다방이라는 이름의 다방(커피숍)은 2012년까지 이어져 오다가 현대식으로 상호를 변경하였다.<sup>8</sup> 2016년에 커피숍이 사라지고 현재는 다른 업종의 가게가 들어섰다.

영아다방사거리 주변으로 더 큰 건물이 생겨나고 영아다방은 이전의 명성을 잊지 못했지만 영아다방사거리는 지명으로서 부평구와 인천 시민들의 인식에 오래 남았으며 버스정류장 이름으로도 쓰여 왔으나 최근 변경되었다. 현재 교차로 및 버스정류장 이름은 '세월천사거리'이다.

영아다방은 김해자 시인의 두 번째 시집 『축제』(2007)에서 「영화다방 앞에서」라는 제목의 시로 등장하기도 했다.



❖ 2011년 영아다방 외관(출처 : 다음 지도 로드뷰)

## | 제2절 | 행정구역의 변천

### 1. 전통 시대

조선시대에 청천동 일대는 경기도 부평도호부(富平都護府)의 행정구역 중에서 마장면(馬場面)에 속한다. 부평은 1895년(고종 32) 인천관찰부 소속의 부평군이 되고, 1896년(건양 1)에는 경기도 소속 부평군이 된다. 마장면은 부평의 중심지(지금의 계양구 계산동 일대)에서 서쪽으로 10리 정도 떨어진 지역으로, 원적산(元積山) 아래의 마을이다. 부평 읍내에서 구십현(九十峴, 안아지고개)을 통해 인천으로 향하는 길목에 있다.

8 「영영 못보는 '영아다방」, 『경인일보』, 2013년 1월 10일자.



❖ 『경기읍지』(1871) 속 마장면(출처 :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영조 때인 1757년부터 편찬한 지리지 『여지도서(輿地圖書)』에서 마장면은 부평 내 15개의 면 중 하나로 부내에서 남쪽으로 10리 떨어진 곳에 있으며, 3개의 마을이 있고 90호(戶) 내 남자 146명, 여자 166명으로 기록되었다. 1789년(정조 13) 『호구총수(戶口總數)』에는 83호 내 남자 133명, 여자 117명으로 되어 있다. 1871년(고종 8) 『경기읍지(京畿邑誌)』에는 관문으로부터 서쪽으로 10리 2방(坊) 떨어져 있으며 94호에 남자 163명, 여자 113명으로 되어 있다. 1899년(광무 3)에 편찬한 『부평군읍지(富平郡邑誌)』에서 마장면은 부평군(富平郡) 내 15개의 면 중 하나로 군내에서 서쪽으로 10리 떨어진 곳에 있으며, 3개의 마을에 109호가 살고 남자 241명, 여자 191명으로 기록되어 있다. 『호구총수』 기준으로 하여 당시 부평 내 각 면의 호수는 읍내면(邑內面) 242호, 동면(東面) 174호, 당산면(堂山面) 150호, 주화곶면(注火串面) 165호, 상오정면(上梧亭面) 186호, 하오정면(下梧亭面) 201호, 수탄면(水呑面) 192호, 옥산면(玉山面) 200호, 석천면(石川面) 233호, 동

소정면(同所正面) 191호, 서면(西面) 181호, 석곶면(石串面) 305호, 모월곶면(毛月串面) 354호, 황어면(黃魚面) 312호인 것에 반해, 마장면은 83호로 되어 있다. 주변 지역보다 마을의 규모가 현저히 작은 편이었다고 할 수 있다.

마장(馬場)이라는 지명으로 말미암아 이곳이 과거 말을 사육하던 곳이라고 짐작할 수 있다. 마장면 일대는 ‘마장뜰’ 혹은 ‘마제이’ 등으로도 불리웠다. 마장면의 세 마을은 청천리(淸川里)·효성리(曉星里)·산곡리(山谷里)로, 지금의 청천동과 효성동, 산곡동으로 이어진다. 『호구총수』에는 청천리와 효성리만 기록되어 있다.

元戶	黃魚面	六十五	元戶	毛月串面	元戶	石串面	元戶	馬場面	元戶
三百十二口	一千七百四十二		三百五十四口	一千一百九十六	三百五十五	八百三十三	八百三十三	八百三十三	六百七十一
男	九百八十五		男	六百五十四	男	四百一十五	男	四百一十五	三百三十一
女	七百五十七		女	四百四十二	女	四百一十八	女	四百一十八	三百四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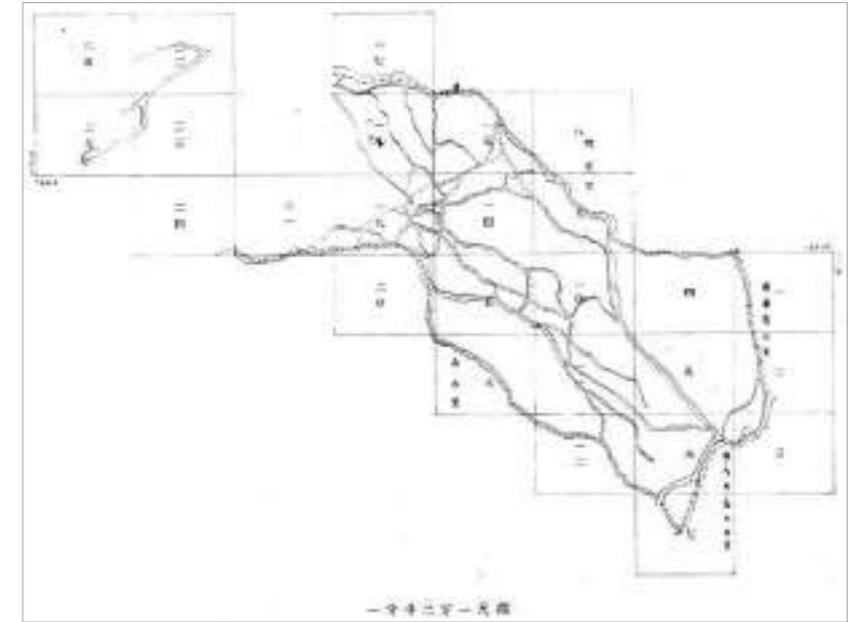
❖ 『호구총수』 속 마장면(출처 :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 2. 일제강점기

1910년 국권을 침탈한 조선총독부는 칙령 제357호로 「조선총독부지방관관제(地方官官制)」를 공포, 한반도에 13개의 도(道), 그리고 부(府)와 군(郡)을 두고 각 부군에는 읍면(邑面), 그리고 하부에 리(里)와 동(洞)을 두도록 하였다. 이때 청천리는 경기도 부평군 마장면 청천리가 된다. 1911년에 조선총독부에서 발간한 『조선지지자료(朝鮮地誌資料)』에는 마장면 내 마을이 청천리, 효성리, 산곡리로 표기되어 있다. 그리고 청천리는 한글로 ‘말근내’라고 표기되어 있다. ‘말근내’는 ‘맑은 내’로, ‘청천(淸川)’과 같다. 청천동(淸川洞)은 냇물이 마을로 내려왔기 때문에 붙은 지명이다. ‘청천(淸川)’, 그리고 ‘맑은 내’는 오랫동안 마을의 이름으로서 지금까지 이어져 왔다.



❖ 1900년대 지도 속 청천리(아래에는 산곡리, 위에는 효성리가 있다)(출처 : 아시아역사자료센터)



❖ 1910년대 청천리 지적원도(출처 : 국가기록원)

1910년대 조선총독부에서 측량한 지적원도를 보면 당시의 청천리는 청천천을 기준으로 북쪽의 효성리와 분리되어 있었고, 남쪽은 산곡리, 그리고 동쪽은 갈산리 및 대정리와 맞닿아 있었다. 또한, 조선총독부에서 실시한 토지조사에 따르면 당시 청천리의 토지 소유는 국유지와 일본인 나카무라(中村正路), 그리고 청천리의 소유지 등으로 나뉜다.<sup>9</sup> 청천리의 잡종지 및 임야를 소유한 나카무라는 양잠(養蠶) 사업에 종사하였던 나카무라 마사미치(中村正路, 1860~1930)로 추측된다. 1892년 일본으로 망명 중이었던 송병준과 만났으며 그에게 양잠을 가르쳤다. 나카무라는 한일합병 이후 조선에서 농장을 경영하였고 1930년 경성에서 사망하였다.<sup>10</sup> 송병준 또한 1910년에 청천동과 멀지 않은 산곡동 일대의 땅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1994년 그의 증손자가 이 땅을 되찾으려고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패소하였다.

9 부평역사박물관, 『장수산 맑은내 마을, 부평 청천동』, 부평역사박물관, 2016, 81쪽.

10 일본 야마구치현 하기시 박물관(萩博物館) 인물 데이터베이스(<https://sites.google.com/site/hagijinbutsu/list?authuser=0>)



◆ 1917년 지도 속 청천리

1914년 경기도 부평군 마장면 청천리는 '경기도 부천군(富川郡) 부내면(府內面) 청천리'가 된다. 1914년 부제(府制)가 실시되고 행정구역이 폐합되면서 인천항 앞 조계지를 중심으로 한 인천부(仁川府)가 결정되는데, 인천부의 부내면과 다소면의 일부만 인천부가 되고 나머지 인천 영역과 부평군을 합한 지역으로 부천군(富川郡)을 새로 만들었다. 부천은 부평의 '부'와 인천의 '천'을 따와 만들었으며, '부천'이라는 지명이 이때 처음 생겨났다. 부내면은 그 이전 부평군의 군내면, 서면, 마장면, 동소정면을 합한 영역이다.

1930년대 인천부는 부의 배후 지역에 대한 공업적 개발을 목표로 부역(府域)의 확장을 추진하여, 1936년에 부천군에 속하였던 문학면과 다주면의 일부를 인천부에 편입시켰다. 한편 1930년대 말부터 조선총독부의 병참기지화 정책으로서 부평역 중심의 평야

일대가 군수공업단지로 조성된다는 내용의 경인시가지계획으로 부평 일대는 경성부 혹은 인천부로의 편입을 앞두고 있었는데<sup>11</sup>, 1940년 조선총독부령 제40호로 인천부가 2차로 부역을 확장하면서 과거 부평도호부 영역 대부분이 인천으로 편입된다. 이때 청천리도 인천부에 속하면서 일본식 지명으로 '천상정(川上町)'이라 이름 붙여진다.

### 3. 해방 이후

1945년 8월 15일 광복 이후 9월 19일에 미군정청(美軍政廳)이 설치되면서, 미군은 일제강점기의 조선총독부의 권한을 장악하고 지방 정부를 재조직하였다. 청천리는 해방 직전 인천부의 영역에 속하였으므로 해방 이후에도 인천부의 영역이었다. 인천부는 1945년 10월 12일에 잠시 '제물포시'가 되었다가 10월 27일에 '인천시'로 변경된다. 그리고 11월 1일에 인천시가 아닌 다시 '인천부'로 변경되었다. 1946년 1월 1일에는 일본식으로 변경되었던 이름을 철폐하면서 천상정(川上町)이 아닌 '청천'이라는 이름을 다시 되찾아 청천동이 되었다.

인천부는 1948년 11월 17일 법률 제8호 「지방행정에 대한 임시조치법」을 통해 행정구역상 법적인 지위를 갖고 1949년 7월 4일에 공포된 법률 제32호 「지방자치법」에 의해 기초 자치단체가 되면서 '인천시'가 되었다. 따라서 청천동은 경기도 인천시 청천동이 되었고, 인천 본청의 부평출장소 관할에 있었다. 1966년 12월 21일 인천시는 거주 인구 52만 명을 넘어가면서 구 설치를 추진하였고, 1967년 3월 30일에 「인천시 구 설치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으며 1968년 1월 1일부터 구제도(區制度)를 도입하여 인천에 중구, 동구, 남구, 북구가 설치되었다. 이때 청천동은 북구 관할구역에 속하였다.

한편 청천동은 해방 이후 인구가 적어 1955년부터 1968년까지 산곡동과 합쳐져 '산곡·청천동'이었다가, 1960년대 말 공업단지의 형성으로 인구가 증가하자 산곡동과 분리되어 다시 청천동이 되었다. 그리고 인천 인구의 증가로 1981년 7월에 인천시가 경기

11 「大擴張되는京城府域」, 『동아일보』, 1939년 10월 2일자.

도로부터 독립하면서 인천직할시(仁川直轄市) 북구 청천동이 되었다. 청천동은 지속적인 인구 증가로 1990년 5월 1일 인천직할시 북구 조례 제190호에 의해 지금과 같이 청천1동과 청천2동으로 나뉘었다.

표 1 연도별 부평과 청천동의 인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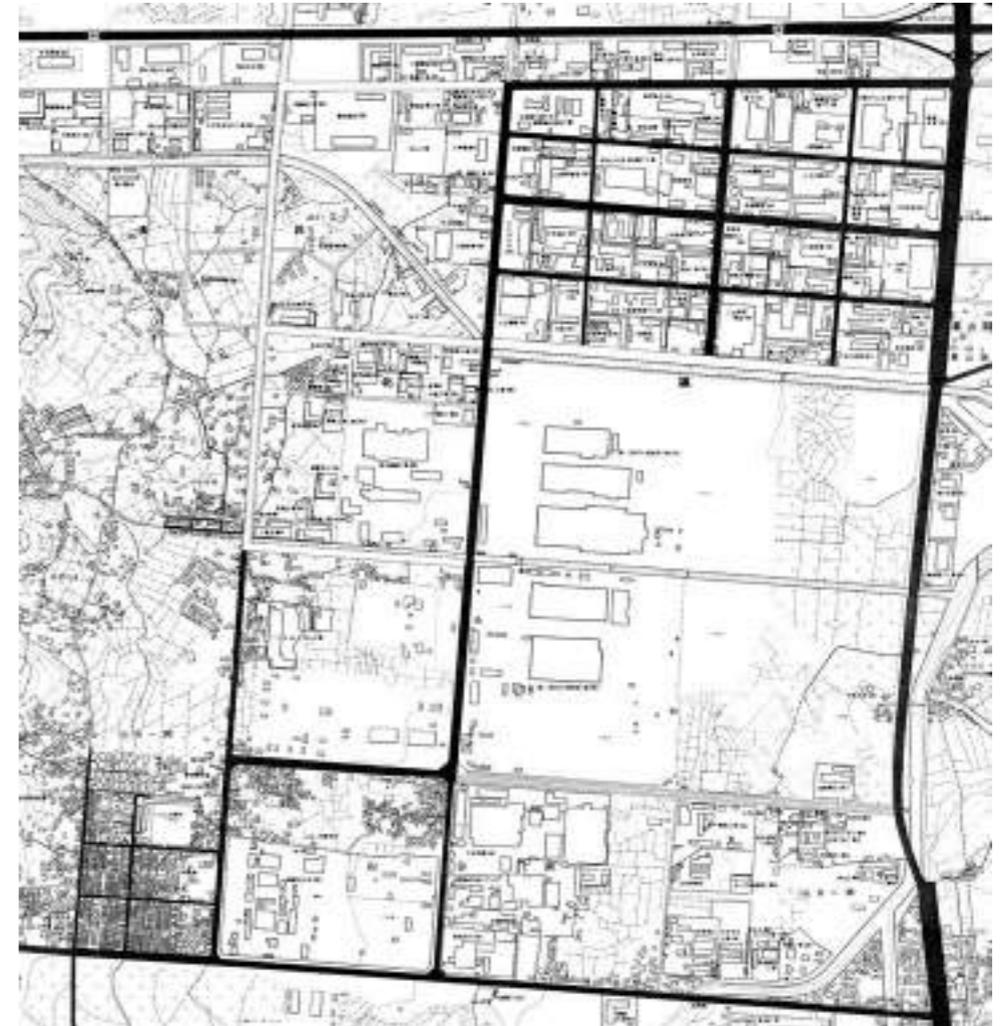
(단위 : 년명)

연도	청천1동	청천2동	청천동(전체)	부평
1965			2,285	83,669
1970			4,724	125,886
1975			7,812	193,561
1980			21,150	322,406
1985			30,546	464,604
1990	23,426	16,700	40,126	616,818
1995	22,830	23,777	46,607	489,621
2000	19,086	40,622	59,708	529,569
2005	17,849	39,642	57,491	548,068
2010	16,412	37,909	54,321	547,395
2015	14,785	36,989	51,774	514,385

❖ 출처 : 인천광역시, 『인천통계연보』, 각 연도(1965-1985년); KOSIS 국가통계포털(1990-2015년)

1995년 1월 1월에 인천직할시가 인천광역시(仁川廣域市)로 승격되었으며 인구 50만 명이 넘는 북구는 부평구와 계양구로 나뉘게 된다. 북구는 1990년대 초부터 신설구의 명칭과 편입 지역 등을 논의하고 있었는데, 그중에서도 북구를 남북으로 나눌 때 그 중간에 해당하는 청천동·갈산동·효성동을 어디로 편입시킬 것인지 여러 의견이 있었다. 결국 북구를 가로지르던 경인고속도로를 기점으로 구의 구역을 책정하기로 하였다. 이 기준에 따라 효성동 일부가 청천2동으로 편입되어 지금의 모습을 갖추었다. 따라서 1995년 북구가 부평구 및 계양구로 분구되면서 부평구의 인구 일부가 계양구의 인구가 되어 이전보다 감소한 결과를 나타내지만, 청천동의 인구는 효성동 인구의 유입으로 오히려 증가세를 기록하였다. 이때 부평구에는 21개의 동을 관할하였는데, 청천동이 부평구에 속하게 되면서 지금과 같이 ‘인천광역시 부평구 청천동(청천1동, 청천2동)’이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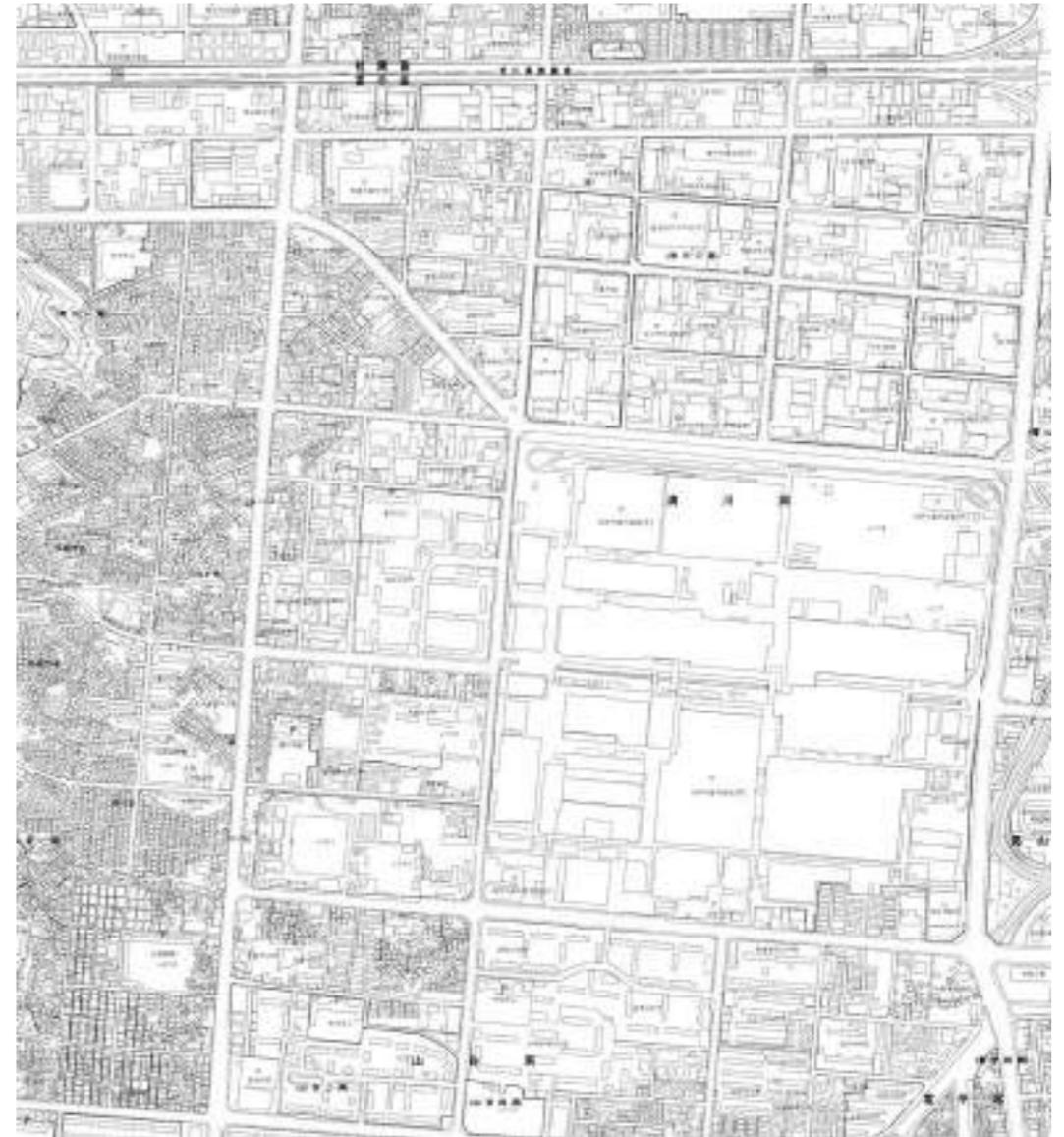
경인고속도로와 부평공업단지의 배후에 있었던 청천동은 일할 곳을 찾아 부평으로 유입되는 사람들이 기거하는 주요 마을이었다. 마장로를 중심으로 서쪽에 해당하는 청천1동은 중·소규모의 공장들이 자리를 잡은 청천농장과 장수산 아래 기존 주택지가 포함되었고, 마장로의 동쪽에 해당하는 청천2동은 기존 주택지 일부와 공장들, 그리고 공장이 사라지고 남은 부지에 새롭게 만들어진 아파트 단지들로 구성되었다.



❖ 1970년대 중반 청천동 지도(출처 : 국토지리정보원)



❖ 1980년대 후반 청천동 지도(출처 : 국토지리정보원)



❖ 2000년대 청천동 지도(출처 : 국토지리정보원)

1. 청천1동



❖ 청천1동 행정구역(출처 : 국토정보플랫폼 국토정보맵)

청천1동은 서쪽에는 서구 가정동과 석남동, 북쪽에는 효성동, 남쪽에는 산곡동과 맞닿아 있다. 행정구역의 가운데에 장수산이 있어 산지가 많다. 산의 서쪽에는 청천공단이 있고 동쪽 산 아래에 조선시대부터 마을이 형성되어 있었다. 해방 이후 산곡동으로부터 올라오는 직선 도로(현 마장로)가 청천동 마을의 초입까지 형성되어 있었고 1970년대에는 이 도로가 효성동까지 이어지면서 마을은 청천1동과 청천2동으로 나뉘었다. 청천1동의 마을은 옛 용수목욕탕 북쪽(청천초등학교의 남쪽으로 평천로54번길과 산청로 사이

에 형성되어 있었다)을 중심으로 발달하였다.

최근 청천1동의 재개발사업이 추진되면서 대규모 주택 공급을 예고하고 있다. 인근 산곡동에 서울지하철 7호선의 연장과 함께 청천동의 인구 유입을 기대할 수 있는 대목이다. ‘청천1 재개발 정비구역’은 청천동 104번지 일원으로 약 7만㎡의 면적에 해당한다. 마장로에 접하는 건축물을 제외하고, 마장로-세월천로-산청로-청중로의 구간이다. 2020년 10월 31일을 기준으로 관리처분 단계에 접어들어 건축물의 철거를 앞두고 있다. ‘청천2 재개발 정비구역’은 청천동 36-3번지 일원으로 청천초등학교를 제외하고 평천로~산청로-세월천로로 구획되는 구간이다. 면적은 약 21만㎡이다. 청천초등학교 쪽에는 공원과 공공 청사 및 복지시설을, 그 아래는 일반 주거지역으로 결정되었다. 2020년 10월 31일을 기준으로 착공 중이다.

1) 인구면적

청천1동의 면적은 2.16km<sup>2</sup>로 부평구 전체의 6.8% 정도이다. 2019년을 기준으로 세대수는 3,651세대, 인구는 7,587명인데, 부평구 내 총 22개 행정동 중 가장 적다. 행정구역 및 인력 구성은 아래와 같다.

표 2 청천1동 기본 현황

(2019. 12. 31. 기준, 단위 : km<sup>2</sup>·%·세대·명)

면적	세대수	인구수			행정구역		행정인력	민방위	예비군
		계	남	여	통	반			
2.16 (구의 6.8)	3,651	7,587	4,072	3,515	27	171	13	490	399

2) 자생 단체

청천1동 내 자생 단체는 8종류이며, 주민자치위원회 16명, 통장자율회 13명, 방위협의회 18명, 지역사회보장협의체 19명, 부녀회 8명, 주민참여예산지역위원회 15명, 청소년지도위원회 11명, 풍물단 24명이 활동하고 있다.

12 인천광역시 부평구청 기획조정실, 『2020 부평 구정백서』, 인천광역시 부평구, 2020.

표 3 청천1동 자생 단체 현황

(2019. 12. 31. 기준, 단위: 명)

주민자치위원회	통장자율회	방위협의회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부녀회	주민참여예산지역위원회	청소년지도위원회	풍물단
16	13	18	19	8	15	11	24

### 3) 사회복지 대상자

2019년을 기준으로 청천1동 내 사회복지 대상자는 총1,848명으로, 기초생활수급자 446명, 한부모가족 121명, 장애인 423명, 기초연금대상자 858명이 해당된다.

표 4 청천1동 사회복지 대상자 현황

(2019. 12. 31. 기준, 단위: 세대/명)

합계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장애인	기초연금
1,481/1,848	309/446	52/121	423/423	697/858

### 4) 주요 시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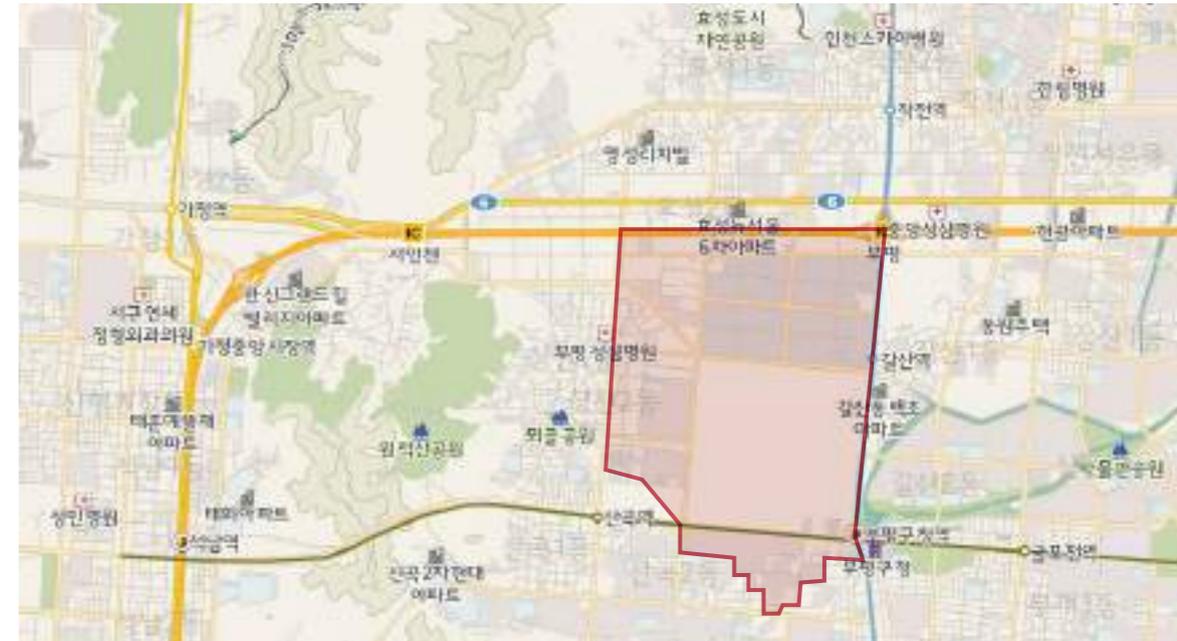
2019년을 기준으로 청천1동 내에는 공공기관 1개소, 복지시설 1개소, 경로당 2개소, 어린이집 5개소, 학교 1개소, 병·의원 4개소, 약국 3개소, 금융기관 2개소, 종교시설 18개소가 있는 것으로 집계되었다.

표 5 청천1동 주요 시설 현황

(2019. 12. 31. 기준, 단위: 개소)

공공기관	복지시설	경로당	어린이집	학교	병·의원	약국	금융기관	종교시설
1	1	2	5	1	4	3	2	18

## 2. 청천2동



❖ 청천2동 행정구역(출처: 국토정보플랫폼 국토정보맵)

청천2동은 북쪽으로 효성동, 동쪽으로 갈산동, 남쪽으로 산곡동과 맞닿아 있다. 행정구역의 절반 이상이 한국GM 부평공장과 부평 수출산업단지가 차지하고 있다. 동쪽으로는 갈산동과 경계를 이루는 부평대교가 길게 나 있으며 부평대교를 따라 인천1호선이 지난다.

청천2동의 평야지대는 과거 청천천과 세월천이 흐르는 들판으로 하천물이 범람하여 농지뿐만 이용되다가 해방 전후로 공장용지가 되었고, 1990년대 이후 부평의 도심화로 주택지와 공존할 수 없는 산업체들이 부평을 빠져나가면서 공장용지는 대부분 아파트 단지가 조성되어 지금의 모습이 되었다.

### 1) 인구·면적

청천2동의 면적은 2.8km<sup>2</sup>로 부평구 전체의 8.7%에 해당한다. 일신동 다음으로 가장 큰 면적이다. 2019년을 기준으로 세대수는 1만 3,831세대이고 인구는 3만 5,232명으로 부평구 행정동 중에서 많은 편에 속한다. 행정구역 및 인력 구성은 아래와 같다.

표 6 청천2동 기본 현황

(2019. 12. 31. 기준, 단위: km<sup>2</sup>·%·세대·명)

면적	세대수	인구수			행정구역		행정 인력	민방위	예비군
		계	남	여	통	반			
2.8 (구의 8.7)	13,831	35,232	17,628	17,604	38	252	17	2,274	1,787

### 2) 자생 단체

청천2동 내 자생 단체는 7종류이며, 주민자치위원회 40명, 통장자율회 37명, 방위협의회 10명, 지역사회보장협의체 16명, 주민참여예산지역위원회 15명, 청소년지도위원회 15명, 풍물단 21명이 활동하고 있다.

표 7 청천2동 자생 단체 현황

(2019. 12. 31. 기준, 단위: 명)

주민자치위원회	통장자율회	방위협의회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주민참여예산지역위원회	청소년지도위원회	풍물단
40	37	10	16	15	15	21

### 3) 사회복지 대상자

청천2동 내 사회복지 대상자는 총 6,234명으로, 기초생활수급자 1,111명, 한부모가족 300명, 장애인 1,558명, 기초연금대상자 3,265명이 해당된다.

표 8 청천2동 사회복지 대상자 현황

(2019. 12. 31. 기준, 단위: 세대/명)

합계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장애인	기초연금
4,982/6,234	785/1,111	125/300	1,500/1,558	2,572/3,265

### 4) 주요 시설

청천2동은 청천1동보다 주요 시설이 많다. 2019년을 기준으로 공공기관 6개소, 복지시설 2개소, 경로당 13개소, 어린이집 33개소, 학교 3개소, 병·의원 20개소, 약국 16개소, 금융기관 7개소, 종교시설 31개소가 있는 것으로 집계되었다.

표 9 청천2동 주요 시설 현황

(2019. 12. 31. 기준, 단위: 개소)

공공기관	복지시설	경로당	어린이집	학교	병·의원	약국	금융기관	종교시설
6	2	13	33	3	20	16	7	31

### 1. 부평 수출산업단지와 청천동의 공업

청천2동을 중심으로 펼쳐진 공업의 공간은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우선 1960년대의 경제발전 정책으로 국가 주도로 건설한 산업단지 중 하나인 ‘부평 수출산업 단지’가 있고, 그 주변의 평야에 넓게 입주한 대형 기업체의 공장들이 있다. 대형 공장으로는 현 한국GM 공장이 대표적이며 부평의 도시화의 심화로 인해 1990년대 이후로는 상당수 청천동을 떠났다. 그리고 청천동 마을의 안까지 들어온, 이른바 ‘마찌꼬바’<sup>13</sup>라고 부르는 작은 공장들이 있었다.

하천이 흐르는 청천동의 평야에 공장이 생겨나기 시작한 것은 1930년대부터이다. 1930년대 후반 일제의 중국 침략에 따라 조선총독부는 대륙 침략의 병참기지 역할을 수행하고자 조선의 군수공업 육성을 위해 보다 적극적인 조선 공업화 정책을 추진해 나갔다. 이때 서울과 인천항을 잇는 경인 일체에 군수공업지대를 세우려는 계획에 따라 부평 평야 일대에는 공업화를 위한 공장용수와 전력 공급 시설 및 도로와 운하 등 인프라 조성 개발이 착수되거나 구체적인 계획이 논의되고 있었으며, 1940년 1월에는 경인시가지 계획으로 공업용지 및 주택지경영지구로 지정되어 공업지대와 신시가지 개발을 앞두고 있었다.

1930년대 후반부터 부평역 앞 인천육군조병창을 중심으로 일본 자본의 군수공장들이 입주하기 시작했는데, 부평동과 산곡동에 이어 청천동으로도 공장들이 입주하였다. 이때 부평평야에서 농사를 일구며 살아가던 약 6,000여의 농가가 터전을 잃게 되었고 이 과정에서 토지보상을 받지 못하는 자작농이 약 5,000여 가구에 해당하였다.<sup>14</sup> 일제강점기때 청천동에 있었던 공장으로는 부평와사(富平瓦斯), 동경제강(東京製鋼), 경성공작주식회사 공장 등이 있었다. 부평와사공장은 부평에 건설된 군수공장들에게 가스를 보급하기 위해 경성전기주식회사(京城電氣株式會社)가 설립한 것으로 1940년 5월 청천동

에 착공하여 1942년 3월에 준공하였다. 경성전기주식회사의 전신은 일한와사주식회사(日韓瓦斯株式會社)로, 러일전쟁 이후 일본인이 가스 사업권을 매수하여 설립한 회사이다. 1912년에 인천전기주식회사를 매입하고 1915년에 경성전기주식회사로 기업명을 변경하였다. 청천동의 부평와사공장은 ‘부평와사제조소’, ‘인천와사제조소’ 등으로 불렸으며, 가스·코크스·콜타르를 생산하여 조병창에 공급하였다. 당시 1일 평균 생산량은 2,157m<sup>3</sup>에 불과하였다고 한다. 해방 이후인 1945년 12월에는 연료 부족 문제가 시급해지자 각지의 석탄을 조사하면서 부평와사공장에 일본군이 사용하던 약 천 톤의 유연탄이 남아있던 것을 확인하고 가정에 배급하였다.<sup>15</sup> 귀속 기업으로서 청천동에 잔류하고 있었으나 곧 폐쇄되어 기기의 일부는 왕십리 제조소로 이관되었다.<sup>16</sup> 동경제강주식회사(東京製鋼株式會社)의 공장도 조병창의 하청공장으로서 청천동에 설립되었다. 청천동의 검정사택이 동경제강의 사택으로 알려져 있다. 해방 이후 동경제강의 한국인 노동자들은 공장의 유지와 생산 재개를 위해 유지자치위원회를 구성하여 활동하였는데, 노동자 80명으로 조업을 재개하였으나 연료 부족의 문제가 있었다. 그리고 경성공작주식회사 공장은 수도용 강관을 생산하는 공장으로서, ‘경성공작소’라고도 불렸다. 해방 이후에도 존속하여 1970년대까지 유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sup>17</sup>

일제강점기때 조선의 공업은 자생적으로 발전하기보다 일제의 자본을 투입하여 목적에 맞게 계획하여 실행에 옮긴 것이었기 때문에, 일제의 패망과 동시에 크게 위축될 수밖에 없었다. 해방 직후의 한반도의 공업은 공장을 가동하기 위해 필요한 원료와 자본, 기계 등을 자력으로 수급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고 북한과의 단절로 송전이 중단되고 주요 광물 자원의 공급도 어려워졌다. 이러한 환경에서 일제의 대륙 침략을 위한 목적으로 군수공업 도시로 개발되고 있었던 부평 일대는 대부분의 공장이 가동을 멈추었는데, 미군정기 일본인들의 사업체였던 것을 동결하고 민간인에게 귀속사업체의 관리를 위임하면서 멈추었던 공장들이 일부 가동되기 시작하였다.

15 「瓦斯家庭配給은 年末, 京電瓦斯部活動」, 『조선경제신보』, 1945년 12월 19일자.

16 인천직할시사편찬위원회, 『인천시사』중, 인천직할시, 1993, 910쪽; 인천광역시사편찬위원회, 『인천광역시사4 현대사회(II)』, 2002, 195-210쪽.

17 「京城工作所 대표를 立件」, 『매일경제』, 1972년 9월 23일자.

13 마찌꼬바(町工場): 일본어로 ‘길거리마치’와 ‘공장こうば’을 합친 말

14 「富平平野市計實施로 農土일케될 六千農家」, 『동아일보』, 1939년 10월 11일자.

본격적으로 부평 일대에 공업 단지가 형성되고 청천동이 부평 공업의 중심지로서 자리매김하게 되는 것은 1960년대부터이다. 수출산업단지가 청천동 일대에 조성되었기 때문이다. 1960년대 정부는 제1차 경제개발5개년계획(1962-1966년)으로 국내의 기간 산업을 확충하고 공업적 인프라를 갖추어 경제개발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였는데, 이때 경인 지역은 해방 이전과 마찬가지로 서울을 중심으로 하는 수도권 공업지대로서 경제개발의 우선순위에 있었다. 1965년 1월 정부는 수도 서울과 항만이 자리 잡은 인천항까지의 광범위한 지역, 즉 경인 지역을 특정 지역으로 지정하여 서울과 인천 간 공업단지 개발을 통해 국내 공업 개발과 지역 개발, 나아가 주변의 수도권으로 파급효과를 내겠다는 목표를 수립한다. 비록 광역적인 공업지대 개발의 수립까지 나아가지는 못하였으나 국가 주도의 공업단지 건설과 공업적 인프라의 집중이 이루어졌다.

1960년대 초반 정부가 공업육성과 수출 활성화 정책의 일환으로 재일 교포의 투자와 기술 도입을 수반한 경공업 중심의 공장단지를 세울 것을 결정하고 그 예정지를 모색하자 경기도와 인천상공회의소는 인천의 주요 공업지역으로 발전시킬 예정이었던 부평 일대를 건의하였다. 부평은 항만과 철도, 공항이 인근에 있어 물자의 수송이 유리하고 공장용수와 동력 이용이 가능하다는 이점, 그리고 장차 산업단지의 규모 확장이 유리하다는 점을 들어 유력한 후보지로 떠올랐지만, 대부분 국유지이며 서울에 있다는 이점을 가진 구로동 후보지가 1964년 3월 수출산업공업단지 1차 계획 예정지로 지정되었다. 현재는 ‘서울디지털산업단지’, ‘G-밸리’라고 부르는 구로공단이 이때 조성되었다. 그리고 10월에 인천시는 구로동과는 별도의 공업단지를 위한 ‘수출산업공업단지 지정 신청서’를 상공부에 제출하였고, 1965년 6월 16일에 부평 지역이 수출공단으로 지정되고, 11월에 인천수출산업공단의 정식 인가를 얻어내었다.



❖ 1966년 청천동 항공사진(출처 : 국토지리정보원)

1966년 3월 4일에 건설부로부터 부평 수출산업단지 조성사업의 실시계획을 인가받은 인천시는 4월 8일 기공식을 시작으로 현재 청천2동 한국GM 부평공장의 북쪽에 해당하는 약 21만 평 부지에 공사를 진행하였다. 청천이 흐르는 청천동 앞 넓은 평야에 50여 개의 기업체가 입주하는 공장 부지와 도로, 기타 시설을 설치하는 대대적인 공사는 국고 4억 9,000만 원, 도비 4억 5,600만 원, 시비 4,308만 원, 보조차입금 15억 7,303만 원, 자체 자금 9억 5,000만 원 등 모두 35억 1,700만 원이 투입되었다. 공사는 1968년에 완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으나 도로와 상하수도 공사가 추가로 이뤄지면서 예상보다 좀 늦은 1969년 9월 25일에 준공되었고 10월 31일에 인가를 받았다. 이렇게 조성된 산업단지는 ‘부평산단’, ‘한국수출산업 제4단지’, ‘4공단’, ‘부평국가산업단지’ 등으로 불렸다. 공단에는 공장뿐만 아니라 근로자의 편의를 고려한 공단 사무실과 인천세관 부평출

장소, 부평경찰서 공단파출소, 소방관 파견소, 통관사 사무실, 의료소, 고속버스 정류장이 있었다. 또한 공단 조성과 더불어 1967년에 경인고속도로를 건설하여 부평나들목이 부평대로로 연결되었다.

산업단지의 입주업체는 공업단지 심의위원회에서 선별하였는데, 정부와 공단 측은 자금과 기술력을 갖추고 수출전망이 밝은 제일 교포의 기업 유치를 위해 직접 일본을 방문하여 투자를 권유하기도 하였다. 1969년 12월 말까지 입주한 50개 기업체는 섬유·봉제업종 15개, 잡화 13개, 전자 8개, 금속 8개, 완구 4개, 가발 1개, 농산물 1개 업종이었다.

산업단지에 입주한 기업은 대표적으로 동서식품, 삼익악기, 반도상사, 시브라더스섬유회사, 코리아스파이서공업 등이 있었다. 반도상사 부평공장은 1969년 5월에 입주하여 미국이나 일본으로 수출하는 가발 및 블루진을 생산하였다. 처음에는 노동자가 약 90명 가량이었으나, 1970년대 즈음에는 2,000여 명을 고용할 정도로 성장하였다. 약 80%가 여성 근로자로 구성되어 있었기 때문에 부평 지역 여성 노동자들의 노동운동과 깊게 관련되어 있다. 1970년대 중반 이후에는 가발 수출이 저조하자 남성 양복, 인조 가죽의류, 피혁 의류 등 내수용 의류 생산으로 전환하였고,<sup>18</sup> 1981년에 공장 문을 닫았다. 삼익악기는 부평공단이 조성되기 이전인 1958년에 청천동에 터를 잡았다. 외국악기 수입과 판매에 종사하다가 1973년 공업단지 부지에서 피아노와 기타 등을 생산하였다. 가좌동의 영창악기와 함께 부평에서 악기 산업을 주도해 왔으나 점차 해외 공장에 생산을 의존하였으며 2011년에 본사를 충청북도로 이전하였다.

18 김귀옥, 「1960, 70년대 의류봉제업 노동자 형성과정-반도상사(부평공장)의 사례를 중심으로」, 『경제와 사회』61, 2004, 16쪽.



❖ 부평 수출산업단지 위치(출처: 국토지리정보원)

1945년 해방 전후로 부평의 공장 입주가 시작되었고, 1960년대 이후에는 정부와 인천의 공업단지 조성으로 공업적 입지가 유리해지면서 수출산업단지의 주변으로도 공장들이 생겨났다. 넓은 평야에 많은 노동자가 필요한 대규모 사업체의 공장들이었는데, 대표적으로는 한국GM 공장이 있다. 현재도 가동 중인 이 공장은 청천2동의 가운데에 상당 면적을 차지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자동차 산업을 이끌었다. 부평의 자동차 산업은 1937년 일제가 군용차 생산을 목적으로 지금의 산곡동에 설립한 국산자동차(현 한화아파트 부지)가 시작이었는데, 해방 이후인 1954년에 해체되었고 인근인 청천동(현 공장 부지)에 1962년 8월 29일 새나라자동차 공장이 설립되었다. 제일 교포인 박노정에 의해 설립된 새나라자동차 공장은 1960년대 초 정부의 '자동차 공업 5개년 계획'과 1962년 5월 「자동차 공업 보호법」으로 외국산 자동차 수입이 한시적으로 제한된 상황 속에서 국내에서 우리의 손으로 자동차를 대량 생산할 수 있다는 것으로 많은 각광을 받으며 소형 자동차 생산 부문을 담당하였다. 부평공장에서는 일본 닛산과의 기술 제휴로 닛산의 블루버드를 들여와 조립한 소형 승용차인 '새나라'를 생산하였다. 그러나 이듬해인 1963년에 국내 외환 보유고가 바닥나면서 자동차 부품의 수입이 어려워지고 새나라자동차의 생산이 일본자동차를 조립한 것에 지나지 않았으며 각종 특혜를 받아

은 것<sup>19</sup>이 드러나면서 설립된 지 1년도 지나지 않아 문을 닫게 되었다.<sup>20</sup> 새나라자동차 공장은 1965년 11월에 차량 정비 업체였던 신진공업사가 인수하였고, 자동차 공장은 신진자동차 공장이 되었다. 신진자동차는 1966년 1월 일본 도요타자동차와 기술 및 자재 도입 계약을 체결하고 ‘코로나’, ‘크라운’, ‘퍼블리카’를 생산하였다.

신진자동차는 청천동 평지 50만 평 대지에 연산 1만 5,000대 규모의 공장을 짓고 1968년 초부터 가동에 들어갔다. 1972년부터는 미국의 제너럴모터스사와의 합작으로 GM코리아라는 이름으로 운영되었다. 이후 기업이 산업은행의 보유지분을 대우그룹에 넘기면서 1979년에 이름을 새한자동차로 바꾸었고, 이어 1983년 1월부터는 대우자동차가 되었다. 대우자동차 공장은 1980년대부터 2000년, 대우 기업이 부도 처리가 되기 전까지 존속하였기 때문에 청천동 일대는 ‘대우자동차 공장’으로 유명하였다. 부도 이후 대우자동차는 미국 GM에 매각되었고, 청천동의 공장 또한 ‘GM대우 공장’이라고도 불렸으나 현재는 한국GM 공장이 되었다.



**‘새나라’自動車工場竣工<sup>21</sup>**

우리나라에 우리기술진에 의하여 만들어질 새나라자동차 준공식이 27일 하오 3시 30분 인천시 청천동 소재 새나라자동차 공장에서 비가 내리는 가운데 국가재건최고회의 박정희 의장을 비롯하여 김현철 내각 수반 김유택 경제기획원장 등 정부 고위층 다수가 참석한 가운데 거행되었다. 동식상에서 박정희 최고회의 의장은 치사를 통하여 ‘공업발전을 위해 큰 의의가 있으며 가급적 빨리 우리 손으로 많은 자동차를 생산하여 모든 국민이 싸게 사서 이용하도록 하랴고 격려하였다.



❖ 새나라자동차 준공식 기사

19 「나라自動車의 輸入 經緯를 分明히 밝히라」, 『조선일보』, 1964년 2월 11일자.  
 20 「〈새나라自動車工業會社〉 1년도 못돼 門닫아」, 『조선일보』, 1963년 8월 1일자.  
 21 「‘새나라’自動車工場竣工」, 『조선일보』, 1962년 8월 28일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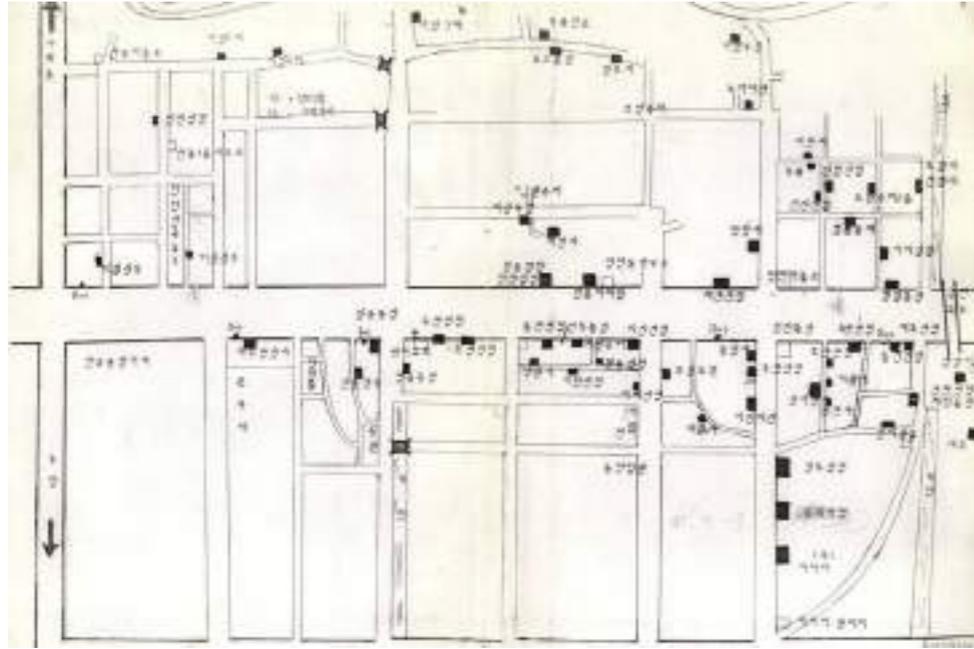
한국GM 공장 남쪽의 부평 금호타운 아파트 부지에는 전남방직(全南紡織) 공장이 있었다. 1953년에 설립된 전남방직 회사는 1968년 5월, 청천동에 소모방 공장을 건립하였다. 흔히 ‘전방’ 공장이라고 불렸다. 1992년 1월에 화재사고가 크게 났으며<sup>22</sup> 주변 공장들과 더불어 1990년대에 공장을 정리하고 약 2만여 평의 공장 부지에는 1995년 금호건설에 의해 아파트가 건설되었다.

한국GM 공장 서쪽의 현 청천동 푸르지오 아파트 부지는 과거 동양철관 공장이었다. 동양철관공업주식회사는 1973년 6월 28일에 설립된 기업으로 대형 수도관이나 공장 건설용 강관(鋼管), 차량 또는 선박용 주물 등을 생산하는 공장이었다. 창업 초기 대표이사는 박재홍으로 박정희 전 대통령의 조카이자 전 국회의원이었고 공장 부지는 약 3,000평, 창업 시기 자본금은 5억 원이었다. 1973년 8월에 제관(製管) 및 도복장(塗覆裝) 공장을 가동하였고 1974년에는 주물공장과 스파이럴 강관 제2공장, 1977년에는 제관 제2공장이 가동되며 꾸준히 규모를 키워왔다. 주물공장은 1974년 2월에 성업공사(成業公社, 현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인수한 것이었다. 동양철관공업주식회사의 제품은 주로 도시나 공업단지의 상하수도, 항만 건설에 쓰이며 지방자치단체나 포항종합제철, 조달청 등 정부 산하기관에 납품하는 것이 대부분이었고<sup>23</sup> 1979년 4월에 상공부가 기간산업체로 선정하였다. 1990년대에 경영난을 겪고 1994년에는 부평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할 계획을 수립하여 인천시로부터 아파트 건립 사업의 승인을 받았다. 그리고 이듬해인 1995년에 대우건설과 부평의 공장용지에 대한 아파트 부지 조성 계약을 체결하여 지금의 청천동 푸르지오 아파트가 조성되었다. 한편 공장 인근 마을인 청천1동에 사택을 두었다.

큰 공장들이 지금의 청천2동에 분포하였던 반면, 작은 공장들은 청천1동의 마을 속에 상당수 분포하고 있었다. 작은 가내수공업 형태의 공장들로, 이런 작은 공장들을 ‘마찌꼬바’라고 불렀다. 주변의 공장에게서 하청을 받기 쉽고 마을에 노동자들이 많았기 때문에 청천동 인근 곳곳에 분포하여 큰 공장들과 더불어 청천동 일대의 공업을 이루는 요소로 1990년대까지 흔하게 있었다. 주로 작은 기계 공장, 봉제 및 섬유 공장들이었으며 한 공장 당 4-5명의 종업원을 두고 기계를 돌리거나, 잘되면 20명 넘게 근무하기도 하였다. 청천1

22 「강추위 속 전국 곳곳 대형화재」, 『경향신문』, 1992년 1월 15일자.  
 23 「그라프로본株價 76년이후 上場株式 東洋鐵管」, 『매일경제』, 1977년 10월 4일자.

동 일대에 많이 분포하였으며 1994년에는 총 546개의 소규모 공장이 분포하고 있었다.<sup>24</sup> 청천농장 쪽에는 주로 기계·금속제품 제조업이, 산을 넘어 주거지가 많은 쪽에는 섬유나 의복 제조업이 곳곳에 분포하였다.



❖ 1989년 청천동 일대 봉제업종 분포도(출처: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 2. 광야교회

광야교회는 1974년 기독교 사회운동을 목적으로 생겨난 교회로 영아다방사거리로 불렸던 지금의 세월천사거리 부근에 있었던 교회이다. 건물은 남아있지 않고, 교회 부지에는 현재 롯데리아 인천 청천점이 있다.

광야교회는 동구 화수동에 있었던 인천 도시산업선교회로부터 출발하였다. 도시산

24 인천광역시 부평구, 『94년도 기준 사업체기초통계조사보고서』, 인천광역시 부평구, 1995.

업선교회는 1950년대 말 미국 선교사의 영향을 받아 설립된 산업 전도를 하는 개신교로서 1970년대에 심화되는 도시화와 산업화 속에서 도시 빈민과 노동자들을 위한 선교와 교육활동, 구호활동을 해온 단체이다. 인천 도시산업선교회는 1961년에 미국 선교사 조지 오글이 인천에 정착하면서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하였다. 인천 지역의 산업 선교 및 노동 목회를 주도하였으며, ‘인천산선’이라고도 불렸다.

인천 도시산업선교회는 1974년에 부평 지역의 산업근로자들에 대한 선교 활동을 목표로 광야교회 설립을 지원하였고, 이를 통해 생겨난 광야교회는 인근의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어린이 선교원(탁아소)과 의료 상담 및 진료소를 운영하였다. 1980년에는 백마교회로 명칭을 바꾸고 독립적으로 산업 목회를 중심으로 하는 선교 활동을 하였다. 1987년 6월 항쟁 이후에는 부평 지역의 민주화 운동에도 적극 참여하면서 당시 백마교회의 목사가 「국가보안법」 및 「의료법」 위반이라는 혐의를 받아 부평경찰서에 의해 구속되기도 하였다. 백마교회에서 운영하는 진료소를 불법 의료기관으로 본 것인데, 진료소는 1980년부터 청천동 및 산곡동 일대의 가난하고 의료보험카드가 없어 치료를 받지 못하는 노동자들을 상대로 간단한 치료와 약을 제공하고 마을의 보건과 위생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었다.<sup>25</sup>



❖ 광야백마교회 터 표지석(청천동 179-15)

25 「'불법의료'병자 선교단업 민주당 사건조사단 주장」, 『한겨레』, 1988년 9월 8일자; 「경찰, 영세민 진료봉사 탄압」, 『한겨레』, 1988년 9월 8일자; 「신목사 혐의 갈팡질팡」, 『한겨레』, 1988년 9월 10일자.

### 1. 초등학교

#### 1) 청천초등학교

공립 청천초등학교는 인천광역시 부평구 산청로127번길 12-5(청천1동 34-6번지)에 있다. 1971년 3월 1일에 인천산곡국민학교 청천분교로 시작하였고 1973년 3월 1일에 인천청천국민학교로 명칭을 변경하였으므로 설립 연도는 1971년으로 본다. 동명(洞名)을 따서 이름을 붙였으며 청천동에 세워진 첫 초등학교이다. 1976년 2월 18일 제1회 졸업식 당시 206명의 학생들이 졸업하였다. 학생 수는 1995년에는 47학급에 2,123명, 2005년에는 45학급에 1,424명이었고, 2020년에는 총 19학급에 전교생 366명이다.

표 10 청천초등학교 기본 현황

(2020년 기준, 단위: 명, 비교: 괄호는 특수학급임)

구분	학생 및 학급 수									교원 수	수업 교원 수	수업 교원 1인당 학생 수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5학년	6학년	특수 학급	순회 학급	계			
학급 수	2	3	3	3	2	3	3	0	19(3)			
학생 수	47	67	67	57	49	69	10	0	366(10)	28(4)	21	17.4
학급당 학생 수	23.5	22.3	22.3	19	24.5	23	3.3	0	19.3			

#### 2) 마장초등학교

공립 마장초등학교는 인천광역시 부평구 안남로 266(청천2동 336-10번지)에 있다. ‘마장’이라는 이름은 조선시대 청천동의 지명이었던 ‘마장면(馬場面)’에서 유래하

였으며, 1997년 3월 1일에 29학급으로 개교하였다. 인근에는 인천부마초등학교(산곡동, 2000년 개교), 인천미산초등학교(산곡동, 2001년 개교), 인천부곡초등학교(산곡동, 1995년 개교)가 있다. 모두 1990년대 후반 산곡2동 및 청천2동 일대에 아파트 단지가 건설되면서 설립되었다.

학생 수는 1997년에는 29학급에 929명, 2005년에는 51학급에 1,744명이었고, 2020년에는 총 31학급에 전교생 716명이다.

표 11 마장초등학교 기본 현황

(2020년 기준, 단위: 명, 비교: 괄호는 특수학급임)

구분	학생 및 학급 수									교원 수	수업 교원 수	수업 교원 1인당 학생 수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5학년	6학년	특수 학급	순회 학급	계			
학급 수	5	5	5	5	5	5	1	0	31(1)			
학생 수	109	129	114	116	129	112	7	0	716(7)	45(1)	36	19.9
학급당 학생 수	21.8	25.8	22.8	23.2	25.8	22.4	7	0	23.1			

#### 3) 용마초등학교

공립 용마초등학교는 인천광역시 부평구 세월천로30번길 58(청천2동 176-4번지)에 있다. 1999년 9월 1일에 18학급으로 개교하였고 2001년 제1회 졸업식에는 111명이 졸업하였다. 과거 동양철관 공장 부지로, 공장이 이전한 부지에 아파트(청천 푸르지오 아파트)가 건설되면서 함께 조성되었다.

학생 수는 1995년에는 18학급에 751명, 2005년에는 39학급에 1,339명이었고, 2020년에는 총 23학급에 전교생 512명이다.

26 학교 알리미 홈페이지(<https://www.schoolinfo.go.kr>) 및 각 학교 홈페이지를 참고하였다.

표 12 용마초등학교 기본 현황

(2020년 기준, 단위: 명, 비교: 괄호는 특수학급임)

구분	학생 및 학급 수									교원 수	수업 교원 수	수업 교원 1인당 학생 수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5학년	6학년	특수 학급	순회 학급	계			
학급 수	4	3	4	4	3	4	1	0	23(1)			
학생 수	96	80	86	83	72	89	6	0	512(6)	33(1)	28	18.3
학급당 학생 수	24	26.7	21.5	20.8	24	22.3	6	0	22.3			

## 2. 중학교

### 1) 청천중학교

공립 청천중학교는 인천광역시 부평구 마장로364번길 23(청천2동 190-58번지)에 있다. 1984년 12월 31일에 24학급으로 설립 인가를 받고 1985년 3월 4일에 학생 수 496명으로 개교하였다. 청천동 유일의 중학교이며, 남녀 공학이다. 인근의 중학교로는 산곡중학교(산곡동, 1984년 개교), 산곡남중학교(산곡동, 1987년 개교), 산곡여자중학교(산곡동, 1990년 개교)가 있다. 모두 1980년대 후반에 설립되었다.

학생 수는 1995년에는 1,820명, 2005년에는 1,390명이었고, 2020년에는 총 18학급에 전교생 341명이다.

표 13 청천중학교 기본 현황

(2020년 기준, 단위: 명, 비교: 괄호는 특수학급임)

구분	학생 및 학급 수						교원 수	수업 교원 수	수업 교원 1인당 학생 수
	1학년	2학년	3학년	특수학급	순회학급	계			
학급 수	5	5	5	3	0	18(3)			
학생 수	140	99	93	9	0	341(9)	39(5)	30	11.4
학급당 학생 수	28	19.8	18.6	3	0	18.9			

## | 제6절 | 문화·체육·보건기관

### 1. 청천도서관

부평구립도서관 소속인 청천도서관은 2013년 4월 12일에 개관하였다. 주소는 인천광역시 부평구 원길로 23이며, 청천2동 부평 금호타운 아파트 옆에 있다.

매주 월요일, 법정공휴일에는 휴관하고 있으며, 1층에는 어린이용 자료실, 2층에는 종합자료실과 정기간행물실, 디지털자료실, 다목적실 등을 갖추고 있다. 장서는 5만 권 이상 보유하고 있다.

부평구립도서관은 청천도서관 외에도 부개도서관, 삼산도서관, 부평기적의도서관, 갈산도서관, 부개어린이도서관 등이 있다. 부평구립도서관은 부평구의 '책 읽는 부평' 사업을 주관 및 진행하는 기관으로서 지역의 독서문화운동을 주도하고 책과 문화를 매개로 지역 공동체의 결속력을 높이는 사업을 벌이고 있다. 따라서 정기적으로 대표 도서 추천, 독서 릴레이, 독서 토론, 작가와의 만남, 북멘토(독서토론 리더) 양성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 청천도서관(출처: 부평구청)

또한 부평구립의 도서관들은 특성화 사업으로 각 도서관마다 특색에 맞는 주력 사업을 펼치고 있는데, 청천도서관의 경우 다문화 특화 도서관으로 우리나라와 세계를 주제로 교육 및 행사 프로그램을 운영해 왔으며 문화체육관광부의 다문화 사업 대상 도서관으로서 다문화 이주민과의 문화를 이해하고 배울 수 있는 독서 문화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하여 청천도서관에서는 ‘청천세계문화축제’를 개최하고 있다.

## 2. 인천나비공원

청천동에 있는 생태 공원인 인천나비공원은 장수산 일대, 청천농장 옆에 위치하고 있다(인천광역시 부평구 평천로 26-47). 인천시와 부평구가 2004년부터 도시 속 생태숲을 조성한 것으로, 2009년에 개장하였다.

인천나비공원 부지는 부평구와 계양구, 그리고 서구의 경계에 있어 도심과는 거리가 있고 장수산의 등산객과 청천동의 주민들이 등산을 위해 방문하는 한적한 곳이었지만, 한편으로는 제대로 관리되지 않아 공터로 인식되어 왔었다. 공원 조성 이전에는 폐기물 무단 적치장, 그리고 조경수 가식장으로 이용되어 왔다.



❖ 인천나비공원의 밤풍경(출처 : 부평숲 인천나비공원 홈페이지)



❖ 인천나비공원 나들이(출처 : 부평숲 인천나비공원 홈페이지)

또한 등산로가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아 등산객에 의한 녹지 훼손도 있었다.<sup>27</sup> 2004년부터 인천시 및 부평구는 이곳에 멸종 위기종 서식처를 복원하고 각종 생물들이 서식할 공간을 제공하겠다는 것을 목표로 장수산 일대 약 5만 2,000㎡ 부지에 ‘인천생태숲’ 조성을 계획하고 2005년부터 공사에 착수하였으며 2009년에 공사를 완료하였다. 공원은 이 중 약 1만 8,000㎡에 해당한다. 공사 완료 후 공원의 명칭을 공모하여 ‘인천나비공원’이라는 이름이 선정되었고, 2009년 10월 14일에 개장식을 개최하였다.

2012년에는 환경부의 생태계보전협력금 반환사업으로 선정되어 국비를 통한 멸종위기종 서식지 복원사업이 이루어졌다. 이 사업을 통해 공원을 중심으로 장수산 일대에 멸종위기종 서식처를 조성하고 생태 모델 숲, 빗물 재이용 시설, 그 외 주변 환경을 개선하였다.

생태계보전협력금 반환사업은 생태 지역의 훼손에 대해 납부하고 있는 부담금을 자연환경 조성사업이나 생태계 복원사업에 지원하는 명목으로 반환받는 사업으로, 2012년 인천나비공원의 사업이 인천시에서는 첫 사례에 해당한다.

27 환경부, 『생태계보전협력금 반환사업 사례집』, 환경부, 2014, 136~137쪽.

인천나비공원 내에는 자연교육센터, 나비생태관, 소리동산, 흙의 정원, 들꽃동산, 수생식물원, 희귀생물관 등이 있고 주기적으로 전시회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매주 월요일에 휴관하고 있으며 1월 1일과 설날, 추석을 제외한 날에는 무료로 이용이 가능하다. 11월부터 2월까지의 동절기에는 오후 5시에 닫는다.

### 3. 부평우체국

부평구 길주로 415(청천동 327)에 있는 부평우체국은 2012년 5월 1일에 개국한 것으로, 우체국과 물류센터의 기능이 결합된 부평 지역 관할 우체국이다. 현 부평우체국이 있기 이전에는 부천 집중 우체국에서 부평 일대까지 관할하였기 때문에 우편물의 전달 속도가 느려 부평 중심의 우편서비스 체계가 필요한 실정이었다.

부평우체국이 생기기 이전에는 103여단 부대가 있었다. 부대가 산곡동으로 이전하고 남은 약 2만㎡에 해당하는 부지에 대해 부평구는 중학교 및 사회복지 시설을 짓기로 하였으나 2008년 2월에 공공 청사를 짓기로 결정하였다. 부평경찰서를 이전하고 총괄 우체국을 건립하겠다는 계획이었으나 경찰서 측의 예산 부족으로 우체국의 신설만이 이루어졌다.<sup>28</sup>

청천동의 현 부평우체국이 생기기 이전 부평우체국이라는 이름은 부평역 앞 지금의 부평대로우체국(부평대로 88, 부평4동 442-15번지)의 이름이었다. 청천동에 세워진 우체국이 부평 전체 관할 및 집중 우체국이라는 의미를 가지기 위해 ‘부평우체국’이란 이름을 부평대로우체국으로 변경하였다. 현재 부평우체국은 우정사업본부 경인지방 우정청의 소속으로 부평구의 9개의 우체국과 3개의 우편취급국을 관할하고 있다.

28 「옛 103여단 이전부지에 집중 총괄우체국 신설」, 『인천투데이』, 2007년 11월 13일자; 「옛 103여단 부지 도시관리계획 변경」, 『부평신문』, 2007년 12월 25일자.

### 4. 부평경찰서

부평구 길주로 511, 인천1호선 부평구청역 사거리에 있는 부평경찰서는 부평동에 있었다가 1982년에 지금의 청천동 부지로 이전하였다. 부평경찰서는 해방 이전인 1940년대에 부평역 앞에 처음 생겨났다. 1940년 인천부의 부역 확장으로 부평 일대가 인천부에 편입되고 부평역 앞의 평지에 공장과 노동자들이 모여들면서 치안 유지를 위해 1940년에 우선 주재소를 세우고 그 이듬해에 부평경찰서를 두었다.<sup>29</sup>

1945년 광복 이후 미군정청 경무국이 10월 21일에 창설되면서 국립 경찰이 창설되었고, 부평경찰서도 국립 경찰의 부평경찰서가 되었다. 1948년 12월에 부평경찰서 청사를 신축하였는데 지금의 삼산경찰서 관할 중앙지구대(주부도로 10, 부평4동 205-1번지)에 있었다. 1982년 5월에 부천경찰서가 신설되면서 부천시 일대의 파출소가 부천경찰서로 이관되었으며 1990년 7월에는 서부경찰서의 신설, 1994년 1월에는 계양경찰서가 신설되면서 해당 지역의 파출소들이 이관되었다.



❖ 부평역 앞에 위치해 있던 옛 부평경찰서 모습(출처 : 부평구청)

29 「富平警察署 明春에 實現- 爲先駐在所로 視務」, 『매일신보』 1940년 10월 1일자.



❖ 청천동으로 이전한 부평경찰서(2003, 부평구청)

2007년에는 삼산경찰서가 생기면서 관할지역을 나누었다. 현재 부평경찰서의 관할지는 산곡동, 십정동, 청천동, 부평1동, 부평2동, 부평3동, 부평6동에 해당한다.

부평경찰서가 부평동에서 지금의 청천동으로 옮긴 것은 부평공단을 중심으로 노동운동이 한창이었던 1980년대로, 현재의 청사는 1982년 7월에 신축하였다. 따라서 건물이 노후되고 업무를 수행하기에 공간이 비좁아 경찰서 청사 신축 요구가 지속적으로 있어 왔는데<sup>30</sup> 2008년 부평우체국과 함께 103여단 부대가 있었던 부지로 옮기려고 하였으나 예산 문제로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30 「부평경찰서 청사 신축 시급」, 『기호일보』, 2002년 12월 6일자.

부평사  
富平史



## 참고 문헌



### 단행본

- 부평사편찬위원회, 『부평사』1·2, 부평사편찬위원회, 2007.  
 부평역사박물관, 『장수산 맑은내 마을, 부평 청천동』, 부평역사박물관, 2016.  
 인천광역시 부평구, 『94년도 기준 사업체기초통계조사보고서』, 인천광역시 부평구, 1995.  
 인천광역시 부평구청 기획조정실, 『2020 부평 구정백서』, 인천광역시 부평구, 2020.  
 인천광역시 시사편찬위원회, 『인천의 지명』상, 인천광역시 시사편찬위원회, 2015.  
 인천광역시, 『인천통계연보』, 인천광역시, 각 해당 연도.  
 인천광역시 시사편찬위원회, 『인천광역시사4 현대사화(II)』, 인천광역시, 2002.  
 인천직할시사편찬위원회, 『인천시사』중, 인천직할시, 1993.  
 환경부, 『생태계보전협력금 반환사업 사례집』, 환경부, 2014.

### 논문

- 김귀옥, 「1960, 70년대 의류봉제업 노동자 형성과정-반도상사(부평공장)의 사례를 중심으로」, 『경제와 사회』 61, 2004.

### 신문

- 『경인일보』  
 『경향신문』  
 『기호일보』  
 『동아일보』  
 『매일경제』  
 『부평신문』



- 『인천투데이』  
 『조선경제신보』  
 『조선일보』  
 『한겨레』

### 웹사이트

- 국토지리정보원 국토정보플랫폼(<http://map.ngii.go.kr/mn/mainPage.do>)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http://kyu.snu.ac.kr>)  
 아시아역사자료센터(<https://www.jacar.go.jp/korean/>)  
 일본 아마구치현 하기시 박물관 인물 데이터베이스(<https://sites.google.com/site/hagijinbutsu/>)  
 학교 알리미(<https://www.schoolinfo.go.kr>)  
 행정동별 소재 각 학교 홈페이지  
 KOSIS 국가통계포털(<https://kosis.kr/>)



# 찾아보기

10월 1일	196	경성육군무선전신소	92
간토구미	227	경성전기 부평변전소	53
갈산1동	32	경원대로	123
갈산2동	35	경인도로	124
갈산도서관	49	경인로	124
갈산동	17, 25	고래우물	362
갈산중학교	41	공출	232
갈산초등학교	39	광야교회	452
갈월리	25	광양정공주식회사	229
갈월사거리	28	구사택	237
갈월초등학교	39	구산리	387
갈월축제	57	구산중학교	101
개흥초등학교	159	구산초등학교	96
거리의미술	356	국가총동원법	231
검정사택(도교제강 사택)	245	국산자동차(주)	154
경기관총	226	국산자동차주식회사	229
경성공작주식회사	229, 445	굴재미	65
경성무선전신국	91	굴포 한마당 축제	57

굴포먹거리타운	55	동아시티백화점	189
굴포천	30	동암중학교	370
굴포천 통통통 환경축제	317	동암초등학교	365
굴포초등학교	294	동양철관공업주식회사	451
근로복지공단 인천병원	408	뒤우물	282
금마초등학교	405	뒤우물말	280
길아정	27	디젤자동차공업㈜	154
김국환	248	디젤자동차주식회사	229
네거티브 헤리티지	240	마곡초등학교	257
늘푸른부평문화예술제	193	마루유	230
능성 구씨	360	마분리	62
다다구미	121, 227	마장면	63, 202
달동네	345	마장초등학교	454
대도정	332	메꽃말	202
대우자동차	239, 450	명신여자고등학교	265
대정리	118	명치정	64
대정초등학교	257	모다백화점	189
도깨비시장	204	모다이노칩	190
도교자동차공업㈜	154	외골문화회관	269
동경제강주식회사	229, 445	외곶	202
동소정면	71	외꼬지	202
동수재미	72	외꽃말	202
동수초등학교	96	외끝말	202

무네미고개	388	부개고등학교	104
미 제24군수지원사령부	233	부개도서관	108
미래생활고등학교	105	부개동	17, 77
미산초등학교	258	부개봉	62
미쓰비시 사택	149	부개서초등학교	97
박영근	154	부개여자고등학교	104
반남 박씨	360	부개역	90
밤동산	331	부개초등학교	100
밤섬	331	부곡초등학교	259
백마교회	453	부광여자고등학교	105
백마장	202, 204	부광중학교	101
백범로	345	부광초등학교	98
백운초등학교	366	부내면	74
범골	390	부내초등학교	98
벼락바위	281	부마초등학교	259
벽돌 공장	69	부원여자중학교	165
벽돌말	69	부원중학교	165
보리피리	365	부원초등학교	159
부개어린이도서관	110	부일여자중학교	166
부개1동	83	부일중학교	298
부개2동	85	부일초등학교	99
부개3동	88	부평비즈니스센터	54
부개고가교	91	부평 기적의 도서관	109

부평 문화의 거리	184	부평강시장	182
부평 초록골포 단오놀이	319	부평남초등학교	160
부평1동	128	부평농장	418
부평2동	130	부평대로	123
부평3동	133	부평대로우체국	460
부평4공단	239	부평도서관	374
부평4동	137	부평동	17
부평5동	139	부평동중학교	102, 167
부평6동	142	부평동초등학교	161
부평경찰서	461	부평두레놀이	291
부평고등학교	169	부평로	30, 123
부평공업고등학교	41	부평모두물	191
부평공원	145	부평묘지공원	157
부평구 평생학습관	179	부평문화사랑방	46
부평구노인복지관	303	부평문화원	308
부평구다목적실내체육관	45	부평변전소	68
부평구문화재단	375	부평북초등학교	40
부평구민의 날	196	부평생활문화센터 공감168	378
부평구 보건소	176	부평서여자중학교	370
부평구청	173	부평서중학교	263
부평구청소년성문화센터	305	부평서초등학교	163
부평구청소년수련관	306	부평세관	55
부평국민체육센터	43	부평송신소	68, 91
부평골포누리 기후변화체험관	47	부평 수출산업단지	444

부평신트리공원	178	사근다리 동민화합 대축제	57
부평아트센터	376	산곡	202
부평안전체험관(구 부평구민방위교육장)	309	산곡1동	213
부평여자고등학교	171	산곡2동	216
부평여자중학교	102	산곡3동	219
부평역	151	산곡4동	221
부평역사박물관	289, 311	산곡고등학교	267
부평연습장	225	산곡남초등학교	261
부평연와	70	산곡동	18
부평와사공장	444	산곡리	202
부평우체국	460	산곡남중학교	263
부평자유시장	186	산곡북초등학교	261
부평조병창	224	산곡여자중학교	264
부평종합시장	183	산곡중학교	265
부평중학교	168	산곡초등학교	260
부평정수사업소	53	산화촌	202
부평청소년직업보도원	255	삼릉	124
부평풍물대축제	193	삼립정	281
부흥중학교	103	삼산119안전센터	289
부흥초등학교	164	삼산1동	285
북부교육문화센터	271	삼산2동	288
불잡	65	삼산2동행정복지센터	289
비루고개	388	삼산고등학교	300
사근다리	28	삼산농산물도매시장	313

삼산도서관	314	성습지	361
삼산동	18, 280	성승	361
삼산동우체국	289	성인보	361
삼산월드체육관	289, 316	성허	361
삼산중학교	299	성현	388
삼산초등학교	295	성희	361
삼산타운	289	세일고등학교	267
상동	360	소반재고개	124
상십정리	329	소화정	117
상이용사	248	수현	388
상정고등학교	372	시미즈구미	227
상정중학교	371	신궁동	65
상정초등학교	367	신마분리	69
새갈	27	신복동	70
새나라자동차	449	신사택	237
서부간선수로	29	신진자동차	450
서부간선수로 마을축제	320	신촌초등학교	368
성개	361	신트리	125
성계원	418	십정동	19, 329
성구연	361	십정리	329
성달생	361	십정사거리	345
성담수	361	십정초등학교	368
성동학교	172	아우슈비츠수용소	240
성삼문	361	안남로	425

안하지고개	424	원적산 마을축제	272
앞산	126	원통이고개	119
양계골	421	원통천	122
양계마을	417	월드레코드아카데미	191
언양 김씨	360	윗마을	360
여수토교	29	은광학교	107
열우물경기장	379	이연형	147
열우물단오축제	380	이찰·이울 형제	25
열우물로	345	인천가족공원	155
열우물마을	329	인천광역시교육청 북구도서관	177
열우물마을잔치	381	인천나비공원	458
열우물벽화마을	354	인천삼산경찰서	289
열우물사거리	345	인천생활예술고등학교	171
염성산	281	인천세관 부평출장소	55
영단주택	236	인천여성가족재단	43
영선고등학교	301	인천예림학교	172
영선초등학교	295	인천외국어고등학교	269
영성리	281	인천육군조병창	224
영성마을 마을축제	321	인천조병창	224
영성미	281	인평자동차고등학교	268
영성산	280	일신·구산동	20
영아다방사거리	426	일신초등학교	405
영월 신씨	360	임영대군	25
용마초등학교	455	자염	352

잠수정	230	창녕 성씨	360
장고개	205	천일염전지 표지석	351
장수산	422	천일제염	352
장제고가고	30	천일제염시험장	353
장제로	30	철도 관사	152
전남방직	451	청리단길	56
정양원	251	청천	423
정월대보름 in 부평	322	청천·산곡마을 단오제	273
정재철	148	청천1동	438
정항	329	청천2동	441
정항현	329	청천공단	417
제1제조소	226	청천농장	417
제일고등학교	372	청천도서관	457
조병창	224	청천동	20
조선국산자동차(췌) 사택	154	청천리	415
조선기계제작	230	청천중학교	456
주부토길	30	청천초등학교	454
주안염전	342	캠프 그란트	233
중앙직업훈련원	402	캠프 마켓	233
진산과학고등학교	302	캠프 아담스	233
진산중학교	300	캠프 타일러	233
진산초등학교	296	캠프 테일러	233
진흥종합시장	183	캠프 하이에스(헤이즈)	233
징용노동자상	147	캠프 해리슨	233

평리단길	188	협성여자기술교도원	253
평양병기제조소	226	협성여자기술양성원	254
평양제조소	226	협성요양원	254
평화의 소녀상	147	협성원	252
하십정리	329	혜광학교	373
하정초등학교	369	화랑농장	248
한국GM 공장	450	화랑북로 골목 축제	274
한국베어링	239	후정리	280, 282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인천광역시본부	409	후정초등학교	297
한국선교역사기념관	38	흙더미	281
한국전력공사 부평지점	68	히로나카상공	229
한국전력공사 인천지역본부	51		
한국전업공사	53		
한국폴리텍대학 인천캠퍼스	406		
한길초등학교	297		
한미연합토지관리계획	235		
한센인 시인	364		
한일초등학교	262		
한하운 시비	364		
항동리	387		
해남공부방	355		
해물탕거리	192		
협동농장	248		
협성양로원	254		

부평사  
富平史

## 집필위원(가나다순)

김정아 부평역사박물관 총괄팀장  
손민환 부평역사박물관 학예연구사  
이슬아 인하대학교박물관 연구원

## 부평사 5권

### 부평의 마을

---

발행일 2021년 11월 30일 발행

발행처 부평사편찬위원회  
인천광역시 부평구 굴포로 151  
전화 032-505-9001

디자인·편집·인쇄 경성문화사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66길 11 퍼스텍 빌딩  
전화 02-786-2999

---

ISBN 979-11-5698-338-5 94300  
979-11-5698-332-3 94300(세트)

**비매품** 이 책에 실린 모든 자료는 무단으로 복사, 전재하거나 변형하여 사용할 수 없습니다.